

할머니가 들려주는 구약 성경 이야기

박혜영 지음
 김지훈 편집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를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 구약

지은이 / 박혜영

편집자 / 김지훈

Copyright ©

2025년 9월 10일 발행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발행인 / 정동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웹사이트: 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

30,000원

이 책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는 것 이상으로 무단으로 인쇄해 판매하거나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Bible Stories Read By Grandma”
Old Testament

— *H. Y. Park & J. H. Kim* —

아이들도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쓴 인물 이야기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 2:15).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지만 정작 자기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은 실생활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이들에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들을 요약해서 전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늘 있었습니다. 특히 주일학교를 통해 최소한 이 정도의 이야기는 듣고 배워야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혜영 자매님께서 자신의 손주들을 위해 신구약 성경의 여러 이야기를 요약해서 알기 쉬운 문체로 직접 노트에 적어 제게 주셔서, 제가 살펴보고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으로 내면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것을 더 확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매님께서 2년 여에 걸쳐 여러 이야기들을 써 주셨습니다.

그 뒤 이것들을 정리하다 보니 구약부터 신약까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할머니가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김지훈 형제님께 부탁을 드렸고 김 형제님께서 자매님의 글들을 중심으로 더 추가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 형태로 만들어 최종 원고를 완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약에서 62개, 신약에서 30개, 총 92개의 이야기들이 정리되고 편집되었습니다. 또 주일학교나 부모님들의 교재로 쓰일 것도 감안해서 각 장의 끝에는 각 이야기의 요약과 적용도 추가하였습니다.

비록 아이들을 위해 쓰였지만 이 책은 친구약 성경 전체의 맥을 잡아 주는 좋은 안내서이므로 어른들도 한번 읽어 보시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침례교회 미디어 선교를 통해 이 책이 무료 PDF 파일로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기도합니다.

책이 나오기까지 오랫동안 수고해 주신 박혜영 자매님, 김지훈 형제님 그리고 교정에 참여해 주신 모든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것을 잘 편집해서 보기 좋게, 읽기 좋게 만들어 주신 김재욱 형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들을 열렬히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땅에 많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롬

사랑침례교회 목사 정동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잠 30:5).

서문 8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계획

1. 육 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10
2. 한 가정을 이룬 아담과 이브 20
3.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 28
4.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 38
5. 좋은 예배를 드린 아벨과 최초의 살인자 가인 48
6. 방주를 타고 구원받은 노아 56
7.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66
8.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 74
9.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욥 82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

10. 믿음으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 90
11. 민족들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98
12.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 탈출한 롯 106
13.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114
14.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챈 야곱 122
15. 벨엘에서 하나님께 맹세한 야곱 132
16.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140



- 17. 이집트로 팔려 간 요셉 148
- 18. 이집트의 총독이 된 요셉 156
- 19. 형들을 용서한 요셉 164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

- 20. 나일 강에서 건져진 모세 173
- 21. 불타는 떨기나무를 본 모세 181
- 22.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 191
- 23.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모세 200
- 24.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 208
- 25. 예수님을 미리 보여 준 성막 217
- 26. 가나안 땅으로 열두 정탐꾼을 보낸 모세 226
- 27.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235
- 28.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 245
- 29.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256
- 30. 삼백 용사를 이끌고 큰 승리를 거둔 기드온 266
- 31.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린 삼손 275
- 32. 친족 구속자 보아스를 만난 룻 284
- 33. 환상 계시를 들은 사무엘 292
- 34.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 301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한 왕들

- 35. 하나님을 슬프게 한 사울 왕 310
- 36.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320
- 37.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 328
- 38. 힘든 순간마다 지혜롭게 행동한 다윗 340



- 39.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 352
- 40.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362
- 41. 우리야를 죽게 한 다윗 왕 374
- 42. 인구 조사를 한 다윗 왕 384
- 43. 아기 엄마를 가려낸 솔로몬 왕 390
- 44. 우상 숭배를 없앤 아사 왕 400
- 45. 믿음의 길을 걸은 여호사밧 왕 406
- 46. 해그림자 표적을 구한 히스기야 왕 412
- 47. 유다 왕국을 망하게 한 므낫세 왕 420
- 48. 참 예배를 회복한 요시아 왕 424
- 49. 금송아지를 만든 여로보암 왕 432
- 50.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왕 436
- 51. 아합의 딸과 결혼한 여호람 왕 444
- 52. 우상 제단을 흉내 낸 아하스 왕 448

예수님을 미리 전한 하나님의 대언자들

- 53.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시로 대언한 다윗 451
- 54. 임마누엘과 천년 왕국을 대언한 이사야 457
- 55. 소망을 가진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 461
- 56. 천년 왕국 성전을 대언한 에스겔 465
- 57. 칠십 이레 환상을 대언한 다니엘 472
- 58. 재림의 때를 대언한 요엘 478
- 59. 고래가 삼킨 대언자 요나 484
- 60. 예수님이 태어날 마을을 대언한 미가 490
- 61. 무너진 성전을 세우며 예수님을 대언한 스가랴 493
- 62. 구약과 신약을 이어 주며 대언한 말라기 498





구약 성경

**Bible Stories
Read By
Grandma**



Part
1

육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저절로 생겨난 것은 단 하나도 없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말이야.

하나님께서서는 온 우주와 지구, 그리고 그 안의 모든 것들을 6일 동안, 계획하신 순서대로 창조하셨단다. 사람들이 룩데월드 같은 곳을 지을 때도 아무렇게 짓지 않고 훌륭한 건축가가 설계한 대로 꼼꼼하게 완성하지 않니? 하

나눔께서는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더 정확하고 치밀한 계획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란다.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니?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하나하나 만드셨는지는 성경에 아주 신비롭고 경이롭게 기록되어 있단다.

그런데 얘들아,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왜 이렇게 멋진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살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마련해 주신 거야.

또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다른 영적인 존재들, 즉 천사들과 하늘의 창조물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하고 놀라운지를 보여 주시려고 했지.

첫째 날

그럼 얘들아,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신 첫째 날,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은 무엇이였을까?

그 첫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가게 될 터전인 지구와 아름다운 우주 공간을 만드셨어. 그때 그 광활한 우주와 지구는 온통 캄캄하고 어두웠지. 아직 빛이 없었기 때문이거든. 어디를 봐도 칠흑 같은 어둠만 가득했단다.

그 깊고 깊은 어둠 속에 우렁차고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지.

빛이 있으라. (창 1:3)

그 순간,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단다!

불 꺼진 밤에 갑자기 전기가 들어와 방이 환해지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



도로, 놀랍고 찬란한 빛이 우주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살아갈 세상에 낮과 밤이 생겨나게 되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보고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

“좋구나!”

마치 ‘엄지척!’ 하시는 것처럼 말이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째 날의 창조는 그렇게 멋지고 감동적인 순간이었던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질서 있게 만드시는 모습을 보여 주는 놀라운 장면이었지.

둘째 날

자, 이렇게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에도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었어.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공간인 ‘궁창’, 즉 하늘을 만드셨지.

물들의 한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창 1:6)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물 위에 하늘을 펼치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시는 일을 하신 거란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인 첫째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게 될 둘째 하늘을 만드신 거야.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면 그 무거운 별들과 태양과 달이 어떻게 저렇게 떠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궁창의 놀라운 신비란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질서 있게 이루어졌다는 사실, 정말 경이롭지 않니?

셋째 날

자, 이제 셋째 날로 가 보자!

하나님께서 처음 지구를 만드셨을 때는 육지는 보이지 않고 온통 깊은 물로 덮여 있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하늘 아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창 1:9)

그 말씀과 함께 넓게 퍼져 있던 물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함께 모였고 그 사이로 마른 땅이 조금씩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지.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과 넓은 바다가 처음으로 생겨난 거야.

이 장면을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지.

“좋구나!”

정말 멋진 순간이었겠지?

그런데 아직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 위에 풀과 채소, 그리고 여러 종류의 과일나무들이 자라도록 명령하셨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의 씨가 열매 자체에 들어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창 1:11)

정확히 ‘자기 종류대로’ 내라고 하셨지.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 보기로 하자꾸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푸른 풀과 맛있는 열



때가 열리는 나무들을 온 땅에 가득 채우셨어.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기쁘게 감탄하셨지.

“종구나!”

우리가 산과 들에서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 푸른 숲을 보며 “아, 참 좋다!” 하고 느낄 때가 있지? 바로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시며 느끼신 그 마음과 닮아 있는 거란다.

셋째 날

셋째 날이 되었어. 이날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창조의 일을 계속하셨지. 이번에는 둘째 날에 만들어 두셨던 둘째 하늘에 해와 달, 그리고 무수히 많은 별들을 만들어 넣으셨어. 마치 지구라는 집을 중심으로 둘러싼 정원에 반짝이는 보석들로 아름답게 장식하신 거 같지 않나?

그런데, 이 모든 해와 달, 별들은 단순히 멋지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늘의 궁창에 광체들이 있어 밤에서 낮을 나누고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연월의 시간]들을 나타내라. (창 1:14)

해와 달과 별들이 시간과 계절을 알게 해 주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계획하셨다는 뜻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해가 날 때 하루를 시작하고 달과 계절을 따라 시간의 흐름을 알게 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해나 달, 별들을 마치 신처럼 여겨서 그 모양을 본떠 형상을 만들고 절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일 뿐이야.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할 유일한 분이란다.

셋째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멋지게 꾸미신 후 기뻐하셨어.

“종구나!”

다섯째 날

벌써 다섯째 날이 되었어.

하나님께서서는 이날, 아직 비어 있던 바다와 강물, 그리고 첫째 하늘에 여러 가지 생물들로 가득 채우는 일을 하셨단다.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 하늘의 열린 궁창에서 날아다니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창 1:20)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고요하던 바다와 강 속에서 생명들이 팔딱팔딱 뛰 놀기 시작했고 하늘 위로는 새들이 힘차게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퍼져 나가기 시작했단다.

그리고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드셨을 때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 다시 말하면, 각각의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계획 속에서 각자 자신들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변해서 다양한 생물들로 퍼진 것이 아니란다.

얘들아, 너희도 숲속에서 아름답게 노래하는 새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있지? 또 텔레비전이나 책에서 무지깃땀 깃털을 가진 새들, 머리에 왕관처럼 장식인 있는 신기한 새들, 그리고 크고 작은 바닷속 생물들을 본 적이 있을 거야. 작고 귀여운 금붕어,形形色색의 산호 속에 사는 열대어들, 바다를 유유히 헤엄치는 커다란 고래와 상어들까지!

정말 생김새도 다르고, 색깔도 다양하고, 움직임도 제각각이지? 이 모든 걸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창의적이고 멋진 분이신지, 감탄이 저절로 나오지 않니?

그날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이 모든 생명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해하셨단다.

“종구나!”

여섯째 날

자, 이제 여섯째 날이 되었어!

어떻게 보면 앞선 닳새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이날을 준비하기 위한 밑작업이나 다름없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섯째 날인 마지막 창조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날에 무엇을 만드셨을까?

먼저 땅 위에서 살아갈 여러 동물들을 만드셨어.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들판과 산속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야생 짐승들, 그리고 땅에서 기어 다니는 온갖 생명체들까지 하나하나 종류대로 만드셨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사람’을 만드셨어.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앞서 만드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될 존재였지.

아무리 사자나 코끼리처럼 힘세고 멋진 동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 창조물은 바로 ‘사람’이었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단다.

화가나 음악가, 건축가 같은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만들 때는 모든 실력과 정성을 다 쏟아붓는다는 얘기 들어 봤지?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담아 정성껏 만드셨어. 다른 동물들을 만드실 때는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라고 말씀만 하셨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달랐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직접 보여 주시듯 성경에 그 장면을 아주 자세하고 특별하게 기록해 두셨단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창 2:7)

먼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멋지게 빚으신 후에 그분의 생명의 숨, 즉 하나님의 영을 아담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셨어.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피가 돌기 시작하고 초롱초롱한 눈동자가 반짝이며 마음과 생각이 생겨났단다. 아담은 살아 있는 ‘혼’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 되었지.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순간이었을까?

처음으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선 아담은 과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정말 궁금하지 않니?

그 모습은 아마도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으앙!” 하고 울며 처음으로 엄마 아빠의 얼굴을 바라본 순간과 비슷했을 거야. 물론 너희는 그때의 기억이 잘 나지 않겠지만, 그 순간 모든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처음 바라보



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감동과 사랑을 느낀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너희가 태어난 날을 잊지 못하고 그때의 감격을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지. 자신을 닮은 아들딸이 눈을 맞추고 방긋 웃어줄 때, 처음으로 “엄마”, “아빠” 하고 말을 해 줄 때, 그 모든 순간은 부모에게 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도 값지고 기쁜 선물이 되거든. 그런 감정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사란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고 깊은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야.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직접 사람을 빚으신 분이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창 1:26)

하나님께서 사람의 겉모습을 신경 써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성품도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 또, 사람이 이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도 선물로 함께 주셨지.

어때?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조금은 알 것 같지?

꼭 기억하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창조된 아주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아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신 후에 그분께서 만드신 세상과 사람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정말 좋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 그리고 사람까지 모두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했던 거야.

이렇게 우리를 직접 만드시고 멋진 세상까지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 외쳐 볼까?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 요약과 교훈

-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와 지구에 있는 모든 창조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며 “좋구나!”라고 감탄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아름다움과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어요.

+ 적용

- 주위를 둘러보면서 자연, 동물, 식물 등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 자신과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존중해요.
- 내가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소중하게 생각해요.





Part
2

한 가정을 이룬 아담과 이브

하 나님께서서는 6일 동안 모든 것을 계획대로 창조하신 후, 첫 사람 아담을 위해 아름다운 에덴동산을 주셨어. 오늘날 사람들이 살기 좋게 새로운 도시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기쁘게 일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멋진 터전을 준비해 주신 거란다.

그 에덴동산에는 맑고 시원한 강물이 온 동산을 감싸 흐르고 온갖 향기로운 열매와 맛있는 과일을 맺는 나무들이 가득했어. 그리고 그곳은 사람이나 짐승을 괴롭히거나 해치는 것이 전혀 없어서 정말 환상적이고 평화로운 낙원

이었지. 그래서인지 오늘날 환경이 나빠지고 자연이 점점 파괴될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말로만 전해 들은 그 에덴동산을 ‘낙원’이나 ‘파라다이스’라고 부르며 동경하는 거 같구나.

혹시 너희들 남산 타워를 본 적 있지? 서울의 중심부인 남산에 우뚝 서 있어서 서울의 어느 곳에서도 그 건축물은 잘 보이지. 에덴동산 한가운데에도 그 남산 타워처럼 눈에 띄는 특별한 두 그루의 나무가 서 있었단다.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사람들이 ‘선악과’라고 부르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였지.

이 나무가 특별했던 이유를 알고 있지? 모양이 특이해서는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기 때문이란다.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에 살도록 허락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창 2:16-17)

아담은 아름다운 에덴동산을 거닐며 숲속에서 풍겨 나오는 그윽한 향기와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누리며 지냈어. 곳곳에는 짝을 이루어 풀을 뜯는 짐승들이 있었고 아담은 그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며 참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 그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던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보냈단다.

할머니는 어릴 때, 아담의 생활이 너무 궁금했어.

‘아담은 학교에 가지 않았는데 낮에 뭘 하며 지냈을까?’

‘아담은 텔레비전이나 핸드폰도 없었는데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너희도 궁금하지 않니?

성경을 읽어 보면 아담이 무슨 일을 했는지 나와 있어. 그건 바로 아담이 눈앞에 보이는 짐승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들에게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 주는 일이었지.

혹시 “이름을 짓는 것도 일이에요?”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잘 생각해 보렴.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언가를 처음 만난다면 그게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며 만져도 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반응도 살펴보겠지?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이리저리 생각도 해 보고 그 특징에 딱 맞는 이름을 찾아야 하니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거 같구나.

이건 마치 오늘날의 학자나 과학자처럼 새로운 것을 탐구하며 알아 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아.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에덴동산을 이곳저곳 다니며 살펴보고 이름 짓는 일을 아주 즐겁고 기쁘게 했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 속을 마음껏 돌아다니며 배움과 발견의 기쁨을 누리는 특별한 하루하루였던 거야.

아담의 아내를 만드심

그러던 어느 날, 짐승들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 주며 관찰하던 아담은 자기만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지. 가만히 보니까 사자도 여우도, 하늘을 나는 새들도 모두 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

“다들 짝이 있는데 나만 혼자네... 왜 내겐 짝이 없지?”

아담은 문득 외롭고 허전한 마음이 들었어.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모두 아시고 아담에게 꼭 맞는 짝을 이미 계획해 두시고 있었지. 하지만 아담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잠시 시간을 주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거든.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재[도움을 주는 사람]를 만들리라. (창 2:18)

자, 그럼 이제 아담의 짝이 될 특별한 사람, 이브는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함께 알아보자꾸나.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 그리고 아담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의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를 빼내셨지. 그 자리는 살로 잘 메우시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여자가 바로 이브였단다.

이 장면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마치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을 준비하고 환자를 재우는 모습과도 조금 비슷하지 않니? 실제로 요즘 외과 의사들이 수술할 때 사용하는 마취술은 환자가 아프지 않도록 깊이 잠들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야. 놀랍게도 이 마취술을 처음 생각해 낸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장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구나.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 아담 앞에 이브를 데려오셨어. 그 모습을 본 아담은 너무도 놀랍고 기뻐서 이렇게 외쳤지.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여졌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창 2:23)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순간이었어.

이날은 지구 위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례해 주신 결혼식이었고 최초의 가정이 하나님 손으로 세워진 특별한 날이었지.

사람들이 “가정은 참 신성하다.”라고 말하는 걸 들어 본 적 있지?

지금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도록 해주신 이 모든 과정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란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깊은 뜻이 담겨 있기도 해.

하나님께서서는 가정을 통해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삶의 길이 전해지기를 원하셨거든.

이렇게 한 가정이 두 가정이 되고 점점 여러 가정들이 모여 서로 돕고 어우러지는 사회를 이루면, 그 사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가정은 이 세상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시작점이란다. 하지만 만약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거나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어 결국은 사회도 함께 무너지면서 점점 더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거 같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란다.

그런데, 세상 역사를 돌아보거나 오늘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세워 주신 가정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가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단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는 ‘첩’을 두는 풍습이 널리 퍼져 있었지. 다시 말해 한 남편이 여러 명의 아내와 함께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단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첩의 자녀들, 그러니까 서자라고 불리는 아이들은 자식 대우도 받지 못하고 학교도 마음대로 다니지 못한 채 억울하고 슬픈 삶을 살게 되었지. 오죽했으면 ‘홍길동전’이라는 소설이 있었겠니?

그뿐만이 아니란다. 지금도 많은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일부다처제’, 즉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제도가 종교적으로 허락되고 있고, 이런 제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다른 종교들도 있다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가정 제도들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아주 오래전부터 생겨난 슬픈 일이기도 해.

잘 생각해 보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브라는 단 한 명의 여자를 아내로 주셨지, 여러 명의 여자를 주신 게 아니잖니?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여러 아내를 주셨을 거야.

하나님께서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하는 가정을 허락하셨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고 가장 합당한 질서였어.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자 갈등과 다툼이 생기게 되었지. 때로는 나라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나기도 해.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과 아랍 민족들이 끊임없이 싸워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며, 온 세상을 불안하게 하는 것도 그 근원을 따라가 보면 가정에서부터 생긴 문제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가정의 모습,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바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아야.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성애

일부다처제 외에도, 요즘에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주 크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어. 이것은 다른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야.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로 알아야 할 만큼 중요하단다.

그건 바로 ‘동성 결혼’이야.

나중에 너희가 커서 남자는 여자인 아내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질서에 따라서 말아야.

하지만 요즘 어떤 드라마나 영화, 만화 같은 데서 보면, 여자아이가 다른 여자아이에게 혹은 남자아이가 다른 남자아이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끼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어. 이런 감정을 ‘동성애’라고 부르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을 ‘동성애자’라고 하지.

텔레비전 뉴스나 인터넷에서 어떤 나라나 도시에서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열고, 무지개색 깃발을 흔들며 행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구나. 이런 행사가 곳곳에서 점점 퍼지다 보니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열린 적이 있을 정도야. 할머니는 그 모습들을 보며 참 마음이 아프고 염려가 되었어.



왜냐면, 요즘은 동성애자들이 단지 몇몇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법과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야. 우리나라에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가족법이 있는데 이것을 바꿔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인 동성 커플도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부부로 인정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 이뿐만 아니라, 보통의 부부가 누리는 혜택도 동성 커플에게 똑같이 적용해 달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

“동성애든 동성 결혼이든 그냥 개인의 자유 아닌가요?”

“자기들끼리 하는 건데, 왜 간섭하죠?”

“우리랑 상관없어요. 그냥 내버려 둬시다.”

그 말만 들으면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어.

그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상관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될까?

하지만, “그냥 남의 일이니까 상관하지 말자.”라는 생각은 너무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꼭 알아야 해. 동성 결혼을 법으로 인정하면, 그 사회와 나라는 결국 망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야.

한 번 생각해 보렴.

동성 부부는 자녀를 낳을 수 없잖니? 그런 가정이 점점 많아지면 나라 안의 사람 수도 줄어들겠지? 사람이 줄어들면 일할 사람도 줄어들어서 나라가 더 발전하기 힘들어질 거야.

그리고 동성애는 때때로 에이즈와 같은 치명적인 병을 일으킬 수 있어.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치료비도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고 치료비에 쓸 세금도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겠지? 그럼 사람들도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결국 사람은 줄어드는데 병든 사람은 늘어나고 나라 전체가 점점 쇠약해지는 슬픈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 바른 가정을 이루도록 정해 주셨지. 바른 가정들이 모여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바른 나라가 튼튼하게 설 수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고 지혜로운 질서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질서, 특히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소중한 질서를 따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며 법까지 바꾸려는 세상이 되고 말았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와 동성 결혼이 괜찮다면서, “이건 그냥 개인의 자유일 뿐이야!”라고 주장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이며 심판받을 잘못된 일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바른길을 걷는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지켜 주신단다.

+ 요약과 교훈

-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동산을 돌보는 임무를 주셨어요.
-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통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바른 가정은 바른 사회, 바른 국가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려 주셨어요.

+ 적용

- 창조 질서를 기억하며, 옳은 선택을 하고 바른 생활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요.
-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고, 가족끼리 서로 도우며 존중하고 사랑해요.
-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는 중요한 내용들을 기억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요.





Part
3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

에덴동산은 모든 것이 완벽한 곳이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푸르고 아름다운 숲이 동산을 감싸고 있었고 맑은 강물이 흐르며 온 땅을 시원하게 적셔 주었지.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서로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어울려 지내는 정말 놀라운 곳, ‘낙원’이라는 말이 꼭 맞는 곳이었어.

이 아름다운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지.

하나님께서도 에덴동산에서 함께해 주시며, 아담과 이브와 따뜻한 교제를

나누셨어.

아담과 이브는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는 완벽한 짝이었다.

먹고 자고 일하고 산책하고 대화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는 참 좋은 친구이자 가족이었지.

아마도 함께 짐승들을 관찰하며 “어떻게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하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 동물에게는 어떤 이름이 좋을까?” 하며 서로의 생각을 물었을 거 같구나.

아담과 이브가 함께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어 보기도 했을 거 같아.

“하나님, 이 식물은 어떻게 돌보면 더 잘 자랄까요?”

“이곳을 예쁘게 가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자주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동산을 정성껏 돌보는 기쁨을 누렸을 거야.

하나님께서서는 저녁 무렵이 되면 마치 엄마 아빠가 자녀들과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하듯 아담과 이브와 함께 그날의 이야기들을 나누셨을 거야.

“오늘은 어떤 짐승을 보았니?”

“어떤 이름을 지어 주었는지 이야기해 줄래?”

“동산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니?”

그러면 아담과 이브는 신이 나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렸겠지?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하기만 했던 에덴동산에 어느 날 엄청난 사건 하나가 생기면서, 아담과 이브의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큰 불행이 닥치고 말았다.

그 일은 그냥 작은 실수 정도가 아니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 땅 전체에 죄와 고통이 들어오게 되는, 세상 역사에서 가장 슬프고도 심각한 순간이었지.



자, 그럼 우리 이제부터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하나하나 따라가 보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면 좋겠구나.

이브를 유혹한 간교한 뱀

늘 함께 다니며 모든 것을 함께하던 아담과 이브가 어떤 일인지 그날은 따로 있었나 봐. 이브는 혼자서 에덴동산을 천천히 거닐며 여기저기 나무와 꽃들을 바라보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문득, 아담이 예전에 진지하게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단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였지. 동산 한가운데에 서 있는 그 나무는 아주 특별했는데, 그것의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아담이 신신당부했었어.

“이브, 내 말 잘 들어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거든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브는 그 말을 떠올리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그 나무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단다.

이브는 처음 아담에게서 선악과나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특별한 나무일까?’ 궁금했지만 아담과 함께 여기저기 동산을 돌보고 서로 힘을 모아 일하다 보니 그 나무 생각은 잊고 있었지.

그런데 그날은 문득 그 선악과나무 생각이 다시 떠오른 거야.

‘그 나무, 한번 자세히 보고 싶다.’

이브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마침내 그 나무 앞에 도착했지.

숨을 고르며 한참 나무를 올려다보니 열매가 눈에 들어왔어.

그런데 막상 보니, ‘에이, 별거 아닌데?’ 생각이 들 정도로 평범해 보였어. 그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더 크거나 더 아름답지 않았고 열매도 딱히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브는 그 나무 아래 잠시 앉아 쉬면서,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에덴동산의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지.

그때였어. 저 멀리서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뭔가가 보였단다.

‘누구지? 아담은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바라보던 이브는 동산에서 가끔 보았던 뱀인 것을 곧 알아차렸어. 아마도 그 당시의 뱀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섭고 징그러운 모습이 아니었던 거 같아. 그래서 뱀이 가까이 다가와 말을 걸었을 때, 이브가 겁먹지 않고 대화를 했을 거 같구나.

그러니, “뱀이 말을 다 하네?” 하고 놀랄 필요는 없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 그땐 그랬구나.’ 하고 이해하면 되거든.

그래도 ‘뱀이 정말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할머니가 성경 속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줄게.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짐승이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적이 또 있거든. 기원전 15세기쯤, 모세가 살아 있던 시기에 발람이라는 거짓 대언자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면서 돈을 탐내는 사람이었어.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잘못을 꾸짖기 위해, 그가 타고 있던 나귀가 말을 하게 하심으로 써 그가 바른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짐승도 말하게 하실 수 있단다.

아무튼 친한 척하며 이브에게 다가온 뱀은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지.

“안녕, 이브! 어째 오늘은 너 혼자 있네? 내가 잠깐 네 친구가 되어 줄까?”



이 말을 들은 이브는 거부감이 들진 않았으나 봐. 늘 아담과 함께 재잘거리며 다니다가 혼자 있으니 조금 심심하던 참이었거든.

이브와 뱀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이브의 이야기를 듣던 뱀은 슬쩍 질문을 했어.

“정말이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에덴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하나도 먹지 말라고 하셨어? 만약 정말 그렇다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저렇게 아름답고 맛있어 보이는 열매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정작 먹지 못하게 하신다면 그건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잖아.”

이 말을 들은 이브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지.

“아냐, 아냐!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만 빼고 말이야. 그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거든. 그걸 먹는 날에는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그 말을 들은 뱀은 속으로 음흉하게 웃었지. 이브가 하는 말속에서 중요한 틈을 발견했거든.

‘흠… 이브가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없군! 죽는다고 말씀하신 걸, 죽을지도 모른다고 들었다고 하네. 이 정도면 충분하겠어!’

간사하고 교활한 뱀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들 준비를 했지.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한 일이란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속 틈을 노리고 언제든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이지.

뱀은 이브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어. 무슨 비밀이라도 들려주려는 듯,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는 이브의 귀에 대고 조심스럽게 속삭였지.

“이봐, 이브, 그 선악과는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진짜 좋은 건 원래 남에게 주고 싶지 않은 법이거든,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보는 눈이 확 열려서 신들

처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거든. 바로 그걸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일부러 못 먹게 하신 거야.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면서 정작 가장 좋은 것은 주지 않으려고 하시니, 쫓쫓... 너희는 그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따르고만 있으니 안됐구나, 정말 안됐어.”

뱀은 마치 진심으로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한숨까지 내쉬었어.

그 말을 들은 이브는 마음 한구석에 궁금하면서도 섭섭한 생각이 들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그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려는 걸까?’

그러다가 이브는 조금 전에 바라보았던 선악과나무를 다시 올려다보았다.

아까까지만 해도 별다르지 않아 보이던 그 열매가 이제는 너무도 먹음직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거야. 게다가 뱀이 말한 대로 그걸 따서 먹기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질 것만 같았지.

그렇게 이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는 점점 희미해지고, 마침내 자기도 모르게 그 열매를 따서 한입에 먹어 버리고 말았어.

열매를 삼키고 나서야 이브는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지.

‘혹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이면 어떡하지?’

그러고는 열매를 하나 더 들고서 이렇게 생각했지.

‘그래, 이걸 아담에게도 주자. 아마 아담도 내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거야.’

아담에게 열매를 권한 이브

이브가 서둘러 동산 아래로 내려가 보니 아담이 자기를 이리저리 찾고 있었어.

“이브, 어디 갔었어요?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당신이 안 보여서 한참을 찾았어요. 어..., 그런데..., 당신 손에 있는 그 열매는 뭐예요?”





이브의 손에 들려 있는 열매를 보고 놀라서 눈이 커진 아담이 물었어.

그러자 이브는 웃으며 말했지.

“아담,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나무 있잖아요? 이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담의 얼굴이 굳어지며 금세 어두워졌단다.

“이브..., 내가 전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 열매는 절대로 따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자 이브가 아담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이렇게 말했지.

“아담, 화내지 말고 내 얘기를 먼저 들어봐요. 그러면 당신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아주 설득력 있게 하나 하나 들려주기 시작했단다. 특히 뱀이 해 준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자, 아담은 놀란 얼굴로 귀를 기울이며 자기도 모르게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지.

이브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아담, 다 괜찮을 거예요. 봐요, 나는 이 열매를 다 먹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생겼잖아요? 오히려 더 푹푹해진 느낌이 나요. 뱀이 말한 것처럼 우리 눈이 열려서 신들과 같이 될 수도 있나 봐요.”

자, 그럼 이때 아담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바로 아담이었지. 그러니 그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꼭 붙들고, 아무리 사랑하는 이브가 말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던 거야.

하지만 아담은 이브의 말에 설득당했어.

아담도 지금보다 더 지혜롭게 되어 신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 이끌려 결국 그 열매를 먹고 말았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맺어 주신 부부가 이제는 서로를 죄의 길로 이끈 공범, 다시 말해 함께 죄를 지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슬픈 순간이었어.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은 이브와 아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정말 지혜로워지고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단다.

지혜로워지고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아담과 이브는 지금껏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

이전에는 아담과 이브가 몸을 가리지 않은 채,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지.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 갑자기 부끄러움이 밀려오고 서로 가려야 할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은 급히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엮어 만든 앞치마로 자신들의 몸을 가리기 시작했단다.

하지만 그런 나뭇잎 옷이 얼마나 오래가겠니? 잎사귀는 금세 시들어 버려서 다시 만들어야 하니까 잠깐 동안 쓰는 방법일 뿐이었지.



그제야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이 뱀에게 속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사실에 몸이 떨리기 시작했지. 전에는 단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했던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들에게 가득했단다.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두려워졌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동산 깊숙한 곳으로 도망쳤지. 두 사람은 수풀 속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며 숨었단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숨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지 못하셨을까?

물론 아니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

아담과 이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숨어 있는지도 말이야.

그날 해가 지고 있을 무렵, 조용한 바람 사이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단다. 그 부드럽고도 무거운 목소리가 아담의 귀에 울렸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평소 같았으면 “아빠다!” 하며 기뻐서 달려 나갔을 아담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어.

그 음성은 너무도 두렵게 느껴졌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고개를 푹 숙이고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나왔지. 그리고 아담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지.

“누가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려 주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은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신 이유

는 아담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어.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셨을 거야.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 요약과 교훈

- 에덴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완벽하고 평화로운 선물이었어요.
-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은 후부터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꼈어요.
-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셨어요.

+ 적용

- 우리가 사는 환경과 가진 것들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봐요.
-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바른 마음을 갖도록 해요.
- 실수하거나 잘못된 일이 생기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요.





Part
4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이브가 먹은 다음부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정말 슬프고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롬 5:12)

그럼, ‘죄’란 무엇일까?

너희들 주변에도 나쁜 일은 종종 일어나고 있지?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거나 친구를 괴롭히거나 그런 건 모두 잘못이고, 죄라고 불린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와 ‘죄들’을 따로 구분해서 알려 주고 있어. 그것에 대해 할머니가 들려줄게.

먼저, ‘죄’는 마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나쁜 씨앗 같은 거란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있는 죄의 힘, 죄의 본성이라고 보면 돼. 이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생기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사람 마음속에는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마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이 숨어 있어. 이게 바로 ‘죄’인데,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지.

그리고 ‘죄들’은 우리가 실제로 그 마음을 따라 거짓말하거나 미워하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거나 하는 것처럼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이야.

한마디로 말하자면 ‘죄’는 마음속 뿌리이고, ‘죄들’은 그 뿌리에서 자라난 열매들 같은 거지. 아담 이후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들’을 짓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거란다.

선악과나무를 만드신 이유

자, 이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 하나님 앞에 섰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 볼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끄는 대표로 세우시고 직접 명령을 주셨던 아담에게 조용히 물으셨어.

“아담아, 네가 그랬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때 아담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으련만, 아담은 그러지 않았어.

그 대신 아담은 이렇게 대답했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이브가 그 열매를 주길래 제가 먹었습니다.”

이건 정말 변명 아닌 변명이었어.

이 장면은 마치 친구들이 싸우고 나서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며 씩씩대는 모습처럼 보이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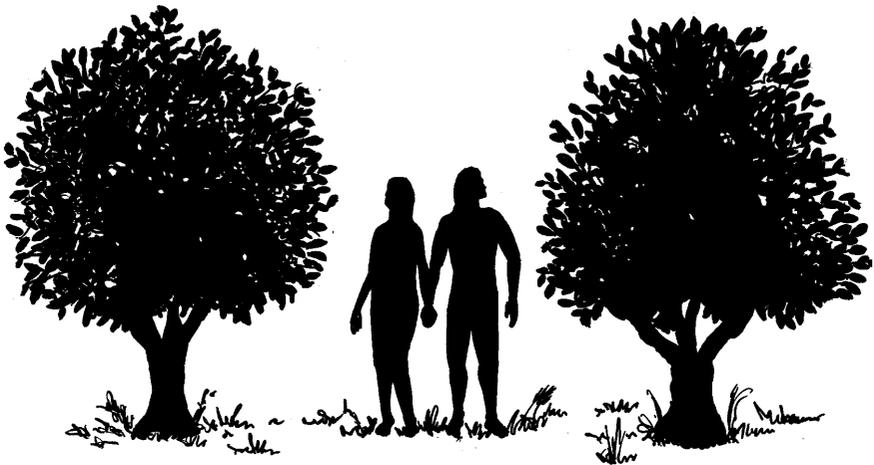
“애가 먼저 때렸어요!”

“아니에요, 애가 먼저 밀었어요!” 하고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선악과나무의 열매를 만들어서 아담이 먹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 선악과나무는 왜 만드셨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



유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할지, 자기 뜻대로 살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는 기준점이었지.

만약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복종을 원하셨다면 인간이 아니라 로봇을 만드셨을 거야. 그러나 사랑은 강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스스로 순종하길 원하셨지.

두 번째 이유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물인 인간의 한계를 보여 주시기 위해서였다.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지만 단 하나의 경계만 두셨어. 인간 스스로 창조물로서의 위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 아래 살아야 한다는 질서를 잊지 않게 해 주셨던 거지.

세 번째 이유는, 아담과 이브가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다. 선악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정하겠다는 마음, 즉 교만을 멀리하길 원하셨거든. 한마디로 선악과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는 시험이자 훈련이었던 거야.

아담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다음으로 이브에게 물으셨어.

“이브야,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브가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기를 원하셨지. 하지만 이브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자기를 피었던 뱀에게 책임을 돌렸어.

“저는 진짜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뱀이 저를 피어서 먹게 되었을 뿐이에요.”

결국 아담도 이브도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 그저 자기변명을 하기에 바빴지.

선악과를 따 먹은 후 두려움에 떨면서도, 남의 탓을 하며 책임을 피하려던 아담과 이브의 모습은 죄를 지은 우리 마음속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감정이



지. 누구나 죄를 지었을 때는 괜히 불안하고, 누군가를 탓하면서 자기 잘못을 숨기고 싶어 하잖니.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룩하신 분이란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어 있다’라는 뜻이야.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이시며 티 없이 완전한 분이라는 의미야.

사람들은 “이건 죄야.”라고 말하면서도 때때로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바꾸기도 해. “이번엔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 하며 스스로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기도 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은 사람의 기준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깨끗한 기준이란다.

예를 들어, 아주 새하얀 종이가 있다고 상상해 보렴. 그 위에 아주 작고 조그만 까만 점 하나가 톱 묻었다면, 사람들은 “거의 안 보여요.” 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티끌 하나조차도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은 절대 자기 힘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란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야. 죄인인 우리는 자신만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단다.

자, 이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에게 심판의 벌을 내리셔야만 했어. 그럼,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말씀 그대로 아담과 이브는 ‘죽음’이라는 벌을 받았지.

죽음은 우리가 살면서 종종 마주하게 되는 일이야.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 생을 마치게 되잖니. 이런 죽음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들이지.

성경에는 죽음이란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마지막 벌이라고 기록되어 있단다.

그렇다면 죽음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사람이 죽으면 우리 몸속에 있던 영과 혼이 빠져나가고 몸은 점점 굳어지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돼. 이걸 몸의 죽음이지.

그리고 이 몸의 죽음보다도 훨씬 더 무섭고 심각한 죽음이 있어.

그건 바로 ‘영의 죽음’,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헤어지는 거란다.

우리의 영은 몸과 달리 영원히 죽지 않지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은 영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영은 나중에 그분과 영원히 헤어져서 영원한 불 호수에서 고통스러운 벌을 받게 된단다.

너무 추운 겨울날에 몸이 으슬으슬해서 ‘빨리 따뜻한 방에 들어가서 쉬고 싶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지? 그런데 만약 돌아갈 따뜻한 집이 없다면 얼마나 슬플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길어야 수십 년을 살며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진다 해도 몸이 죽은 후에 돌아갈 곳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면 얼마나 무서울까?

하나님과 영원히 헤어져서 영원한 벌을 받으며 지내야 하는 건 정말 상상하기도 어렵구나.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받은 형벌

이 죽음이라는 가장 큰 형벌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 그리고 뱀에게 각각 따로 벌을 내리셨어.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과 가정을 잘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었지.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땅이 저주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처럼 해로운 것들이 생겨났어. 이제 아담은 평생 해로운 것들로부터 애써 곡물들을 지키고 땀 흘려야, 먹고살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지.

그리고 이브에게는 전에 없던 새로운 관계가 생겨났어.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질서가 생겼거든. 또 자녀를 낳을 때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벌도 함께 주어졌지.

마지막으로 뱀은 더 큰 저주를 받았어. 평생토록 배로 땅을 기어 다니고 흙을 먹으며 살아가게 되었거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뱀의 모습이 바로 이 벌에서 비롯된 거야.

그런데 애들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어. 심판하시면서 아주 먼 훗날에 이루어질 놀라운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셨단다.

내가 네[뱀]와 여자 사이에 또 네[뱀] 씨[후손]와 그녀[이브]의 씨[후손] 사이에 적



개심[적에 대해 느끼는 분노와 증오]을 두리니 그 씨[여자의 후손]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네[뱀]는 그[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 3:15)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한 약속이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먼 훗날 여자의 후손으로 올 한 사람, 곧 ‘구원자’에 대해 말씀해 주셨거든. 그분은 바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죄짓게 한 사탄 마귀를 완전히 깨뜨릴 분이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있는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지어 주셨어.

아무 죄도 없는 한 짐승의 피를 흘려 죽게 하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이브의 몸을 덮어 주셨지. 할머니 생각엔 그 짐승은 아마도 어린양이었을 거 같구나.

그 과정을 지켜보던 아담과 이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의 죄 때문에 저 짐승이 희생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 같아.

하나님께서 한 짐승의 희생을 통해 아담과 이브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 주셨지. 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 없는 존재 혹은 누군가가 대신 피 흘려야 한다는 것을 말이야. 이걸 그저 옷을 만들어 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분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 주신 가르침이었지.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히 9:22)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신 다음, 이들을 에덴동산에서 내보내셔야만 했단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구나.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용서해 주시는 김에 에덴동산에서

그냥 살게 해 줘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산에서 나가게 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야. 에덴동산에는 생명나무라는 아주 특별한 나무가 한 그루 더 있었거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지.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죄를 지은 채로 영원히 살아야 해서,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너무나도 슬프고 끔찍한 일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에덴동산 밖으로 내보내신 거란다. 그리고 나서 그 동산의 동쪽에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인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셔서 그 누구도 다시는 그곳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으셨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에게 에덴동산은 감춰진 곳이 되었지.

천년 왕국으로 회복될 에덴동산

그러면 이제 영원히 에덴동산은 볼 수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달리 수백 년, 수천 년 뒤의 일까지 미리 내다보시며 계획하고 일하시는 분이야. 하나님께서는 굳게 닫혔던 낙원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릴 날을 이미 준비해 두셨어.

그럼, 그날은 언제일까?

그때는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 불리실 여자의 씨가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시는 날,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란다. 그때에는 더 이상 죄와 고통, 눈물이 없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거야. 바로 천년 왕국이라고 불리는 곳이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야.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계획을 세우시고 수백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서 그분께서 만드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

고 돌보시니까 말야.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그렇게 고백해 보자꾸나.

† 요약과 교훈

-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의 죄로 인해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 ‘죄’는 마음속 뿌리이고 ‘죄들’은 그 뿌리에서 자라난 열매, 즉 행동으로 드러나는 잘못들이에요.
-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인 천년 왕국이 시작될 거예요.

† 적용

- 인간의 죽음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생각해 봐요.
-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려고 해요.
-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행동하도록 노력해요.





Part
5

좋은 예배를 드린 아벨과 최초의 살인자 가인

에덴동산에서 나오게 된 아담과 이브는 자녀들을 낳으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아담의 자녀들 사이에서 놀랍고도 슬픈 살인 사건이 생기게 된단다. 형이 동생을 죽이고 말았거든. 이 비극은 어쩌다가 생겼을까? 함께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자꾸나.

아담과 이브는 자녀를 낳을 때마다 정말 기뻐어.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메시아가 자기의 자녀들 중 한 명인 줄 알았거든. 아들을 낳을 때면 마음속으로 ‘혹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아이일까?’ 하는 기대감에 더 설레었지.
첫째 아들 가인을 얻었을 때 이브는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 아벨도 태어났고 두 형제는 아담과 이브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으며 잘 자라났지. 가인은 땅을 일구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었단다.

가인의 곡식, 아벨의 양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기 위해 모인 어느 날이었어. 아마 한 해 동안 수확한 곡식을 정리한 날이었을 거 같구나.

가인은 한철 내내 땀 흘리며 거둔 곡식 중에서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제단 위에 정성껏 올렸어. 가인은 자기 헌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단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거야.

예전에 아버지인 아담이 제단에 짐승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헌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표시가 분명히 나타났거든. 하지만 가인의 곡물 헌물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

가인은 이해할 수 없었어.

‘왜 내 헌물을 받아 주시지 않는 거지? 내가 정성을 다해 드렸는데...’

그런 생각은 곧 서운함과 불만으로 변하기 시작했지.

그리고 옆에 있던 아벨도 헌물을 드렸어.

아벨은 자기가 돌보던 양들 중에서 가장 어린 새끼 양과 그 기름을 골라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지. 그러자 아벨의 헌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는 게 아니겠니.

이 모습을 본 가인은 얼굴이 굳어지고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기와 질투,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오기도 했지.



이런 가인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

“가인아, 너는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슬퍼하느냐? 만약 네가 바르게 행한다면 내가 왜 네 헌물을 받지 않겠느냐? 하지만 네가 바르지 않게 행동하면 죄가 네 마음 문 앞에 엮드려서 너를 넘어뜨리려 할 것이니라. 그러니 너는 그 죄를 스스로 잘 다스리고 이겨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타이르셨지만, 가인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어. 오히려 가인의 마음속에는 화가 더 부글부글 끓었던 거 같아.

그 모습을 본 아벨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형과 이야기를 했지. 아벨은 다정한 목소리로 형에게 이렇게 말했단다.

“형, 많이 속상했지? 하지만 아버지가 우리 어릴 적부터 해 주신 말씀 기억나? 하나님께 나아갈 땐 꼭 짐승의 피를 흘려서 드려야 한다고 하셨잖아. 형이 얼마나 고생하며 곡식을 키웠는지 나도 잘 알아. 형이 좋은 마음으로 준비했겠지만, 우리가 배운 대로 헌물을 드리는 게 맞는 거 같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하지 않을까?”

아벨은 진심을 담아 말했지만, 가인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어.

‘아니, 이 녀석이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해? 하나님이 자기 헌물을 받으셨다고 우쭐대는 거야 뭐야?’

그리고는 무서운 결심을 하게 되었어.

‘그래, 이 녀석은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해.’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단다. 시기와 질투, 분노가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 그 감정을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이야.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얽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
망이 네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창 4:7)



그리고 어느 날, 가인과 아벨
은 들녘에 함께 있으면서 말다
툼을 했던 거 같아. 그러다가
그만 가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지.

정말 끔찍하고 슬픈 일이야. 형이 동생을 죽이다니... 이걸 이 땅에서 처음
으로 벌어진 살인 사건이었어.

동생을 죽이고 떠돌이가 된 가인

사람이 죄를 짓고 난 후에는 그 죄를 숨기려고 하지. 아담과 이브도 자기 죄
를 감추려고 했던 거 기억나니? 가인도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 아벨의 몸을
들판에 구덩이에 넣고 흙으로 덮어 버렸어. 겉으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겠지만 가인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거 같구나.

이쪽저쪽 주위를 살핀 후,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가인은 혼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

“가인아!”

가인은 깜짝 놀라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대답했지.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가인이 잘못을 깨닫고 돌
이키도록 이렇게 물으셨어.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은 오히려 따지듯이 대답했지.

“글쎄요, 몰라요! 저는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데요.”

자신이 한 무서운 행동을 감추기 위해 당당한 척,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면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던 거지.

그러나 가인의 죄는 너무나 무겁고 슬픈 일이었어.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지.

이제 땅은 가인의 죄 때문에 더욱 저주받게 되었어. 가인이 아무리 열심히 땅을 갈아도 이전처럼 풍성히 곡식을 거둘 수 없게 되었지.

그뿐만 아니라, 가인은 평화롭게 한곳에 정착해 살 수 없고 죽을 때까지 떠돌아다니며 살게 되었어.

그러자 가인은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 울며 매달렸지.

“하나님, 이제 저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하나님과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야 하잖아요. 언젠가 누군가가 저를 찾아내어 죽이면 어떻게 하죠? 이 벌은 너무 커서 두려워요…”

그 말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셨어.

앞으로 누구든지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가인에게 특별한 표를 주셔서,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 주셨지.

이 장면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잘 보여 준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여섯째 계명으로 이렇게 명령하셨어.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법이 되었던단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질 걸로 생각했던 첫째 아들 가인은 살인자가 되어 떠

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겸손했던 아벨은 안타깝게 죽고 말았지.

아담과 이브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씨앗을 주셨어. 바로 셋이라는 아들을 보내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셋을 통해 그들의 믿음은 다시 이어지게 되었지.

죄인들의 조상이 된 가인

한편, 가인은 하나님께 더 이상 경배드리지 않고 아버지 아담과도 인연을 끊은 채, 새로운 땅에 도시를 만들어 살았어. 그의 후손들은 가축을 길러 재산을 늘리고 하프나 피리 같은 악기를 만들어 음악을 즐기기도 했다는구나. 놋이나 철 같은 쇠붙이를 다루는 기술을 발달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며 살아갔어. 겉보기엔 가인의 자손들이 번성해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점점 죄의 열매들이 하나씩 맺히기 시작했지.

가인의 다섯 번째 자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가정의 모습마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어긋난 거였어.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지만, 라멕은 두 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거든.

그뿐만 아니라, 특히 살인이 벌어지는 무서운 사회가 되어 버렸지. 심지어 라멕이 누군가를 죽인 일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해.

“자, 잘 들어 보라구. 어떤 젊은이가 나를 치길래 나도 참지 않고 그를 죽여 버렸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겠지?”

그 말을 들은 라멕의 두 아내가 걱정을 했겠지?

“아니, 여보. 혹시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복수하러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라멕은 뉘우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오히려 콧방귀를 끼었지.

“흥, 우리 가문을 봐! 가인 할아버지도 사람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는 사람은 일곱 배의 벌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잖아. 그러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일흔일곱 배의 벌을 받게 될 거라고!”

이게 얼마나 기막힌 말이니? 자기가 저지른 죄를 자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명하는 데에 쓰는 건방진 모습만 봐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알 수 있구나.

결국 인류의 역사는 두 흐름으로 나누어졌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문명을 만들어 가는 가인의 문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셋의 문화, 이 두 문화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세상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지.

시간이 흘러 세상은 점점 더 커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사람 아담은 무려 930년을 살고 세상을 떠났어.

세상이 창조된 이후 약 천 년쯤 지난 무렵, 셋의 후손 중에 노아라는 사람이 태어났단다.

그때의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창세기 6장을 보면, 아름다웠던 세상은 온데간데없고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나쁜 것들뿐이어서, 서로 미워하고 속이고 해치는 일이 끊이지 않았어.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슬퍼하셨다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며 (창 6:5-6)**

그 당시 땅은 가인의 문화가 크게 번성했었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갈수록 죄와 악으로 채워지고 있으니 우리는 더욱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할 거 같구나.

+ 요약과 교훈

- 하나님께서 아벨의 헌물은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의 헌물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 가인은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아벨을 죽임으로써 큰 죄를 지었어요.
-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점점 죄와 악으로 차기 시작했어요.

+ 적용

-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요.
- 가정, 학교, 교회에서 규칙을 잘 따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요.





Part
6

방주를 타고 구원받은 노아

이 세상의 여러 민족들이 각각 사는 곳이 다르고 쓰는 말도 다르지만, 아주 옛날에 있었던 큰 홍수 이야기는 대부분 전해 내려오고 있단다. 너무 신기하지 않니?

문자가 없던 시절에도 이 대홍수 이야기는 돌에 새겨진 그림이나 전설, 신화의 형태로 전해졌어. 게다가 지구 곳곳에서 발견되는 화석, 산의 형상, 흙의 성분 등을 살펴보면, 갑작스럽게 일어난 대홍수의 흔적을 분명히 찾아볼 수 있거든. 예를 들어, 높은 땅에서 물고기의 화석이 발견되는 일 등은 바다

가 그곳까지 덮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말이야.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대홍수가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꾸며 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단다.

그렇다면, 이 대홍수는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 답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이 엄청난 대홍수는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내리신 심판이었다고 말이야.

이번엔 할머니가 그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거인족의 등장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약 천 년쯤 지나 노아가 살던 무렵의 세상은 죄와 악이 가득했던 거 기억나니?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슬퍼하시며 마음 아파하실 정도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날마다 나쁜 것 뿐이었지.

이곳저곳에서 사람들 간에 폭력과 싸움이 끊이지 않았어. 심지어 동물들 사이에도 나쁜 변화가 생겨서 강한 동물들이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는, 이른바 약육강식의 환경으로 되고 말았지.

그런데 이처럼 세상이 엉망이 되어 버린 데에는 더 심각한 이유가 있었어.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처음에 정하신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무섭고 커다란 몸집을 가진 거인들이 나타났고 이들이 사람들의 삶과 사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지.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들만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

그럼, 이런 거인들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걸까?

이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아니었단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탄 마귀, 그리고 그를 따라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잘못된 관계를 맺은 것이 바로 그 원인이었지. 성경에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



이었지만 그분을 거역하고 타락한 무리였어.

사탄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선한 일들을 망가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악한 세상을 만들려는 거였지.

하나님께서서는 죄에 빠져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여자의 씨’, 즉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 줄 특별한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잖니?

그 말을 들은 사탄은 깜짝 놀랐을 거야.

‘큰일 났다! 만약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 나는 끝장인데...’

사탄은 자기의 머리를 깨뜨릴 그 특별한 후손이 오는 걸 어떻게든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사탄은 자기 말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 사람의 딸들을 마음대로 데려가 결혼하도록 만들었지.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바로 무시무시하게 힘이 센 거인들이었던 거야.

너희 혹시 그리스·로마 신화에 대해 들어 본 적 있지?

그 책에 나오는 존재들 중에 힘센 반신반인, 즉 몸의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인 거인들 말이야. 이 거인들은 정말 힘이 세고 무지막지해서 사람들을 사회를 점점 더 폭력적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길을 방해하려고 했지.

그래서 세상은 점점 죄로 가득 차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따르며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노아의 가족 여덟 명밖에 남지 않았단다. 하지만 그런 세상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르게 살았지. 성경에는 노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자기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이며 완전하였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으며 (창 6:9)

그 무섭고 악한 세상 속에서 오직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편에서 있었다는 거,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야.

이렇게 세상이 죄로 가득 차게 되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결단을 내리셨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노아야, 이제 이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구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바른길을 잃어버린 것을 내가 알고 있느니라. 이제 내가 그들을 함께 멸망 시키기로 결심했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어서 노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어.

“너와 네 가족만은 내가 살려 주리라. 그러니 이제 내가 알려 주는 방법대로 방주, 즉 커다란 구원의 배를 만들도록 하거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 방주 만들기가 시작되었지.

노아를 비롯한 사람들

그 방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배의 모습과는 좀 달랐어.

모양만 보면 거대한 나무 상자 같은 모습이었거든. 방향을 조절하는 키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노도 없었어. 그저 물 위에 뜰 수만 있도록 만들어진 커다란 상자였지.

그럼 노아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어려움 없이 만들 수 있도록 직접 자세하게 알려 주셨어. 어떤 나무를 쓰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설계에 따라 만든 방주의 크기는 길이는 무려 135미터, 너비는 22.5미터, 높이는 13.5미터나 되었다는구나. 이걸 지금의 배로 따지면 약 21,000톤이나 되는 아주 큰 배였어! 놀랍지 않니?

그리고 이 방주는 길이에 비해 너비는 6대 1, 그러니까 길이가 6이면 너비는 1이고, 길이에 비해 높이는 10대 1이었어. 그래서 방주는 길쭉하고 튼튼한 모양이면서 아주 안정적인 비율로 설계되어 있었지. 과학자들이 모형을 만들어 실험해 보았는데, 이런 구조의 배는 무려 43미터 정도의 큰 파도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아주 튼튼했다고 하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그건 노아의 가족 여덟 명뿐 아니라, 온갖 종류의 동물들과 먹을 것들을 함께 싣기 위해서였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 죄로 가득한 옛 세상을 끝내시고, 노아의 가족과 살아남은 동물들로 새롭게 시작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야. 그러니까 이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세상을 위해 희망을 담아 준비하신 특별한 구원의 상자였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속에 반드시 구원의 길도 함께 마련해 놓으시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려무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곧바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셨거든. 대신 무려 1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주셨어.

그 이유는 뭘까?

그건 바로,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 긴 시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었지. 방주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걸 짓는 모습은 사람들의 눈에 아주 잘 띄었지.

사람들은 방주를 구경하러 와서 물었어.

“이보게, 노아! 도대체 뭘 만드는 건가? 이런 큰 나무 상자를 왜 만드는 건가?”

그때마다 노아는 이렇게 대답했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너무 많아 곧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같이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기 일쑤였지.

“이렇게 맑은 날씨에 웬 홍수? 내일도 어제처럼 맑을 텐데 쓸데없는 헛수고

를 하고 있군!”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 세상을 잠기게 할 그 많은 물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노아, 자네 제정신인가? 하하하!”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낼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는 소문은 금세 퍼졌고, 어느새 방주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버렸지.

하지만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어.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죄로 가득 차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해.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눅 17:27)

이제 홍수가 나기 7일 전,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였어.

하나님께서서는 노아에게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라고 명령하셨어. 정결한 짐승은 일곱 쌍, 정결하지 않은 짐승은 한 쌍, 공중의 새들도 일곱 쌍씩 방주에 태우라고 말씀해 주셨지. 그리고 노아와 아내, 세 아들과 며느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문을 닫지 않고, 7일 동안 방주의 문을 열어 두셨단다. 혹시라도 그 모습을 본 사람 중에 ‘나도 방주에 탈래요!’ 하고 마음을 바꾸는 이가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기다려 주신 거야. 하



나눔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바라시거든.

하지만 그 누구도 방주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고 노아의 가족 여덟 명과 동물들만이 방주 안에 있었지.

그리고 마침내, 7일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셨단다.

1년 동안 이루어진 물 심판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어.

그날, 땅속 깊은 곳에서는 물줄기가 솟구쳐 오르고, 하늘에서는 비가 사정 없이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지. 비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 밤낮없이 퍼붓듯이 내렸단다.

천둥번개가 치고 태풍이 불며 사나운 비가 오는 날에 창밖을 보면 무섭고 가슴이 떨리지 않니? 노아 시대에 내린 비는 그보다 훨씬 더 무섭고 사나웠어.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물이 솟구치고 쏟아지니 온 세상은 점점 거대한 바다처럼 변해 가고 있었지.

날이 갈수록 물이 점점 차오르자 사람들과 짐승들, 심지어 하늘을 나는 새들까지도 피할 곳을 찾지 못해 결국 모두 물에 잠기고 말았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들도 물에 잠겨 더 이상 바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

무려 150일 동안, 그러니까 5개월 동안 물이 온 땅을 덮었고 방주만 혼자서 그 물 위에 떠다니고 있었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들과 하늘의 날짐승이 멸망하였고 그들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였으며 노아와 또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창 7:23)

모든 생명이 사라진 고요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동물들을 여전히 보호해 주셨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물로 가득한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셔서 서서히 물이 빠지도록 하셨어. 150일이 되었을 때 방주는 아라랏 산들 위에 조용히 멈춰 섰지. 이 아라랏은 ‘거룩한 땅’을 뜻하는데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산을 ‘노아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구나.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무르고 74일 후에는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지.

산봉우리가 보인 날로부터 40일 후, 노아는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하려고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어. 그런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지.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앓을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방주로 돌아왔어.

노아는 7일을 기다린 뒤, 두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냈고 그 비둘기는 올리브 잎 한 장을 물고 돌아왔어. 노아는 그걸 보고 이제 물이 많이 빠졌다는 걸 알게 되었단다.

노아는 또 7일을 기다린 뒤,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냈고 그 비둘기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어.

그로부터 한 달이 조금 지나났을 때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워 보니 땅이 말라 있는 걸 볼 수 있었지. 그렇지만 아직 땅이 완전히 마른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걸어 다니거나 할 수는 없었던 거 같아.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조용히 방주에서 기다렸지.



마침내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 “이제 너와 네 가족은 방주에서 나와도 되느니라.”



노아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약속

대홍수가 시작되고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드디어 노아와 그의 가족, 동물들은 새 땅에 감격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지.

할머니는 가끔 사람이 처음으로 달에 갔을 때의 감동적인 장면이 떠오르곤 하지만, 노아가 땅에 내린 그 순간의 감동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거 같아. 인류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었던 홍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그들 덕분에 지금 이 세상에 우리도 존재하는 셈이지.

그럼,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부터 드렸어. 노아는 정결한 짐승들과 새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번제 헌물을 바쳤지. 아담과 아벨, 셋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 없이 정결한 짐승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번제 헌물의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지.

내가 이후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다시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내가 이후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치지 아니하리니 (창 8:21)

그리고 노아와 가족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끊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창 9:11)

물론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홍수나 물난리가 일어나지만, 전 세계를 뒤덮

을 대홍수는 다시는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보여 주셨어.

무지개를 보면, 옛날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에게 대홍수라는 무서운 심판이 있었지만 그분께 순종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보호를 받았음을 꼭 기억하려무나.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항상 지켜 주실 거란다.

+ 요약과 교훈

-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죄로 가득 차고 심판이 필요할 만큼 나빠지자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 하나님께서는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시며 심판 직전에도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 하나님께 순종한 의로운 노아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 적용

- 노아의 때와 현시대를 비교해 보며 지금은 어떤지 생각해 봐요.
- 잘못된 줄 알면서도 가볍게 여기는 죄들이 있는지 생각해 봐요.
- 잘못을 뉘우친 후에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요.





Part
7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하 나님께서 죄로 가득 찼던 세상을 심판하신 대홍수가 끝난 뒤,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었다. 노아 네 가족은 아내와 큰아들 야벳, 둘째 셈, 그리고 막내아들 함, 그리고 이들의 아내 세 명까지 해서 모두 여덟 명이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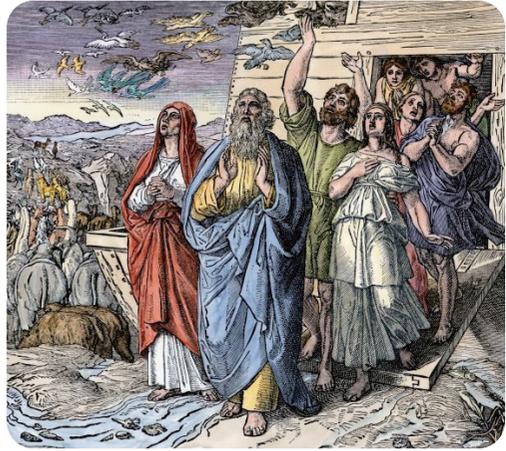
그들이 방주에서 밖으로 나오자 세상의 모습은 대홍수 전과는 전혀 다르게 변해 있었어. 날씨와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고 계절과 밤낮도 달라졌지.

번제 헌물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에게 제일 먼저

축복과 명령을 주셨어.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창 9:1)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사람들과 동물 사이의 관계가 달라졌음을 말씀해 주셨단다. 사람들에게 모든 짐승들을 넘겨주셨다고 하셨거든.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사람도 동물도 모두 풀을 먹는 초식 동물처럼 평화롭게 살도록 하셨어. 사람이 짐승을 잡아먹지 않고 짐승도 사람을 해치지 않았었지. 그런데 대홍수 뒤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허락하셨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왕 노릇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지.

이렇게 사람이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되자 하늘과 땅, 바다의 모든 동물들은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었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 년 동안 다스리실 때가 되면 사람과 동물들 모두 다시 초식을 할 거고 서로 해치는 일 없이 평화롭게 살게 될 거란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사람 간에 살인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 만약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라는 ‘사형 제도’를 직접 주신 거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격한 법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지성을 주



셨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사람들이 죄 때문에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법을 정해 줄 필요가 있었어.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누군가가 죽인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창 9:6)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생명과 존재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해.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살인자라도 잘못을 뉘우치면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죠.”

그냥 들어 보면 착하고 아량이 넓은 말들 같지만 이런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점점 퍼지다 보니 사형 제도를 없애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법정에서 사형을 내렸어도 실제로 진행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어.

사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고 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대로 살인을 저지르는 일도 늘어나게 돼. 그럼 결국 세상은 점점 더 위험하고 무서운 곳으로 변해 가겠지.

사람과 동물 간의 질서, 사형 제도를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에게 다시 한번 축복과 명령을 말씀하시며 강조해 주셨어.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풍성히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창 9:7)

이 말씀은 아담과 이브에게 처음 주셨던 명령과 똑같은 말씀이야. 즉,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된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주신 그분의 뜻을 조금도 바꾸지 않으신 거야.

즉,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고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잘 가꾸고 다스리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지. 이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즉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생기게 되었다.

지금 세계 여러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습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양하고, 생김새도 조금씩 다른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결혼을 통해 서로의 유전자가 섞였기 때문이야. 그렇지만 결국 사람은 모두 다 한 가정에서 비롯되어 나온 한 가족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렴.

포도주에 취한 노아

한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되었는지, 노아는 멋진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주도 직접 만들어 마시게 되었지. 노아가 만든 이 포도주가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술인 셈이지.

그러던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던 모양이야.

술에 취한 노아는 자기 장막 안으로 들어가 옷을 다 벗은 채, 큰대자(大)로 누워 잠이 들어 버렸단다. 이렇게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면 자기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으니까 많은 문제와 사고가 생기기 쉽고 위험할 수 밖에 없지.

그때 마침 막내아들 함이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

함은 바로 밖으로 나가서 두 형에게 말했다.



“형들, 아버지 좀 봐요!”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조용히 옷을 챙겨서 뒷걸음질로 장막 안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별거벗은 아버지의 몸을 조심스럽게 덮어 드렸지.

왜 그랬을까?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존경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 드리는 것이 자식 된 도리라고 생각한 거야. 반면에 함은 막내여서 아직 철이 없었는지, 아니면 아버지를 향한 공경의 마음이 부족했는지, 그렇게 하지 않았지.

하나님께서서는 십계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단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출 20:12)

우리도 부모님을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혹시라도 부모님의 허물이 조금 보일 때에는 덮어 드릴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예쁜 아이들이 되자, 알겠지?

한참을 자고 난 뒤, 포도주에서 깨어난 노아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어. 그리고는 올바르게 행동한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의 말을, 잘못된 함에게는 그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의 말을 했단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번성하게 해 주시고, 셈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중심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얘들아, 노아의 말을 듣고 궁금하지 않니? 왜 노아는 함에게 직접 저주하지 않고 그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했을까?

그 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창 9:1)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함에게도 복을 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함을 저주하지 않고 그 아들인 가나안에게 말한 거지.

옛날 유럽의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이 저주를 근거로, 야벳의 후손인 자기들이 함의 후손인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 삼는 게 옳다고 주장했지. 그런데 이걸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벌인 아주 잘못된 일이야.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끼리 서로를 억누르거나 괴롭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이런 나쁜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노아의 축복과 저주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물론 아버지인 노아가 올바른 일을 한 아들들을 칭찬하고 잘못된 아들을 꾸지람했던 일로만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노아의 감정만을 담은 책이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의 입을 통해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 노아의 말도 성경에 기록된 거지.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해.

모든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된 세 아들

그럼, 노아가 했던 이 예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자.

노아는 잘못된 아들 함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가나안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거라고 했지?

하나님께서서는 이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게 될 나쁜 문화의 대표인 가나안 사람들을 미리 알려 주려고 하셨던 거 같아.

그로부터 약 천 년쯤 지난 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셨고 그들이 가게 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없애라.”라는 엄한 명령을 내리셨어. 왜냐면, 당시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크고 심각했기 때문이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셨지.

이처럼, 노아의 축복과 저주는 단지 옛날이야기가 아니라 훗날에 일어날 중요한 일들을 미리 보여 주신 말씀이었단다.

이제 다시, 노아와 그의 세 아들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지. 가족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사람들은 땅을 넓혀 나가면서 농사를 짓고 가축도 기르며 살아갔어.

성경에는 이런 과정들과 가족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지역들에 대한 설명이 아주 꼼꼼하게 적혀 있지. 이런 기록들은 지금도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귀한 자료가 되고 있단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정확한 증거들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어떤 과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해.

“세상의 모든 것은 아주 작은 알갱이 하나가 대폭발을 일으켜 생겨난 겁니다. 수억 년 동안 우연히 진화해서 지금의 사람과 동물들이 만들어졌어요.”

정작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내놓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생각이 옳다고 하니 안타깝구나.

우리는 이 창조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임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자.

+ **요약과 교훈**

- 대홍수 이후 노아와 그의 가족 여덟 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 인간과 동물, 그리고 환경과 사회가 크게 변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과 규칙을 주셨어요.
-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땅을 넓혀 번성하라고 주신 명령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줘요.

+ **적용**

-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도록 해요.
-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노력해요.
-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진리를 나누도록 해요.





Part
8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은 세상 곳곳으로 퍼져 나가며 점점 많아졌어. 노아의 아들 함은 구스를 낳았고, 그 구스는 니므롯을 낳았는데,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세상에는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일어났단다. 바로 왕국, 다시 말해 사람들을 다스리는 세력이 생겨나기 시작했지.

니므롯은 고대에 아주 유명했고 그 힘도 대단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어.

“니므롯은 주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이었다.”

그가 처음 자기 왕국을 만든 곳은 시날 땅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었는데, 그 중 바벨은 훗날 큰 나라가 된 바빌론 제국의 바탕이 되었지. 니므롯은 사람들을 모아 도시를 세우고 점점 더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이끌면서 지금의 왕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

니므롯은 죽은 다음에도 이 세상에 나쁜 영향을 주었는데, 그로 인해 생겨난 특별한 신앙 때문이야. 니므롯의 아내였던 세미라미스는 니므롯이 죽자 이렇게 말했어.

“내 아들 담무스는 죽은 니므롯이 다시 태어난 모습이다!”

그리고는 자기와 아들을 신처럼 높이기 시작했고 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어머니와 아들’을 함께 신처럼 모시는 종교도 생겨났지. 이런 생각은 시간이 갈수록 여러 나라로 퍼져 나가서 이집트, 그리스, 로마, 심지어 중국과 일본에도 비슷한 모습의 종교나 전설로 남게 되었단다. 물론 지금도 이런 ‘어머니와 아들 숭배 사상’을 그대로 가진 종교도 있긴 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 20:3-5)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야 해.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우리도 성경을 보고 예수님 믿어요. 우린 한 뿌리에서 나온 같은 종교예요.”라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멀리해야 한단다.

시간이 갈수록 노아의 후손들은 여기저기에 퍼지면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시날 평야에 도착한 사람들도 있었어. 이 지역은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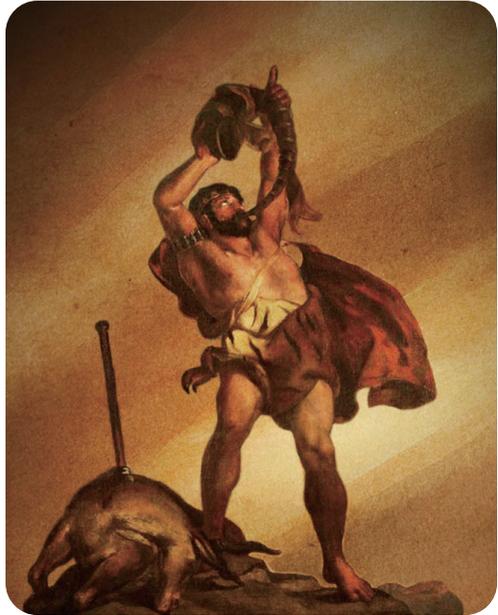


금의 바빌론 평야이고 성경에는 ‘바벨’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사람들은 평평하고 물도 풍부한 좋은 땅을 발견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 땅에 퍼져 나가며 땅을 가득 채우라.”라는 명령을 잊기 시작했어. 그때 이곳에 모여서 살자고 부추긴 사람이 바로 니므롯과 그를 따르던 무리였단다.

니므롯은 사람들을 어떻게 쉽게 설득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같은 말을 썼으니까 의견을 모으고 결정을 내리기가 쉬웠어. 게다가 니므롯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 앞장섰으니, 사람들은 쉽게 따랐던 거 같아.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창 11:4)

니므롯은 하나님 대신 사람들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퍼지는 대신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곳에 모여 살자며 설득했지.

마귀 사탄 ‘루시퍼’의 화신

“하나님 말고 우리 이름을 드높이자!”라는 나쁜 생각을 한 존재는 그전에도 있었어.

옛날 옛적에 하나님께 도전하며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했던 사탄이 바로

그 존재인데 이렇게 말하곤 했지.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사 14:13-14)

정말 비슷하지 않나?

사탄은 원래 하나님 곁에서 섬기던 천사로 그의 이름은 루시퍼였어. 루시퍼는 ‘빛을 나르는 자’라는 뜻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가지고 있었고 지혜도 뛰어나서 다른 천사들이 칭찬할 정도였단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생겼지.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져야 하지 않을까?’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지.

“와, 내가 봐도 내 모습은 정말 멋지고 대단한 거 같은데…”

하지만, 루시퍼가 가지고 있던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잖나?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주어진 건데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차자 제 것으로 착각하고 말았어.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으려는 생각들도 점점 커져 갔단다.

“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해? 왜 하나님만 찬양을 받아야 하는 거야? 나도 경배를 받아야 할 만큼 훌륭한 존재야!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루시퍼는 결국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기로 결심했고 자기를 따르던 많은 천사들, 즉 하늘의 천사들 중 3분의 1을 부추겨 그 반역에 함께하게 했어.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일이었을까? 내가 만든 공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부분은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겠니? 하물며 그 공작품이 감히 내게 대들고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없애 버려도 될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루시퍼와 그를 따르던 천사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늘에서 쫓아내셨지만 당장 심판하지는 않으셨지.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다른 영적 존재들로 하여금 루시퍼의 교만과 반역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어. 하나님께서는 잘못에 대해 벌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진리를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란다.

이렇게 하늘에서 쫓겨난 루시퍼는 이제 더 이상 ‘빛을 나르는 자’가 아니라 사탄 마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단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반역한 천사들도 이제는 마귀들, 즉 더러운 영들로 바뀌어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적하며 세상에서 온갖 악한 일을 꾸미고 있어.

사탄은 성경에서 ‘거짓의 아비’, ‘하나님의 원수’, ‘속이는 자’, ‘울부짖는 사자’, ‘어둠의 치리자’라고도 불리고 있지.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던 에덴동산의 뱀도 바로 이 사탄 마귀였어.



특히 아담이 죄를 지은 후, 하나님께서 주셨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즉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가게 되었지.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의 문화, 제도, 사상, 종교 등을 조종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유혹하고 있어.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지만,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욕심을 갖게 하고, 거짓을 믿게 해서 결국 자신과 함께 멸망하도록 하고 있지.

이런 사탄 마귀는 능력도 세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신처럼 여기며 숭배하기도 해. 그래서 세상에는 거짓 신들이 많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는 일들이 계속되는 거란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마귀에 대한 마지막 계획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 주셨기 때문이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 마귀가 다스리는 나쁜 질서와 방식은 완전히 끝나게 될 거야.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 이란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천 년 동안 평화롭게 다스리시는 동안, 사탄 마귀는 바닥없는 구렁이에 갇히게 돼. 그리고 천 년이 지난 후, 마귀와 그의 악한 무리들은 불 호수에 던져져서 끝없는 고통을 받게 된단다. 정말 끔찍한 운명이야.

바벨탑에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니므롯과 그의 사람들이 했던 일이 이 사탄 마귀의 나쁜 목적과 너무 닮아 있었고 마지막도 같을 거라고 생각되는구나.

자, 그렇다면 니므롯과 그 무리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한 번 자세히 살펴볼까?

그들은 한 도시에 함께 모여 살기로 하고 벽돌과 진흙으로 아주 튼튼한 큰



탑을 쌓기 시작했어. 그 탑의 이름은 바벨탑이었지.

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높이 올려서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들을 높이고 유명해지려고 했어.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살펴보시려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을 정도였다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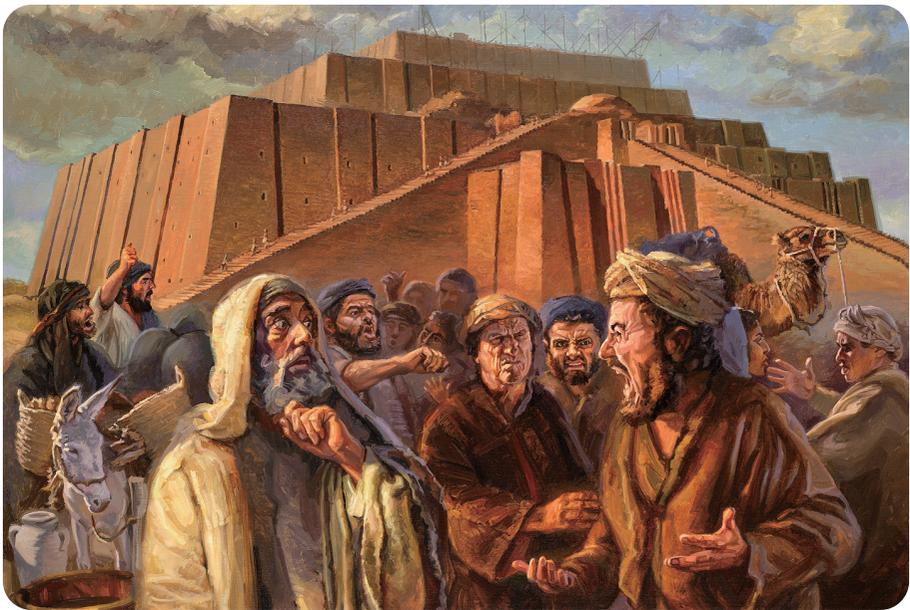
하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저들은 나를 대적하며 스스로 이름을 내는 것도 모자라 내 명령을 어기고 있으니 내가 직접 흠어 놓아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셨지.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신 거였어.

그들은 갑자기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니 함께 일할 수도 없게 되었지. 사람들은 더 이상 탑을 쌓을 수 없게 되었고 그나마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져 땅 곳곳으로 퍼져 나갈 수밖에 없었어. 이때 바로, 각기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여러 민족들이 생겨나게 되었단다.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 역사책을 보면 이집트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은 이때 이후로 시작된 거야. 우리나라의 단군신화에서도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이 시기 역시 바벨탑 사건 이후 사람들이 온 땅으로 흩어진 때와 비슷하지. 정말 신기하지 않나?

이처럼 성경은 우리 역사와 세계의 시작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책이란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생각하며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구나.

+ 요약과 교훈

-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번성해서 온 땅을 채우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벨탑을 지었어요.
- 루시퍼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며 하늘의 천사들 중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 루시퍼와 니므롯의 교만으로 지은 죄는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요.

+ 적용

-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부모님,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해요.
- 우리 마음속에 교만하거나 남을 깎아내리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겸손해지도록 해요.
-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바른길을 선택하도록 해요.





Part
9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욥

혹 시 욥이라는 이름을 들어 본 적 있니? 욥은 구약 시대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는데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섬겼던 사람 이란다. 이제 우리 함께 욥의 이야기를 만나 보자꾸나.

욥은 지금으로부터 약 4천 년 전쯤, 지금의 아라비아반도 북쪽에 있던 우스에 살고 있었어. 아브라함보다 조금 더 앞선 시대를 살았던 그는 그 당시 가장 큰 부자 중 한 사람이기도 했지.

그 시대엔 지금처럼 돈이나 땅이 아니라, 가축이 얼마나 많은지가 곧 그 사

람의 부를 나타내는 기준이었어. 욥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었고 그를 돕는 하인과 일꾼들도 셀 수 없이 많았던 어마어마한 부자였지.

누군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야?” 하고 물으면 바로 크고 유명한 회사의 회장님이 떠오르듯이, 같은 질문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물으면 “그야 당연히 욥이지!” 할 만큼 유명한 사람이었다는구나.

보통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쉬운데, 오히려 욥은 정직하고 겸손했었지.

무엇보다도 욥은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예배드렸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가족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며 살았단다.

이런 욥에게 열 명의 자녀들, 즉 일곱 아들과 세 딸이 있었어. 자녀들은 사이도 무척 좋았고, 생일이 되면 돌아가며 잔치를 열어 함께 축하하곤 했지. 그리고 욥은 잔치가 끝날 때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리며 용서를 구했다는구나.

또 욥은 이웃들에게도 정성을 다했어.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하면 기꺼이 나서서 돕고, 누군가가 조언을 구하러 오면 기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말을 해주었지. 그래서 우스에 살던 사람들은 욥을 진심으로 존경했다는구나.

의인 욥에게 닥친 엄청난 시련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살던 욥에게 큰 불행이 닥쳐왔어. 사람의 일이란 참 알 수 없다고 하잖니?

그날은 욥의 만아들 집에서 형제들이 모여 파티를 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한 종이 혈레벌떡 달려와 욥에게 엎드리며 큰 소리로 말했지.

“주인님! 들판에서 소들을 끌고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습격해서 소와 나귀들을 몽땅 빼앗아 갔어요! 같이 일하던 종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저만 겨우 도망쳐 이렇게 알려 드리게 되었어요… 흑흑.”

욥이 놀랄 틈도 없이 이번엔 또 다른 종이 황급히 뛰어와 울먹이며 말했다.

“주인님!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양들과 같이 있던 종들도 모두 타 죽었어요! 저만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종이 아직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엉엉 울며 달려왔어.

“주인님…, 엉엉. 오늘 만아드님 집에서 형제자매들이 모두 모여 식사하는 거 아시죠? 갑자기 광야에서부터 거센 돌풍이 몰아쳐서 집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집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깔려 죽고 말았어요…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엉엉.”

아무리 불행이 갑자기 한꺼번에 온다고 해도 이걸 정말 너무 무시무시한 일이었어. 하루 사이에 자녀들을 모두 잃고 전 재산도 사라져 버렸으니 그 누구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련이었지.

그때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거야. 그는 울음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아팠지.

욥은 조용히 일어나 자기 겹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모두 밀고 나서 땅에 엎드렸어. 그 당시에는 큰 슬픔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표시로 겹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밀곤 했거든.

욥은 땅에 엎드린 채,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렇게 고백했어.

“제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었으니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으니, 하나님의 이름만은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니?

우리 같으면 조금만 힘든 일을 겪어도 금세 불평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며 속상해할 텐데, 욥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단다.

하지만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이제는 몸까지 아프게 되었거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프고 가려운 종기가 온몸에 가득 나기 시작했지. 고통이 너무 심해서 욥은 깨진 기왓조각으로 피부를 긁으며 쓰라린 몸을 부여잡고 재 가운데 앉아 있었어.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충격받았지.

“저 사람이 정말 예전의 욥 맞아?”

어떤 사람들은 그를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고 심지어 못된 사람들은 욥을 향해 돌을 던지며 놀리기도 했어.

“세상은 정말 공평하군. 부자로 계속 잘 살았으니 이제 반대로도 살아 봐야 하지 않겠어? 하하하!”

게다가 가장 가까운 아내마저 욥을 비난했지.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요? 이런 꼴이 나고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으세요!”

그 말에 욥은 조용히 대답했어.

“여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을 텐데, 지금 나쁜 것도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소?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하지 말구려.”

정말 놀라운 대답이지 않니?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욥의 믿음은 이런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 그래도 큰 고통이 계속되면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게 마련이야. 욥도 그랬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할까?’

그는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더 답답하고 괴로웠거든.



세 친구의 말과 하나님의 책망

이런 욥을 위로하려고 먼 곳에 살던 세 친구가 찾아왔어. 하지만 몰라보게 달라진 욥의 모습을 본 친구들은 너무 놀라서 말을 잃고 말았지.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욥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 친구로서 진심으로 욥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거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서 마침내 욥이 탄식했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이 조심스레 조언을 시작했는데 그 말들은 오히려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

“욥,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 네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건 분명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일 거야.”

“다시 잘 생각해 봐. 하나님께서 괜히 벌을 주시겠어?”

이런 식의 말들은 결국, 욥이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뜻이



었지.

친구들은 마치 선생님처럼 욥을 가르치려고 했고 욥이 아픈 마음으로 내뱉은 말들까지 꼬투리를 잡으며 자기들 말이 맞다고 주장했어. 위로해 주려고 생각했던 친구들의 말은 오히려 욥에게 더 큰 고통이 되고 말았지.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했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욥 23:10)

욥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르게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친구들의 비난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외쳤어.

“하나님,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 전능자이신 주님, 제게 대답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회오리바람 가운데 나타나셨어.

하나님께서서는 욥이 왜 그런 고난을 겪었는지 설명해 주는 대신, 이런 질문을 하셨지.

“욥아,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정한 자리에서 하늘의 별들이 떠오르고 바다를 제자리에 든 일을 네가 알고 있느냐? 사자와 독수리에게 먹이를 주고 산양이 새끼를 낳는 때를 정해 주는 일을 네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자연과 우주의 질서, 생명과 죽음에 관한 크고 깊은 이야기들을 욥에게 들려주셨지.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욥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았고 이렇게 고백했어.

“하나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제가 직접 뵈는 것 같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간절히 바랍니다.”

욥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





잃었던 모든 재산을 두 배로 돌려주셨고 새 자녀들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욥은 다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

성경은 욥의 일화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앞면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뒷면의 이야기도 알려 주고 있어.

욥의 고난은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었거든. 사탄 마귀가 욥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나님께 허락받고 벌인 일이었지. 사탄은 욥이 고통을 당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겪으면, 그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가 된단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들 말하잖니?

세상이 악해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우리를 놀리거나 괴롭히려는 일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 이런 때일수록 우리도 읍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겨 내야 해. 읍의 믿음을 본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잘 걸어가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 **요약과 교훈**

- 읍은 많은 재산과 가족을 가진 선한 사람이었지만 갑자기 모든 것을 잃는 큰 고난을 당했어요.
-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읍은 하나님을 믿으며 겸손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 하나님께서는 읍의 인내와 겸손을 보시고, 그 후에 모든 것을 두 배로 축복해 주셨어요.

+ **적용**

- 우리도 힘든 일이 생기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해요.
- 가족이나 친구들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가져요.
-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과 계획 안에서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믿음을 기억해요.



Part
10

믿음으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던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약 4천 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2천 년쯤에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어. 그곳은 지금의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나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처럼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세 종교에서 모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지.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자 자기 나라와 지역

에 따라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며 살았어. 아브람의 가족도 마찬가지로여서 조상들이 전해 준 대로 우상을 섬기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지.

그런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창 12:1)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람을 그냥 부르신 건 아니었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뒤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해 주셨던 거 기억나니? 바로 ‘여자의 씨’, 곧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계획이었지. 그 계획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한 사람, 아브람을 선택하셨단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람에게, 그가 순종하면 훗날 그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통해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 하지만 그 약속은 아주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었지.

한번 생각해 보렴.

지금처럼 자동차도 비행기도 없던 그 시절에, 익숙하고 편안한 고향과 친척, 친구들, 아버지 집을 떠나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브람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니?

누구라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을 거 같아.

‘왜요? 어디로 가야 하죠? 거기서 뭘 해야 하죠?’

하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었어.

자신이 알지 못하는 미래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면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지.

이게 바로 믿음이란단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지.

아브람의 고난과 두려움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로 마음먹었지만, 처음부터 모든 일이 척척 풀리지는 않았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했지만, 여러 사정이 있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거든.

그는 아버지 데라를 비롯한 온 가족과 함께 고향을 떠나 하란이라는 도시에 머무르게 되었지. 그리고는 꽤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머물렀어.

다시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길을 떠났을 때는 아버지 데라가 205살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난 뒤였는데, 그때 아브람은 75살이었지. 그는 가족들과 조카 롯, 그리고 많은 가축과 종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길을 나섰어.

사막 길을 따라 수많은 가축을 이끌고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곳을 향해 긴 여정을 떠나는 일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길을 떠난 그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세겜 지역의 모레 평야였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어.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창 12:7)

아브람은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 그래서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 이처럼 아브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감사하며, 어디를 가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던단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언제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땅에는 큰 기근이 닥쳤

어. 땅이 말라 가고 곡식이 자라지 않아서 음식이 점점 부족해졌지. 결국 아브람은 더 이상 그 땅에서 머무를 수 없었고, 먹을 것이 많은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기로 했어.

하지만 이집트로 향하면서도 걱정이 있었는데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이야. 혹시 이집트 사람들이 아브람을 해치고 아내를 빼앗으려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

그래서 아브람은 사래에게 이렇게 말했어.

“여보, 당신에게 부탁이 있소. 우리가 이집트에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당신을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 주시오.”

그 말은 아브람이 자신과 사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부탁이었지. 그 당시에는 왕이 마음에 드는 여인을 빼앗는 일이 흔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했어.

그리고 아브람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어. 사래의 아름다움이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서 금세 소문이 나고, 마침내 이집트 왕 파라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야.

파라오는 사래를 자기 궁전으로 불러들여 아내로 삼으려고 했지.

이때 아브람과 사래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하셨지.

파라오와 그 집안에 이상한 질병이 생겨난 거야. 파라오는 이 모든 재앙이 사래 때문에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브람을 불러서 화를 냈어.

“아니, 어째서 너는 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느냐



냐? 내가 자칫 잘못했으면 큰 죄를 지을 뻔하지 않았느냐! 당장 네 아내를 데리고 여기를 떠나라!”

파라오는 그전에 선물로 줬던 많은 가축들과 종들을 데리고 함께 떠나게 해주었고, 아브람과 사래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람의 믿음

어느덧 아브람은 많은 가축과 풍부한 재물을 가진 큰 부자가 되어 있었어. 그는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았던 곳인 벵엘과 아이 사이의 땅에서 지냈지.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람뿐만 아니라 조카 롯의 가축도 점점 많아졌고 그만큼 풀밭과 물도 많이 필요해졌어. 그래서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좋은 땅을 차지하려는 다툼이 종종 일어나기 시작했지. 게다가 그들 주변에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면 그들에게 틈을 주게 되어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람은 조카 롯과 평화롭게 헤어지기로 결심했지.

“롯아, 우리는 가족이니 내 목자들과 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게 하자.”

그리고 가족의 어른인 아브람이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아브람은 롯에게 양보했지.

“롯아, 여기 펼쳐진 땅을 보아라. 네가 먼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롯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근처의 땅을 마음에 들어 했어. 그곳은 물이 풍부하고 푸른 풀도 풍성해 보여서 마치 에덴동산이나 이집트 땅처럼 좋아 보였거든.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사악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곳이었어.

이렇게 롯은 오른쪽으로 옮겨 갔고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지.

그렇게 조카와 떨어져서 적적하게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다시 나타나셨어.

“아브람아,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네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고, 네 후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당장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미래에 더 크고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였어.

아브람과 롯이 갈라서고 나서 얼마의 날들이 흐른 후, 아브람에게 다급한 소식이 들렸어. 조카 롯이 살던 소돔 근처 나라들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였지.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서 이긴 연합국 왕들 중 하나인 그돌라오멜이 소돔에 있던 재물들을 강제로 빼앗으면서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재산까지 덩달아 사로잡아 가 버렸다는 거였어.

아브람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훈련된 318명의 종들을 무장시키고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뒤쫓았지. 그리고는 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되찾아 왔어. 아브람은 이렇게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라면 위험도 무릅쓰지 않았단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적의 물건을 전리품으로 챙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 그래서 소돔 왕이 전리품을 가져가라고 말했을 때, 아브람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중히 거절했어. 아브람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멋진 사람이었던단다.

이 일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

나는 네 방패요,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창 15:1)

아브람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직접 막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이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며 아브람을 격려해 주셨지.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던 아브람이 대답했어.



“하나님, 제게는 자식이 없으니 저희 집안의 청지기인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입니다.”

“아브람아, 오직 네가 낳을 자식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의 별들을 보여 주셨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거라. 그리고 네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 보아라. 네 후손들은 저 별들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할 것이니라.”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아브람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며 (창 15:6)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점이야. 이 진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곧 바르고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야.

“하나님, 저는 제 능력이나 착한 행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

니다!” 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란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놀라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어. 피부색이 다르고 나라나 문화가 달라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아브람의 자손, 곧 믿음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지. 참 멋진 이야기지 않니?

+ **요약과 교훈**

-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두려움 없이 믿고 순종했어요.
-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후에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 아브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고 그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 **적용**

- 우리도 아브람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믿고 따르도록 해요.
- 새로운 환경이나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기를 내도록 해요.
-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해요..





Part
11

민족들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하 나님께서 아브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던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아주 특별한 약속을 맺으셨어.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지. 언약이 뭐냐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절대로 지키겠다고 하신 약속’이야. 이 약속을 확실하게 보여 주시기 위해 언약식이라는 특별한 의식을 했지.

그 당시 가나안 지방에는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짐승을 둘로 쪼개어 놓고, 약속한 사람들이 그 사이를 함께 걸어가는 풍습이 있었어. 이게 무슨 의

미나면, “이 약속을 어긴 사람은 쪼개진 짐승처럼 죽게 될 겁니다!”라는 각오를 담은 행동이었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 언약식을 하실 때 놀라운 점이 있었어.

아브람은 언약식이 시작되기 직전에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타오르는 횃불의 모습으로 홀로 그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셨어. 원래대로라면 약속한 사람들이 함께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혼자서만 그 길을 걸으신 거였지.

이상하지 않니? 어떻게 된 일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다름없는 언약식이었어.

“아브람아, 네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나는 반드시 내가 한 말을 지킬 것이니라.”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니!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람의 후손들이 이집트 땅처럼 다른 나라로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되지만 네 번째 세대가 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라는 약속도 함께 주셨어.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이었지.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의 탄생

어느덧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서 지낸 지 십 년이 지났고, 나이는 85살이 되었어. 여전히 아들은 없었고 아내 사래는 점점 더 초조해졌지.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는 여인을 불쌍하게 생각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보기도 했거든.

사래는 기다림에 지쳐서 결국 한 가지 꾀를 내었어.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내 하녀가 대신 낳도록 해야겠어...’

그래서 사래는 하갈을 남편 아브람에게 들여보내, 하갈이 자기 대신 아이를 낳도록 했지. 그 당시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아니었어.



이렇게 해서 하갈은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사래를 알아보며 무시하기 시작했지. 사래는 너무도 자존심이 상했고, 모욕을 당했다고 느낀 탓에 오히려 아브람에게 화를 냈어.

“내가 아들을 얻기 위해 하갈을 당신에게 보냈더니 이제는 저 여자가 날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이를 판단해 주세요!”

이 말을 들은 아브람은 고민 끝에 대답했지.

“여보, 하갈은 당신의 하녀이니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시구려.”

이후부터 사래는 자신을 무시한 하갈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결국 하갈은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와 버렸어. 하녀였던 하갈이 마땅히 갈 곳 없이 주인집에서 도망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야.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 물 샘 곁에 지쳐 앉은 하갈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외롭고 두려웠지.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나 다정하게 물었어.

“사래의 하녀 하갈아, 네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저는 제 주인 사래를 피해 도망쳤어요.”

하갈이 솔직히 대답하자 천사는 하갈에게 사래에게 돌아가 순종하라고 했지. 천사가 한 말에는, 그 당시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야. 천사는 하갈에게 희망을 담은 약속도 전해 주었어.

“하나님께서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어서 아들의 이름을 알려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도 전해 주었지.

보라, 네가 아이를 가졌으므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주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창 16:11)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였고, 하갈은 정말 감격했어.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하찮게 여겨졌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고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뵈 수 있었다나…”

그리고 하갈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아브람과 사래의 집으로 돌아갔고, 아브람이 86살이 되었을 때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어.

하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아들은 아니었고, 사래와 아브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자기들 생각으로 만든 자녀였지.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미래에 많은 갈등과 아픔이 생기게 되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랍 민족으로 변성했어.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듯이, 이 두 민족은 지금까지도 종종 전쟁을 벌이며 적대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

시간은 흘러 아브람이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창 17:1)

그때 아브람은 지난날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었던 일이 떠올라 부끄러웠을지도 몰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과 약속을 주셨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셨어.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지만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 즉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의 나라들이 이 땅 때문에 다투고 있잖니? 그렇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른 후손, 곧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이란다.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을 전 세계에 알리도록 특별한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약속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어. 이걸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도 해야 하는 의식이었지. 할례는 남자의 몸에서 포피라 불리는 부분의 살을 베어 내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이 표시를 몸에 지닌 약속의 민족이 되었던 거지. 또 그의 아내 사래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어 주셨어. 그 뜻은 ‘공주’, ‘여왕’이란 뜻이야.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바꿔 주신 건 놀라운 일이었는 데, 이렇게 주신 이름에는 그 사람의 삶과 미래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어.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어. 이듬해가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를 통해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이었지.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속으로 슬쩍 웃음이 나왔어. 자기 나이는 벌써 100살이나 되었고, 사라도 90살이 되었으니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싶었거든.

“이스마엘이 주님 앞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

“이스마엘도 네 아들이니 그를 복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나 나와서 약속을 이어 갈 네 아들은 내년엔 사라가 낳을 아들이니라.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라 하거라.”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란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웃었던 일이 이름에 담긴 거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어느 날, 아브라함이 마므레 평야에서 장막을 치고 쉬고 있을 때였어. 그는 무더운 날씨에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지.

그때 멀리서 세 사람이 아브라함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

그 당시에는 들판에서 낫선 나그네를 만나는 일이 흔하지 않아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 문화였지.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 가까이 오자 얼른 일어나 반갑게 맞이했어.

“그들에서 잠시 쉬어 가세요. 발을 씻을 물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내 사라에게 밀가루로 빵을 굽게 하고 종들에게 연한 송아지를 잡아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라고 했지. 아브라함은 정성껏 대접한 음식을 나무 그늘 아래에 차렸고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식사를 했어.



아브라함은 그 곁에서 조용히 시중을 들며 그들을 공손히 대접했지.

이제 세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소돔 쪽으로 떠나려고 했어.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걸음을 옮겼지.

내가 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오? (창 18:17)

사실, 그 나그네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었고 다른 두 명은 천사였던 거야. 성경에서는 그분을 ‘주’라고 알려 주고 있지. 그분께서는 신실한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비밀을 알려 주기로 하셨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심판이었던단다.

그 도시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심각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살펴보고 하신 거야. 마치 대통령이 큰 사고가 난 지역에 직접 찾아가 상황을



살펴보듯이 말이야.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곧바로 그곳에 사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떠올랐어. 롯도 그곳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까 봐 아브라함은 걱정되었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서 간절히 호소했단다.

“주님, 혹시 그 도시 안에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악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들도 함께 죽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혹시 그 도시 안에 의인이 50명이라도 있으면, 그들을 봐서 그 도시 전체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똑같이 다루신다면 그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

“내가 그 도시에서 의로운 사람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봐서 그 도시 전체를 용서하겠느니라.”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직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

‘과연 소돔에 그렇게 많은 의인이 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심스럽게 다시 여쭙었지.

“혹시 45명이라면요?”

“좋다. 45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럼 40명은요?”

“그래, 40명이라도 내가 용서하리라.”

“혹시 30명이라면요?”

“30명이라도 용서하리라.”

“주님, 20명이라면요?”

“20명이라도 용서하리라.”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간절히 부탁했어.

“주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그 도시 안에 10명의 의

인이라도 있다면, 그 10명을 봐서 도시 전체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

“좋다. 10명의 의인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 도시 전체를 용서하리라.”

애들아,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란다. 기도는 그저 “해 주세요!” 하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기다리는 게 진짜 기도야.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도 꼭 알아야 한단다.

+ 요약과 교훈

-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기뻐하셔서 그 믿음을 언약으로 확증해 주셨어요.
-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갈이 겪었던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과 소망을 주시려고 하세요.
-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자 그분께서는 모든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 적용

-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따르도록 노력해요.
- 힘든 일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바른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요.
- 가족이나 친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겪고 있는 일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요.





Part
12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 탈출한 롯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 곧 두 천사가 소돔 땅의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 직접 살펴보기 위해 그날 저녁 무렵 소돔 성문에 도착했다. 마침 그때 롯이 성문 근처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처럼 보이는 두 남자가 성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롯은 그들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인사하고 정중히 자기 집으로 모셔 가고 싶다고 말했다.

“나그네이신 거 같은데, 저희 집에서 쉬고 가시면 어떠신지요?”

롯은 소돔에서 오래 살면서 이 도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었지.

혹시라도 이 낯선 사람들이 밤중에 해코지당하게 될까 봐 마음이 몹시 불안했어.

“괜찮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을 거리에서 지낼 생각입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한 룯은 그들에게 다시 말했다.

“밖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도 하세요. 내일 가서도 늦지 않을 겁니다.”

룯의 간곡한 말에 마침내 두 사람은 그의 집으로 들어갔고, 룯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대접했지.

룯의 집에 모인 악한 자들

그날 밤,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집 밖에서 웅성웅성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사람들이 대문을 쿵쿵 두드리며 큰 소리로 외쳤어.

“이봐, 룯! 잠깐 나와 봐!”

룯이 깜짝 놀라 문 앞에 나가 보니, 세상에!

소돔에 사는 남자들이 모두 모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룯의 집을 에워싸고 있었지. 나이 많은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한데 몰려들어 아주 무섭고 위협적인 분위기였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으박지르듯 말했다.

“오늘 밤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낯선 남자들, 우리가 다 봤어!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좀 알아봐야겠어!”

룯은 너무 놀라고 당황했지만, 그들을 막아서면서 조용히 부탁했어.

“여러분, 제발 그런 나쁜 일은 하지 말아 주세요. 저희 집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 손님들입니다. 절대로 해코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다음에 룯이 한 말은 정말 힘들게 꺼낸 얘기였어.

“정 그러시다면 제 두 딸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





십시오. 하지만 제 손님들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소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화를 냈지.

“어쭙, 이거 봐라! 밖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사 온 주제에 우리 도시에서 재판관 노릇까지 하겠다는 거냐? 먼저 너부터 좀 혼나 봐야겠구나!”

그들은 롯을 마구 밀치며 금방이라도 집 문을 부숴버릴 기세로 소동을 부렸어.

이때 집 안에 있던 두 천사가 재빨리 롯을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문을 닫은 다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지. 그들은 더 이상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엉금엉금 더듬거리며 문을 찾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천사들은 이 소동만으로도 소돔이 얼마나 악하고 끔찍한 곳인지 알 수 있었지. 더 이상 이곳을 살필 필요조차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거야.

도시를 떠나라고 재촉하는 주의 천사들

천사들은 롯에게 이렇게 말했어.

“이 도시에 네 가족이 더 있다면 어서 알려라. 하나님의 심판이 곧 시작될 것

이니 모두 이 성을 떠나야 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롯은 다급하게 움직였어. 그는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을 찾아갔지.

“어서 일어나라! 이 성은 곧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야.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는구나!”

하지만 사위들은 그 말을 듣고는 비웃었어.

“장인어른, 무슨 말씀이세요? 마른하늘에 무슨 날벼락이라도 떨어진답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성이 멸망한다고요? 농담도 심하십니다!”

그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믿으려 하지 않았지. 롯은 속이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지.

천사들은 날이 밝자마자 롯에게 떠나라고 했어.

“서둘러야 하느니라!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지금 당장 이 성을 떠나거라!”

하지만 롯은 갑자기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지고 이것저것 생각하며 망설이게 되었지. 그러자 천사들이 그와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아 급히 성 밖으로 이끌었어. 하나님께서 롯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직접 도와주도록 했던 거지.

그리고 천사들은 단단히 당부했어.

“롯, 잘 들어라. 너희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해. 가는 중간에 멈추지도 말고 곧장 산으로 도망쳐라. 그래야 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니라!”

그 말을 들은 롯은 너무 무섭고 다리가 후들거려 천사에게 이렇게 부탁했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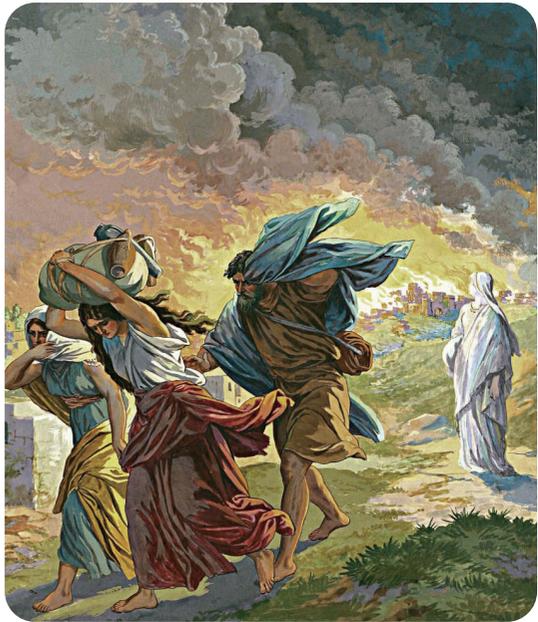
“하나님께서 저에게 살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산까지 도망갈 힘이 없을 거 같아요. 저기 작은 성, 소알로 피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서는 롯의 그 말도 들어주셨어.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이 소알 성



에 도착해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심판을 시작하지 않으셨지.

그들이 숨을 헐떡이며 소알성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 같은 불빛이 번쩍이며 유황이 섞인 뜨거운 불덩이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 위에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다. 땅이 흔들리고 성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불에 타버리는 정말 두렵고 끔찍한 모습이었지.



롯과 두 딸은 천사의 말을 기억하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롯의 아내는 도망치던 중에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 소돔에서 살던 집과 물건들이 아쉬워서였는지,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순간 그대로 소금 기둥으로 변해 버렸단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니? 성경에는 이 무서운 날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들과 땅 위에서 자라난 것을 얹어 멸하셨더라. (창 19:25)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흔적은 오늘날에도 남아 있단다. 유튜브 같은 영상 사이트에 ‘소돔, 고모라’라고 검색해 보면, 옛날 그 지역으로 보이는 곳에서 유황이 섞인 재와 타다 남은 도시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어. 탐험가들이 그곳의 흙을 만져 보았더니, 놀랍게도 마치 오랫동안 불에

탄 것처럼 느껴졌다고 해.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신 적이 있어.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다시 노아나 롯이 살던 시대처럼 될 거라고 하셨거든.

노아의 날들에 상황이 어떠했던 것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같이 쏟아져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바로 그와 같으리라. (눅 17:26-30)

노아의 시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람들의 생각이 하루 종일 악한 것으로 가득하고, 서로 미워하며 폭력이 넘쳐나는 세상이었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슬픈 세상이었던 거야.

롯의 시대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 특히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의 동성애가 너무 많이 퍼져 있었지.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 않는 사람들

할머니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알려지는 걸 부끄러워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동성애자예요.” 하고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거리에서 축제 행진을 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멋있다!” 하며 응원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롯의 때와 정말 비슷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은 분이시지만 동시에 죄는 그냥 지나치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건지 바르게 배워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

또 나중에 너희가 커서 시장이나 대통령, 국회 의원을 뽑게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을 택하는 지혜로운 어른이 되어야 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고 믿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모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일은 언젠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일 너희가 한 아파트에서 가장 먼저 불이 난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니?

“불이야!” 하고 옆집 문을 쿵쿵 두드리며 사람들을 깨우고 도와주지 않겠니?

혹시 그때가 캄캄한 새벽이라 해도, 그건 따질 겨를이 없이 모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가까이 왔음을 알려 주고 있어.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농담처럼 여기고 믿지 않으려고 하지. 마치 룯의 사위들이 룯의 말을 듣고 비웃었던 것처럼 말이야.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알려 줘야 해.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이행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벧후 3:9)

우리는 이 세상이 나쁘게 흘러가는 대로 같이 휩쓸리지 말고,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구나.

+ 요약과 교훈

- 소돔에 온 두 천사는 롯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그날 밤 소돔 사람들은 나쁜 목적으로 소란을 피우며 롯에게 손님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시를 떠나게 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하늘에서 내린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날들에 우리 사회의 모습이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비슷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 적용

- 주변에서 나쁜 행동이나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을 보면 휩쓸리지 말고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요.
- 동성애 등 우리가 듣는 사회의 여러 변화들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고 어떤 게 바른길인지 생각해 봐요.
-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열심히 배워서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나누며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도록 해요.





Part
13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딱 100살이 되었을 때였어.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렸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들이 태어났어. 그의 이름 이삭이었지.

사실 그보다 14년 전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었지.

“당신과 나 사이에 여전히 아이가 없으니 내 여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은 오직 이삭을 통해 이루어졌단다.

요즘도 아랍 사람들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큰아들이니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진짜 후계자라고 말하곤 하지만, 그건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단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 곧 외아들이었던 거야. 바울도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났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갈 4:22-23)

그런데 혈통이나 족보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나 아랍인들의 생각은 구원에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단다. 선택받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인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느냐 아니냐가 중요하거든.

우리도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이 아니잖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는 진정한 구원자라고 믿으면, 그 믿음만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요 1:12-13)



순종한 아브라함과 이삭

자, 이삭이 태어난 때로 다시 돌아가 볼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행복했겠나?

특히 전혀 임신이 되지 않을 걸로 생각했던 사라는 너무 기뻐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웃음을 주셨어. 나를 보는 사람마다 다 함께 기쁘게 웃게 될 거야. 내가 젖을 먹일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아들을 낳게 되다니!”

정말이지, 하나님을 믿고 오래 기다린 끝에 얻은 이삭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다. 이삭은 무럭무럭 자라났고,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평안한 날들이 이어졌지.

그런 평안함을 누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

이제 너는 네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 줄 산들 중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창 22:2)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니? 순간 귀를 의심했을지도 모르겠구나.

‘아니, 살아 있는 아들을 번제 헌물로? 양이나 소처럼 잡아 불에 태워 드리는 헌물로 바치라니...?’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왜요?” 하며 따지지도 않았고, “제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고 불평하지도 않았어. 그저 조용히 하나님께 순종했지.

그 이튿날, 아브라함은 평소보다 훨씬 더 이른 새벽에 일어났어.

이삭과 두 명의 종을 데리고 함께 길 떠날 준비를 하며 나귀에 짐을 실었지.

그 길은 사흘이나 걸리는 먼 여행길이었고 가는 동안 장작도 채기고 음식도 준비해야 해서 꽤 분주했어. 사라는 아브라함이 왜 이토록 갑자기 먼 길

을 떠나려 하는지 이상하게 여겼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저 묵묵히 길을 나섰지.

하루 이틀, 그리고 셋째 날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단다.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말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나와 이삭은 저기까지 가서 경배하고 다시 돌아 오겠느니라.”

그렇게 말한 아브라함은 이삭의 등에 번제에 쓸 나무를 지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산을 향해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이삭이 물었지.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나요?”

아브라함은 조용히 대답했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번제 헌물을 직접 예비하실 거란다.”

그 말을 들은 이삭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갔지.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돌을 모아 제단을 쌓고 장작을 올려놓았어.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이삭을 묶어 그 위에 눕혔지. 이삭은 당황하고 무서웠을 텐데도 끝까지 순종했단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렴. 이삭은 분명 열다섯에서 열일곱 살쯤 되는 청년이었을 거야. 그 나이면 힘도 세서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건 놀라운 일이지.

그건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담긴 순종이었어.

아브라함이 떨리는 손으로 칼을 들었어.

이삭을 향해 내리치려는 그 순간!

하늘에서 급하고도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단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천사의 음성이었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



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곧 네 유일한 아들을 내게 바치기를 마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창 22:11-12)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수풀 속에서 한 마리 숫양이 뿔이 덩불에 걸려 꼼짝 못 한 채 있는 게 보였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번제 헌물이었지. 아브라함은 그 숫양을 잡아서 아들 대신 헌물로 하나님께 드렸어. 얼마나 안심되고 감사했는지 몰라.

그래서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 일을 기억하며 이런 말을 하게 되었어.

“여호와이레!”

그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지.

이 이야기를 들어 보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끝까지 믿었고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을 그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하셨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히브리서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했던 건 설령 이삭

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고 있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전부터 살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그 당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낯선 땅에서 방랑자처럼 지냈던 것도, 더 좋은 본향,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도시, 즉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지.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믿고 있잖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땅에 오실 그날, 우리도 모두 휴거되거나 부활하여 그분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잖니.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란다.

메시아 약속을 미리 보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그림’처럼 보여 주고자 하셨는데, 이런 걸 가리켜서 ‘예표’라고 해.

그럼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 주고자 하신 건 무엇이였을까?

바로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 2천 년 후,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아주 중요한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보여 주신 거였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아 억울하게 죽은 젊은 선생’ 정도로 여길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의 중심이었단다.

처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기억나니?

바로 ‘여자의 씨’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라고 하신 말씀 말이야. 그 여자의 씨는 바로 예수님이시지.



아담과 이브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은 짐승처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죽으셨던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냥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살



리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의 사건이었다.

바로 이 점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사건을 미리 보여 주신 장면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던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치려 했던 그 순간은 그에게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야. 이삭도 아버지의 손에 묶여 제단 위에 올라가면서도 반항하지 않고 조용히 순종했지.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사건을 미리 보여 주는 그림자와도 같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지. 그 고통의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끝까지 사랑으로 감당하셨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죽음 이후에도 다시 살아날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을 기대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엄청난 희생 덕분이란다.

그러니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릴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자꾸나.

+ 요약과 교훈

-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은 나이였음에도 아들이사를 얻었어요.
-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혈통이나 능력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 주셨어요.
-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사를 제물로 바치려 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보여 주는 예표예요.

+ 적용

-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거나 불가능해 보일 때,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해요.
-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요.
- 매일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도록 해요.





Part
14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챈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 당시로도 꽤 늦은 편인 40살에 결혼하게 되었다. 왜 그렇게 늦었을까? 그 당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거든.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룰 마땅한 여인이 없었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직한 종을 아주 먼 곳인 하란 땅으로 보냈어. 그곳은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삭에게 적합한 아내를 찾으려고 했던 거지.

그 좋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길을 떠나 그 지역의 우물곶에 도착한 후,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이 우물에 물 길으러 온 처녀가 저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제 낙타 들에게도 물을 준다면,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이삭의 신부인 줄 알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인 리브가가 나타났어. 그리고 종이 기도했던 그대로 그녀가 물을 주는 게 아니겠니! 그녀는 아름답고 성품이 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참 좋은 처녀였지.

리브가의 집으로 함께 간 좋은 그녀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브두엘에게 그 간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종의 말을 들은 그들이 말했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가 반대할 수 없습니다. 리브가는 당신과 함께 가도 좋습니다.”

그다음 날, 종과 리브가는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이삭의 집을 향해 길을 떠났어.

이삭은 리브가와 만나자마자 바로 결혼했다.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 형제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하고도 오랫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자, 이삭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를 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임신하도록 해 주셨지만, 뱃속이 너무 불편하고 괴로웠던 그녀는 다시 하나님께 여쭙며 기도했어.

“도대체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지.

두 민족이 네 태 속에 있도다. 두 종류의 백성이 네 배 속에서부터 갈라지되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창 25:23)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어. 하나님께서는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동생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리브가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두었지.

이윽고 아기들을 낳을 때가 되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온몸이 불그스레하고 잔털이 많아서 ‘털이 많다’라는 뜻의 에서라고 이름 지었어. 그다음에 나온 아이는 형의 발꿈치를 꼭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지.

이 쌍둥이는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 만에 태어난 아이들이었고 이삭이 60살이 되었을 때였어.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귀한 아들이 둘이었으니 부모가 얼마나 기뻐했겠니?

이 둘은 같은 엄마 배에서 나왔지만, 자랄수록 성격은 너무나 달랐지.

형 에서는 아주 활동적이고 용감한 성격이어서 들판을 뛰어다니며 사냥을 즐기는 들사람처럼 살았지. 반면 야곱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어서 집에 머물며 엄마 곁에서 잔일을 돕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어.

아버지 이삭은 사내다움이 넘치고 사냥 실력도 뛰어난 에서를 더 좋아했지. 에서가 사냥해 온 짐승으로 만든 요리를 즐겨 먹기도 했어.

하지만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아꼈지. 항상 곁에서 도와주는 아들이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

배고픔을 참지 못한 에서의 경솔함

어느 날, 에서는 여느 때처럼 활을 들고 들판으로 나가 하루 종일 사냥을 했는데, 땀별에서 오랜 시간 있다 보니 몸은 지치고 배는 고파서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지.

그때 마침, 집에 있던 야곱이 부엌에서 맛있는 볶은 죽을 끓이고 있었어. 죽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 나가자, 배고픈 에서의 코끝에 딱 걸려 버렸지.

에서는 숨을 헐떡이며 야곱에게 부탁했어.

“야곱아, 그 볏은 죽 한 그릇만 줘. 배고파 쓰러지겠어.”

야곱은 어릴 때부터 엄마 리브가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 같아. 그래서 야곱은 이 기회를 그냥 넘기지 않으려고 순순히 죽을 퍼주지 않았지.

“형, 그 죽이 그렇게 먹고 싶으면 형의 장자권, 나한테 넘겨. 그러면 이 볏은 죽을 줄게.”

이 볏은 죽 때문에, 나중에 에서는 에돔이라고 불리게 돼.

장자권은 가정의 첫째 아들이 받는 특별한 권리로, 아버지의 유산을 두 배로 받고 가문의 대표가 되는 자리를 말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전해지는 신성한 약속이 담긴 것이기도 하지.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에서는 배가 고프나 나머지 이렇게 말해 버렸어.

“야, 나 지금 당장 쓰러지기 직전인데,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냐? 그냥 죽이 나 줘!”

야곱은 더욱 단단히 약속받고 싶어서 말했단다.

“그럼 형,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 장자권을 나한테 판다고.”



“그래, 그래. 맹세한다. 얼른 죽이나 들킵 쥐!”

그리고는 그 한 그릇의 죽을 게 눈 감추듯 허겁지겁 먹었다.

성경에는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이같이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 (창 25:34)

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가볍게 여긴 잘못을 했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배고픔만 해결하려고 정말 중요한 것을 내버린 셈이거든.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곤 해.

“복음이요? 지금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든데 그 무슨 뜯구름 같은 소리 인가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이런 말은 마치, 배고프다며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의 말처럼 들리는구나.

한편, 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의 여인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아내로 삼았다. 이 일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고자 했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거리였어.

야곱에게 간 이삭의 축복

시간이 흘러 이삭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거동도 불편해졌을 때였어.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다고 느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조용히 불렀지.

“에서야,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네가 들로 나가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주려무나. 내가 맛있게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해 주고 싶구나.”

에서는 바로 활을 챙겨 들고 사냥하러 들판으로 나갔지.

그런데 말이야, 이삭과 에서가 이야기하던 걸 누가 들었는지 아니?

바로 리브가였단다.

장막 밖에서 몰래 엿듣고 있었던 거야. 리브가는 가뜩이나 예전부터 야곱을 아꼈는데,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뒤로는 더더욱 야곱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어.

에서가 사냥하러 떠나자마자, 리브가는 야곱을 급히 불러 이렇게 말했지.

“야곱아, 어서 염소 새끼 두 마리를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요리를 만들어 줄게. 그걸 네가 아버지께 드리고, 에서 대신 축복을 받도록 해!”

야곱은 깜짝 놀랐어.

“어머니, 만약 아버지가 제 손을 만지신다면 어떻게 해요? 저는 매끈하지만 형은 온몸에 털이 많잖아요. 들키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리브가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어.

“애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넌 시키는 대로만 하렴. 내가 네 손과 목에 염소가죽을 붙여 줄게. 그리고 형이 맡긴 그 겹옷을 입고 아버지께 가거라. 시간 없어, 얼른 들어가거라!”

야곱은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삭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최대한 목소리를 굵게 흉내 내며 이렇게 말했지.

“아버지, 저 에서예요. 사냥해 온 고기를 요리해 왔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삭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어쩐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며 야곱을 가까이 불러 손을 만져 보았지. 목소리는 분명 야곱 같았지만, 손에는 염소가죽이 붙어 있어서 털이 느껴졌어.





“음…,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이삭은 야곱이 가져온 요리를 맛있게 먹기는 했지만, 아직도 긴가민가해서 야곱을 가까이로 다시 불렀어. 그리고 에서의 겹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으며 의심을 멈췄지.

이삭은 마음을 다해 아들을 축복했는데, 사실 그 축복은 원래 장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큰 축복이었지.

야곱이 이렇게 형을 흉내 내어 아버지를 속인 건 잘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뜻 안에 있었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도 사용하셔서 결국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거든.

야곱이 서둘러 아버지 이삭의 장막을 빠져나간 바로 그 뒤에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의기양양하게 장막 안으로 들어왔어. 에서는 자신이 잡은 고기로 만든 요리를 손에 들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저예요, 에서예요! 방금 사냥해 온 고기 요리를 가져왔어요. 드시

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삭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지.

“뭐라고? 내가 에서라고? 그러면 아까 내게 요리를 가져와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란 말이나? 내가 이미 그에게 모든 복을 다 주었던 말이다. 그가 모든 복을 차지하게 되었구나!”

그제야 이삭은 아까 들었던 그 이상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이삭이었다는 걸 깨달았지. 그리고는 한숨을 깊이 내쉬었어.

“야곱이 피를 내어 네 복을 빼앗아 갔구나!”

이 말을 들은 에서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사무쳐 소리 내어 울부짖었어.

“아버지! 그 녀석이 두 번이나 저를 속였어요! 장자권을 빼앗아 가더니, 이번엔 제 축복마저 다 가져가다니요! 아버지, 저한테는 남은 축복이 하나도 없나요? 저를 위한 축복은요?”

하지만 이삭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힘없이 대답했어.

“내가 야곱을 너보다 높이 세우고 모든 형제들을 야곱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즙으로 야곱을 떠받쳐 주었으니 이제 어떻게 한단 말이나… 내 아들 에서야, 이제 내가 네게 무엇을 줄 수 있겠니?”

이삭은 정말로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줘 버렸기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없었어.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분노

에서는 큰 소리로 통곡했지.

그날 이후로 이삭의 집안에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불안한 공기가 맴돌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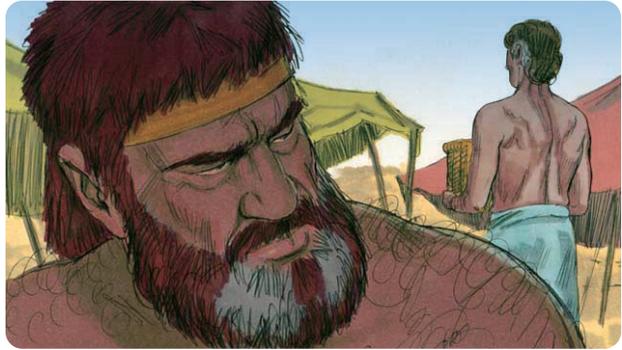
에서는 속으로 분노를 키워 가며 이런 말까지 했거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 봐. 그때 내가 야곱을 반드시 죽일 거야!”



이 말을 들은 리브가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지.

사랑하는 아들들 중 한 명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두려워서 리브가는 야곱을 다급히 불러 말했어.



“얘야, 형이 널 죽일 생각까지 하고 있구나. 형의 화가 사그라질 때까지, 당분간 내 고향 하란으로 가거라. 거기에 사는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 있어야.”

그리고 리브가는 이삭에게 슬그머니 이렇게 말했어.

“여보, 저는 에서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야곱마저 이 땅의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면 저는 정말 살아갈 낙이 없을 거 같아요. 그러니 야곱을 하란 땅으로 보내 친족 중에서 아내를 얻게 해 주세요.”

이 말을 들은 이삭도 야곱을 불러 축복하며 당부했지.

“야곱아, 너는 가나안 땅의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거라. 밧단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의 딸들 중 한 여인과 결혼하거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셔서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마.”

그렇게 해서 야곱은 사랑하는 부모님과 정든 집을 떠나, 머나먼 하란 땅을 향해 홀로 길을 떠나게 되었어.

지금처럼 기차나 비행기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하룻밤 묵을 호텔이나 안전한 길도 없던 때였으니, 혼자 낯선 땅을 향해 떠나는 야곱은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눈물로 작별하고 아버지 이삭의 마지막 당부를 마음에 새긴 채, 자신의 미래가 걸린 모험 같은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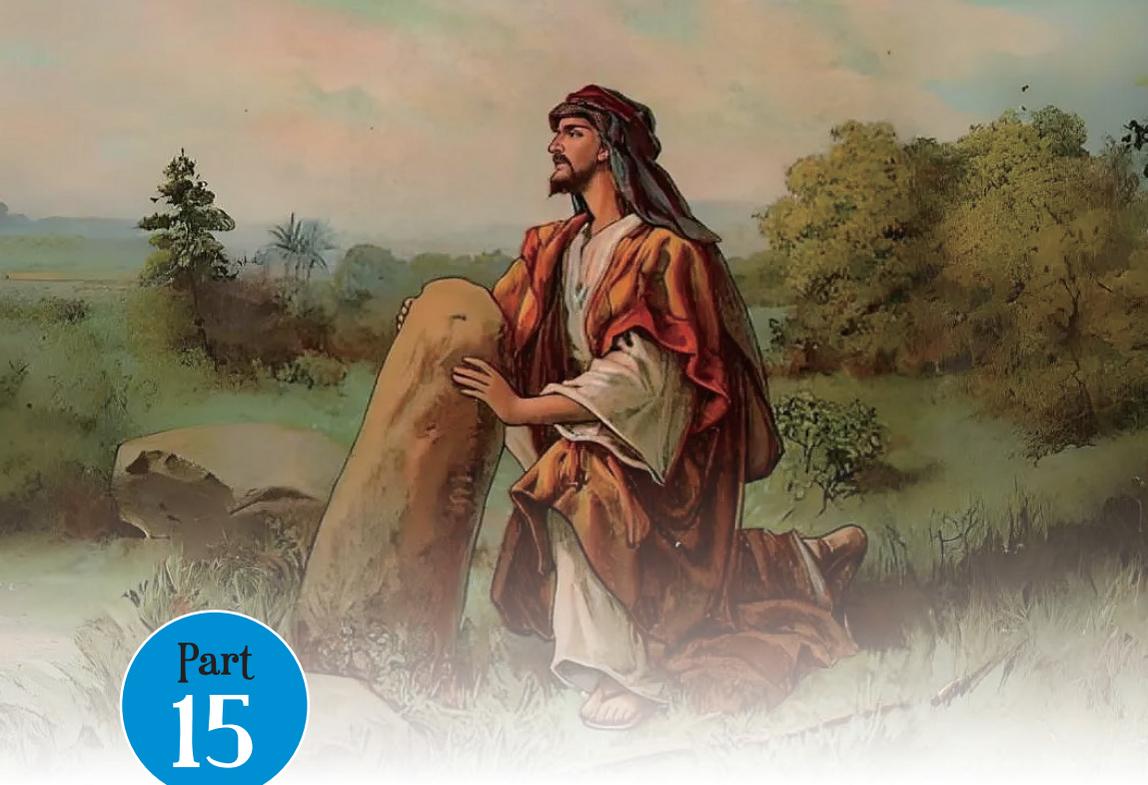
+ 요약과 교훈

- 에서는 배고픔 때문에 중요한 장자권을 붉은 죽과 바꿀 정도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 축복을 가로챘지만, 그로 인해 형과 큰 갈등이 생겼어요.
- 야곱은 정든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 적용

- 우리도 작은 욕심이나 순간의 만족 때문에 중요한 약속이나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요.
- 가족이나 친구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고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쓰지 않도록 정직하게 행동해요.
- 어려운 상황이나 결정할 일이 있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며 기도해요.





Part
15

벧엘에서 하나님께 맹세한 야곱

야 곱은 부모님과 함께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 아주 멀리 있던 하란을 향해 떠났단다. 그 먼 길을 혼자 걸어서 간다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지.

어느 날 저녁, 해가 누엣누엣 지고 있을 무렵, 야곱은 마땅히 머물 곳을 찾지 못해 들판 한가운데에서 밤을 보내야 했어. 맨땅에 자리를 펴고, 주변에 있던 편평한 돌 하나를 베개 삼아 누웠지. 추운 바람, 까만 하늘, 아무도 없는 외로운 들판….

야곱은 고단한 몸을 누이고, 외롭고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들었는데 그날은 놀라운 꿈을 꾸었어. 꿈에 보니, 땅에 사다리 하나가 세워져 있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아 있었지. 그 사다리 위로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고 가장 위에는 하나님께서 계셨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지.

나는 **주니 곧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니 네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질 것이며 너와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창 28:13-14)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약속이었는데 같은 말씀을 이제 야곱에게도 직접 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한 사람으로서 직접 부르시는 감동의 순간이었던 거지. 그뿐만 아니었어.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안하고 외로운 야곱에게 따뜻한 약속도 주셨거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다시 이 땅으로 너를 데려오리라. 내가 네게 말한 것을 친히 다 행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 28:15)

이 말씀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신 거니까 말이야. 야곱은 이 말씀을 들으며 눈을 번쩍 뜨고 잠에서 깨어서는 놀라며 고백했지.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 계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시다! 이곳은 정말 무섭고도 놀라운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예배드렸어.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벧엘’이라 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었지.

야곱은 하나님께 진심 어린 맹세, 곧 서원을 드렸어.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해 주셔서 이 먼 길에서 나를 지켜 주시고, 제가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신다면, 그리고 제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잠을 잤던 이 돌기둥은 하나님의 집, 즉 벧엘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꼭 떼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살아 계신 분으로 직접 만난 날이었어.

이전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거지.

이날 이후로 야곱의 마음은 든든하기 그지없었어. 하나님께 큰 용기를 얻었거든.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반에게 속은 야곱

그리고 나서도 멀고 험한 길을 묵묵히 걷던 어느 날, 들판에서 양 떼가 풀을 뜯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 저 멀리에는 우물도 있었고 그 주위엔 목자들도 보이기 시작했지.

때는 한낮이라 햇볕이 짹짹 내리쬐었고 야곱은 목이 말라 지친 몸을 이끌고 우물 가까이 다가갔지. 야곱은 목자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

“이 근처에 라반이라는 분이 살고 있다는데 혹시 그 집을 아시나요?”

그러자 목자들이 반가운 듯 대답했지.

“알다마다요. 저기 오고 있는 저 처녀가 라반의 딸 라헬이에요!”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더니, 라헬이 바로 양 떼를 몰고 우물 쪽으로 오

고 있었던 거야. 야곱은 라헬이 가까이 오는 걸 보자 얼른 우물 위에 덮여 있던 무거운 돌을 옮겨 놓고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다.

라헬은 갑자기 나타난 이 낯선 청년이 누구인지 궁금했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야곱이에요. 제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제 어머니 이름은 리브가예요. 제 어머니는 라반 삼촌의 여동생이죠.”

그러고는 이제야 여정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감정이 북받쳐, 라헬을 얼싸안고는 영영 울기까지 했어.

라헬은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 라반에게 뛰어가 알렸고, 라반도 야곱을 반갑게 맞이했지. 야곱은 그동안의 사연을 모두 이야기했고, 이제 라반의 집에 머무르며 양 떼를 돌보기 시작했어.

한 달쯤 시간이 지나자,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어.

“야곱아, 너를 이렇게 공짜로 일하게 둘 수는 없지. 네가 원하는 품삯이 있으면 말해 봐라.”

야곱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이렇게 대답했단다.

“외삼촌, 저는 라헬을 아내로 얻고 싶어요. 라헬을 제게 아내로 주신다면,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처음 본 그 순간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단다. 언니 레아는 눈이 약했지만, 라헬은 눈에 띄게 아름다웠다고 해.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 성실하게 일했어. 양을 돌보고, 들에서 자고,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한 그날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런데도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견뎠다는구나.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고, 라반은 동네 사람들을 불러 성대한 결혼 잔치를 열었어. 잔치가 끝난 뒤, 야곱은 기대에 부풀어 신부가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지. 하지만, 라반은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면사포로 가리고 야곱에게 들여보냈어. 그땐 지금처럼 불빛이 밝지도 않았고, 신부는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니 야곱은 당장 알아차리지 못했지.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고 나서야 야곱은 깜짝 놀라며 외쳤어.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여인은 레아잖아요!”

야곱은 화가 나서 라반에게 따졌어.

“외삼촌! 제가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저를 속이실 수 있어요?”

이 순간 야곱은 자신이 과거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였던 일을 떠올렸을지도 몰라. 그때 형이 느꼈던 배신감, 속상함이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몸소 알게 된 셈이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에게 했던 잘못들을, 우리가 직접 겪게도 하시면서 우리를 바른길로 가게 해 주시기도 하신단다.

야곱이 항의하자 라반은 마치 예상했다는 듯 이렇게 말했어.

“자, 자, 야곱아. 흥분하지 말고 들어 보거라. 여기 풍습을 이젠 너도 알 텐데, 이곳에선 언니보다 먼저 동생을 시집보내면 안 되는 법이거든. 하지만 걱정 말아라. 네가 나를 위해 7년 더 일한다면 라헬도 네게 아내로 주도록 하지.”

결국 야곱은 뜻하지 않게 두 아내를 얻게 되었고, 외삼촌의 속임수 때문에 또 7년을 열심히 일해야 했어. 결국 야곱의 가정은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가 한 남편을 두고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며 살아가게 되었지.

레아가 먼저 자식들을 낳았는데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연달아 네 아들이 태어났어.

그런데 라헬은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속상하고 억울한 마

음에 야곱에게 화를 내기도 했지. 그러다 라헬은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고, 그녀를 통해 단과 납달리를 얻게 되었어. 이걸 본 레아는 또 마음이 불편해졌지. 이제 한동안 자식이 생기지 않던 레아는,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고,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이 태어났어.

그 후로 레아는 다시 아기를 낳게 되어 잇사갈과 스블론, 그리고 딸 디나도 낳았지. 그러던 중, 마침내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도 임신을 허락하셔서 그토록 원하던 아들 요셉을 품에 안게 되었어.

이렇게 야곱은 네 명의 아내와 열한 명의 아들, 그리고 딸 하나를 두었단다.

그리고 나중에는, 라헬을 통해 막내아들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조상이 생기게 되었지. 하나님께서는 일부다처제, 즉 한 남자가 여러 아내와 결혼하는 걸 처음부터 허락하지 않았지만, 당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지역에서 지내던 야곱도 아내를 여러 명 두고 말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허물마저도 사용하셔서 열두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실 계획을 펼쳐 가셨어.

외삼촌 라반을 떠나는 야곱

시간이 흐르고 요셉이 태어났을 무렵,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했지.

“외삼촌, 이제 저는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14년간이나 라헬과 레아를 위해 일했고, 그 외에도 오랜 세월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일했지. 그렇지만 라반은 야곱을 붙잡고 싶었는데, 야곱 덕분에 자기가 큰 부자가 되었던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둘은 이렇게 약속했단다.

“점박이거나 얼룩진 가축이 태어나면, 그건 야곱의 몫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서 점박이, 얼룩진 가축들이 훨씬



많이 태어나게 해 주셨어! 이 일로 야곱은 많은 가축과 종들을 거느리는 부자가 되었지. 그러자 라반의 아들들이 수군거리며 말했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으로 저렇게 부자가 됐다니까!”

심지어 라반도 야곱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보기 시작했지.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

“이제 너는 이 땅을 떠나,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거라.”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아내들을 조용히 불렀어.

“이제 우리도 떠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소.”

레아와 라헬은 이미 아버지 라반에게 실망이 컸기 때문에 흔쾌히 동의했지.

“언젠가부터 아버지는 우리를 남처럼 대해요. 이럴 바에는 우리도 당신이 가는 길을 따라 함께 가겠어요.”

야곱은 라반이 집을 비운 틈을 타서 가축과 가족을 모두 이끌고 몰래 떠났어. 하지만 사흘 뒤,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맹렬히 쫓아갔고, 길르앗 산 근처에서 야곱을 거의 따라잡게 되었지.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셨지.

“라반아, 너는 야곱에게 좋다 나쁘다 말하지 말아라.”

다음 날, 야곱과 라반은 서로 마주하게 되었고 야곱은 그동안 외삼촌이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쏟아 냈어.

“외삼촌, 하나님께서 제 손의 수고를 보셨기에 어젯밤 외삼촌을 책망하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도 빈손이었을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라반도 더는 따지지 않고, 서로 돌무더기 기념비를 세워 두고 서로 작별의 인사를 나눴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밧단아람에서 20여년 동안의 길고 긴 타향살이를 마치고 드디어 부모님과 형이 있는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날 수 있었지.

야곱은 옛적에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대가를, 라반의 꾀에 당하고 고된 일에 당하면서 치르게 된 셈이었어.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야곱과 함께하시며 그를 지켜 주셨기 때문에,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기초가 되게 하셨다.

+ 요약과 교훈

- 야곱은 먼 길을 떠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며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 야곱의 여정에서 때때로 속임수와 힘든 경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큰 축복을 받도록 이루어 주셨어요.
- 야곱은 20여년 동안 외삼촌네 집에서 지내다가 두 아내와 열한 명의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 적용

-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요.
- 공부하거나 친구들과 지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행동해요.
-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살도록 해요.





Part
16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20년 전, 형에서의 화를 피해 고향을 떠났을 때 야곱은 혼자였고 가진 것도 없었단다. 하지만 이제 돌아가는 길에는 아내들과 아이들, 열한 명의 아들과 딸, 종들과 수많은 양 떼와 소 떼, 낙타 떼까지 거느린 대가족과 큰 재산을 이끌고 가고 있었지.

그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을까? 또 오랜만에 고향을 밟는다는 설렘도 있었겠지. 그런데 야곱이 고향 땅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어.

바로 형 에서와의 갈등 때문이었다.

“형이 아직도 날 미워하고 있을까? 나를 죽이겠다고 했는데…”

야곱은 이 걱정 때문에 먼저 자기 종들 몇 명을 에서가 사는 세일 땅으로 보냈어. 자신의 형편을 알리면서 형의 마음이 어떤지 미리 살펴보게 했지.

돌아온 종들이 전한 말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거였어.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온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혹시 형이 아직도 자기를 미워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건 아닐까?

야곱은 자기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해를 입게 될까 봐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밤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 제발 저와 제 가족들을 지켜 주세요. 형의 손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진 가축들 중 가장 좋은 것들을 여러 떼로 나누어 형 에서에게 선물로 보냈지. 형이 오는 길에 자신이 보낸 첫 번째 떼를 만나고 또 하나의 떼를 만나고…; 이러면서 형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지. 어느 정도 형과 거리가 가까워지자 야곱은 가족들과 가축들을 요르단 강의 물줄기인 압복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자신은 홀로 남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어.

그날 밤, 야곱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고 난데없이 시작된 그들의 씨름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지. 야곱은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 절대로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고 날이 밝아 오기 시작하자, 그가 말했어.

“날이 새려 하니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은 더 붙들며 말했어.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야곱의 넓적다리를 쳐서 빼가 어긋나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야곱은 여전히 그를 놓지 않았어.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는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은 건 아니었지.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입으로 말하게 함으로써, 야곱이 자기 삶을 돌아보게 한 거야.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 자’, 곧 남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서려는 뜻이 담겨 있었거든. 야곱이 이름을 말하자, 그가 말했다.

네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니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힘을 겨루며 사람들과 힘을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창 32:28)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그의 정체성과 미래를 새롭게 해주셨어. 이제 야곱은 더 이상 피와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훗날 하나님의 큰 민족이 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란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후 떠나시자,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 짓고 의미를 되새겼지.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죽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날이 밝기 전에 떠나려고 하셨던 거였어. 야곱도 씨름하는 동안 얼굴을 마주 대했지만, 어둠 때문에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었지.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렸던 거란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을까? 힘이나 기술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단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셨어. 그건 야곱이 힘이 섰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렸기 때문이었지.

다시 만난 야곱과 에서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뭘가를 붙잡고 올라가려 했던 사람이었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장자권과 축복도 꾀를 부려 가로챘지. 고향을 떠난 뒤로는 외삼촌 라반에게 수없이 속으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머리를 쓰고, 계획을 짜고, 사람을 움직이며 지혜롭게 살아 왔던 야곱이었어.

하지만 형 에서를 다시 만나게 되는 순간에서 야곱은 자신의 그 어떤 지혜나 꾀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었지.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란다.

“하나님,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제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를 지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발 저와 제 가족을 형의 손에서 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야곱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 ‘이긴 자’라는 의미란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일 5:4)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그날 이후, 완전히 변했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후 5:17)

이제 아침이 밝고, 멀리서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 모습이 보였어. 야곱은 전처럼 두려움에 떨지 않았어. 이제 그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담담하게 나아갔지. 야곱은 아내들과 자식들을 순서대로 세우고 자기는 맨



앞에 서서 형 에서를 향해 나아갔어. 다가갈 때마다 일곱 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신을 낮추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갔단다.



예전 같았으면

야곱은 피를 쓰거나 다른 사람 뒤에 숨어 있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로 변화된 사람이기에, 자기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진짜 용기를 보인 거지.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다. 멀리서 동생 야곱이 절뚝거리며 절하며 다가오는 모습을 본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거야. 그는 화를 내는 대신 측은한 마음이 솟아났고, 감정이 폭발쳐 뛰어가 야곱을 부둥켜안고 함께 울었지. 정말 감동적이지 않니? 이걸 사람이 만든 계획이나 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니? 이걸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마음을 바꿔 주신 기적이었지. 그래서 야곱은 그날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느꼈다고 고백했어. 진짜 화해의 기쁨이 가득한 순간이었지.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누군가와 화해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이때의 야곱처럼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겸손하게 용기를 내어 다가가 보면 좋을 거 같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거란다.

형 에서에게 용서받은 뒤, 야곱은 그제야 안심할 수 있었어.

에서가 야곱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보며 물었지.

“야곱아, 네 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형님,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제 가족입니다.”

그리고는 아내들과 자녀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며 형에게 인사를 시켰고, 모두와 인사를 나누는 에서가 또 물었어.

“오면서 보니까 짐승 떼들이 내게 오던데, 그것들은 무엇이냐?”

“형님의 은혜를 입기 위한 예물입니다. 부디 받아 주세요.”

“됐다, 야곱아. 난 너만 보면 충분해. 선물은 도로 가져가거라.”

하지만 야곱이 간절하게 부탁하자 마침내 에서는 못 이기는 척 선물을 받아 주었어. 그리고 나서 에서는 야곱에게 함께 가자고 했지만, 야곱은 부드럽게 거절했어.

“형님, 제 가족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새끼 뱀 짐승들도 있어서 하루만 무리해도 목숨이 위험할 거 같아 걱정이 됩니다. 먼저 가시면, 저는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에서는 또다시 자기 부하들을 야곱에게 붙여 주려 했지만, 야곱은 지혜롭게 사양하고 두 사람은 그곳에서 헤어지게 되었지.

빈엘로 향하는 야곱 가족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들어와 세겜 땅의 살렘 성읍에 머물렀어. 그러던 어느 날, 레아에게서 난 딸 디나가 도시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혼자 밖으로 나갔단다. 오빠들이 양 떼를 돌보러 멀리 나간 때였지. 그때 그 지역의 통치자였던 세겜이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해 버렸어. 그런데 그는 자신의 힘과 권세를 믿고 디나를 강제로 납치해 부끄러운 일을 당하도록 했지. 그리고 나서 세겜은 디나를 사랑한다며, 자기 아버지 하물과 함께 야곱을 찾아갔어.

“우리 아들 세겜이 당신의 딸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부디 결혼을 허락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물과 세겜은 이어서 제안을 했어.



“우리 민족끼리 서로 결혼도 하고 거래도 하며 평화롭게 살면 좋을 거 같습니다. 디나만 우리 아들에게 준다면 어떤 예물이든 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진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었어.

디나는 이미 말 못할 큰 고통을 당했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 얘기를 듣고 화를 참지 못했어. 특히 디나의 친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마음속에 복수를 결심했지. 그들은 우선 거짓말로 둘러댔어.

“당신들이 우리와 한 가족이 되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겔과 하몰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도시로 돌아가 자기네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지.

“우리가 저들과 혼인하면 그들의 재산도 우리의 소유가 될 거요. 다 함께 할례를 받으시다.”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동의하고 할례를 받은 지 사흘째 되던 날, 다시 말해 상처가 심해서 움직이기 힘든 그날에 시므온과 레위는 사람들을 이끌고 성에 쳐들어가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디나를 구해 왔어.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도 다 빼앗아 버렸지.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였어.

“이 소문이 퍼지면 이 땅의 족속들이 연합해서 나와 내 가족을 공격할 거야. 우린 수가 너무 적어서 다 죽을지도 몰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지.

“벤엘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도록 해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도록 해라.”

벤엘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그 옛날, 돌을 베고 잠들었다가 하늘에 닿은 사다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곳이었지.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잡고 집안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너희가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것이니라.”

야곱은 모든 우상들을 모아, 땅에 묻어버렸지.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베엘로 향했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다른 족속들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 주셨고 야곱의 가족은 무사히 베엘에 도착할 수 있었지.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 이렇게 야곱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인도하셔서 헤쳐 나갈 길을 열어 주셨지.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야곱처럼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나 참기 힘든 사건을 만날 수 있어.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 주시고 바른길로 인도해 주실 거란다.

† 요약과 교훈

-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시며 지켜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믿음으로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으로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에서를 만나러 갔고, 20년 만에 동생을 만난 에서는 야곱을 용서해 주었어요.

† 적용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 우리도 야곱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해요.
- 가족이나 친구와 다툼이 생기면, 서로 용서하고 진심으로 화해하려고 노력해요.





Part
17

이집트로 팔려 간 요셉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요셉은 엄마를 닮아서 인물도 훤하고 머리도 영리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시대에는 아무나 입을 수 없었던 화려한 채색옷을 입혀 주고, 다른 형들과는 다르게 항상 곁에 두고 아꼈지.

어쩌면 당연하게도 형들은 요셉을 달가워하지 않았어. 그런데다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요셉에게 고자질한 일이 있고 나서는 요셉을 향한 형

들의 미움은 더 커졌지.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신기한 꿈을 꾸고는 자랑스레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줬어.

“제 말 들어 보세요, 어젯밤 내가 꿈을 꾸었거든요. 꿈속에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었는데 제 단이 벌떡 일어서니까 형들의 단이 그 주위를 둘러서 절을 하더라구요!”

형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지.

“뭐? 네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한다는 거냐?”

가뜩이나 요셉이 미웠는데 그 꿈 이야기까지 들으니 형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불처럼 일어났지.

며칠 후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 요셉은 이번에도 가족들에게 거리낌 없이 꿈 얘기를 했지. 그러자 아버지 야곱도 듣고는 짐짓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지.

“무슨 그런 꿈이 다 있느냐? 나랑 네 어머니, 그리고 네 형들이 모두 네 앞에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한다는 말이나?”

야곱은 그 꿈이 왠지 특별하게 느껴졌기에 마음속 깊이 간직했지만, 형들은 더 이상 요셉과 말을 섞지도 않을 정도로 요셉을 아주 미워하게 되었어.

요셉을 미워한 형제들

며칠이 지나서 야곱이 요셉을 불러 심부름을 시켰지.

“요셉아, 네 형들이 세겜 땅으로 양 떼를 몰고 갔으니, 그쪽으로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없어서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마침 지나가던 한 사람이 형들의 행방을 알려 줬어.

“네 형들로 보이는 사람은 여기를 진작 떠났단다. 그들이 서로 말하는 걸 듣긴 했는데, 도단으로 가자고 했던 거 같구나.”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따라 도단까지 찾아갔어. 눈에 띄는 채색옷을 입은 요셉이 멀리서부터 보이기 시작하자 형들은 수상쩍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어.

“저기 봐, 꿈쟁이가 오고 있네.”

“이참에 그냥 없애 버리자.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하면 그만이지.”

그런데 맏형 르우벤은 다른 형제들을 말렸어.

“안 돼. 우리 손으로 동생을 죽이다니… 차라리 저기 빈 구덩이에 던져 넣고 혼만 내 주자.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는 없잖아.”

르우벤은 나중에 요셉을 구해 주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지.

형들은 요셉이 가까이 다가오자 사납게 달려들어 그의 채색옷도 벗긴 채, 텅 빈 구덩이 속으로 내동댕이쳤어. 깊은 구덩이에 떨어진 요셉은 몸도 아프고 정신도 아득했지만, 형들의 차가운 눈빛이 너무 무섭게 느껴졌지.

“형님들…, 제발 절 꺼내 주세요… 전 아무 잘못도 없어요…”

하지만 형들은 냉정하게 등을 돌렸지.

“그래,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형들은 아무렇지 않게 앉아서 빵을 먹기 시작했고, 마침 이집트로 가는 상인 무리를 보게 됐어. 그 미디안 상인들은 낙타에 사고 팔 물건들을 가득 실어 장사하러 가는 중이었지.

그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얘기했어.

“우리가 동생을 죽인들 뭐가 남겠냐? 차라리 저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자. 그래도 동생은 동생이잖아. 죽이는 거보단 낫지 않겠어?”

형제들은 이 말에 모두 동의했고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 온 20개에 상인들에게 팔아넘겨 버렸단다. 요셉은 울며 매달렸지만, 형들은 매정하게 등을 돌렸어. 요셉은 그렇게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한 번도 가 본 적 없는 먼 나면 이집트 땅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지. 얼마나 무섭고 억울했을까?

그 후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에 염소 피를 묻혀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다주며 이렇게 말했단다.

“아버지, 이 옷을 들에서 주웠어요. 혹시 요셉의 옷이 아닌가요?”

야곱은 한눈에 알아봤어. 그건 바로 자신이 요셉에게 입혀 주었던 그 채색 옷이었거든. 야곱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지.

“내 아들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요셉아! 요셉아! 너 없이 나는 어떻게 살겠느냐...”

자식들이 아무리 위로하려 해도 소용없이, 야곱은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여러 날 동안 슬피 울었어.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다

한편,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가 파라오의 호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아넘겼어. 요셉은 어릴 적부터 유난히 사랑받으며 자라서 고생이라고는 전혀 몰랐는데, 이제는 갑자기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나라에서 노예로 일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런데 요셉은 이런 상황에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마음을 다잡으며 하나님께 의지했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가 아니야.”

요셉은 정직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 금세 인정받기 시작했어. 그는 이집트 말도 빨리 익히고, 맡은 일을 하나하나 꼼꼼히 해냈지.

‘이 아이는 뭐든지 믿고 맡겨도 될 만큼 일을 잘해 내는군!’

이렇게 생각했던 보디발은 집안일 모두를 요셉에게 맡겼어. 요셉이 집안일을 맡은 후부터 보디발의 재산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기 때문이었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매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 집에 있었는데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과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그의 주인이 보았더라. (창 39:2-3)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잘되도록 도와주셨지만, 곧 또다른 위험이 요셉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지. 어느 날부터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안주인이 요셉에게 은근히 귀찮게 했거든. 요셉이 외모도 준수하고 하는 모든 일에 성실하니 눈길이 갔던 모양이야.

어느 날, 안주인이 요셉에게 말했어.

“요셉, 잠깐 내 방으로 와요.”

요셉은 속으로 놀랐지만, 곧 못 들은 척하고 하던 일을 계속했고, 그 후로도 될 수 있으면 안주인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믿음과 절제를 배울 수 있을 거 같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유혹이 다가와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단다.

요셉이 계속해서 피하고 거절했지만, 안주인은 끈질기게 귀찮게 했어.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시종들을 다 내보내고는 요셉이 들어오자마자 요셉의 팔을 덥석 붙잡았지.

“요셉, 지금은 우리 둘밖에 없어. 누가 보겠니? 자, 내 방으로 가자.”

하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어.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인님께서 저를 믿고 이 집의 모든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집에서 주인님 외에는 저보다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이 없지만, 안주인님만큼은 제가 가까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은 안주인이 잡은 겹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 도망치듯 밖으로 나갔어. 그러자 안주인은 요셉에게 거절당한 게 수치스럽고 분한 나머지, 곧바로 하인들을 불러 거짓말을 꾸며냈어.

“이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들었어! 내가 소리 지르자 도망가면서 이 옷을 놓고 도망쳤지 뭐야!”

퇴근한 보디발에게도 거짓 눈물과 억지 말을 덧붙여 요셉이 자신을 해하려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 진실을 알 수 없었던 보디발은 얼마나 화가 났겠니?

결국 요셉은 왕실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지.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었을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았는데도 결과는 감옥에 갇힌 신세라니 말이야. 이번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한 요셉

믿음으로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지냈어. 작은 일 하나에도 정직하게 행동하고 다른 죄수들을 도우며 감옥 안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었지. 감옥을 맡은 간수장은 요셉을 눈여겨보다가 그에게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겼고 결국에는 감옥 안의 일들을 요셉이 도맡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감옥에 새로운 죄수 둘이 들어왔어. 바로 파라오의 잔을 맡은 시종장과 빵을 굽는 시종장이었지. 둘 다 파라오를 가까이에서 모시던 높은 관리들이었어. 이 두 사람도 각자 맡은 일들을 잘못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들을 잘 보살피 주도록 맡겼지. 요셉은 그들을 정성껏 돌보았어.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각자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어찌나 이상하고 생생하던지 다음 날 아침부터 얼굴이 새까맣게 변하고 걱정이 가득했지.

요셉은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물었어.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얼굴이 평소와 다르군요.”

“우리 둘 다 이상한 꿈을 꿴는데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네. 그걸



해석해 줄 사람도 없으니 우리가 알 수가 있나….”

“해석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테니 제가 들어 보고 하나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저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먼저 잔 맡은 시종장이 입을 열었어.

“꿈에 보니 한 포도나무가 있었지. 그 가지가 셋이고, 금방 싹이 나더니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려 있었어. 그걸 내가 짜서 파라오의 잔에 담아 드렸거든. 그리고는 꿈에서 깨었다네. 이보게, 요셉. 꿈의 의미를 알 수 있거나?”

“그 포도나무의 세 가지는 사흘을 뜻합니다. 사흘 안에 파라오께서 당신을 다시 복귀시키실 겁니다. 그때 저를 기억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곳에 죄 없이 억울하게 갇히게 된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은 빵 굽는 시종장도 희망을 기대하며 이야기했지.

“요셉, 내 꿈도 들어 보게. 나는 머리에 세 광주리를 이고 있었는데 맨 위 광주리에는 파라오께서 드릴 여러 종류의 빵이 있었어. 그런데 새들이 와서 그걸 다 쪼아 먹는 게 아니겠나. 자네가 보기에 내 꿈은 어떤가?”



요셉은 잠시 생각하더니 슬픈 얼굴로 대답했어.

“안타깝지만, 그 세 광주리는 사흘 후, 파라오께서 당신을 나무에 매달아 처형하실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새들이 당신의 몸을 쪼아 먹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지 정확히 사흘 후, 파라오의 생일잔치가 벌어졌어. 그 자리에서 요셉의 해몽처럼 잔 말은 시종장은 원래 자기 자리로 복직되고, 빵 굽는 시종장은 처형당하게 되었단다.

그럼, 잔 말은 시종장은 약속한 대로 요셉을 기억하고 도와줬을까?

+ 요약과 교훈

-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의 시기과 미움 때문에 이집트로 팔려 가게 되었어요.
- 요셉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두 시종장의 꿈의 의미를 해석해 주었어요.

+ 적용

- 형제자매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요.
-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항상 성실하게 행동해요.
- 다른 사람의 시기나 험한 말을 듣더라도 정직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도록 노력해요.





Part
18

이집트의 총독이 된 요셉

요셉은 감옥에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혹시나 오늘…? 아니면 내일쯤?” 그는 복직된 시종장이 파라오에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 그래서 하루하루 기다리며 문 쪽을 바라보곤 했고, 누군가의 발소리만 나도 혹시 자기를 부르러 오는 건 아닐까 하고 기대했어.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요셉은 말없이 감옥 생활을 계속 견뎌야 했어. 어느 날,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깊은 잠에 빠졌는데 그 하룻밤 사이에, 이

상한 꿈을 두 개나 꿰지 뭐니.

그 첫 번째 꿈에서는, 파라오는 나일 강 가까이 서 있었어.

강물 속에서 살지고 잘생긴 암소 일곱 마리가 올라와 강가 풀밭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지. 그런데 이 소들 뒤를 따라 바싹 마르고 못생긴 암소 일곱 마리가 또 올라와서 그 잘생긴 소 일곱 마리를 모두 잡아먹어 버리는 꿈이었어.

파라오는 놀라서 눈을 떴다가 다시 잠이 들었지만, 두 번째 꿈에서는 굵고 알찬 좋은 이삭 일곱 개가 한 줄기에서 자라나더니 그 뒤를 따라 말라비틀어진 못생긴 이삭 일곱 개가 또 나왔어. 이번에도 그 마른 이삭들이 좋은 이삭들을 모조리 삼켜 버렸지.

파라오는 이 두 꿈을 꾸고 난 뒤 도저히 다시 편히 잠들 수가 없었어. 꿈에서 본 모습이 너무 이상하고 실제로 보듯이 생생했기 때문이었지.

그래서 그는 아침이 되자마자 이집트 전역의 마술사들과 지혜자들을 급히 불러 자기가 꾸는 꿈을 말해 주었지만, 아무도 속 시원하게 꿈을 풀이해 줄 수 없었어. 파라오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지고 궁궐 분위기는 무거워졌지.

그때였어!

그동안 요셉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잔 말은 시종장이 “아차!” 하고 머리가 번쩍했던 거야.

“왕이시여! 감히 말씀드리건대, 제가 예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저와 빵 굽는 시종장이 꿈을 꾸고 걱정하던 중에 히브리 청년 하나가 우리 꿈을 들어 주고 해몽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청년의 해석대로 저는 복직되고 빵 굽는 시종장은 처형되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파라오는 곧바로 명령했어.

“그 청년을 당장 이리 데려오너라! 지금 당장!”

왕의 신하들이 바빠 움직였고 요셉이 있던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 요셉을 데려오게 했어.



요셉은 감옥에서 갑자기 끌려 나와 목욕도 하고 수염도 깎고, 단정한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되었어.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왕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니, 요셉은 얼떨떨하긴 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지. 무슨 일이 생겨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믿음만을 간직하고 있었거든.

노예에서 총독이 된 요셉

드디어 파라오 앞에 요셉이 서게 되었어.

“네가 바로 요셉이냐? 듣자 하니 꿈을 참 잘 해석한다던데? 내가 어젯밤에 꾸는 꿈이 너무나 이상해서 온 나라의 마술사와 지혜자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구나!”

그 말에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답했어.

“왕이시여,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제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을 말씀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왕께 화평의 답을 주실 겁니다.”

파라오는 자기가 꾸는 꿈을 요셉에게 자세히 말해 주었고, 요셉은 파라오의 꿈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했어.

“왕이시여, 이 두 가지 꿈은 모두 같은 뜻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께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보여 주신 겁니다. 앞으로 이집트 온 땅에는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게 되지만 그 뒤에는 7년 동안 아주 심한 흉년이 닥치게 됩니다.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 앞서 있었던 풍년을 사람들이 다 잊을 정도가 될 겁니다.”

요셉은 이어서 말했지.

“왕께서 같은 뜻의 꿈을 두 번이나 연달아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굳게 정하셨고 곧 이루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꿈을 해석해 주기만 한 게 아니라, 파라오에게 지금 이집트가 맞이할 상황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까지도 지혜롭게 조언했어.

“왕이시여,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지만 이때가 지나고 나면 큰 흉년이

찾아올 테니, 지금부터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크게 굶주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각 도시에 창고를 짓고 풍년 동안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저장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모은 곡식을 흉년이 들었을 때 풀어 백성들이 먹게 하신다면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이 조리 있게 설명한 이 계획은 정말 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파라오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신하들은 감탄했지.

파라오가 신하들에게 말했어.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요셉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봤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네게 알려 주셨으니 너보다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없을 거 같구나. 그러니 이제부터 네가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 되어라. 내 왕좌를 빼고는 너보다 높은 사람이 이집트에는 없을 것이니라.”

그리고 파라오는 자기가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고, 고운 아마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도 걸어 주었어. 오늘날로 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무총리 임명장을 주고 직접 축하해 주는 행사와 같았지.

그뿐만 아니라 왕은 자기 둘째 병거에 요셉을 태우고 온 이집트 도성을 행진하게 했어.

“비켜라! 총독 요셉의 행차시다! 모두 총독님께 고개를 숙여라!”

사람들은 그 앞에 나와 땅에 엎드려 절을 했지.

노예로 팔려 와 감옥에까지 갇혔던 요셉은 자칫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며 힘든 나날을 이겨 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크신 은혜로 이집트의 총독이 되도록 해주셨어.



이때 요셉의 나이는 30살이었으니, 17살에 형들에게 팔려 온 이후 13년이 흐른 뒤였다.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간 형제들

이제 대풍년의 7년이 끝나고 이집트와 그 근처 가나안 지역에 큰 흉년이 찾아왔어. 첫해에는 조금 힘들어도 어떻게든 곡식을 아끼며 참고 지낼 수 있었지만, 두 번째 해부터는 상황이 첫 해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심각해졌지. 땅에는 풀 한 포기 자라지 않았고 곡식은 커녕 씨앗도 남지 않았거든.

사람들은 음식을 찾아 이집트로 찾아갔어.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 주신 대로 준비해 둔 요셉 덕분에 이집트는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했거든.

야곱과 그의 가족도 이 흉년을 피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아들들을 불렀지.

“얘들아,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는구나.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모두 굶어 죽을 지경이니, 너희 열 명이 함께 내려가 곡식을 좀 사 오너라.”

그리하여 열 명의 형들이 먼 이집트 땅으로 떠나게 되었어. 혹시나 요셉처럼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걱정했던 야곱은 막내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지.

마침내 이집트에 도착한 형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어. 그때는 돈을 내고 그냥 곡식을 살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총독에게 먼저 허락받아야 했거든. 정해진 이집트 법에 따라 형들도 그 줄을 따라 총독 앞에 나아가 고개를 숙이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지.

그런데 그 총독은 누구였을까?

바로 그 형들이 팔아넘겼던 요셉이었어.

하지만 형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 어릴 적 채색옷을 입고 형들을 따라 다니던 요셉이 지금 이렇게 위엄 있게 이집트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야.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보았어. 아마 그 순간에 예전에 꿔던 꿈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형들의 곡식 단이 자기 곡식 단에게 절하던 꿈 말이야.

요셉은 딱딱한 표정을 지으며 일부러 무섭게 형들을 대했어.

“너희는 이집트 땅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구나!”

형들은 깜짝 놀라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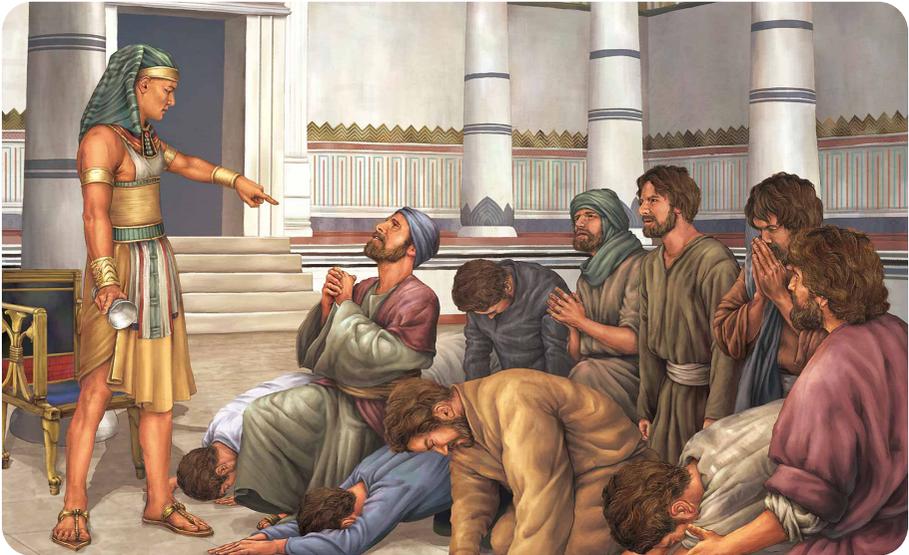
“아닙니다, 총독님! 저희는 모두 한 아버지에게서 난 형제들입니다. 양식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원래는 열두 형제인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고 하나는 예전에 사라졌습니다.”

요셉은 가슴이 뭉클했지만, 꾀 참고 형들의 진심을 시험해 보려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던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했어.

“너희 말이 진실이라면 막넛동생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정탐꾼이 확실하니라!”

요셉은 형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었다가 다시 불러내어 말했어.

“너희 중 한 사람만 이곳에 남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막내를 데리고 다시 오면 너희가 정직한 자들임을 믿고 남은 형제도 풀어 주리라.”

이 말을 들은 형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지.

“우리가 예전에 요셉을 그렇게 함부로 대했을 때, 그 아이가 그렇게 애원했는데도 외면했던 별을 지금 받는 거 같아.”

만형 르우벤은 화가 났지만, 총독 앞이어서 다른 형제들에게 나지막하게 말했어.

“거봐, 내가 뭐랬어? 그 아이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너희들 마음대로 하더니 이게 뭐냐? 그러니 우린 별을 받아도 할 말 없는 거야!”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형제들이 후회를 쏟아내자, 요셉은 감정이 폭발쳐 조용히 자리를 피해 눈물을 흘렸지.

그러고는 다시 돌아와 신하들에게 말했어.

“저 시므온이란 자를 묶어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돈도 곡식 자루 속에 몰래 넣어 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가는 길에 먹을 양식은 따로 챙겨 주도록 명령했지. 이제 형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와야 한다는 요셉의 말을 아버지께 어떻게 전해야 할지 걱정이 컸거든.

형제들이 다시 가나안 집으로 돌아가다가 중간쯤 되었을 때쯤, 한 여관에서 쉬어가기로 했어. 그중 한 사람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었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지.

“어? 이게 뭐야? 이 돈은 어떻게 된 거지?”

자루 입구에 분명히 이집트에서 곡식을 살 때 냈던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거든. 놀란 사람이 소리치자 다른 형제들도 와서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랐지.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다들 깜짝 놀라 마음이 무겁고 큰 걱정이 되었어. 이집트에서 겪은 일도 고단하고 무서웠는데, 자루 속 돈까지 돌아왔으니 혹시라도 오해를 사면 어쩌나 했거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니 아버지와 굶주리며 기다리는 식구들이 아른거려서 당장 어쩔 도리가 없었어. 형제들은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우선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지. 다들 말없이 한숨을 쉬며 나귀를 이끌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단다.

+ 요약과 교훈

- 요셉은 시종장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길 바랐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어요.
-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이집트의 총독이 되어 흉년을 대비했어요.
- 요셉은 이집트로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 적용

- 바라던 일이 당장 이뤄지지 않아도 실망하기보다는 차분하게 기다려요.
- 학교나 친구 사이에서 어려움이나 부당한 일을 겪더라도 침착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 자신이 가진 꿈과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요.





Part
19

형들을 용서한 요셉

이집트에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아홉 명의 아들들은 시므온 없이 돌아온 사연을 야곱에게 낱낱이 이야기했다. 그리고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막냇동생 베냐민을 반드시 이집트로 데려오라는 이집트 총독의 명령도 전했다.

이 이야기를 한 후, 형제들은 자루를 열어 곡식을 꺼내려다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어, 이게 뭐지? 돈이 그대로 있잖아!”

“아니, 내 자루에도 곡식값이 들어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올 때 여관에서 자루를 열어 본 사람의 자루뿐 아니라 모든 형제의 자루에 돈이 도로 고스란히 들어 있었던 거야. 모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의 자루를 확인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 이 모습을 본 아버지 야곱은 너무 놀라고 슬퍼서 탄식했어.

“요셉도 없고, 시므온도 없고,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간다고 하니, 나는 어찌 하란 말이냐… 너희들이 내 자식들을 하나둘씩 다 앗아가는구나…”

만아들 르우벤이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애썼지.

“아버지,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베냐민을 데려올게요. 만약 그렇게 못한다면 제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

“안 돼. 내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만은 절대 안 돼. 그 아이까지 잃게 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구나…”

야곱이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를수록 온 땅에 기근은 더 심해졌고, 이집트에서 사 온 곡식도 다 떨어져 갔어. 결국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아들들에게 말했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구나. 이집트로 다시 가서 양식을 사 오너라.”

그러자 유다가 말했어.

“아버지, 이집트 총독이 분명히 말했어요. 다음번에 막넛동생이 함께 오지 않으면 절대 우리 얼굴조차 보지 않겠다고요. 그분 앞에 서려면 반드시 베냐민이 함께 가야 해요.”

야곱은 괴로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크게 한숨을 쉬었다.

“어찌하여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서 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그분이 너무 자세히 묻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대답한 거죠… 아버지, 제



가 목숨 걸고 베나민을 책임질게요. 만약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평생 죄인이 되겠습니다.”

“좋다. 주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하마. 만일 내가 자식을 잃게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 되겠구나.”

그러고는 집에 있던 귀한 꿀이며 향료, 몰약을 예물로 준비해 주면서 곡식값도 두 배로 가지고 가라고 일렀지.

요셉의 정체를 알게 된 형제들

그렇게 형제들은 드디어 베나민과 함께 다시 이집트로 떠나게 되었어.

이집트에 도착한 형제들이 총독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은 몇 년 만에 보게 된 동생 베나민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 요셉은 여전히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곧바로 시종장에게 이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점심을 함께 먹을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지.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며 두려움에 떨었어.

“이게 다 지난번 자루에 다시 들어있던 그 돈 때문이야… 우리를 잡아다가 종 삼으려는 거 아냐?”

요셉의 집 문 앞에서 있던 청지기에게 그들은 다급하게 말했어!

“저희 말을 제발 믿어 주세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저희가 돈을 훔친 게 아닙니다. 분명히 곡식값을 냈는데, 저희도 모르게 자루 속에 그대로 들어있었을 뿐입니다.”

청지기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해 주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돈은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돌려 주신 겁니다. 이미 돈은 내가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시므온을 데리고 와서 형들과 만나게 해 주었고, 그들이 씻을 물과 나귀에게 줄 여물도 준비해 주었어. 이제 형제들은 한결 마음을 놓으며 총독과의 식사를 기다리게 되었지.

여전히 얼떨떨했지만, 형제들은 기다리는 동안 총독에게 드릴 예물을 다시 한번 정돈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지. 마침내 총독 요셉이 집으로 돌아왔고 형제들은 준비한 예물을 그의 앞에 내놓으며 땅에 엎드려 절했어.

요셉은 형제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물었지. 그리고 가장 사랑하던 친동생 베냐민을 바라보는 순간, 그리움이 복받쳐서 눈물이 핑 돌았단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요셉은 얼른 다른 방으로 가서 한참을 울고, 얼굴을 씻은 뒤에야 겨우 진정할 수 있었어.

“이제 음식을 내어 오너라.”

식탁은 따로따로 차려졌고, 형제들은 하나둘씩 요셉 앞에 앉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나이순으로 자리가 정해졌지 뭐니. 형제들은 속으로 놀랐지만 누구도 뭐라고 말을 꺼내진 않았지.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먹는 음식 가운데서 일부를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베냐민의 상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섯 배나 많은 음식을 내어주었지. 형제들은 요셉의 환대 덕분에, 그날은 먹고 마시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

다음 날 아침, 형제들은 각자의 나귀에 곡식 자루를 가득 싣고 다시 고향을 향해 출발했어. 그런데 이집트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총독의 청지기가 말을 타고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왔지.

그리고는 도착하자마자 큰 소리로 형제들을 나무랐어.

“은혜를 악으로 갚다니! 우리 총독님께서 점을 치시는 데 사용하는 귀한 은잔을 어찌 훔쳐 갈 수 있단 말이나!”

형제들은 놀라서 어리둥절했어.

“아니, 저희가 그럴 리가요! 지난번 자루에 들어 있던 돈도 고스란히 다시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그런 엄청난 짓을 하겠습니까? 만일 저희 중 누구라도 그 은잔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고 저희도 모두 종이 되겠습니다!”



청지기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좋다. 어쨌든 그 은잔이 나온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는 먼저 큰형부터 한 사람씩 차례차례 곡식 자루를 열어 보았지. 마지막으로 막내 베냐민의 자루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 은잔이 덜커 나오고 말았어! 형제들은 믿을 수 없어 겹옷을 찢으며 탄식했지! 그리고는 다시 총독 앞에 끌려가 었드렸지.

요셉은 무서운 표정으로 말했어.

“은잔을 훔친 자, 곧 베냐민만 이곳에 종으로 남고 나머지는 너희 아버지께 돌아가거라.”

이 말을 듣고 유다가 간절하게 호소했어.

“총독님, 우리 아버지는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슬픔으로 돌아가시고 말 겁니다. 제발 저를 종으로 삼고, 이 아이만은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 주세요!”

유다의 간절한 호소를 들은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곁에 있던 모든 시종들에게 소리쳤지.

“모두 물러가라!”

그리고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대성통곡했고, 형제들은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

그때 요셉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형님들… 저는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 계시지요?”

형제들은 그 말을 듣고도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요셉은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여, 자기가 정말 요셉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는 따뜻하게 말했다.

“형님들, 저를 이집트에 판 일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원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 저를 이곳으로 먼저 보

내신 겁니다. 이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중 일부였어요.”

그 말을 들은 형제들은 비로소 다시 만난 기쁨과 미안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한데 어우러져 울음이



터졌어. 요셉은 특히 동생 베냐민을 안고 오래도록 울었고 모든 형제들에게 입맞춤하며 인사를 나누었지. 마침내 형제들은 눈앞에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이 진짜임을 깨닫게 되었단다.

아버지 야곱과 다시 만난 요셉

한편 총독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다는 소식이 파라오의 귀에도 전해졌어. 파라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정말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요셉의 가족들이 모두 이집트로 와서 살 수 있도록 해라! 그 가족들을 태워 올 좋은 수레를 준비하고 여행길에 필요한 음식과 선물도 넉넉하게 실어 함께 보내거라.”

그야말로 왕의 가족처럼 국빈 대접을 해 주라는 명령이 내려진 셈이었어.

요셉의 형제들은 파라오의 명령을 따라 선물을 잔뜩 수레에 실어 고향으로 돌아왔지.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달려가 외쳤어.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었어요! 지금 이집트의 총독이 되어 우리를 다 살려줬어요!”

야곱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 너무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요셉이 보낸 멋진 수레와 선물, 곡식과 짐승들을 보고는 야곱의 눈에도



눈물이 핑 돌았지.

“정말 요셉이 살아 있다나...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야곱의 가슴은 감격과 감사로 벅차올랐단다.

이렇게 해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로 향하게 되었어. 많은 식구가 다 함께 이사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모두가 기쁨으로 가득했지. 여정을 시작하며 야곱은 잠시 브엘세바에 머물러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리며 예배드렸단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

“야곱아,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 내가 거기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며 네 자손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진행하시려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알려 주신 거야. 그리고 요셉의 삶과 고난, 존귀한 자리에 오르는 과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 주는 예표이기도 했단다.

야곱은 가족들과 모든 재산, 가축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간 후, 요셉이 미리 마련해 둔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어. 무려 22년이 지난 뒤에야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된 야곱은 요셉을 꼭 끌어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지. 그때 야곱의 나이는 130살이었고,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온 그의 가족들은 며느리를 빼고도 모두 70명이었던단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파라오 앞에 직접 인사를 드렸어. 파라오는 야곱에게 진심으로 존경심을 표했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의 가장 좋은 목축지인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 그리고 기근이 계속되는 동안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특별히 돌보아 주라고도 명령했지. 비록 고향 땅은 아니었지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피난처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큰 민족으로 번성할 기초를 마련하였단다.

야곱은 고센 땅에서 남은 삶을 보내다가 147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

심을 받았고, 야곱은 손자들이자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다 른 열 명의 아들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안에 넣어 주었지. 이걸 요셉 에게 장자의 몫을 주는 크고 특별한 축복을 한 거였어. 이와 함께 믿음 가득 한 유언도 남겼단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사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너희를 다시 데 려가시리라. (창 48:21)

야곱은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지. 요셉에게는 한 가 지 더 부탁했어.

“내가 죽으면 이집트 땅이 아니라,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 주렴.”

그 말대로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고, 그의 장례는 이집트 국민 모두가 함께 슬퍼해 주는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단다.

그 후 요셉은 계속해서 이집트에서 총독으로 존경받으며 살았지.

자손을 네 세대나 직접 본 후 시간이 흘러 백열 살이 되었을 때, 요셉도 마지 막을 준비하며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단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빼내어 아브 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려가시리라. (창 50:24)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이 죽은 뒤에는 반드시 자기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 져가 달라고 부탁했단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들을 가지고 [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지니라. (창 50:25)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날 때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그의 뼈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 가게 되었지.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삶의 터전을 옮겼고 그곳에서 한 민족을 이루며 번성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된단다.

+ 요약과 교훈

- 형들은 나쁜 생각으로 요셉을 이집트에 팔았지만, 다시 만난 요셉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잘 대해줬어요.
-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했어요.
-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며 축복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말해줬어요.

+ 적용

-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요.
- 친구나 가족 사이에 오해가 생기면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용서하고 화해하는 노력을 해요.
- 항상 정직하게 행동하고 약속을 잘 지켜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요.

Part
20

나일 강에서 건져진 모세

얘 들어, 혹시 너희는 모세라는 이름을 들어 본 적 있지?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나, <십계>라는 오래된 영화에서 멋진 장면들을 본 기억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런데 이 모세라는 인물이 유명한 이유는 단지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만은 아니란다.

모세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 준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성경책의 맨 앞에 있는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바로 모세가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민



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귀한 말씀들이지. 게다가 모세는, 먼 훗날 자기 백성 가운데 또 다른 위대한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미리 말해 두었어.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대언한 거였지.

그럼, 모세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 볼까?

모세가 태어날 무렵, 이스라엘 사람들, 즉 그때는 ‘히브리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은 여전히 이집트에 살면서 큰 어려움 속에 있었지.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시간이 많이 흘렀고, 요셉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지. 이 새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안에서 너무 많아진 것을 보고는 몹시 걱정했어.

“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등을 돌릴지도 몰라. 적과 힘을 합쳐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한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노예로 부리고, 성을 쌓는 고된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 벽돌을 굽고, 들에서 일하고, 쉬지 못하게 만든 거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점점 더 많아졌고, 강해졌어.

좀처럼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줄지 않자 파라오는 더 무서운 명령을 내렸어. 히브리인들이 출산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 두라는 거였지.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명령이지 않니? 사람들이 만든 법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나쁜 법이라면 믿는 자들은 따를 수 없단다. 파라오의 법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기도 했지.

하나님께서서는 단 한 생명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렴. 예수님께서도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지. 그만큼 우리 모두의 생명은 귀하고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란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엄마와 아기 둘 다 목숨이 위험할 때에는 의사의 판단 아래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어떤 생명이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보호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바구니에 띄워 보낸 아기

히브리 산파들은 파라오의 무서운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 그래서 산파들은 히브리인의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그 끔찍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데 그건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도 했지.

이 소식을 들은 파라오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불같이 화를 내며 산파들을 불러 크게 꾸짖었지.

“왜 내 말대로 하지 않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려 두었느냐!”

하지만 산파들은 지혜롭게 대답했어.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튼튼한지, 저희가 가기도 전에 벌써 아기를 낳아 버려서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그들을 지켜 주셨어.

파라오는 더 무서운 명령을 내렸는데, 이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협이었던단다.

“이제부터는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걸 보면 누구든지 나일 강에 던져 버려라!”

어느 날, 한 히브리인 가정, 즉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레위 지파에 속한 한 가정에서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어. 부모는 너무나 귀엽고 잘생긴 이 아기를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지. 그래서 무려 세 달 동안 아무도 모르게 기르며 숨기려고 애를 썼어.

하지만 아기가 자라면서 점점 더 울음소리가 커지고 숨기기도 어려워졌지.





결국 아기의 부모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진흙과 역청으로 물이 새지 않게 잘 막은 다음 그 안에 아기를 눕히고는 조용히 나일 강가의 부들들 사이에 숨겨 두었다. 그리고 누나인 미리암이 그 근처에 조용히 숨어서 잘 살펴 보고 있었지.

조금 뒤, 파라오의 딸이 시녀들과 함께 강가로 목욕하러 내려왔는데 바로 그 상자가 공주의 눈에 딱 띄었다.

“저 상자 좀 가져와 보아라.”

시녀들이 상자를 건져 열자, 그 안에는 참 잘생긴 아기 하나가 있었고, 마침 배가 고프던 듯이 울음을 터뜨렸지.

공주는 어느 히브리인 가정에서 이 아기를 상자에 담아 강가에 띄운 걸 알았지만, 마음이 끌렸어. 공주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 아기를 자기가 기르기로 마음먹었지.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미리암이 용기를 내어 공주에게 다가 갔어.

“공주님, 젖을 먹일 수 있는 히브리 여인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아기에게

젓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데려올까요?”

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네가 아는 그 여인을 나에게 데려오면 좋겠구나.”

미리암은 냉큼 엄마에게 달려갔지.

“엄마! 파라오의 공주님이 아기를 데려가서 키우려고 해요. 제가 유모를 데려오겠다고 말했더니 공주님이 좋다고 했어요. 엄마, 얼른 가야 해요!”

공주는 미리암이 데려온 아기 엄마에게 말했어.

“이 아이에게 젓을 먹이고 잘 길러 주어라. 네가 유모로서 이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나 대가는 내가 주도록 하마.”

이렇게 해서 아기 모세는 친엄마 품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어.

얼마 후 모세가 어느 정도 자라자 엄마는 그를 공주에게 데려다주었고, 공주는 이름을 지어 주었지.

“이 아이는 내가 물에서 건져 낸 아이니까 모세라 부르는 게 좋겠구나.”

그리고는 자기 아들처럼 궁궐에서 길렀고, 모세는 그곳에서 이집트의 왕자들과 함께 공부하며 잘 자라났단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지 않았어. 자기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고통받던 히브리 민족의 후손이라는 걸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거든.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아마도 모세를 아기 때부터 키워 준 유모이자 친엄마 덕분이 아닐까 싶어. 모세가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나하나 잘 가르쳤을 거 같구나.

동족을 괴롭힌 자를 죽인 모세

어느 날, 모세가 40살쯤 되었을 때였지. 모세는 자기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이 강제로 일을 하는 곳을 둘러보러 나갔다가 그곳에서 그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어.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채찍으로 마구 때리고 있었던 거야. 그 모습을 본 모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단다. 주위를 살펴보



니 아무도 없었지. 모세는 그만 참지 못하고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고는 모래에다 파묻어 버렸단다.

그다음 날,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 사이를 지나다가 멀리서 우연히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 모세는 얼른 달려가서 싸우고 있던 히브리인 둘을 떼어 놓았지.



“당신들은 같은 민족인데, 어찌 서로를 때리고 그러시오?”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이,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라도 된다는 거냐?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이던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 말을 들은 모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 자신이 한 일이 알려졌다는 건 파라도 소문을 듣게 될 수 있다는 거니까 말이야. 결국 모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급히 이집트를 떠나야만 했단다.

모세는 혼자 외롭게 광야를 건너 아라비아반도 미디안 땅까지 도망쳤어. 그날부터 모세는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었지.

하루는 너무 피곤하고 배도 고파 우물가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마침 양 떼를 데리고 온 여인들이 물을 길으려 했지. 그런데 먼저 와 있던 다른 목자들이 그 여인들을 몰아내려고 하니깐, 힘이 약한 그들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쫓겨날 판이었어. 그때 모세가 용감하게 나섰지.

“이 우물이 당신들의 소유란 말시오? 이곳은 누구라도 와서 물을 뜨거나 마실 수 있는데 왜 당신들 마음대로 이 여인들을 막는 거요? 차례대로 물을 길으면 되지 않겠소?”

모세가 도와줘서 양 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었던 이 여인들은 바로 미디안

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이었어. 그녀들이 그날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 이드로가 물었지.

“아니, 오늘은 어떤 일로 이렇게 일찍 올 수 있었느냐?”

딸들이 우물가에서 모세가 도와준 일을 이야기하자 이드로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런 귀한 사람을 그냥 두고 오다니! 어서 가서 그분을 집으로 모셔 오너라.”

이 인연으로 모세는 그 집에 머물면서 양 떼를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다.

이드로는 그를 매우 믿음직하게 생각했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었지. 모세는 양을 치며 조용히 살아가며 십보라를 통해 아들 게르솜도 얻었어.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기만 했던 광야 생활도 점차 자연스레 익숙해졌고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 별이 쏟아질 듯한 하늘을 바라보며 세월을 보냈단다.

그런 시간이 하루, 이틀 흐르더니 어느덧 10년, 20년..., 무려 40년이 지나갔어. 모세도 어느덧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엔 주름이 생긴 나이가 되었지. 시간이 흘러 모세를 죽이려 하던 파라오는 세상을 떠났지만, 이집트 땅에 있는 히브리인들의 고통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단다.

그들은 여전히 노예로 살며 돌을 나르고, 벽돌을 굽고, 채찍질을 당하며 괴로운 하루하루를 이어 가고 있었지. 그들의 탄식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 믿음은 마침내 하늘까지 울려 퍼져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시기 시작하셨어.

성경은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



꿈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니라. (출 2:24-25)

하나님께서서는 약속을 절대 잊지 않는 분이야.

수십 년이 흘러 사람들이 까맣게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하고 계셔. 그리고 원하시는 때가 되었을 때, 가장 놀랍고 은혜로운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단다.

+ 요약과 교훈

- 요셉이 죽은 후 이집트에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은 큰 고통과 핍박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한 파라오의 명령 때문에 아기 모세는 갈대 상자에 숨겨졌고 나일 강에 목욕하러 온 파라오의 딸에게 구해져서 궁궐에서 자랐어요.
- 모세는 히브리 노예를 핍박한 이집트인을 죽인 후, 도망간 미디안 땅에서 십보라와 결혼하고 양 떼를 지키며 살았어요.

+ 적용

-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 생활하며 지냈던 성경 속 인물들에 대해 생각해 봐요.
- 학교나 가정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부모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요.
- 친구들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을 때, 함께 도와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요.



Part
21

불타는 떨기나무를 본 모세

모 세는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돌보며 어느덧 80살 즈음이 될 정도로 오랜 시간을 보냈단다. 그렇게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모세는 양 떼를 데리고 사막을 건너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호렙산 가까이에 가게 되었어.

그때, 저 멀리 어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희한하게도 나무는 타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야.

‘아니, 불이 붙었는데 왜 나무가 그대로 있지?’



모세는 너무나도 신기해서 그쪽으로 가까이 다가갔지. 바로 그 순간, 떨기 나무 한가운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깜짝 놀랐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출 3:5-6)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얼른 얼굴을 숨겼어. 죄 많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어서 말씀하셨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도 들었으며,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느니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알려 주셨지.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네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모세는 너무 당황했어.

‘제가요? 제가 누구라고요? 지금은 그냥 양이나 돌보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수 있단 말씀이신가요?’

걱정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셨어.

내가 만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출 3:12)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도 모세의 걱정은 더 커져서 조심스레 여쭙보았지.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면,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고 물을 겁니다. 그럴 땐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단다.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 3:14)

애들아, 이 말은 정말 깊은 뜻이 담긴 말이란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란 뜻이지. 우리는 숨 쉬고 먹고 자고 해야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거든. 그분은 영원히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어로는 “I AM THAT I AM.”이지. 말하자면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I AM”이신 거야. 사람은 언제나 ‘현재형’인 “I am…”으로 있을 수 없잖아.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과거형’으로 변해 있는 “I was…”가 되어 버리니 말이야.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시겠다고 하신 거였지.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셨단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 호칭이니라. (출 3:15)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부로 입에 올리기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고 쓰여 있어도 그대로 읽지 않고 주(LORD)라고 읽었다. 존경과 경외의 마음이 담긴 표현이었지.

그래서 온 세계에 성경이 번역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 대신 주(LORD)라고 번역했다고 해.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곧 데려가신다’는 걸 알려 주라고 하셨어. 또한 그 장로들과 함께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하셨어. 하지만 파라오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거절할 것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지.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 곧 심판이 이집트에 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줄 거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단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받아 가지고 나오게 될 거라고도 하셨어.

이렇게 자세히 알려 주셨지만 모세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걱정을 털어놓았지.

“하나님, 그래도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고 제가 거짓말한다고 하면 어떡하죠?”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가지 표적을 보여 주셨어.

먼저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땅에 던지게 하시자, 그 막대기가 뱀으로 변했어. 놀란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막대기로 돌아왔지. 참 놀라운 일이었어!

그리고 모세를 위해 표적을 하나 더 보여 주셨지. 모세에게 자기 손을 품 안

에 넣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꺼내 보게 하셨는데, 손이 하얗게 나병에 걸려 있는 거야! 다시 손을 품 안에 넣었다 꺼내자, 이번엔 멀쩡한 손으로 돌아왔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적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걸 보여 주셨는데도, 모세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어.

“하나님, 그래도 저는 말하는 게 서투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

“모세야,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 입과 함께하며, 네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니라.”

하지만 모세는 너무 두려워서 용기가 나질 않았지.

“하나님, 부디 다른 사람을 보내 주세요. 저 말고 더 나은 사람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조금 화가 나셨지만, 여전히 모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도움을 주셨어. 모세의 형 아론을 함께 보내 주시기로 하신 거야. 아론은 말을 잘했기 때문에, 모세 대신 사람들 앞에서 말을 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단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도록 하신 거야.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던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 인사하고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이집트를 향해 출발했지.

하나님께서서는 아론에게도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셨어.

“아론아, 너는 광야로 가서 네 동생 모세를 만나거라.”

이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산, 곧 호렙 산에서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지. 두 형제는 서로 껴안고 아주 반가워했단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기적들을 보여 주셨는지를 형에게 하



나하나 다 이야기해 주었어.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어.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전했고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표적들을 행했단다. 그러자 장로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난을 보시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감동해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

파라오 앞에 선 모세와 아론

이제 모세와 아론은 용기를 내어 파라오 앞에 서게 되었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그 말을 듣고는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했다.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이나? 히브리 백성들이 일하지 않고 빈둥거릴 핑계나 만들고 있구나! 어서 돌아가 일이나 해라!”

그러고는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지.



“이제부터 히브리인들에게 벽돌을 만들 때 필요한 벚짚을 주지 마라! 그들이 직접 들판에 나가서 벚짚을 구해 오게 하거라! 그러나 벽돌 수는 예전처럼 그대로 만들어야 하느니라!”

파라오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을 더욱 힘들고 고되게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거야. 결국 벽돌 만들기를 다 하지 못한 백성들은 이집트 감독들에게 매를 맞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지. 어찌나 억울했던지, 그들은 파라오에게 달려가 억울함을 호소했어.

“왕이시여,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벚짚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똑같이 만들라 하시니 너무 힘듭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무서운 표정을 하며 대답했지.

“너희가 한가하니까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자’라는 말이나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만 말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라!”

이렇게 학대가 더 심해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단다.

“너희가 괜히 나서서 파라오를 화나게 만드는 바람에 우리만 더 힘들어졌잖아! 우리가 언제 너희들에게 이집트에서 꺼내 달라고 부탁했냐고?”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지.

“주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백성들이 더 괴로워졌고,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모세의 이 기도는 마치 슬픔과 답답함이 뒤섞인 하소연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앞으로의 상황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

“파라오는 쉽게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강한 손으로 이집트를 심판한 후에는 그가 너희를 놓아주게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반드시 주겠노라.”

모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전했다. 백성들은 너



무 지치고 괴로워서 아무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 고통이 너무 크면, 사람은 희망을 믿는 힘도 잃어버리게 되거든.

하나님께서서는 다시 한번 모세에게 파라오에게 가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자신감이 완전히 떨어진 목소리로 대답했지.

“주여, 이스라엘 백성조차 제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파라오가 제 말을 들겠습니까?”

모세는 처음엔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파라오에게 찾아갔지만, 파라오의 완강한 거절과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단다.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향한 열 가지 심판을 하나씩 하나씩 내리시기 시작하셨어.

그것은 단순히 혼내기 위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이심을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에게 분명히 보여 주기 위한 일이었지.

이집트에 내린 열 가지 재앙

먼저, 첫 번째 심판은 이집트 사람들의 생명줄인 나일 강에서 시작되었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대기를 들어 강을 치니, 맑던 물이 순식간에 붉은 피로 변해 버렸지 뭐니. 물고기들이 죽고, 물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서 아무도 물을 마실 수가 없었지. 하지만 파라오의 마술사들도 비슷한 흉내를 내보였기 때문에 파라오는 “이까짓 것쯤이야!” 하며 꿈쩍도 하지 않았어. 파라오가 고집을 부린 탓에 이 고통은 무려 이레 동안이나 계속되었단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이 시작되었지.

이번에는 모세가 강과 연못들을 막대기로 치자 수많은 개구리들이 땅 위로 뛰쳐나왔단다. 온 나라가 개구리 천지였어. 왕궁, 부엌, 침대, 심지어 밥그릇

안까지 개구리들이 뛰어다녔지. 파라오는 급히 모세를 불러 말했다.

“제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개구리들을 없애 주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주마!”

하지만 개구리들이 다 사라지자, 파라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마음을 바꾸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심판으로 이집트의 땅을 막대기로 치게 하셨지. 그랬더니 땅의 티끌들이 변하여 온몸을 간지럽히는 이가 되어 이집트 전역에 퍼졌어. 이때는 파라오의 마술사들도 도저히 흉내를 낼 수 없어서,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이건 저희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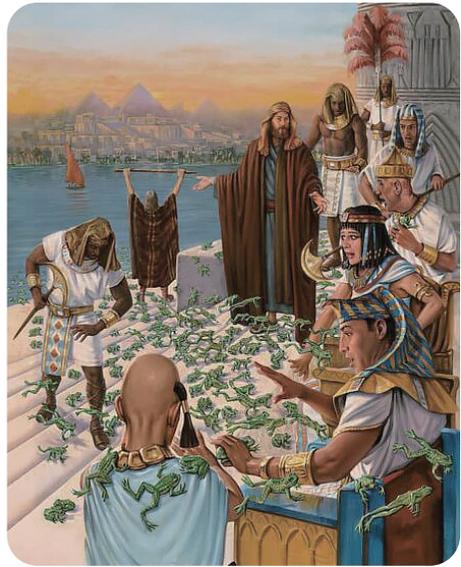
하지만 파라오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단다.

네 번째 심판은 더 고통스러웠어. 온 이집트 땅에 악취 나는 파리 떼가 몰려와 날아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괴롭혔거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날아들지 않았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신 덕분이었어. 파라오는 놀라서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어.

“좋아,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건 허락하마. 하지만 굳이 광야로 가지 말고 그냥 이집트 안에서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희생물을 드리도록 해라!”

하지만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했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물은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는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꼭 광야로 가야 합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또다시 타협을 시도했어.

“그래, 그럼 멀리 가지는 말고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겠느냐?”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단다.

“내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우리를 속이지 마십시오.”

모세가 기도하자 다음 날, 놀랍게도 이집트에 있던 파리 떼가 싹 사라져서 한 마리도 남지 않았지. 그런데도 파라오는 또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 파라오의 마음은 점점 더 딱딱해졌고, 하나님의 뜻은 더 또렷이 드러나게 되었단다. 다음에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심판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자꾸나.

+ 요약과 교훈

-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 하나님은 모세의 두려움과 부족함을 아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라며 격려해 주셨어요.
-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라오는 네 번의 재앙을 겪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 적용

- 어려울 때나 두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기를 내도록 해요.
-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최선을 다해 도전해 보도록 해요.
- 학교나 집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요.



Part
22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

파라오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향한 심판을 더 강하게 내리기 시작하셨어.

다섯 번째로 내리신 심판은 바로 가축들에게 내린 무서운 전염병이었다. 이집트인들의 소유인 말, 낙타, 나귀, 소, 양 같은 짐승들에게 전염병이 퍼져서 많이 죽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보호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르던 가축들은 하나도 아프지 않고 멀쩡했다. 이걸 보고도 파라오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알았으면서도 말이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섯 번째 재앙을 내리셨어.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화로에서 재를 한 줌 집어서 하늘로 뿌리니까, 그 재가 티끌이 되어 이집트 전역으로 퍼졌고 사람들과 짐승들 피부에 물집이 생겼다가 터지는 고통스러운 종기가 생겨났지.

파라오 곁에 있던 마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할 정도였어. 그래도 파라오의 마음은 여전히 굳은 채였어.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겸손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며 회개할 법도 한데, 파라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파라오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거든. 이걸 정말 무서운 심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절하면, 결국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옳은 것도 듣지 않게 되어 버리지.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이 내리게 되었지.

이번에는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졌단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 들에 있으면 다 맞아 죽을 수 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우박이었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기 때문에, 어떤 파라오의 신하들은 그 말을 믿고 사람들과 짐승을 미리 대피시켰어.

하지만 여전히 그 말을 믿지 않은 사람은 결국 큰 피해를 입었지. 이번에도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절했단다.

파라오가 또다시 모세를 불렀어.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느니라. 너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 백성은 악하다는 걸 알았느니라. 이 우박이 그치도록 네가 기도해 주면 너희 백성을 떠나보내 주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박이 멈추자 파라오는 다시 마음을 바꿨어.

“흠, 이제 보리도 망가졌지만, 밀과 호밀은 아직 자라지 않았으니 관촬했지...”

이제 여덟 번째 재앙은 무서운 메뚜기 떼 심판이었다.

모세와 아론이 다시 파라오에게 들어가 이렇게 말했다.

“파라오여,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너를 낮추지 않으려느냐?’라며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했다.

“우박을 피해 겨우 남아 있는 채소와 나무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 온 땅에 남은 그것들마저 싹 먹어 치울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를 보내실 겁니다. 그 수가 매우 많아서 온 땅을 까맣게 덮어 버릴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파라오의 신하들은 정말 겁이 났어.

“파라오여, 왕께서는 이 나라, 이집트가 멸망하기 직전인 걸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들 말대로 그들을 보내는 게 낫겠습니까!”

파라오는 왕궁에서 나간 모세를 다시 불러들였어.

“좋다. 너희 하나님을 섬기러 가거라. 그런데 누가 갈 것이냐?”

“우리 모두 가야 합니다. 어른도 아이도, 아내도 남편도,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함께 가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파라오가 화를 내며 욕박질렀지.

“너희들, 함부로 나를 시험하지 마라! 남자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는 다 두고 가라!”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궁궐 밖으로 내쫓아 버렸지.

쫓겨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어 이집트 땅에 엄청난 메뚜기 떼를 올라오게 하셨어. 메뚜기 떼들이 이집트 땅에 나는 모든 열매와 채소와 나무들을 먹어 치워 버렸지.

이집트 전역이 앙상하고 황폐해지자, 파라오가 다급해져서 모세를 다시 불러 말했다.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하거라. 제발 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끔찍한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해 주어라!”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강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이집트 땅에 있던 모든 메뚜기 떼를 홍해 바다로 쓸어 넣으셨어.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말이야. 하지만, 또다시 한숨 돌리게 된 파라오는 다시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주지 않았지.

마지막 재앙 후 맞이한 첫 유월절

아홉 번째 재앙은 아주 깊은 어둠이었다.

하나님께서서는 파라오의 여전히 딱딱한 마음을 보시고 이집트 땅을 칠 또 하나의 심판을 내리셨어.

이번에는 이집트 전역에 아주 짙고 무거운 어둠이 사흘 동안이나 내렸지. 너무 어두워서 앞으로 뻗은 자기 손도 볼 수 없었고 누가 옆에 있어도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새까만 어둠이었어. 아무도 무슨 일을 할 수 없었고, 어디로 갈 수도 없었지.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고센 땅에는 빛이 환히 비추고 있었단다. 결국 참지 못한 파라오가 또다시 모세를 불러 말했어.

“좋아! 이번에는 너희 모두 떠나거라. 아이들도 모두 데리고 가라. 하지만 가축은 여기 두고 가야 하느니라!”

모세는 단호하게 대답했지.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가축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크게 화를 내며 소리쳤어.

“당장 내 앞에서 꺼져라! 네가 다시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너는 죽을 줄 알아라!”

“파라오여, 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볼 일이 없을 겁니다.”

파라오의 궁궐을 떠나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실 열 번째 심판을 선언했어. 이 심판은 그동안의 모든 재앙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었지.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들, 그러니까 맨 처음 태어난 생명들을 모두 치시는 심판이었던단다.



파라오의 맏아들부터 이집트 가정의 첫째 아이,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새끼들까지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날 방법도 알려 주셨어. 바로 유월절이라는 특별한 날을 지키게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번 달을 너희 달들 가운데 첫째 달로 삼아라. 십사일째 날 저녁이 되면, 각 가정에서 흠 없는 어린양 한 마리를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집 문 옆 기둥과 윗가로대, 곧 상인방에 바르도록 하여라. 그 집 안에서는 고기를 불에 구워,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떠날 준비를 하여라.”

하나님께서서는 그날 밤 이집트를 지나가실 때, 문에 어린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냥 지나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의 천사가 ‘유월’, 곧 ‘지나간다’라는 뜻대로 피해 갔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을 유월절이라 부르며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단다.



드디어 십사일째 날 저녁이 되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가정마다 어린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먹었지.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고 모두들 숨죽이며 기다렸단다.

그날 밤, 이집트의 여기저기에서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모든 집에서 큰 울음이 터졌지. 이집트 사람들 중 아무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거든. 정말 무서운 밤이었어.

마침내 파라오도 더는 버틸 수 없게 되었단다. 자기 자식까지 잃고 나니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던 거지. 게다가 온 백성의 분노가 자기에게 향할 걸 알았기 때문에 파라오는 곧장 모세를 불렀어.

“당장 나가거라! 너희 백성과 가족들까지 전부 데리고 떠나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 주어라!”

이집트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열 가지 심판 동안 많은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식들을 잃은 큰 슬픔까지 겪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빨리 이집트를 떠나 주길 간절히 바랐지.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말하면, 금 불이며 은 불이, 옷가지까지도 전부 내어주었어. 마치 떠나라고 재촉하는 것처럼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노예로 살며 일해 온 오랜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듯,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이집트를 떠날 준비를 마쳤단다.

이날은 이집트에 머문 지 꼭 430년이 되는 해였어.

처음 야곱의 가족 70명이 내려왔던 그 땅에서, 지금은 남자 어른만 해도 60만 명, 어린이와 여자들까지 모두 합치면 거의 200만 명에 이르는 큰 민족이 된 거야. 이날 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이집트에서 나가게 해주셨고,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곧 ‘이집트를 떠난 날’이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기적이자, 역사적인 날이었지.

그리고 이 유월절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건 아니었어. 바로 이 유월절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계획의 일부였거든.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세우셔서, 그 민족을 통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메시야, 즉 예수님을 보내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 예수님을 보여 주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었던 거야.

한 번 생각해 보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밤에 문기둥과 위쪽 들보에 어린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그냥 지나쳤잖니? 그 피를 바른 집은 하나도 해를 입지 않았지. 바로 그 피 때문에 그 집안사람들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어.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약 1,500년 후, 예루살렘 근처 요르단 강가에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쳤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요 1:29)

정말 놀라운 말이지 않니?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에 죽임당한 어린양처럼,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양이라는 뜻이었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건져 준 어린양의 피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해 주는 거지.

하나님께서서는 유월절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거란다.

광야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

이집트에서 열 가지 무서운 심판이 지난 후, 급하게 그 땅을 떠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도 마음이 설레었어. 마치 오랫동안 꿈만 꾸던 자유를 드



디어 눈앞에서 보게 된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급히 챙겼고, 모세는 요셉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대로 요셉의 유골을 조심스럽게 챙겨 함께 출발했어.

너희도 기억하지?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을 믿고, “내 뼈들을 가지고 갈지니라.”라고 부탁했잖니.

이렇게 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이집트에 살던 다른 민족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따라 함께 떠났어. 정말 큰 무리였지. 사람도 많고 가축도 많고, 준비할 시간도 없이 급히 떠난 길이라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었겠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이끌어 주셨어.

낮에는 하늘에 크고 길게 드리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보여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비추며 쉬지 않고 인도해 주셨지.

그래서 백성들은 밤이든 낮이든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들은 바알스본의 맞은편, 홍해 바닷가에 이르러 진을 치게 되었단다. 그곳은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험한 산들이 있어 마



치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곳이었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완전히 갇힌 것 같은 형국이었지. 이곳에서 펼쳐질 놀라운 이야기는 꽤 흥미로울 거 같구나.

+ **요약과 교훈**

-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딱딱하고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강력한 심판을 내리셨어요.
-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롭게 되었어요.
-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흠 없는 어린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양옆 기둥과 문 상인방에 뿌렸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흘리신 피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해 내시는 것을 미리 보여 준 예표예요.

+ **적용**

-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나 부당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인내하도록 해요.
- 학교나 가정에서 잘못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옳은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요.
-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해요.





Part
23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모세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처음엔 멍하니 있다가 금세 생각이 바뀌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떠나게 하다니, 우리가 왜 그랬지!”

그동안 겪었던 열 가지 재앙의 고통은 금세 잊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라진 현실도 믿어지지 않았던 거야. 200만 명가량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렸으니, 앞으로 그들이 하던 일을 누가 해야 하나 싶었던 거지.

파라오는 곧바로 모든 병거 부대를 불러 모았어. 특히 빠르고 강력한 병거

가 600대나 있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 탱크 부대나 마찬가지였어. 따라오는 자기가 직접 병거에 올라타 모든 장군들과 병사들을 지휘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맹렬하게 쫓기 시작했지.

이스라엘 백성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 그리고 가축까지 데리고 있어서 천천히 걸어갔기 때문에 이집트 병사들에게 금방 따라잡힐 수밖에 없었어. 결국 바알스본 맞은편, 홍해 바닷가에 도착했을 무렵, 이스라엘 백성은 저 멀리서 이집트 병사들의 병거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바짝 따라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

그 장면이 상상되니? 앞에는 끝이 안 보이는 넓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무서운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무섭고 절망스러웠겠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모세를 원망하며 따지기 시작했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꺼내 놓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거요?”

“이집트에서 그냥 노예로 남아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겠어요?”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나오기만 한 거요?”

모세는 담담하게 사람들을 진정시켰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저 이집트 병사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모세야, 이제 기도는 그만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거라. 네 손에 든 막대기를 들고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테니,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땅을 밟고 그 한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니라. 그리고 파라오와 그의 병사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 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던 주님의 천사가 뒤로 물러가더니, 그들의 뒤쪽에 머물러 섰지. 그리고 그 천사와 함께 움직인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 진 뒤로 가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진 사이를 가로막았어. 그러자 이집트 군대가 있는 쪽에는 짙은 어둠이 덮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은 밝은 빛이 가득하여 그들이 밤새도록 이동할 수 있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지.

그러자 강한 동풍이 밤새도록 불면서 바닷물이 양쪽으로 밀려나더니, 물이 마치 벽처럼 좌우로 쌓였어. 그 한가운데에 걸을 수 있는 땅이 생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단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집트의 군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기 위해 바닷물이 잠시 마른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 이집트 군대를 어지럽게 만드셨어. 병거 바퀴는 진흙에 빠져 움직이기 힘들었고 기병들의 말들도 우왕좌왕하면서 온 군대가 대혼란에 빠지고 말았지.

이때쯤 이집트 병사들도 깨닫고 도망치려고 하기 시작했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들이 다시 이집트 군대에게 물러가게 하여라.”

모세가 그대로 하자, 양쪽에 벽처럼 쌓여 있던 물이 다시 흘러내리면서 이집트 병사들을 덮쳤고, 결국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죽고 말았단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바다 가운데를 건너가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어.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닷가에 떠밀려 온 수많은 이집트 병사들의 시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지.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여인들은 작은 북을 들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홍해를 건넌 기쁨과 흥분을 안고 수르 광야에 들어서게 되었단다. 그런데 이곳은 물이 전혀 없는 메마른 땅이라 마실 물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지. 사흘이 지나 겨우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찾기는 했지만,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

그러자 백성들은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했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쓴 물을 마시란 말이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 주셨고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 놀랍게도 그 쓴물이 달게 변했단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열두 개의 우물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해 잠시 쉬다가 백성은 다시 이동하면서 이집트를 떠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신 광야에 이르렀지. 그곳에서 백성은 또다시 불평을 쏟아냈단다.

“이집트에서는 고기도 마음껏 먹고 빵도 배불리 먹었는데, 여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를 이곳에서 굶어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온 겁니까?”

이런 불평은 사실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자비로우셨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으니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르리니, 너희 하나님이 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 하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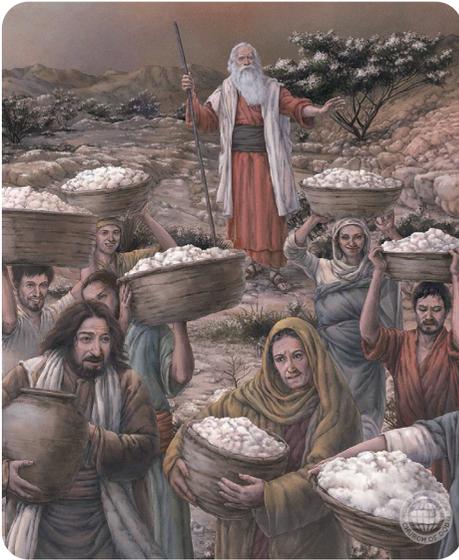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였단다. 모세가 말한 대로 정말로 온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메추라기 떼가 날아들어 백성들의 진 앞을 온통 덮어 버렸어. 집집마다 고기 냄새가 솔솔 나는 저녁이었지.



그리고 그다음 날 이른 아침, 땅 위에는 하얗게 이슬이 내린 듯한 모습이 펼쳐져 있었어. 그런데 해가 조금씩 떠오르며 이슬이 마르자, 그 자리에는 마치 눈처럼 희고 작고 둥근 알갱이들이 가득 깔려 있었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 보는 것이라 깜짝 놀라서 서로 말했다.

“이게 뭐지? 대체 이걸 뭘까?”

사람들은 그걸 ‘만나’라고 불렀는데, ‘이게 뭐지?’라는 뜻의 말에서 비롯된 이름이었지. 이 만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주신 빵이었고, 그것들은 해가 뜨고 햇볕이 강해지기 전에 거두어야 했어. 해가 높이 오르면 금세 녹았기 때문이거든. 사람들은 그것을 절구에 쪼갬도 하고 맷돌에 갈기도 해서 납작하게 만들고 구워서 빵으로 먹었는데, 맛은 고소하고 달콤한 꿀과 기름으로 만든 과자 같았다고 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거두는 데에도 규칙을 정해 주셨어.



하루에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그러니까 딱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고, 다음 날까지는 절대로 남기지 말라고 하셨어. 또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을 대비해 이틀 치를 거두라고 하셨지.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욕심부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본 사람들도 있었

지.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많이 거두어 왔다가 그다음 날 보니 그만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진동했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도 아침 일찍 광야로 나가기도 했지. 당연히 그날은 아무것도 없었어.

이런 불순종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셨단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명령들과 내 법들을 지키기를 거부하려느냐?”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하루하루 내려 주시며 백성을 먹이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이 없어서 배고프다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직접 양식을 주셨으니, 참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지.

그 뒤로 백성들은 광야를 따라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이동했단다. 그런데 이번엔 마실 물이 없어서, 또다시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지.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려는 거냐?”

“차라리 이집트에서 살던 게 나았을지도 몰라!”

백성들의 말은 모세를 향했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던 거야. 모세는 백성들의 분노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 이 사람들이 저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호렙 산 근처의 바위 하나를 보아라. 내가 전에 홍해를 가를 때 사용한 그 막대기로 그 바위를 치거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위를 치자, 놀랍게도 거기서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 그 물로 온 백성이 마시고 또 가축들도 목을 축일 수 있었단다. 사람들은 늘 불평했고 자주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아시고, 제때에 공급해 주셨어.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늘 함께하고 계셨지.

아말렉과의 전쟁

그렇게 르비딤에 머물던 어느 날이었던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갑자기 아말렉이라는 이방 족속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나타났어. 이들은 이스라엘과 어떠한 원한도 있지 않았지만, 단지 약하고 피곤한 사람들을 노리고 전쟁을



걸어온 아주 나쁜 족속이었지. 모세는 이 급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라는 믿음직한 청년을 불러 싸움의 대장으로 세웠어.

“여호수아야, 우리 백성 중에서 용감하고 힘센 젊은이들을 골라 아말렉과 싸울 준비를 하거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단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했어. 그러자 신기하게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단다. 시간이 길어지고 해가 높이 떠오르자 모세는 점점 팔이 무거워졌어. 손을 계속 들고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지. 그걸 본 아론과 훌은 모세가 앉을 수 있도록 큰 돌을 가져다주었고, 두 사람은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 들게 해 주었던단다. 그렇게 모세가 해가 질 때까지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었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이라는

큰 위기를 이겨 낸 뒤,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갔지. 그리고 마침내 이집트를 떠난 지 한 달 반쯤 되었을 무렵, 이들은 긴 여정 끝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시나이 산 아래에 도착했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율법을 받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단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물론 우리가 싸우는 건 칼이나 총을 드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우리와, 세상의 죄악과 잘못된

생각들이 부딪힐 때,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된다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을 만들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잘못된 법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해. 이런 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란다.

전쟁터에서 여호수아와 용사들이 앞에서 싸웠지만, 모세와 아론, 홀은 뒤에서 기도하며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해.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교회가 함께 힘을 모으고,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모두 하나 되어 싸우는 것이 중요하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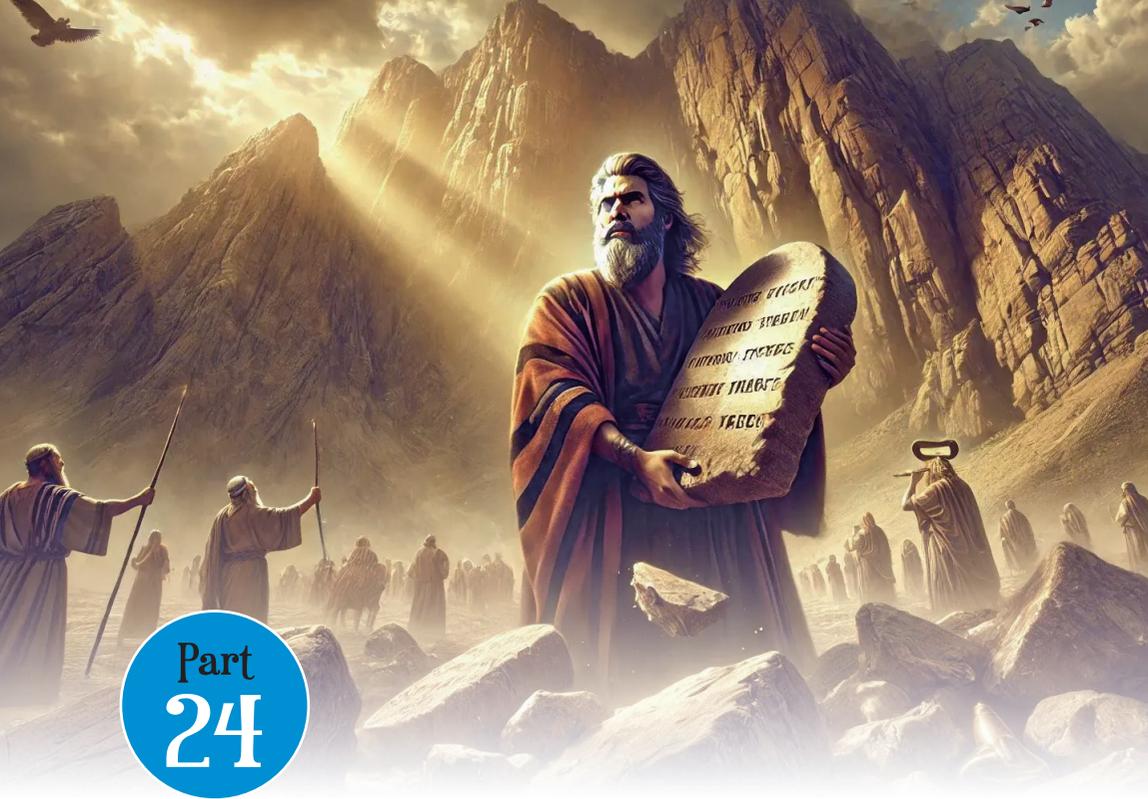
+ 요약과 교훈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한가운데 마른땅 위로 무사히 지나가게 하신 후, 뒤쫓아 온 파라오의 군대는 멸망시키셨어요.
- 이스라엘 백성은 물과 음식 등 광야에서 지내는 게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모세에게 항의했어요.
-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를 채워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 적용

-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요.
- 가족,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서로 도우며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Part
24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많은 고생과 모험을 겪은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시내 산 아래에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곳이라고 하신 바로 그 장소였지.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였는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들에 실

어 내게 데려왔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 소유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출 19:4-5)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싶으셨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키기만 하면 정말 복된 민족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지.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빠짐없이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저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쉽게 마음을 바꾸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이미 아시고 있었단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 바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게 하신 거지.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을 산 아래로 모이게 하고, 사흘 동안 몸과 옷을 깨끗이 씻게 하라고 하셨단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 모든 백성이 시내 산기슭에 나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셨어. 단, 산에 가까이 가거나 만지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니 정해진 경계선을 넘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주신 열 가지 명령(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셋째 날 아침이 되었지.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으며 산 위에는 시커먼 구름이 드리워졌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며 울려 퍼졌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시내 산꼭대기로 불 가운데 나타나셨어.

산 전체가 흔들리고 연기가 솟아오르며 커다란 나팔 소리는 멈추지 않았지. 그 광경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모습이었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거룩하신 분이신지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겠지?

백성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고 나중에는 모세에게 부탁했어.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으니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가 죽을까 걱정되요. 제발 모세 당신이 대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처럼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단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이때 주어진 것이었어.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 주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었지.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예배를 드릴 때 지켜야 할 규칙들,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야 할 사회적인 법들도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이 모든 명령을 잘 기억해서 이스라엘 후손에게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평생토록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법들은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아니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모든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법이란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 우리 마음, 즉 양심에 이미 새겨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부모님을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법들은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마음속 깊이 ‘이건 옳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잖니?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부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불변의 법이란다.

그런데 그중에서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특별히 유대인에게는 토요일이었지만,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일주일의 아무 하루를 떼

어서 거룩하게 지키면 된단다. 사람들이 많이 쉬는 날에 함께 교회에 모이기 쉬우니까, 우리는 일요일을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고 있는 셈이지.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십계명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

첫째,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둘째,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셋째,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구별하라.

다섯째,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섯째,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너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너는 네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열째, 너는 네 이웃의 소유 중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신 5:7-21)

이 말씀을 다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한목소리로 대답했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이 맺은 이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제단을 쌓고,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돌기둥을 세웠지. 그리고 소를 잡아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렇게 말했어.

주께서 이 모든 말씀들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출 24:8)

이스라엘은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



야 하는 구약 시대가 시작되었지.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시내 산으로 오게 하셨어.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서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발밑은 사파이어 보석처럼 맑고 투명했다고 하는구나.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한 광경이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손수 기록하신 십계명의 돌판과 율법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모세만 따로 산꼭대기로 올라오게 하셨어.

모세는 아론과 훌과 장로들에게 백성을 맡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다시 시내 산으로 여호수아만을 데리고 올라갔단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앞에, 모세는 또 한 걸음을 내딛게 된 거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시내 산 위에서 무려 40일 밤낮을 금식하며 지냈단다. 빵도 물도 입에 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손수 새겨 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받았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백성들

한편,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큰일이 터지고 말았단다.

처음엔 사람들도 잘 기다렸지만, 시간이 흘러 40일이 지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 사이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모세가 산 위에서 무슨 일을 당했나 봐요.”

“하나님께 벌받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결국 사람들은 무리 지어 아론에게 몰려갔어.

“우린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모세가 죽은 거 같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아론은 처음엔 깜짝 놀랐어.

“아니,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벌써 잊

있단 말이냐?” 하고 말렸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이며 외쳤다.

“모세는 이제 끝난 거 같아요. 우리가 믿고 섬기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보았던 금송아지 신을 다시 만들어 주세요!”

아론은 사람들의 겁박에 위협을 느꼈을지도 모르겠구나.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와 아우성치니 아론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 같아.

“좋다. 너희들의 귀에 있는 금귀걸이들을 다 빼서 내게 가져와라.”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금을 아론에게 바쳤고, 아론은 그것을 녹여 틀에 붓고 조각 도구로 다듬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반짝반짝 빛나는 금송아지가 완성되자,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환호했단다.

“이게 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 낸 신이다!”

아론은 마음 한구석이 찢찢했겠지. 그래서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단다.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니라!”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지하신 일을 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둘러댄 거잖니. 우상에게 절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포장하는 건 정말 더 큰 죄야.

그다음 날 아침,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 번제 헌물을 바치고 제물을 나눠 먹으며 노래하고 춤추며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였다. 성경에서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라고 되어 있어. 이 말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매우 무질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 된 행동을 저질렀다는 의미란다.

이때는 여전히 모세가 시내 산 위에서 하나님께 두 돌판, 곧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였어.

“모세야, 지금 당장 내려가거라. 너희 백성이 타락하여 내 말을 어기고 스스로 부패한 길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어.

“그들이 내가 명령한 길에서 너무도 빨리 떠나, 자기들을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신이라 부르며 절하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느니라. 금송아지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한 신이라고 말하며 경배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서는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시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새 민족을 세우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지.

그때 모세는 너무도 놀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어.

“주님, 주님께서 친히 능력의 손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만약 주님께서 이 백성을 멸하신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산에서 죽이시려고 이끌어 내셨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자손을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

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의 그 기도는 눈물 어린 간청이었어.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어. 그제야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 주신 두 돌판을 들고 여호수아와 함께 산 아래로 내려왔단다.

돌판을 깨뜨린 모세

내려오는 길에 백성들의 진영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지. 여호수아가 귀를 기울이며 말했어.

“전쟁이 난 거 같은데요?”

모세도 듣다가 고개를 저었지.

“아니야, 이걸 싸우는 소리가 아니구나. 노랫소리야… 뭔가 잘못됐어.”

산을 내려와 진영 가까이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그만 두 눈을 의심했어. 금송아지 앞에서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며 떠들썩하게 놀고 있었던단다. 더구나 어떤 사람들은 별거벗은 채 돌아다니며 무질서하게 굴었어.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써 주신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있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돌판들을 산 아래 바위에 내던져 그만 산산조각을 내고 말았어.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 주는 행동이었지.

그다음엔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 가루로 만들고 물에 섞어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어. 그 금송아지가 아무 힘도 없는 단순한 쇠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으로 뼈저리게 깨닫게 하려는 의미였지.

그리고 모세는 아론을 따로 불러 엄하게 이야기했지.

“이 백성이 형님에게 무슨 짓을 했기에, 그들을 이런 큰 죄 가운데 빠뜨렸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진영 입구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어.

“누가 주의 편에 설 것이냐?”

그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 모였고 모세는 단호하게 말했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칼을 차고 들어가 이 죄에 참여한 백성들을 모두 죽여라!”

그날에 죄에 참여했던 백성들 가운데 약 3천 명이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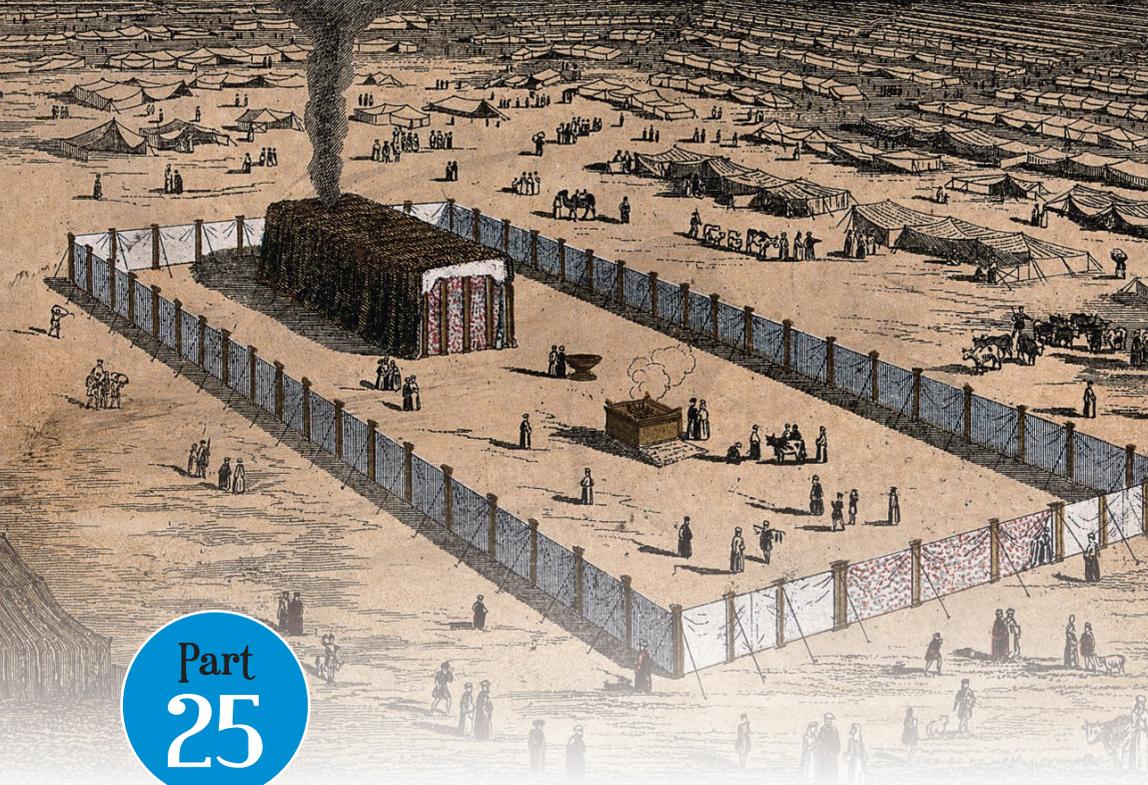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할 때 얼마나 큰 죄를 범하게 되는지를 보여 주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참된 믿음이라는 것도 잊지 말자꾸나.

+ 요약과 교훈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자, 그들과 함께하시고 지켜야 할 법, 즉 십계명과 여러 규범을 주셨어요.
-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모세를 통해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회를 주시며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셨어요.

+ 적용

-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도록 해요.
- 학교나 집에서 규칙을 잘 지키고,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해요.
- 정해진 규칙을 어기게 되는 우리 주변의 유혹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Part
25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성막

너희 혹시 성막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 있지?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시려고 설계도를 직접 주셔서 만든 하나님의 특별한 거처란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바로 이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시면서 모양과 크기, 재료까지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

이 성막은 다른 민족은 가져 본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아주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었지.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그분께 나아가고 싶다면 반드시 이 성막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아무 곳에서나 희생물을 드릴 수는 없었다. 훗날 이 성막은 솔로몬 왕 시대에 금으로 지은 성전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겐 이 성막 혹은 성전이 없는 신앙생활이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것이었지.

성막은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텐트였어. 광야를 떠돌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곳에 머무르게 되면 이 성막을 설치했고, 떠나게 되면 다시 분리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의 모형과 똑같다는 사실과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지.

성막의 크기와 구조

그럼,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볼까?

요즘 쓰는 치수로 계산하면, 성막의 뜰은 길이 약 45미터, 너비는 약 22.5미터쯤이었는데 축구장의 약 6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였지. 사방에는 늦으로 된 기둥 60개를 세우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현수막을 둘러 울타리를 만들었어.

울타리의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 헌물 제단과 늦 물두멍이 있는 뜰이 있었단다. 번제 헌물 제단은 뜰의 문과 성막의 문 사이에 놓여 있었는데,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용서받는 희생물을 드렸지. 그리고 물두멍은 제단과 성막의 문 사이에 있었어. 제사장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었단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는 항상 정결해야 했기 때문이야.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동쪽의 3분의 2는 성소, 서쪽의 3분의 1은 지성소로 쓰였는데 성소는 길이가 약 13.5미터, 폭과 높이는 약 4.5미터 되는 네모난 방이었지. 벽은 조각목으로 만들어 그 위에 금을 입혔고 네 겹의 덮개

로 덮여 있었다. 지성소는 길이, 폭, 높이가 모두 똑같은 정육면체 모양이 었어. 이 두 곳에는 창문이 없어서 아주 어두웠기 때문에 성소에서는 등잔불 을 항상 켜두어야 했지. 그래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거든. 이 성소와 지성소에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

이제 성소 안을 살펴볼까?

이곳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고, 성소의 가운데, 즉 지성소와 나뉜 휘장 앞 에는 향 제단이 있었어. 제사장들은 이곳에서 아침저녁으로 향을 피우며 하 나님께 기도했지. 그리고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오른쪽, 즉 북쪽에는 보여 주는 빵을 두는 상이 있었다. 이 빵은 하나님 앞에 늘 놓아두는 특별 한 빵이었어. 왼쪽, 즉 남쪽에는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었지.

‘가장 거룩한 곳’으로 불리는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일 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한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날 을 속죄일이라고 불렀단다.

지성소에는 증언궤가 놓여 있었는데, 증언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공홀의 자리’라고 불렀어. 그 모습은 마치 천상의 존재인 그룹이 날개를 펴고 그 자 리를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세워져 있었지.

왜 공홀의 자리라고 불렀을까?

대제사장이 번제 헌물 제단에 바쳐진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그 공홀 의 자리에 뿌리고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속죄해 주시며 응 답해 주시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란단다.

그리고 그 증언궤 안에는 원래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었는데, 십계명이 새겨진 두 개의 돌판, 만나가 담긴 금항아리, 아론의 싹 난 막대기였단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받아온 십계명이 적힌 돌판에 관한 이야기나, 광야에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두어 먹게 하신 만나 이야기는 이미 너희 들이 들어서 아는 이야기일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고라의 자손들

혹시 “아론의 싹 난 막대기가 뭘까?” 하고 궁금해할 수 있으니 이야기를 들려줄게. 아론의 싹 난 막대기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 그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성막을 섬기도록 하셨어.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셨단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레위 지파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

“음, 아론도 우리와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 집안만 제사장을 할 수 있지?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말이야!”

고라는 이렇게 속으로 불만을 품기 시작하더니 슬그머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단다.

“얘들아,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 지파잖아? 그런데 아론만 특별히 잘났어? 우리도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잖아! 안 그래?”

이 말에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백성의 지도자급 사람들과,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라 편에 서고는 한날한시에 모세 앞에 몰려가서 이렇게 따졌지.

“모세, 당신만 지도자를 할 수 있는 게 맞는 이치요? 우리가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지금도 힘들기만 하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별하셨다면, 왜 아론 집안만 높이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느냐, 이 말이오!”

모세는 이 말에 너무 가슴이 아팠지. 하나님께서는 엄청 화가 나서서 반역하는 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회중들을 모두 없애 버리려고 하셨고, 모세는 얼른 하나님께 온 회중을 소멸시키지는 말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 제발 이 백성을 한꺼번에 심판하지 마시고, 올바른 판단을 보여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번에도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고라와 그의 무리를 따로 한쪽으로 세우고 나머지 백성은 멀리 떨어지게

하여라.”

모세는 사람들에게 경고했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사는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니라!”

그 후에, 땅이 썩! 하고 갈라지면서 그들이 서 있던 곳이 크게 벌어졌고, 고라와 그의 모든 가족, 그리고 장막과 소유물까지 그대로 땅속으로 떨어져 버렸지. 이뿐만 아니라, 고라를 따라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운 250명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두 심판을 받게 되었어. 이쯤 되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법도 하잖나?

그런데 이튿날, 어떤 백성들은 또다시 불평하며 이렇게 말했어.

“이게 다 모세 때문이야! 모세가 우리 백성들을 죽게 만든 거야!”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화가 나셨지. 재앙이 진영 가운데 퍼지기 시작했고 결국 이날에만 14,700명이 더 죽게 되었단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제사장만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신 거야.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생각과 욕심으로 바꾸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거든.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은 성경 속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도전한 심각한 죄였기 때문이란단다.

성막이 예표하는 예수님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심판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마음속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방법을 마련하셨어.

하나님께서서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막대기를 하나씩 내놓으라고 명령하셨지. 모두 열두 개가 모였고 막대기마다 해당 지파 지도자의 이름을 썼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의 막대기에는 아론의 이름을 새기라고 하셨어. 그렇게 각각 이름이 적힌 열두 막대기를 지성소 안, 하나님의 증언궤 앞에 놓도록 명령하셨지.

그다음 날 아침, 모세가 다시 그 막대기들을 꺼내 보았단다. 그런데 세상에! 다른 열한 개의 막대기는 어제 모습 그대로였는데, 아론의 막대기에서는 싹이 트고 봉우리가 맺히고 꽃이 피고 심지어 아몬드 열매까지 열린 거야!

그 막대기는 원래 마른 막대기였기 때문에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지.

물도 없고 햇볕도 없고 흠도 없는 지성소 안에서 하룻밤 사이에 생명이 움튼 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

하나님께서서는 그 막대기를 증언궤 안에 간직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사장직에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걸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지.

그리고 이 성막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니?

그래, 바로 예수님이란다.

처음에 할머니가 말했듯이, 성막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미리 보여 주는 그림자, 즉 예표였단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계셨고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졌던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월절을 앞둔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의 일이었던다. 그곳은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했는데, 양, 소, 비둘기를 팔기도 하고 돈을 바꿔 주는 상인들로 가득했단다. 마치 시장 처럼 복잡하고 시끄러웠지.

예수님께서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무척 화가 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요 2:16)

그리고는 그들의 상을 뒤엎고, 동물들을 내쫓으셨단다. 깜짝 놀란 유대인들이 항의했어.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짓을 하는 거요? 정말 메시아라도 된다는 말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 주시오!”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하셨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요 2:19)

유대인들은 비웃었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 온 건데, 네가 무슨 수로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는 거냐?”

하지만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 곧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던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서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두고 말씀하셨더라. (요 2:21)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하지?

성전 혹은 성막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였어. 그리고 그 안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 주는 유일한 통로였지.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대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거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 거였고, ‘사흘 안에 그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해 주신 거였단다. 그러니까 성막, 대제사장, 희생 제물, 이 모든 것은 사실 그 성막이 세워진 때로부터 약 1,500년이 지난 뒤에 나타나시게 될 예수님을 보여 주는 그림자였지.

성막의 번제 헌물 제단에서 죽은 어린양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했던 대제사장은, 지금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증보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 주는 거야. 대제사장이 해마다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공홀의 자리에 피를 뿌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거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다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그 순간,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지. 사람 손으로 아래에서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찢으신 거야.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일 년에 한 번 들어가던 그 지성소 대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놀라운 변화도 생겼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 각자의 인격적인 구원자라고 믿

는 사람은 모두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새롭게 주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라고 부르게 되었단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성막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이야. 이제 너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감사한 일인지, 조금 더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겠니? 할머니가 해 주는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바르고 복된 길을 걸어가자꾸나.

요약과 교훈

-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막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미리 보여 주는 그림자, 즉 예표예요.
- 고라와 그의 무리가 일으킨 반역을 심판하신 사건을 통해 제사장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셨어요.
-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이뤄 나가시는 걸 보여 주셨어요.

적용

- 우리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기억하며,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노력해요.
-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부모님,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르도록 노력해요.
- 우리가 사는 신약 시대의 은혜와 우리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대신 속죄에 대해 생각해 보아요.





Part
26

가나안 땅으로 열두 정탐꾼을 보낸 모세

이 스라엘 백성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도 정성껏 지어 세웠단다. 그리고 그 성막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밤낮으로 머물러 있었지. 구름 기둥이 멈추면 백성들도 멈추어 머물렀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백성들도 장막을 걷어 하나님을 따라 길을 떠났어.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서 천천히 떠오르더니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시내 산을 떠나게 되었지. 그들은 광야를 지

나 바란에 도착했고, 계속해서 걸어가 가데스바네아에 진을 치고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이곳은 가나안 땅의 남쪽 가장자리에 있었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머지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거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지.

가나안이 가까워지자 백성들 가운데서는 정탐꾼들을 보내자는 말이 나왔어.

“우리가 들어갈 땅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성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열두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열두 명의 정탐꾼을 뽑아 그 땅을 살펴보도록 허락하셨어.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용기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하나씩 뽑았고,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를 비롯한 열두 명이 뽑혔지.

“크게 용기를 내어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올 때 그 땅의 열매도 가져오거라.”

열 명의 정탐꾼과 두 명의 정탐꾼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간 열두 명은 무사히 40일 동안의 정찰을 마치고 돌아왔단다.

모두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손에는 탐스러운 열매를 가득 들고 있었어. 그중에는 크고 달콤해 보이는 포도송이와 붉은 석류, 무화과 열매도 있어서, 사람들은 그 열매들을 보며 눈을 반짝였지.

정탐꾼들은 모세와 아론 앞에 서서 백성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그동안 본 것들을 이야기했어. 가장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지.

“우리가 보고 온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였어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지.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른 정탐꾼 열 명은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기 때문이야.



“그렇긴 한데요…, 그 땅엔 문제가 많습니다. 성벽은 너무 크고 단단해 보였어요. 게다가 그곳 사람들은 너무 키가 크고 강해 보여서 우리가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였어요.”

그리고는 또 한 정탐꾼이 나섰어.

“정말 무서웠어요. 그 땅을 지키던 거인 같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느껴졌어요. 더구나 제가 보기엔 그 땅은 생각보다 별로더라고요. 무서운 사람들과 싸워서 차지해야 할 땅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얼굴이 어두워졌지. 이곳저곳에서 한숨이 흘러 나오기 시작했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어. 어떤 사람은 땅에 주저앉아 울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떨구며 소리쳤지.

“우리는 끝났어. 이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도 못할 거라구!”

사람들은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또다시 비난의 소리를 퍼부었어.

“아니, 우리가 이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온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야?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이런 꼴은 안 봤을 텐데!”

“왜 우리를 이 먼 곳까지 끌고 와서 저들의 칼에 찔려 죽게 하는 겁니까! 우

리 아내들과 아이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사람들은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모세와 아론에게 당장 돌을 던지자고 소리쳤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드는 모습까지 보였어.

“이렇게 된 이상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용감하게 백성들 앞으로 나섰지. 두 사람의 눈에는 믿음의 빛이 가득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어.

“여러분, 제발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우리가 가서 살펴본 그 땅은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데리고 가서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큰 죄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무시했지. 분위기는 계속 험악해져서 더 화를 내며 이 두 사람마저 돌로 치려 했단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바로 그때였어.

성막 위에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단다. 백성들 모두가 그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지고, 한 순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이 백성은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분노하게 하려는 것이냐?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 주었는데도, 어찌하여 여전히 나를 믿지 못한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진노가 담겨 있었어.



“내가 역병으로 이 백성들을 쳐서 그들의 상속권을 없애리라. 그리고 네게서 그들보다 더 크고 강력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모세에게는 엄청난 축복처럼 생각되는구나. 늘 불평하고 투덜대며 모세를 원망하던 백성들을 더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겠다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생긴 거니까 말이야.

그렇지만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어.

“주님, 주님께서서는 큰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도 모두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 백성을 다 없애 버리시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갈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다.’라고요.”

그리고 모세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

“주님, 제발 약속하신 대로 이 백성을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모세의 간절하고 겸손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리에서 진멸하지 않기로 하셨어. 참으로 놀라운 은혜였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책임까지 없애 주신 건 아니었어.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사십 일의 하루를 일 년으로 환산하여 사십 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나…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민 14:34-35)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20살이 넘는 모든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오직 그들의 자녀 세대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하셨지.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자, 진영 안은 금세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어. 그제야 이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잘못을 깨달았고, 혹시 지금이라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생각했지.

“이제 저희가 그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으로 지금이라도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

“너희는 왜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려 하느냐? 그 일은 결코 잘 되지 않을 것이니라. 제발 올라가지 말아라.”

모세는 알고 있었지. 이들이 지금은 순종하려는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열심으로 무언가 되돌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걸 말이야.

그래서 모세는 다시 경고했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니 너희가 올라가서 싸우면 분명히 질 것이니라.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를 쓰러뜨릴 거니 가지 말거라!”

하지만 백성들은 끝까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산으로 올라가 싸우러 갔지. 그리고 결국 크게 져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말았어. 그들이 싸우러 갈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뿐만 아니라 모세도 함께 가지 않고 진영 안에 머물러 있었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 그 뒤로 이들은 무려 38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며 지내야 했는데, 처음 이집트를 탈출한 날부터 계산하면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무르게 된 거란다.

이 모든 일의 빌미를 제공했던 열 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음을 맞았고, 오직 믿음을 지켰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오랜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헌신하며 온갖 고생을 감내해 온 모세와 아론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 사건 때문이었어.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가나안 땅 남쪽 끝인 가데스바네아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정탐꾼을 보냈던 바로 그곳이었지.

이곳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이 마실 물이 하나도 없자 또다시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 내기 시작했어.

“차라리 예전에 죽은 형제들처럼 우리도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 황량한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이대로 굶고 목말라 죽게 하는 거요?”

“여기는 무화과나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여기서 살라는 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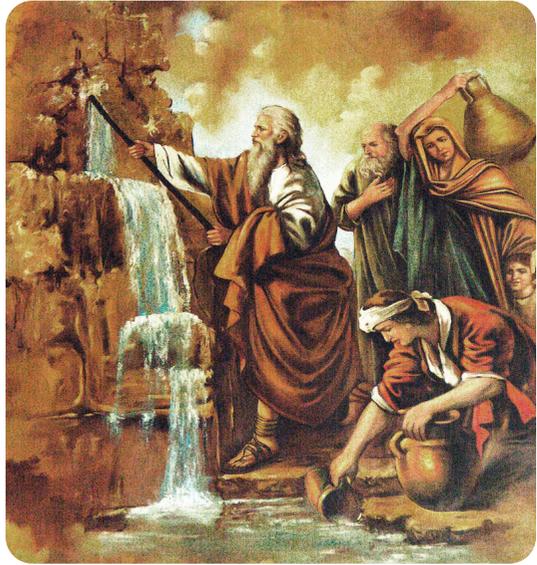
모세와 아론은 이 말을 듣고 너무 괴로워 하나님께서 계신 성막 문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막대기를 들고 네 형 아론과 함께 온 백성을 모아라. 그들 앞에서 반석을 향해 말만 하여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고, 백성과 그들의 짐승들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대기를 손에 들고 백성 앞에 섰다가, 그동안 쌓였던 마음속 화가 폭발해서 큰소리를 쳤어.

“이 반역자들아! 내가 이 바위에서 너희를 위해 물을 나오게 해야 조용해지겠느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화를 참지 못해 막대기로 반석을 두 번이나 세계 내리쳤지. 그러자 놀랍게도 바위틈에서 시원한 물이 팔팔 쏟아져 나왔고 백성과 짐승들은 그 물을 마음껏 마셨어.



하지만 바로 이 일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단다.

“아니, 왜요?” 하고 궁금할 거 같구나.

그건 말이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란단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석에게 말하라.”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자신의 분노에 휘둘려 막대기로 바위를 내리쳤거든.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가려졌고, 하나님께서 주신 엄중한 명령을 모세가 가볍게 여긴 게 되어 버린 거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 20:12)

그 뒤에 모세는 몇 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드렸지만,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한 후, 요르단 강 동쪽 모압 땅에 있는 느보



산 꼭대기에서 자기 사명을 마치고 눈을 감게 되었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에는 작은 불순종도 큰 문제가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감정이 아무리 커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야.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알려진 모세조차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해.

요약과 교훈

-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했지만, 다른 열 명은 두려움 때문에 절망적인 보고를 했어요.
-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벌을 받았지만, 믿음을 지킨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지요.
-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났던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가리는 잘못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적용

- 어떤 일을 처음 하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도록 노력해요.
-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시킨 일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잘 따라요.



Part
27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이 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결국 광야에서 38년을 돌아다니는 생활을 계속해야 했지. 이집트를 나온 뒤부터 따지면,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떠돌며 살아야 했던 거야.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쉬운 길이 아니라, 험하고도 힘든 길을 걸어야 했지.

때로는 마실 물이 없었고, 먹을 것이 부족했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날들도 많았어. 바란 광야를 지나 가데스바네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시 요르단 동편으로 올라오면서 여러 강력한 적들과 맞서 싸워야 했지.

그렇게 힘든 여정을 이어가던 중, 두 가지 특별한 사건이 있었어. 그중 하나는 광야의 불뱀 사건, 또 하나는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우상 숭배 사건이야. 이 사건들은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단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

먼저 불뱀 사건 이야기를 해 줄게.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으로 인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내려가게 되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가면서 또다시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했지.

“도대체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왔단 말입니까?”

“이집트에서 잘살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물도 없고 빵도 없고, 이 만나란 것도 이제 지긋지긋하네요!”

이런 말들은 모세를 향한 불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표현이었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금세 잊고 다시 불평을 시작했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광야에 불뱀들을 보내, 원망하던 사람들을 물게 하셨어. 불뱀 때문에 죽는 사람도 생기자, 이에 깜짝 놀란 백성들은 모세에게 달려와 울면서 이렇게 말했지.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어요. 제발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살려 주세요!”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눅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고, 뱀에게 물린 사람들 중 그 뱀뱀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 낫게 되었어.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미리 보여주었던 사건이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예수님]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 3:14-15)

즉, 광야에서 뱀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이 살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었지.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뱀뱀을 무슨 신비한 힘이라도 있는 듯이 생각해서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께서 단지 믿음의 표로 보여 주신 거였는데, 그걸 진짜 신처럼 생각한 거지.

이와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십자가란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



를 위해 죽으신 사랑의 상징인 거지, 십자가 자체에 무슨 마법 같은 힘이 있는 건 아니거든. 혹시 누군가가 십자가를 부적처럼 여기더라도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야에 진을 치고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쪽에서 헤스본 왕 시혼과 북쪽에서 바산 왕 옥을 무찌르며 주변 나라들이 두려움에 떨도록 했어.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을 비롯한 모압 사람들은 겁을 잔뜩 먹었고, 발락은 한 가지 꾀를 냈지. 그 땅에서 유명하다고 소문난 점쟁이 무당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했거든. 그러면 저주받은 백성은 싸움에 져서 몰아낼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였지.

이 발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말하고 다녔지만, 사실은 돈을 무척 좋아하기만 하는 가짜 대언자였어. 그래서 자기를 찾아온 왕의 사신들을 하룻밤 머물게 하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려는 걸치레 말을 하곤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분명히 전하기 위해 때때로 악한 사람도 사용하셨거든.

“너한테 온 사람들은 누구냐?”

물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발람을 시험해 보시려는 거였지.

“모압 왕 발락이 제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

“가지 말거라. 이스라엘은 복 받은 백성이니 저주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발람은 어쩔 수 없이 사신들을 돌려보냈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발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돈 욕심이 있었단다. 그래서 말은 그렇게 했어도 아쉬워하며 은근히 기다렸지.

‘혹시 다시 오지 않을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지?’

아니나 다를까 모압 왕 발락은 더 높은 위치에 있던 신하들에게 더 좋은 조건과 많은 보물을 팔려 보내며, 아예 발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줄 테니, 제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게나!”

그 말을 들은 발람의 눈은 반짝였지.

‘이번엔 진짜 놓치기 아까운데...’

하지만 사신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

“억만금을 준대도 나는 절대 그분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정작 마음에 미련이 남았던 발람은 이번에 온 사신들도 하룻밤 머물게 했지.

“하룻밤 더 있다 가세요. 하나님께서 혹시 다른 말씀을 하실지 모르니, 그동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는 척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잖니.

“가지 말거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거라.”

하지만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따르지 않고, 머뭇거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시키는 말만 하거라.”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시고, 따르지 않을 때는 경고를 해 주셔. 그럼에도 사람이 계속해서 고집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는 강제로 막으시지는 않거든.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지. 만약 우



리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강제적으로 조종하시려고 했다면 사람 대신에 로봇을 만드시지 않았겠니?

어쨌든 발람은 하나님의 허락 아닌 허락을 받자마자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나귀를 타고 왕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단다.

발람의 마음속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보다는 왕이 약속한 많은 보상과 부귀에 마음이 더 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번 더 그에게 경고하시기 위해 주의 천사를 보내셨어.

발람이 나귀를 타고 좁은 길을 지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나귀가 갑자기 옆 담벼락으로 몸을 밀더니 그만 발람의 다리를 벽에 부딪히게 해 버렸지 뭐니.

발람은 너무 아파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

“아니, 이 나쁜 녀석이! 무슨 짓이야!”

그리고는 지팡이로 세 번이나 나귀를 세게 때렸어.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주시자 나귀가 사람처럼 이렇게 말했지!



“주인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를 이렇게 세 번이나 때리시나요?”
깜짝 놀랄 만도 한데, 발람은 화가 너무 나 있었는지 나귀의 말에 바로 대답했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내 손에 칼만 있었어도 널 당장 죽였을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주셨어. 그 순간, 발람의 눈앞에 무시무시한 모습의 주의 천사가 칼을 빼 들고 길을 막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지.

놀란 발람은 그대로 땅에 엎드려 꼼짝 못 했어.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씀하셨어.

“네 마음속의 일들이 옳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느니라. 만약 나귀가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너는 이미 내 칼에 죽었을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발람은 땀을 비 오듯 흘렸고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께 고백했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시키는 말만 하거라. 절대로 내 뜻을 거슬러 다른 말은 하지 말거라.”

드디어 발람이 모압 땅에 도착하자, 모압 왕 발락은 반가운 얼굴로 그를 맞이했어.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 멀리 있는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보게 하고는 속으로 기대했지.

‘이제 이 대언자 발람이 저들을 향해 저주를 외우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지!’

하지만 발람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입을 열었을 때, 저주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이 나왔어.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사람들을 내가 어찌 저주하며 주께서 거부하지 않으신 사람들을 내가 어찌 거부하리오? 이스라엘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여러 민족들 중 하나처럼 여겨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들은 발락 왕은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아니, 지금 뭘 하는 거냐?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왜 축복을 하냐 말이다!”

하지만 발람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발락 왕은 이번에는 산의 다른 꼭대기로 발람을 데려 갔어.

‘다른 방향에서 보면 저주가 나올지도 몰라!’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또 축복의 말을 전했다.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나는 그 말씀을 바꿀 수 없도다.”

발락은 점점 얼굴이 붉어질 수밖에 없었어.

“이럴 수가! 안 되겠다! 이제는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마라!”

하지만 발락 왕은 바로 포기하지는 않았어.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브올 산의 꼭대기로 장소를 다시 옮겼고, 발람은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며 세 번째로 축복을 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발락 왕이 발을 구르며 고함을 질렀어.

“이제, 그만! 당장 내 앞에서 꺼져라! 내가 원래는 네게 많은 보물과 영광을 주려 했지만 이제 다 소용없게 된 줄 알아라! 당장 사라져 버려!”

이처럼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계획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결국 물거품이 되어 버렸지.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람은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단다. 그래서 발람은 발락 왕에게 아주 나쁜 꾀를 하나 알려 주었지.

“왕이시여, 직접 싸우지 않고도 이스라엘이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였어.

발람의 꾀는,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드나들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는 거였어. 모압 여자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자기 신들의 축제에 초대해서 우상에게 절하고 음행하게 만들었지.

발람은 알고 있었거든.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이라도 이기게 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지만, 자기 백성이라 해도 우상 숭배와 죄를 짓는다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걸 말이야.

결국 발람의 그 나쁜 꾀가 맞아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여자들과 어울려 우상인 바알브올에게 절하고 많은 죄를 지었지.

하나님께서서는 그 일에 매우 분노하셨단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무서운 심판이 내려졌어.

이처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불평과 불순종의 연속이었어.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주셨지만, 그들은 자주 하나님을 잊고 당장 작은 불편함도 참지 못했지. 이뿐만 아니라, 너무나 쉽게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말았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두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게 원망하거나 불순종하지 않도록 말이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살도록 하자꾸나.

+ 요약과 교훈

-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불뿔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는 심판을 내리셨고, 믿음을 갖고 장대 위의 늦뿔을 보는 사람은 낮게 해주셨어요.
-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장대에 달렸던 늦뿔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 발락 왕이 발람을 이용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고 몰아내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어요.

+ 적용

- 일이 잘 안 풀릴 때 절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 일어나셨음을 믿어요.
- 성경 말씀과 부모님,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Part
28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

이 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닌 고달픈 여정이 이제 끝나갈 무렵이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요르단 강 동쪽에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셨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이끌던 백성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느보 산 꼭대기로 올라갔단다. 그리고 거기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본 뒤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거두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신을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하셨단다. 혹시 백성들이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무덤을 우상처럼 섬기게 될까 봐 하나님



께서 특별히 감추어 두신 거였어.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오랫동안 그를 섬기며 배운 제자나 마찬가지로 있었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도 여호수아는 함께 따라 갔었지. 또한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는 선봉에 나가 용감히 싸우기도 했었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열두 명 중 하나로 뽑혔고, 정탐에서 돌아와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하고 말했던 그 사람도 바로 여호수아였지.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었던단다.

모세가 잠시 성막을 떠났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성막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려 애썼다는구나.

하지만, 그랬던 여호수아도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니 너무나 두렵고 떨렸을 거 같아.

‘내가 정말 이 많은 백성을 이끌 수 있을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따르게 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셨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나...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하게 행하여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리라. (수 1:5-7)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자, 백성들은 그에게 힘을 실어 주며 따랐어.

“우리는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셨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

던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었어. 그들은 요르단 강 동쪽의 시탐에 머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크고 튼튼한 여리고 성이 있었고,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방어 태세를 단단히 갖추고 있었어.

여호수아는 신중하게 다가가기 위해 먼저 두 명의 정탐꾼을 뽑아 여리고 땅에 몰래 보냈어.

정탐꾼들은 밤을 틈타 조용히 여리고 성안으로 들어갔고 성벽 위쪽에 있는 창녀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 숨었지. 그런데 마침 누군가가 정탐꾼들이 성안에 들어간 걸 보고는 왕에게 신고했지.

“왕이시여,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이는 두 명이 오늘 밤 여리고에 몰래 들어와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걸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자마자 군인들에게 명령했어.

“어서 라합의 집을 수색하라! 그 첩자들을 잡아 오너라!”

군인들이 라합의 집 쪽으로 오자, 라합은 정탐꾼들을 얼른 지붕 위로 피신



시켰어. 지붕엔 아마라는 식물이 널려 있었는데, 그녀는 거기에 정탐꾼들을 숨기고 아마 줄기로 덮어서 감추었지. 마치 평소처럼 아마를 말리기 위해 늘어놓은 것처럼 말이야.

잠시 후,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지.

“라합! 첩자들이 네 집에 들어왔다지? 그들이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해라!”

그러자 라합은 침착하게 대답했어.

“그들이 누구인지는 저도 몰라요. 아무튼 두 명이 잠깐 왔다가 밤이 되기 전에 나갔어요. 만약 그들이 첩자였다면, 지금쯤 성문 밖으로 나갔을 테니 서둘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군인들은 이곳저곳 수색했지만 찾지 못하자, 라합이 말한 대로 급히 성문 밖으로 나가 요르단 쪽으로 달려갔지.

밤이 깊어졌고, 라합은 지붕 위에 숨겨 둔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조용히 말했어.

“우리 여리고 사람들은 당신들 이야기를 듣고 몹시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하신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깐요. 당신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일,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시혼과 옥, 그 무서운 두 왕들을 당신들이 무찔렀던 일도 우리 모두 들었어요. 이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당신들의 하나님밖에 없다고 저는 믿어요.”

라합은 비록 여리고 사람이었고 사람들 눈에 보기엔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믿는다는 걸 고백했어.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부탁했지.

“제발…; 저와 저희 가족을 살려 주세요. 제가 이렇게 당신들을 도왔듯이, 당신들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정탐꾼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

“당신이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말하지 않고 비밀을 잘 지킨다면, 여리고 성을 칠 때 당신과 당신 가족을 반드시 지켜 주겠소.”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덧붙였어.

“이 창문에 주홍색 줄을 매달아 두면, 우리가 당신을 기억할 수 있는 표시가 될 거요. 그리고 당신네 가족들은 모두 이 집 안에 함께 있도록 하시오.”

그날 밤, 라합은 자기 집 창문에 주홍색 줄을 매달아 표시해 두었다.

정탐꾼들은 라합이 내려 준 줄을 타고 성벽을 몰래 내려와 산속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갔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온 백성을 이끌고 요르단 강가로 이동했어. 그들이 그곳에서 사흘 동안 진을 치고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셨어.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너를 크게 높이기 시작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같이 너와 함께할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수 3:7)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멘 채 먼저 요르단 강에 들어가라고 하셨어. 그때는 해마다 강물이 가장 많이 불어나는 홍수 철이었기 때문에, 요르단 강둑을 넘쳐 물이 온 들판을 덮고 있었지. 요르단 강가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건널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요르단 강 물가에 닿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단다. 강 위쪽에서 흘러오던 물이 마치 거대한 독에 막힌 것처럼 멈추더니 점점 높이 쌓이기 시작했거든. 아래쪽으로 흐르던 물도 역시 완전히 끊기고 말았지.

이렇게 되자 요르단 강 한가운데는 마치 마른 들판처럼 드러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 위를 건너기 시작했지. 하나님의 궤를 멘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 딱 멈춰 서 있었고, 모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 주었다. 마지막 백성까지 그곳을 다 건넌 뒤에야 제사장들도 궤를 메고 요르단 강에서 나왔고, 멈췄던 물이 다시 넘쳐흘러 원래의 강으로 돌아왔지. 이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를 온 마음을 다해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 주시고, 여호수아와 함께하신다는 걸 직접 보고 알았기 때문이었지.

그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섰던 자리에서 커다란 돌을 열두 개 가져오게 했어. 그 돌들은 그날 밤 백성들이 머물게 된 길가에 기념비처럼 세워졌지.

이 돌들을 본 후손들이 “이게 무슨 돌인가요?” 하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요르단 강을 가르시고 우리 민족이 마른땅처럼 건너게 해 주신 증거란다.”라고 누구라도 대답할 수 있도록 말아야.

한편 이런 놀라운 일이 여리고 성 바로 앞에서 벌어졌으니, 여리고 사람들의 두려움은 더 커졌을 거 같구나.

무너진 여리고 성

여리고 왕은 성문을 굳게 닫고 아무도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방어 태세를 단단히 갖추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여호수아에게 아주 특별한 작전 명령을 주셨단다.

“먼저 증언궤를 멘 제사장이 서고, 그 앞에 각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 일곱 명이 서도록 해라. 그리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는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이 서도록 해라. 증언궤를 멘 제사장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위대가 되어 따라가도록 해라.”

그렇게 된 행렬이 매일 한 바퀴씩 조용히 여리고 성을 도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입도 열지 않고 말 한마디 없이 성을 돌았지.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엿새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의 궤를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았단다.

여리고 성안에 있던 사람들도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는 거지?’

성문을 들이받지도 않고, 사다리를 놓고 성벽을 기어오르지도 않고, 그저 엿새 동안 조용히 성 주위를 한 바퀴 돌기만 하니 이걸 마치 전쟁이 아니라 무슨 이상한 의식처럼 보였겠지? 한편으로는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공포가 더 커졌을 거 같기도 하구나.

‘도대체 언제, 어떻게 공격해 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야.

다른 때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돌기만 하는 일에 대해 미심쩍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 같아.

‘이렇게 매일 걷기만 해서 정말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라지만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 요르단 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았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믿기 어려운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도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있었어. 그 믿음 하나로



백성들은 여섯째 날까지 묵묵히 여리고 성을 돌았던 거야.

드디어 그 일곱째 날 아침이 밝았다.

이날은 지난 옛세와는 달랐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한 번 도는 것이 아니라 일곱 번을 돌라고 하셨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 성을 일곱 바퀴 돌았고, 그 시간 동안에도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행진했단다.

그리고 마침내, 일곱 번째 바퀴를 다 돌았을 때였어.

제사장들이 크게 나팔을 불었고,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명령했지.

“이제 외치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그 순간, 온 백성이 힘껏 목소리를 높여 외쳤단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바로 그 튼튼하던 여리고 성이 마치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한 결과였단다.

그리고 기억하지?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던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도 주홍색 줄을 창에 매달아 놓았기에 약속대로 모두 구원받고 살아남았어. 이 라합은 나중에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족보 속에 이름이 올려진 아주 특별한 여인이 되었단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 사건은 지금까지도 많은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 주제라고 해. 그들이 여리고 성터를 발굴해 보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벽이 바깥쪽으로 무너졌다는 증거가 많이 발견되었다는구나. 그래서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이 사건은 무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대.

궁금한 친구들은 ‘여리고 성 발굴’이라고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이와 관련된 여러 영상도 볼 수 있을 거야.

저주받은 물건을 숨긴 아간의 죄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여리고 성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곧이어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 그건 바로 ‘아이 성 사건’이었지.

아이 성은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고 힘도 약해 보이는 작은 성이었어.

여호수아가 이곳에 보냈던 정탐꾼들도 돌아와서는 이렇게 보고했대.

“저희가 그곳을 둘러보았는데, 굳이 온 백성이 함께 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천 명이나 3천 명 정도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탐꾼들의 자신감 있는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3천 명 정도의 군사를 보내어 아이 성을 치게 했지.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 그만,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아이 성 군대가 이스라엘 군사를 공격하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패배하고 쫓겨 내려왔지.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낙담하여 마음이 물처럼 녹아 내릴 정도였다고 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패배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

여호수아는 슬픔과 당혹감에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울었지.

“주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우리를 요르단 강을 건너게 하셔서 이제 와서 우리를 패배하게 하시나이까?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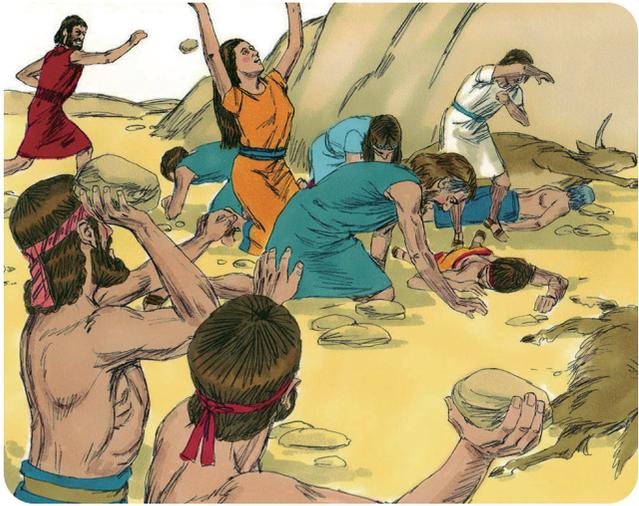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

“일어나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너희가 깨뜨려 죄를 지었느니라. 저주받은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 명령을 어기고 도둑질해 온 물건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숨겨 두었느니라. 그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 중에서 없애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다 모이게 했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제비를 뽑아 범인을 찾기 시작했어.



결국 범인은 바로 유다 지파의 아간으로 밝혀졌지. 아간은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화려한 바빌론 옷과 은, 금덩이 하나를 훔쳐서 자기 장막 밑에 몰래 숨겨 놓았던 거야.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물었지.

“내 아들이야, 이 일을 감추지 말고 사실대로 고백하라.”

그러자 아간이 고백했어.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물건들이 제 장막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그 후,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골짜기로 데려가면서 아간이 훔친 물건들, 가족의 소유물도 모두 함께 그곳으로 가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벌했어. 그들이 죽임을 당한 곳은 ‘아골 골짜기’라 불리게 되었고 그 의미는 ‘고통’이란 뜻이란다.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하시고, 다시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지.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단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죄는 아무리 숨기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드러난다는 사실이야.

하나님께서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도 거룩하길 바라셔.

그러니 우리도 남몰래 나쁜 마음을 품거나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그리고 늘 하나님께 정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단다.

+ 요약과 교훈

-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자기 집 지붕에 숨겨 주었고, 자신과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 성 주위를 열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 돌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성이 무너지도록 하셨어요.
-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아이 성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패배하였고, 여리고 성에서 물건을 훔친 아간은 벌을 받았어요.

+ 적용

-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무엇부터 순서대로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고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요.
-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해요.
-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허락되지 않은 것에 욕심내지 않도록 해요.





Part
29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여 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강력했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 아이 성까지 전멸시키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여러 족속들은 너무 두려웠단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들은 모두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울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중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성의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다.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들의 하나님이 함께하시

짧아. 이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피를 내어 살길을 찾기로 했단다. 그 피란 바로, 자기들이 가까이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아주 멀리서 온 사람인 척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였지. 그들은 헤어지고 낡은 옷, 낡고 껌맨 신발, 그리고 곰팡이 핀 마른 빵을 일부러 준비했어. 마치 먼 길을 여행하다 온 것처럼 꾸미고는 여호수아를 찾아왔지.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명성을 듣고, 저희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보내 이스라엘과 평화의 약속, 동맹을 맺자고 보냈습니다. 우리는 종이 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부디 받아 주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처음에는 좀 수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들의 낡은 옷차림과 마른 빵, 그리고 겸손한 말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지.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주셨단다.

그 명령은 바로, 가나안 땅에 사는 어떤 민족과도 동맹을 맺거나 결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지.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철저히 진멸하라는 말씀도 함께 주셨었어.

이 말을 들으면 궁금할 수도 있겠구나.

“왜 그렇게 다 죽여야 해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하고 말이야.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거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분이란다.

그 옛날을 한번 떠올려 보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이 이집트에 내려가 400년 동안 살게 될 거고, 네 번째 세대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가나안 땅에 죄가 차고 넘쳐서 결국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일도 하기 위해서였단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었어.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우상 숭배, 동성애 등...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시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었어.

만약 그런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동맹을 맺거나 결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악한 문화와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안으로 스며들겠지?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될 거야.

태양을 멈춘 여호수아

자, 다시 그 사신으로 위장한 사람들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꾸나.

그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은 아주 중요한 실수를 하고 말았단다.

그들은 멀리서 왔다고 말하는 낯선 사람들의 겉모습과 그럴듯한 말만 믿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은 채 동맹을 맺기로 약속해 버렸지.

그런데 사흘이 지나 그들이 도착한 기브온 성을 보고서야, 그 사람들이 가짜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단다. 그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이었어!

하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서 동맹 맹세를 했으니 그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지.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해치지 않는 대신, 허드렛일을 하는 종으로 삼아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 일을 하며 살도록 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 근처에 살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은 몹시 화가 났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친구가 되다니! 이건 배신이야!”

이렇게 생각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텍은 다른 왕들과 함께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결심했지. 위기에 처한 기브온 사람들은 부랴부랴 여호수아에게 도와 달라고 전령을 보냈고, 여호수아는 용사들을 모아 하룻밤 사이에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달려가 적군을 기습했어.

하나님께서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셨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 한 사람도 네 앞에 서지 못하리라. (수 10:8)

전투는 치열했고, 적들은 벤호론에서 아세가까지 줄행랑을 치고 달아났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 그들을 치셨고, 칼에 쓰러진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구나.

하지만 아직 적들이 다 도망가진 않았기에, 여호수아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한 후에, 해와 달에게 명령했어.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추어 서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대! (수 10:12)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로 해와 달이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하늘 한가운데에서 온종일 해가 지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까지 적들을 추격할 수 있었지. 성경에는 이 놀라운 광경이 기록되어 있어.

주께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그와 같은 날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더라. (수 10:14)

이 기브온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하기 시작한 아주 중요한 싸움이었지.

그 후로 이스라엘은 여러 전쟁을 치르며 가나안 땅을 차례로 정복했고, 열두 지파는 그 땅을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졌단다. 그중에 조금 특별한 세 지

파가 있었는데,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었어.

이 세 지파는 요르단 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의 허락을 받아 강 동편, 곧 모압 평야의 목초지에 먼저 정착했지. 하지만 약속한 대로, 다른 지파가 강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함께 싸우기 위해 따라갔어. 전쟁이 마무리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땅으로 되돌아가 살았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요르단 강 서쪽에도 그들 지파의 나머지 반 지파가 살게 되었다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 주실 때, 아주 특별한 한 지파는 땅을 상속받지 않았단다. 그 지파는 바로 레위 지파였어.

그럼, 왜 그랬을까?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와는 달리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도록 따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야.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농사를 짓고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살아가는 생활은 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서 일정한 땅을 떼어 주어 레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 이런 도시들을 레위 성읍이라고 불렀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는 십일조와 희생물 가운데 일부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줘서, 그들 역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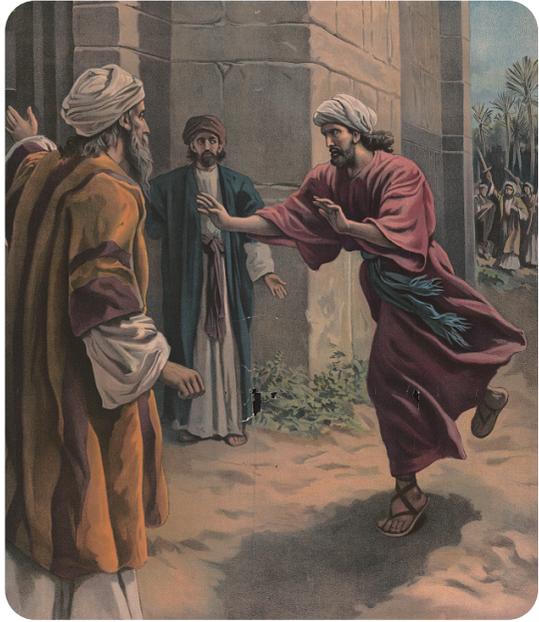
실수로 죄지은 사람들을 위한 도피 도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아주 특별한 용도의 도시를 여섯 개 정해 주셨는데, 이 도시들은 ‘도피 도시’라고 불렸어. 이 도시들은 요르단 강 동쪽에 세 곳, 서쪽에 세 곳이 있었지.

그럼, 이곳은 어떤 사람들이 가야 했을까?



만약 누군가를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죽이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그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보복당할 수도 있었겠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일이 벌어지자마자 재빨리 도피 도시로 달려가야 했어. 도시에 도착하면, 성문에서 장로들에게 자신이 실수로 그랬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보호받았거든.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게 되는 거야. 만약 그 사람이 진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는 그 도시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단다.

하지만 이 도피 도시를 함부로 나가면 위험할 수밖에 없었어. 그 사람이 성 밖으로 나가다가 보복하는 사람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까지 도피 도시에 머물러야 했을까?

바로,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였단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다시 자유롭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

이 도피 도시 제도는 단순히 도망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정당한 재판과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장치였어.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억울하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던 거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란다.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 여호수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나눠 갖고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까지 인도한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 줄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정복해 나갔단다. 그런데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철저히 지킨 건 아니었어. 어떤 지파들은 자신들이 점령한 땅에 남아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고, 그 일은 화근거리가 되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었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너희가 그들과 결혼 관계나 동맹을 맺는다면, 내가 다시는 그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라. 그들은 너희 옆구리의 채찍이 되고, 눈엣가시가 되어 너희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이방 민족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백성이 되고 말았단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 온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워졌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

여호수아는 그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직접 보았고, 지금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단다.

그래서 그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그 지도자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불러 모았지.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시켜 주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간



절히 부탁했어.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을 소유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수 24:14-15)

여호수아의 단호하고 믿음 가득한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대답했어.

“저희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고, 그들의 공동체가 지켜야 할 법과 규례를 기록하여 남겼어. 그리고 그 일을 마친 뒤, 여호수아는 110살의 나이로 평안히 세상을 떠나 에브라임 땅 딤낫세라에 묻혔단다.

또 이때,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요셉의 유해도 세겜 땅에 묻었어. 요셉은 죽기 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이끌어 내실 것이니 내 뼈를 이 땅으로 옮겨 달라.”라는 유언을 남겼었거든.

얘들아, 여호수아는 그저 위대한 군대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백성을 바른길로 인도한 훌륭한 지도자였어. 그런데 놀랄 만한 건,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예수’와 똑같은 이름인 거야. 뜻도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이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훗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구원자 예수님을 미리 보여 주는 인물이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싸워 이기도록 이끄시는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여줬다고 할 수 있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님만을 섬기겠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구나.

+ 요약과 교훈

-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처럼 위장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동맹을 맺었어요.
-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우박으로 그들을 치시고 해와 달까지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기도록 하셨어요.
- 여호수아는 이 땅의 삶을 마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지막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은 그들이 계속해서 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진실로 섬길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이를 지키겠다는 것이었어요.

+ 적용

-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결정하기 전에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조언을 구해 봐요.
-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용기를 내요.
-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요.





Part
30

삼백 용사를 이끌고 큰 승리를 거둔 기드온

여 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300년 동안이나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는데 이 시기를 사사 시대라고 부른다.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채, 각자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며 지냈다.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며 두려움을 알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자,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지.

마치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운 분들을 기억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때와 닮지 않았나 싶어.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멋지다며 따르곤 하니 정말 안타깝구나.

하나님께서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도록, 주변 나라들을 강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허락하셨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마다 자기들의 힘으로 무엇이든 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울부짖고는 했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라고 불리는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해 주셨어.

이 사사는 왕이나 장군과 같은 역할을 하는 특별한 지도자들이었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지켜 주셨고, 백성들도 한동안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에서 벗어난 후 시간이 흐르면,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지으며 우상을 섬기곤 했지. 그러면 다시 적들이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또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어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일이 300년간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거야.

하나님께서서는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늘 용서해 주시지만, 진정한 회개 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큰 아픔과 슬픔을 주신다는 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도 배워야 한단다.

사사들의 시대와 기드온

그럼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므낫세 지파 중 평범한 사람이었던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은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 당시 이스라엘 역시 믿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사는 미디안 족속을 강하게 하셨어. 이 미디안 사람들은 곡식을 거둘 때만 되면 몰려와 곡식을 몽땅 뺏어 갈 뿐만 아니라, 소와 양들도 함께 가져가 버렸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굴이나



산속에 숨어 사느라 조심조심하며 밀과 보리 타작을 할 정도였단다.

어느 날, 기드온이 포도즙 틀 곁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한 낫선 젊은 남자가 난데없는 인사를 건넸지.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기드온은 너무나 의아해서 대답했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어찌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게 분명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단호하게 말했지.

“네가 가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느니라.”

기드온은 깜짝 놀랐어.

“제가요? 저는 작고 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 집은 지파 중에서도 제일 보잘것없고, 그런 집에서도 저는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 너는 마치 겨우 한 사람을 이기듯이 미디안 사람 모두를 쉽게 물리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을 듣자 기드온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

‘이 사람은 혹시 하나님의 사자가 아닐까?’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가져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어. 기드온은 얼른 염소 고기와 국,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정성껏 준비해서 그 사람이 앉아 있던 바위 위에 올려놓았단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자신의 지팡이 끝을 그 예물에 대자, 갑자기 불이 번쩍하고 불으면서 예물이 한순간에 타버렸고, 그 사람은 곧바로 사라져 버렸어.

이 광경을 본 기드온은 깜짝 놀라 엎드리며 탄식했어.

“아,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얼굴을 제가 직접 보다니요…. 저는 이제 죽게 되겠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안심시키셨어.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죽지 않으리라.”

기드온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살롬’이라 불렀는데 이 말은 ‘주님은 화평이시다’라는 뜻이다.

바알과 우상들을 제거하다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어.

“기드온아, 네 마을에 세워진 바알의 제단과 작은 숲을 헐도록 해라. 그리고 그걸로 나를 위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어린 수소를 번제물로 바치거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어. 마을마다 바알 신을 위한 제단과 나무숲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곤 했지.

기드온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런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새로 쌓아 수소 한 마리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였어.

지금도 시골에 가 보면, “이 나무는 마을을 지켜 주는 신이다.”라고 말하며 절을 하거나 제사상을 차리는 곳이 있지? 그런 곳에서 누군가 그 나무를 베어 버리면 마을 사람들이 화를 입을까 봐 몹시 두려워하지 않겠니?

마찬가지로 기드온은 이 일을 하자니 너무 겁이 났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는 없으니, 사람들 눈이 무서운 한낮을 피해 몰래 밤중에 하기로 마음먹었지.

기드온은 자기 종들 몇 명을 데리고 조용히 가서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 곁에 있는 작은 숲도 몽땅 베어버렸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 제단을 쌓고 수소 한 마리를 바쳐 번제물을 올렸지.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

“이게 뭐야? 바알 제단이 무너졌어!”

“저 숲도 다 베어졌네!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저건 새로운 제단인가...? 누가 감히 이런 짓을 한 거야!”

마을은 난리가 났어.



사람들은 수소문 끝에 기드온이 그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머리끝까지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이 몰려가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욕박질렀어.

“당장 당신의 아들 기드온을 내놓으시오!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으니, 그 죄로 죽어 마땅하오!”

그러자 아버지 요아스는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말했다.

“아니,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 변호사 노릇을 하려는 거요?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무너뜨린 사람을 스스로 벌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소? 만약 그럴 힘도 없다면, 바알이 무슨 신이란 말입니까?”

사람들은 요아스의 말에 마땅히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어.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기드온에게 손을 대겠다는 사람도 하나둘 그 자리를 떠났지. 이 일로 기드온은 ‘바알과 싸운 자’라는 뜻에서 ‘여롬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는구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 무서운 소식이 들려왔어.

바로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그리고 동쪽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 무려 10만 명이 넘는 큰 군대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였지. 이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겁에 질린 채 떨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셨고 큰 용기를 얻은 기드온은 나팔을 힘차게 불었다. 그 소리를 들은 기드온의 집안사람들이 나아왔고 그다음으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모였어. 다른 지파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까지도 모두 달려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려 32,000명의 병사들이 한데 모였다.

그래도 적군이 10만 명이 넘는 걸 생각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훨씬 적은 숫

자였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참 놀라운 명령을 하셨어.

“기드온아, 네 군대의 병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숫자가 많으면 사람들이 ‘우리 힘으로 이겼다’고 착각할 거 같구나. 나는 너희가 오직 나만 의지하길 원하느니라.”

기드온은 깜짝 놀랐지.

병사를 늘려도 부족할 판국에, 오히려 줄이라니!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병사들에게 외쳤어.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전쟁이 무섭고 두려우면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러자 많은 병사들이 주춤거리며 돌아갔고, 이때 무려 22,000명이나 떠났기 때문에 남은 건 겨우 10,000명뿐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말씀하셨어.

“기드온아, 아직도 병사들이 너무 많구나. 이제 그들을 시험해 보자.”

하나님께서서는 병사들을 물가로 데려가 어떻게 물을 마시는지 보게 하셨어.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어 얼굴을 물에 가까이 대고 마셨고,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조심스레 물을 떠서 마셨지.

하나님께서서는 손으로 떠서 마신 300명만 남기라고 하셨단다.

그렇게 해서 남은 병사는 고작 300명!

적군은 셀 수 없이 많은데 기드온의 군대는 딱 300명뿐이니, 기드온은 걱정이 되었단다.



‘정말 이 병사들로 이길 수 있을까…?’

기드온은 처음부터 용감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따르려고 노력한 사사였어. 바알 제단을 부술 때도 밤중에 몰래 했을 정도로 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할 때가 되자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지.

그게 바로 유명한 ‘양털의 표적’ 이야기야.

기드온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저를 보내시는 게 맞는지 알려 주세요. 제가 양털을 타작마당에 돌 테니, 하룻밤 사이에 양털만 젖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사실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다음 날 아침, 정말로 양털만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주변의 땅은 말라 있었어!

그래도 아직 확신이 부족했던 기드온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탁했어.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땅이 젖게 해 주세요.”

그다음 날 아침, 또 정말로 양털은 마르고 땅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걱정이 많은 기드온을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용기를 주기로 하셨지.

“기드온아, 네게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 있느냐? 네 종 부라와 함께 적군 진영으로 몰래 가서 그들이 나누는 말을 들어 보아라. 그러면 네 마음에 용기가 생길 것이니라.”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종 부라와 함께 깊은 밤에 몰래 적군의 진영으로 숨어들었다. 조심조심 발을 옮겨 병사들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병사들 중 하나가 조용히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들렸어.

“나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 보리빵 하나가 굴러오더니 우리 미디안 군대의 장막을 그대로 쳐서 무너뜨렸지 뭐야.”

그러자 다른 병사가 말했다.

“뭐라고? 그거 말이야... 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드온을 도와서 우리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하신다는 뜻 아닐까? 진짜 그런 거면 어떡하지...?”

이 말을 듣는 순간, 기드온은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들려주신 것처럼 마음에 강한 확신과 용기가 생겨났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기드온

기드온은 즉시 진영으로 돌아와 300명의 용사들을 한 무리가 100명씩 되도록, 세 무리로 나누었어. 그들에게는 칼이나 방패 대신 한 손에는 나팔, 다른 손에는 등불을 감춘 향아리를 들게 했지.

그리고 깊은 밤, 적군이 모두 잠들었을 때 기드온의 지시에 따라 준비된 장소에 조용히 섰단다. 때가 되자, 기드온이 먼저 나팔을 불었고 세 무리의 전사들도 동시에 향아리를 깨뜨리고 등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외쳤어.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삿 7:20)

한밤중, 깜깜한 가운데 들려오는 나팔 소리와 깨어진 향아리 소리, 그리고 온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외침에 적군들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단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자기들끼리 칼을 휘두르기도 하고 아무 방향으로나 달아나기 바빴어.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끝까지 그들을 추격해 미디안의 지도자들을 물리쳤는데, 오렙과 스엿, 세바와 살문나 같은 통치자들이 모두 쓰러졌지.

이렇게 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단 300명의 용사와 함께 수십만 대군을 무찌르는 대승을 이루었고,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평화를 누릴 수 있었지.

하나님께서서는 용기 있는 자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시지만, 그 용기란 자기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걸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꼭 기억하면 좋겠구나.

+ 요약과 교훈

-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300년간 하나님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반복해서 죄를 지었어요.
- 하나님께서는 겁 많고 연약했던 기드온에게 표적을 통해 용기를 주시고, 단 300명의 용사로 큰 승리를 이루게 하셨어요.
- 이스라엘의 구원은 군사의 숫자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 적용

-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해요.
- 두렵거나 자신이 없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며 도움을 청해요.
- 내 주변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 도우면서 잘 지내요.



Part
31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린 삼손

너희들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가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삼손은 영화로도 만들어질 만큼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유명한 사사란다. 사사란 왕이 없던 당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 주신 지도자를 말해. 평소에는 재판관을 하고, 전쟁처럼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군대의 장수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는 역할을 했지.

삼손은 이스라엘의 단 지파에 속한 마노아의 아들이었는데, 다른 사사들과 달리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단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따르며 불순종하다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억누르게 하셨지. 백성들은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기도도 하지 못했다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기조차 부끄러운 시대였던 거야.

그런 암울한 시기에, 단 지파의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 마노아의 아내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찾아왔지.

“네가 곧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주의하여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깜짝 놀란 그녀는 숨을 죽이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 사람은 덧붙여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니라.”

이 말을 하자마자, 그 사람은 어디론가 훌쩍 사라져 버렸지.

이 놀라운 말을 들은 마노아의 아내는 서둘러 남편에게 뛰어가 모든 이야기를 전했고, 마노아도 너무 놀랐어.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님, 부디 그 사람을 다시 저희에게 보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지 알려 주세요!”

나사르 사람 삼손의 탄생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서 일하면서, 한참 곡식에 물을 주고 있던 그녀는 문득 고개를 들었지. 그런데 거기, 전에 자신에게 “네가 곧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 말해 주었던 바로 그 남자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니!

놀란 그녀는 한걸음에 집으로 달려가 남편 마노아를 데려왔고, 마노아는 그에게 정말 아내가 말했던 그때 그 사람인지 조심스레 물었어. 곧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도 물었지.

그 남자는 전에 말했던 대로 다시 한번 말해 주었어.

“내가 네 아내에게 말한 모든 것에 주의하여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녀가 지켜야 하느니라.”

마노아는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정성껏 음식 대접을 하려고 했지만, 그 남자가 말했지.

네가 번제 헌물을 드리려거든 반드시 주께 드릴지니라. (삿 13:16)

이 말을 들은 마노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달았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어.

“내 이름은 아무나 알 수 없는 은밀한 것인데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야곱이 압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을 때도 그분께서는 이름을 알려 주지 않으셨던 거 기억나니? 그 이름은 바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알려진, 예수님이었지.

이제 마노아는 정성껏 염소 새끼 한 마리와 음식 헌물을 준비해 바위 위에서 하나님께 드렸어. 그리고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갈 때, 주의 천사도 제단의 불꽃 가운데서 올라갔기 때문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깜짝 놀라 바닥에 엎드렸지. 그분이 주의 천사였다는 걸 깨달았던 거야.

얼마 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게 되었고 부부는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다.

삼손은 어릴 적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남달랐어.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셨고, 몸은 점점 강해지고 마음속에는 큰 힘이 자라났지. 사람들은 삼손을 보며 기대했단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 큰일을 하시려나 보다!”

하지만 삼손에겐 아주 큰 약점이 있었는데, 여자에게 쉽게 마음을 빼앗긴다는 점이었지.

어느 날, 삼손은 종종 가던 덩밭에서 어떤 블레셋 여인을 보고 그만 훌쩍 빠졌고, 그 여자를 꼭 아내로 삼고 싶다며 부모님께 계속 졸랐어.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 특별히 바쳐진 나사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었지.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랐고, 결국 부모님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우기며 자기 뜻을 밀고 나갔어.

아무튼 삼손이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덩밭으로 가던 길에 무시무시한 사자 한 마리가 삼손 앞을 가로막았지. 보통 사람이라면 깜짝 놀라 도망쳤겠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하신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단다.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말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나?



그날 삼손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덩밭에 도착해서 결혼할 여자와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

그리고 며칠 뒤, 삼손은 다시 덩밭으로 가는 길에 자기가 죽였던 사자의 시

체를 봤는데, 아니 글썄, 그 사자 몸속에 벌떼가 벌집을 짓고 꿀을 만들어 냈지 뭐니. 삼손은 그 꿀을 손으로 퍼서 맛있게 먹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드렸어. 하지만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꺼낸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

어느덧 양쪽 집에서 정한 날짜가 되어 결혼식이 열렸고, 삼손은 그 지방의 풍습대로 일주일 동안 결혼 잔치를 열었어. 그리고 그 마을의 청년들을 친구 삼아 30명을 초대했단다.

잔치 첫날, 삼손은 재미 삼아 그들에게 수수께끼 하나를 냈지.

“이 수수께끼를 일주일 안에 풀면 내가 너희 모두에게 겹옷과 속옷을 한 벌씩 줄게. 하지만 못 맞추면 너희가 나에게 30벌의 옷을 줘야 해.”

그 수수께끼는 이거였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것이 나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맞아, 바로 사자와 꿀 이야기였지만 친구들은 그걸 알 리가 없었지. 며칠을 끙끙대도 도무지 답을 모르겠던 친구들은 결국 화가 나서 삼손의 아내를 헐박했어.

“당장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너희 집을 불태워 버릴 거야!”

무서워진 여자는 잔치 내내 삼손 앞에서 울며 졸랐어.

삼손은 처음엔 안 된다고 했지만, 계속 졸라 대는 바람에 결국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 주고 말았지.

잔치 마지막 날, 친구들은 삼손에게 와서 정답을 말했고 삼손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스글론의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 그들의 옷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어. 하지만 너무 화가 났던 삼손은 결혼도 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

시간이 좀 흐른 뒤, 화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삼손은 다시 딴밭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찾으려고 했지. 그런데 웬걸? 아내는 보이지 않고 장인이 그를 맞았어.



“자네가 결혼할 생각이 없는 줄 알고 자네 친구에게 딸을 시집보냈다네…”
이 말을 들은 삼손은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를 둘씩 묶고, 그 사이에 햇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밭과 포도원, 올리브밭에 풀어놓았어. 그 불로 온 들판이 모두 타 버리고 말았지!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도 화가 나서 삼손의 장인과 그의 딸을 불태워 죽이고 말았지.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 상상이 되니?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번엔 삼손을 잡기 위해 유다 지파에 찾아가서 협박했어.

“너희가 삼손을 잡아서 우리에게 넘기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놀란 유다 사람들은 삼손에게 찾아가 부탁했지.

“제발 우리를 위협에 빠뜨리지 말아줘… 우리가 너를 묶어서 그들에게 넘길 테니 너는 가만히만 있어 줘.”

삼손은 그 말을 듣고 기꺼이 새로 만든 두 겹줄에 묶인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갔어. 삼손이 블레셋 진영에 도착하자 블레셋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그를 묶고 있던 줄이 불에 탄 삼베처럼 끊어졌고 삼손은 근처에 있던 나귀의 턱뼈 하나를 들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쓰러뜨렸단다!

삼손은 이런 큰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사사로 이름을 떨쳤지.

들릴라에게 말한 삼손의 비밀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삼손은 다시 한번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는데, 바로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란다.

어느 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던 가자에서 한 창녀의 집에 들어

갔지.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온 성문을 잠그고 밤새도록 숨어 있다가 삼손을 잡으려고 했어. 하지만 힘이 셋던 삼손은 오히려 도시 성문의 문짝과 기둥, 빗장까지 모두 어깨에 메고 산꼭대기로 옮겨 놓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지.

그 뒤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깊이 빠지게 되었고, 그녀의 집에서 살다시피 했어.

이 소문을 들은 블레셋의 귀족들은 들릴라에게 몰래 찾아갔지.

“삼손의 힘이 가진 비밀을 알아내거라.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많은 돈을 주겠노라.”

들릴라는 그때부터 삼손에게 조르고 또 졸랐어.

“당신의 놀라운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삼손은 처음에는 농담으로 대답했지.

“말린 적이 없는 푸른 버드나무 가지 일곱 개로 나를 묶으면 힘이 빠질 거야.”

“새 줄로 단단히 묶으면 난 힘을 못 쓰지.”

“당신이 직접 짜서 만든 천으로 내 머리털을 일곱 타래로 엮으면 난 꿈쩍할 수 없게 돼.”

그렇지만 들릴라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매일 눈물로 조르며 마음을 흔들었지.

“그렇게 거짓말로 나를



속이면서 어찌 날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삼손은 비밀을 털어놓고 말았다.

“내 머리털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사르 사람의 표식이야. 이 머리카락이 잘리면 나도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말지…”

그날 밤,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 사람을 불러 머리털을 모두 밀게 한 뒤, 조용히 속삭였어.

“일어나 봐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삼손은 벌떡 일어났지만, 이전처럼 힘이 느껴지지 않았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떠난 뒤였거든.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삼손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고, 두 눈은 뽑힌 채 눈썹에 묶여 감옥에 갇히고 말았지. 정말 너무 비참한 모습이었어.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삼손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고 있었다.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드리는 큰 잔치를 열었어. 그들은 많은 귀족들과 백성들을 모아 삼손을 끌어내어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놀릿감으로 삼았지.

삼손은 자기를 이끌던 소년에게 부탁했어.

“이 신전을 지탱하는 큰 기둥 사이에 내가 기댈 수 있도록 도와주렴.”

그리고는 마음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

“오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셔서 저들에게 원수갚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힘을 얻은 양팔로 신전의 기둥을 밀어 무너뜨렸단다. 그러자 건물은 삼시간에 무너져 삼손과 함께 있었던 3천 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모두 죽고 말았어.

삼손이 살아 있는 동안 죽인 블레셋 사람들을 합친 수보다 이 마지막에 죽

인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는구나.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자기 욕심과 유혹에 휘둘려 많은 실수를 했단다. 우리는 삼손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이름을 받았으니,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을 잊지 말아야 해.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순종에 있다는 걸 항상 마음에 새기자!

+ 요약과 교훈

-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사르인이어서, 그의 머리털을 잘라서는 안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 율법으로 금지된 부정한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되었어요.
- 삼손은 들릴라에게 비밀을 털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잃고 블레셋에 포로로 잡혔어요.
- 삼손이 자신을 희생하여,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려 많은 사람을 죽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았어요.

+ 적용

- 가정, 교회, 학교에서 정해진 규칙을 잘 지켜요.
- 하나님과 부모님,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요.
- 옳지 않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요.





Part
32

친족 구속자 보아스를 만난 듯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엔 온 나라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때였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채, 주변 나라의 이방신들을 아무렇지 않게 섬기며 살았지.

사사 기드온이 다스리던 때, 베들레헬 유다 땅에 큰 기근이 들어 사람들이 먹고살 길이 막막해졌을 시기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찾아 다른 지방이나 나라로 떠나기도 했지.

엘리멜렉도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

로 이사하게 되었단다. 얼마 후,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오미는 과부가 되고 말았어. 두 아들은 자라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었지. 큰아들은 오르바, 작은아들은 룯이라는 여자와 결혼했단다.

그렇게 십 년가량이 흘러 나오미의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어. 이제 나오미는 남편도, 자식도 없이 두 며느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지. 그 당시엔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소망이 끊긴 거나 마찬가지로 살기가 더 힘들었어.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에 기근이 끝나고 곡식 수확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단다.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룯도 따라나섰어.

“저희도 어머니와 함께 갈래요!”

“얘들아, 나와 함께 간디니 고맙구나. 하지만 나는 나이가 많고 가진 것도 없잖니. 너희는 아직 젊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 앞날을 인도해 주실 거란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들은 울먹이며 대답했지.

“아니예요,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가서 어머니의 백성과 함께 살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는 다시 권했어.

“얘들아, 가면 고생만 더 하게 될 거란다. 나에겐 이제 남은 희망도 없구나. 그러니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렴. 나는 괜찮단다.”

이 말을 들은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지만 룯은 달랐어. 나오미의 말에도 굳게 결심하고 대답했지.

“어머니, 저에게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저도 함께할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



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벌하셔도 달게 받겠어요!”

룻의 이 말을 들은 나오미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헬으로 돌아갔어. 십 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본 고향 사람들은 그녀의 수척한 얼굴과 늙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

“정말 나오미가 맞아? 그 밝고 웃음 많던 나오미가 이렇게 변했다고?”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오미와 룻을 바라보았단다.

룻의 효심에 감동한 보아스

나오미와 룻이 고향 베들레헬에 돌아왔을 때는 마침 보리를 수확하는 철이었지. 룻은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이삭을 줍는 일을 하기로 했어. 이삭줍기는 곡식을 베다가 떨어진 낱알을 주워 모으는 일이었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룻은 용기를 내어 낫선 밭으로 나섰단다.

룻이 이삭을 주으러 간 곳은 보아스의 밭이었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그 지역에서 부자이자 존경받는 사람이었지.

그날, 보아스가 수확이 잘 되고 있는지 보러 밭에 나왔다가 낫선 여인이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단다. 보아스는 옆에 있던 일꾼에게 물었어.

“저기 저 젊은 여자는 누구인가?”

“저 여인은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삭을 줍고 있는데 잠시 쉴 때 말고는 계속 땀 흘리며 일하고 있지요.”

보아스는 그 말을 듣고 룻의 성실함과 효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룻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해 주었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함께 일하거라. 일꾼들이 흑시라도 네게 못되게 굴지 않도록 일러두었으니 걱정 말거라.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길어 온 물도 얼마든지 마시거라.”

이 말을 들은 룻은 깜짝 놀라며 보아스 앞에 엎드려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

“제가 이방 여자인데도 저를 이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보아스는 롯의 마음과 행실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기에 축복하며 말해 주었지.

“네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을 떠나 낯선 이 땅에 와서도 성실히 사는 걸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테니, 그분께서 네게 풍성히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날 보아스는 롯이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있게 해주었어. 볶은 곡식도 배불리 먹게 하고, 남은 음식은 집에 싸 가도록 배려해 주었지. 심지어 일꾼들에게는 따로 일러두었어.

“곡식단을 얼마 정도는 좀 떨어뜨려서 롯이 더 많이 주워 갈 수 있게 해주어라.”

해가 저물어 롯이 평소보다 많은 곡식과 음식을 이고 집에 돌아오자, 나오미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얘야, 오늘 어디에서 일한 거니? 이렇게 많이 가져오다니!”

롯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자세히 나오미에게 들려주었고 그 친절한 밭 주인의 이름이 보아스라는 것도 말해 주었어.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아주 기뻐하며 말했지.

“얘야, 그분은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야. 우리 상속 유산을 무를 권리를 가진 친족이란다. 그러니 앞으로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분 밭에서만 일하면 좋을 거 같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는 게 분명해.”

구약 시대에, ‘친족’은 종종 ‘상속 유산을 무를 권리를 가진 사람’이란 뜻으로 쓰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던 그 당시에는, 지파별로 정해진 땅을 대대로 물려줄 수는 있어도 서로 사고팔 수는 없게 되어 있었지. 하지만 생활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을 때는 땅을 얼마 동안 팔 수 있었는데, 만약 가



까운 친족이 그 대가를 대신 내면 다시 땅을 되찾아 올 수 있었어. 그리고 이렇게 상속 유산을 물려 주는 사람을 ‘친족 구속자’라고 했단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러고 난 어느 날, 나오미가 룻을 조용히 불러 이렇게 말했지.

“얘야, 너도 이제는 새 가정을 이루고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니?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그대로 한번 해 보려무나...”

나오미는 룻에게 조심스럽게 한 가지 계획을 알려 주었다.

“목욕하고 기름도 발라 몸치장을 하렴.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가거라. 보아스가 저녁을 먹고 잠들거든, 그가 있는 곳으로 조용히 가서 그의 발치에 누우려무나. 그러면 보아스가 무슨 뜻인지 알아채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줄 거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따랐어.

그날은 보리 수확이 끝나, 사람들이 보리를 까부르기 위해 밤늦게까지 타작마당에 모여 있던 날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도 그 자리에 있었어. 늦은 밤이 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나고, 보아스는 곡식 더미 옆에서 잠이 들었지.

룻은 조심스럽게 다가 그의 이불을 살짝 들어 그의 발치에 누웠다. 한밤중, 인기척에 잠이 깬 보아스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었어.

“너는 누구냐?”

룻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



“저는 롯입니다. 당신께서 저를 거두어 주세요. 당신은 저에게 가까운 친족이십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이었는데, “나와 결혼해 주세요. 끊어진 가문을 이어 주세요.”라는 뜻이었지.

보아스는 롯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

“ 롯아, 네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지 나뿐만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단다. 내가 네 말대로 해 주마.”

하지만 보아스는 아주 정직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덧붙였지.

“다만 네게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단다. 먼저 그 사람에게 이 권리를 물어보고, 만약 그가 거절하면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책임지고 해 주마.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거라.”

보아스는 롯에게 밤이 깊었으니 조금 더 쉬었다가 돌아가라고 했어. 그리고 날이 채 밝기 전에 롯을 조용히 집으로 돌려보내며, 보리 여섯 되를 너울에 담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내 주었지.

롯이 집에 돌아오자 나오미는 롯의 손에 들린 보리와 그녀의 표정을 보고 보아스가 모든 일을 잘 처리하리라는 것을 확신했단다.

“애야, 이제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기다려 보자. 보아스는 절대로 이 일을 미루지 않고 잘 처리할 사람이란단다.”

보아스는 날이 밝자마자 성문으로 나가 앉았어. 그때는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의논하거나 결정하려면 성문에 나가서 해야 했거든. 잠시 뒤, 보아스가 말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길로 지나가자, 보아스는 그 사람을 붙잡고 도시의 장로 열 명을 증인으로 불러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지.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는데, 자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니 먼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네. 그 땅을 자네가 사겠나?”



그 친족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그렇군. 내가 그것을 무르겠네.”

그러자 보아스가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그 땅을 살 거라면, 나오미의 며느리 룯도 함께 데려가 그 집안의 대를 잇게 해 줘야 하네.”

“아, 그렇다면 나는 하지 않겠네. 내 상속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는군. 자네가 대신 무르게.”

그렇게 그 친족은 자기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나오미의 땅을 사고 룯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와 룯은 결혼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귀한 아들 오벳을 주셨다. 이 오벳은 그 유명한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훗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에 오르게 되지. 그러니까 룯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나라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믿음을 지키고 효를 다한 덕분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남기게 된 놀라운 여인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참 신기하지 않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분께 나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아 주시는 분이시란다. 사실 보아스가 룯과 그 집안을 책임지고 다시 일으킨 일은, 훗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 주는 그림과도 같았어.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혼자 힘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치러 주실 분을 보내 주셨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다.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의 친족 구속자가 될 수 있었지. 그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일이 필요했어. 이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 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길을 열어 주셨다.

보아스가 룻의 집안을 다시 세워 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친족 구속자이신 거야.

우리도 룻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자꾸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도 가장 좋은 길을 열어 주실 거란다.

+ 요약과 교훈

- 기근 때문에 유다를 떠나 모압에서 10년이 조금 넘게 머물렀던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 룻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과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를 잇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 이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구속해 주신다는 사실을 예표로 보여 주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려 하신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 줘요.

+ 적용

-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도록 해요.
- 이삭줍기처럼 작은 일에도 신실하도록 노력해요.
-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가 있다면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요.





Part
33

환상 계시를 들은 사무엘

사 무엘은 이스라엘이 왕이 없던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아이라서, 이름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래.

사무엘의 아버지는 레위 지파에 속한 엘가나였는데, 그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 한 사람은 브닌나, 또 한 사람은 바로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였지. 브닌나에게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단다.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마음 아픈 대우를 받아야 했다. 브닌나는 그걸 빌미로 한나를 무시하거나 놀리기도 했기 때문에 한나의 마음속 한편에는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지.

엘리나는 매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올라가곤 했다.

한번은 성막에 도착해서 한나가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저는 그 아이의 전 생애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입술만 달싹달싹 움직이며 기도하고 있었기에,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고 꾸짖었지.

“네가 어느 때까지 술에 취해 있을 참이나? 포도주를 그만 마시도록 해라.”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위로하며 축복해 주었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하노라.”

그날 이후, 한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 다시는 슬퍼하지 않았다.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진 아이

얼마 뒤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한나가 임신하게 되었고,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낳았지.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었어.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다 땔 때까지 잘 키운 뒤,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러 실로 성막으로 다시 올라갔다. 그리고는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한나는 약속을 지켰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지.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게 되었어.



당시 그곳을 맡고 있던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아주 많았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홉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본분을 전혀 지키지 않았어.

이 두 아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져온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부분을 가로채거나, 심지어 성막에 온 여자와들과 좋지 않은 관계를 맺는 나쁜 행동도 서슴지 않았지.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시시때때로 아무렇지 않게 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정도로 소문이 자자했어.

결국 그 소문은 엘리 제사장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엘리는 두 아들을 불러 타일렀어.

“이런 나쁜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어와야 하겠느냐? 너희가 하는 행동은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짓는 일인데, 너희가 어찌자고 그러느냐!”

하지만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듣지도 않고 여전히 마음을 돌이지 않았단다. 사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제사장에서 내쫓아야 했지만, 그는 그저 꾸짖는 데 그치고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대언자를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어 아주 무서운 말씀을 전하셨어.

“엘리야, 너는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고, 내 제사장직을 멸시하고 있구나. 이제 네 집은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네 아들들은 한날에 함께 죽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너의 제사장직은 신실한 자에게로 옮겨질 것이니라.”

이처럼 무서운 경고를 듣고도 엘리 제사장은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고 그저 그날그날을 보내며 ‘어찌 되겠지’ 하고 넘기고만 있었지.

그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커녕 환상이나 계시도 거의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 백성들은 자기들 생

각에 좋은 대로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제사장과 지도자들도 부패했기 때문이었지.

주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제는 눈도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이 자고 있을 때, 사무엘은 성막 곁의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조용한 밤, 누군가가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얼른 일어나 그에게 갔어.

“절 부르셨어요?”

엘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지.

“아니.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단다. 다시 가서 자거라.”

사무엘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지만, 또다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사무엘아.”

그는 또다시 엘리에게 갔지만, 여전히 엘리는 자기가 부르지 않았다고 했지.

세 번째 부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자,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걸 깨달았어.

“얘야, 다시 가서 누웠다가 그 음성이 들리면 이렇게 대답하렴.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들나이다.’ 하고 말아야.”

사무엘은 엘리의 말대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누웠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또 들었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지.

그 내용은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내릴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단다. 엘리는 아들들의 불법을 알면서도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무서운 내용이었지. 그 죄는 어떤 제물이나 헌물로도 용서되지 않고, 엘리의 집안은 영원히 벌을 받게 될 거라고 하셨어.

아침이 되자 사무엘은 밤에 하나님께 들은 무서운 말씀으로 인해 마음 졸이며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했지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다그쳤지.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말해 보거라. 한마디라도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바랄 테다.”

사무엘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가 들은 모든 말씀을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고, 엘리는 담담히 대답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그분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하실 거란다.”

사무엘은 신실하게 잘 자라났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를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 대언자로 인정했단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무려 4천 명이나 죽고 말았지.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은 걱정이 되어 이렇게 말했단다.

“이렇게 계속 지기만 할 수는 없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진영으로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분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마치 궤 자체가 어떤 부적처럼 이길 힘을 줄 거라고 믿은 것이었지.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갔어.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자 백성들은 크게 함성을 질렀고, 그 소리는 온 땅을 울릴 만큼 컸단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사들도 두려움이 가득해져서 더욱 죽기 살기로 싸웠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큰일 났어!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야 해!”

결국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 중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고 이번에도 지고 말았어. 홉니와 비느하스도 이곳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지.

이 무서운 소식을 알리기 위해, 전쟁터에서 겨우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숨이 넘어가도록 달려 실로로 돌아왔어.

그 무렵 엘리 제사장은 성문 곁 의자에 앉아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지. 자기 아들들의 전사 소식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어. 98살이나 된 나이 많은 노인이었고 몸도 많이 무거웠기 때문이었지.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 온 제사장 엘리의 삶도 막을 내렸단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긴 게 자기의 신 다곤이 도와준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 시에 있는 다곤 신전에 전리품처럼



들여놓았어. 그런데 그다음 날 아침, 그들이 신전에 들어갔더니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어져 있는 게 아니겠니? 당황한 제사장들과 사람들은 다시 그 신상을 제자리에 세워 두었어.

그런데 또 그다음 날 아침,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이 잘려나가 신전 문지방에 놓여 있고, 몸통만 궤 앞에 엎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지. 그뿐만 아니라 아스돗에 사는 사람들 몸에 갑자기 정체 모를 종기가 나기 시작해서 어른이든 아이든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했어.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했지.

“하나님의 궤를 다른 도시인 가드로 옮기자.”

하지만 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사람들은 더 심한 종기와 재앙에 시달리며 괴로워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도시, 에그론으로 궤를 옮겼단다.

그랬더니 에그론에서도 병이 퍼져 죽는 사람들이 점점 늘기 시작했고, 결국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 의논했어.

“이젠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다시 그들에게 돌려보냅시다! 이대로 있다면 우리도, 우리 백성도 다 죽고 말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되돌려 보내기로 의견을 모은 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점쟁이들에게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했어.

“태어나서 멩에를 멘 적이 없고 젖을 먹이는 암소 두 마리를 골라, 그 소들에게 새 수레를 끌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수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실으십시오. 또 그 궤 옆에는 범법 헌물로 바칠 금으로 만든 종기 다섯 개와 금쥐 다섯 마리를 함께 상자에 담아 함께 보내세요.”

그들은 이 모든 걸 들은 그대로 준비했단다.

그 금보물들은 블레셋의 다섯 귀족이 다스리던 다섯 도시를 대표하는 것이었어. 하나님께서 그 도시마다 내리신 무서운 종기와 쥐의 재앙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지.

점쟁이들은 또 이런 말도 했단다.

“그 두 마리 암소가 새끼들 때문에 길을 벗어나면, 이번 재앙은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암소들이 수레를 곧장 이스라엘 땅 벤세메스로 끌고 간다면, 이 모든 일은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분명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멩에를 한 번도 메어 본 적이 없는 암소 두 마리가 수레를 끌고, 궤는 그 수레에 실려 이스라엘 땅으로 향했단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 암소들은 자기 새끼들을 뒤에 남겨 두었기 때문에 계속 울음소리를 냈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길을 따라 벤세메스로 향했어.

블레셋의 다섯 귀족들도 일이 어떻게 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고 국경까지 따라가면서 지켜보았지.

아미나답의 집으로 간 하나님의 궤

그 무렵 벤세메스 골짜기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밭을 수확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수레가 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궤가 실려 있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지. 기쁨과 감격으로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어!

수레가 멈추자, 사람들은 그 수레의 나무를 쪼개고 수레를 끌고 온 암소들을 하나님께 번제 헌물로 바쳤어. 참으로 감격스럽고도 감사한 날이었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는 못했단다.

벤세메스 사람들 중 몇몇이 궤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면서 궤를 들여다보았지 뭐니. 그러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곳 사람들 가운데 무려 50,070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어.

벤세메스 사람들은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 마을에 더 두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거기서 가까운 기랴트여아림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했단다.



“우리 마을은 감당할 수 없어요. 제발 주의 궤를 가져가 주세요.”

기랏여아림 사람들은 정성껏 하나님의 궤를 모셔 와, 그 지역의 높은 산 위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았어.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특별히 구별하여 궤를 잘 지키게 했지. 그 이후로 하나님의 궤는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단다.

요약과 교훈

- 한나는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대신하여 그녀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시는 복을 주셨어요.
-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불법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갔으나, 재앙이 계속해서 닥치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적용

-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요.
- 학교나 집에서 친구와 가족과 함께할 때,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동해요.
-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잘 해내도록 노력해요.



Part
34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

하 나님의 궤는 산속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머문 채, 무려 20년이나 지나 버렸단다. 아무도 궤를 성막으로 되돌릴 생각을 하지 않은 채, 그저 그렇게 시간만 흐르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둘씩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

“하나님께서서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우리가 왜 이토록 힘든 걸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단



다. 그때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재판관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시리라. (삼상 7:3)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깨달음을 얻었지. 사실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의 신들도 집 안에 들여놓고 함께 섬기는 사람이 참 많았거든. 요즘으로 치면, 교회 다니면서도 점쟁이 집에 찾아가거나 길흉을 따지며 부적을 붙여두는 일과 같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사람들은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집에 있던 우상의 형상들을 하나둘 내다 버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 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여 하루 종일 금식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를 눈물로 회개했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삼상 7:6)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다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일으킬 기회로 삼았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미스바로 쳐들어오게 되었어.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척 두려워했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

에서 꼭 구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사무엘은 조용히 어린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번제 헌물로 드리며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간절히 하나님께 도와 달라고 부르짖었지.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사무엘이 기도하던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천둥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 블레셋 군사들이 너무 놀라 정신을 잃고 허둥지둥 도망가는 바람에 전쟁은 단숨에 끝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승리를 거두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건 바로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란다.

그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를 뒤쫓아가서 크게 이길 수 있었어. 그 기쁨의 날을 기억하기 위해,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커다란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지.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란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니?

그 이후로는 블레셋 군대도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예전에 빼앗겼던 많은 도시들을 되찾을 수 있었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우상을 버리며,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보이며 살았지.

왕을 요구한 백성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충실히 지킨 사무엘은, 해마다 자기 집이 있는 라마를 떠나 벰엘과 길갈, 미스바 같은 곳들을 돌아다니며 백성들 간의 다툼을 공정하게 재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평생 동안 정성껏 했단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사무엘도 나이가 많이 들게 되어서 자기 아들인 요엘과 아비아에게 재판하는 일을 맡기기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두 아들은 아버지 사무엘처럼 정직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 그들은 뇌



물을 받고 올바르게 살지 않은 판결을 하는 등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했지. 그래서 사람들은 두 아들에게 큰 실망을 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역시 많은 걱정을 했단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어.

“사무엘이시여, 이제 당신께서는 나이도 많으시고 아드님들은 당신을 닮지 않았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싸워 주고, 나라를 다스릴 왕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매우 슬펐단다.

그건 자기 아들들 때문이 아니었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였거든. 왕 없이도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지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그런데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보이기를 원하고, 하나님보다 왕을 의지하고 싶다고 하니, 그건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해 보겠다는 말과 같았지. 그래서 사무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성이 너에게 말한 것을 들어 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해 낸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그들은 계속 나를 떠나 다른 신들을 따라다니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 행위를 너에게까지 그대로 하고 있구나. 너는 그들에게 경고해 주어라. 왕을 세우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분명히 알려 주도록 하여라.”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지만, 사람들이 자유 의지로 스스로 선택한 걸 억지로 막지는 않으시거든. 경고를 몇 차례 주신 후에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그 길을 허락하신단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로운 벌도 받아야 한다는 걸 기억하려무나.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 기도하면서 답을 찾는 게 중요하단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나 국가가 바른길을 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도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해야 해.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에 따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받아들이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

“너희가 왕을 원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걸 기억해 두어라. 왕은 너희 아들들을 군인으로 만들어 전쟁터에 데려갈 것이고, 너희 딸들은 왕궁의 시녀로 삼을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 밭과 과수원, 또 힘들게 번 재산도 왕과 그의 신하들을 위해 내놓게 될 수도 있지. 그러면 결국, 너희는 왕의 종처럼 되는 셈이니라. 이걸 너희가 선택한 거니까, 이런 일로 하나님께도와 달라고 울부짖으며 매달려도 그분께서 너희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걸 명심해라.”

사무엘이 이렇게 경고해도 백성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

“괜찮아요! 우리에게도 왕이 꼭 필요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주세요! 그래야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전쟁이 나면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을 겁니다!”

사무엘은 이 일에 대해 다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지.

“그들의 말대로 해 주어라. 그들이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선택하지 않으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뽑는 준비가 시작되었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 당시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라는 능력 있고 강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은 준수하고 잘생긴 사울이었어. 어느 날, 기스는 나귀들을 잃어버렸고 사울에게 종 하나를 붙여 보내며 나귀들을 찾아보라고 시켰지. 사울과 종은 이곳저곳을 헤매며 나귀를 찾다가 숲이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마침 그 마을 사람들이 희생물을 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사무엘도 그곳에 해와 있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전날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지.

“내일쯤 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찾아올 것이니라.”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

“온 이스라엘이 자네와 자네 집안을 주목하고 있다네.”

사울은 깜짝 놀라며 겸손하게 말했어.

“네?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중에서도 저희 집안은 작은 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제게 하십니까?”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식사하고 모든 행사에 데리고 다닌 후 하룻밤을 재워 주었지.

그리고 이튿날 아침, 사무엘은 사울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간 뒤,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말했다.

“하나님께서서 자네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네.”

얼마 뒤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다.

그곳에서 모든 지파들이 하나하나 제비를 뽑았고, 마침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었다.

그런데 정작 사울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워 숨어 버렸단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내어 데리고 나오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했다.

“보아라, 주께서 택하신 왕이 바로 이 사람이니라!”

그러자 백성들은 모두 큰 소리로 외쳤다.

“왕 만세! 왕 만세!”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후, 모든 백성은 집으로 돌아갔어. 사울 왕도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자기 고향 기브아로 돌아갔지.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를 만족해한 건 아니었는데, 몇몇 사람들은 사울 왕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며 그를 업신여기고 예물도 바치지 않았지. 이에 대해 사울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 일을 넘겼단다.

그러던 어느 날, 길르앗 땅 야베스에 암몬 족속이 나하스 장군을 앞세워 쳐들어왔어. 야베스 사람들은 그들을 도저히 이기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항복하려고 했지만 나하스는 그들을 계속해서 모욕하고 무시했단다.



달리 방법이 없던 야베스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사람들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지. 사울이 있던 기브아에도 그 소식이 전해졌고, 이 슬픈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목놓아 울었어.

밭에서 돌아오던 사울 왕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셨고 그는 몹시 분노했단다. 그래서 자기가 기르던 소를 잡아 조각내어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냈어.

“모이라는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 조각난 소처럼 되리라!”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라 모두 한마음으로 모였고, 이렇게 모인 군사的人数은 무려 33만 명이나 되었지. 사울 왕은 그들을 데리고 베섹에 진을 쳤고 그다음 날 새벽, 군사를 세 무리로 나누어 방심하고 있던 암몬 군대를 기습했지.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고 야베스 사람들을 무사히 구해 냈기 때문에 사울 왕을 무시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 했단다.

전투가 끝난 후, 사무엘은 온 백성을 길가에 모이게 했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울을 정식으로 왕으로 세우는 의식을 했어. 사울 왕과 모든 백성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화평 헌물도 드렸고, 그날 그곳에는 기쁨이 가득했다는구나.

하나님의 재판관 사무엘

사무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평생을 진실하게 섬긴 사람이었단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였고,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었으며, 이스라엘을 바르게 재판하는 재판관이었지. 무엇보다도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간 사람이었어.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을 세우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단다.

정작 사무엘은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울 왕을 세우는 데도 힘을 썼어.

그리고 훗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다윗도 바로 이 사무엘이 세운 왕이 었단다.

진정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무엘을 보면 알 수 있겠지?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생각해 보면 서 우리도 사무엘을 본받도록 노력하자꾸나.

+ 요약과 교훈

-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방신들을 버리지 못 했지만, 사무엘의 지도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만 섬기기로 다짐했어요.
-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어요.
-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을 때 사무엘은 반대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그분께 순종하여 그 일을 하는 데 최선을 다했어요.

+ 적용

-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비성경적인 것들에 마음을 뺏기진 않는지 생각해 보아요.
- 주변 친구들을 이끄는 역할을 맡더라도 겸손한 마음을 갖고, 옳은 일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해요.
- 항상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한 왕들

Part
35

하나님을 슬프게 한 사울 왕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이제 막 왕국이 세워진지라 무기도 부족하고 군사력도 약했다. 이스라엘에는 창이나 칼 같은 무기들이 거의 없었거든.

그 당시 이스라엘 근처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힘을 키우지 못하도록 나라 전체에 대장장이가 생기는 걸 막고 있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를 도구, 그러니까 쟁기나 낫의 날을 갈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돈을 내고 다듬어야만 했지.

그러던 어느 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계바에 있던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는 일이 생겼고, 이로 인해 블레셋은 곧바로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나타났어. 병거가 3만 대, 기병도 6천 명이나 되었고, 그 외에 셀 수도 없을 정도의 많은 보병이 므마스 지역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했지.

사울 왕도 급히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어.

하지만 이스라엘은 무기가 변변치 않았던 데다가 블레셋 군대가 너무 강해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지.

‘우리가 과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백성들 중 어떤 사람들은 산속이나 동굴로 숨어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먼 지역으로 아예 도망쳐 버렸지. 싸우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맞은 것처럼 보였어.

그럼에도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준비하며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리고 길갈로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사무엘을 기다렸지.

사무엘은 “이레 안에 내가 갈 테니 기다리십시오.” 하고 말해 주었지만, 마지막 날이 다 되어도 그는 도착하지 않았어. 기다리는 동안 군사들의 얼굴은 점점 불안해 보이기 시작했고 마음이 흔들린 사람들은 하나둘 도망가기도 했지. 그러자 사울 왕은 초조한 마음에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단다.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자기가 직접 드린 거야.

그 일을 막 마쳤을 무렵에서야 사무엘이 도착했지.

“왕께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사울 왕은 궁색한 변명을 했어.

“백성들이 저를 떠나고, 사무엘 당신께서는 오지 않으니 안 되겠다 싶어 제가 하나님께 직접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엄중하게 꾸짖고 돌아가 버렸지.



“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실 겁니다.”

전쟁에서 이긴 요나단

그 후, 사울 왕은 남은 군사 600명을 이끌고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진을 쳤어. 므마스에 진을 치고 있던 블레셋 군대에서는 노략하는 군사들이 세 무리로 나누어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었지.

이렇게 양쪽 군사들이 대치하고 있는 중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자기 무기를 든 병사 한 명과 함께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 므마스 통로로 가서 블레셋 수비대를 몰래 살펴보고 싶거든.

요나단은 믿음이 깊은 젊은이였단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도 요나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었어. 그래서 그는 병사와 함께 블레셋 수비대를 향해 용감히 나아갔고 수많은 적들을 쓰러뜨릴 수 있었지. 요나단이 믿음으로 움직이자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을 일으키셨어. 땅이 울리자 블레셋 군대는 혼란에 빠진 채 서로 적인 줄 알고 진영 안에서 엉뚱하게 싸우기 시작했지.

기브아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던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깜짝 놀라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보고했고, 이때를 놓치지 않은 그는 군사들을 이끌고 즉시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갔어.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블레셋 군대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지. 적들은 두려워 도망가기에 바빴고 이스라엘은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단다.

게다가 블레셋 지역에 살다가 억지로 전장에 끌려온 히브리인들도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웠고, 산속과 굴속에 숨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나와 함께 싸우기 시작했어. 이처럼 이스라엘 군대는 온 힘을 다해 블레셋 군을 몰아내고 치열한 전쟁을 벌였지.

그러다가 사울 왕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명령을 내렸어.

“해가 지기 전까지 누구든지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끝까지 원수를 갚아야 하니까 힘을 내거라!”

백성들은 너무 지쳐 있었지만 왕의 명령이 무서웠기 때문에 배가 고파도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

그렇지만 요나단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듣지 못했지.

숲속을 지나가던 요나단은 땅에 흐르는 꿀을 발견하고 그걸 막대기로 찍어 맛보았고, 그로 인해 눈이 번쩍 뜨이고 힘이 나는 거 같았어. 하지만 곁에 있던 병사들은 그 꿀조차 먹지는 못하고 쳐다만 봤지.

“왜 아무도 이 맛있는 꿀을 먹지 않는 거지?”

“사울 왕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해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요.”

그러자 요나단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

“이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음식을 허락하고 쉬게 했다면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날 해가 지고 나서야 백성들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배가 고팠던 나머지 핏기 있는 고기째로 허겁지겁 먹었단다. 이걸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은 백성들을 모두 모이게 했어.

“지금부터 각자 자기 소와 양을 여기서 잡도록 하여라. 피째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그날 사울 왕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단다.

사울 왕의 불순종과 사무엘의 꾸짖음

그런데 그날 밤,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단다. 사울 왕은 블레셋 사람들을 곧바로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여쭙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울 왕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분명히 누군가가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거야!’

그리고 범인을 찾기 위해 대장들을 모두 불러 모았고 제비를 뽑았더니, 결국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그 제비가 떨어졌단다. 요나단이 꿀을 먹은 일이 드러난 거야. 사울 왕은 이 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요나단에게 말했다.

“요나단아,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정말 이걸 너무한 일이지 않니?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요나단은 오늘 큰 승리를 이끈 주인공입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건데, 요나단이 벌을 받아 죽게 된다니 말도 안 됩니다!”

백성들의 간절한 부탁에 사울 왕은 마침내 마음을 돌렸고, 요나단은 죽지 않게 되었지. 사울 왕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자기 아들을 잃을 뻔했던 일이 었단다.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어.

“옛날 이집트를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몰래 뒤에서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들을 모두 없애라. 그 누구도, 아무 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대로 사울 왕은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가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였어. 그런데 아말렉 왕을 사로잡고 좋은 양들과 소들을 전리품으로 끌고 돌아왔지.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 없애라.”라는 것이었는데 사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좋은 것들은 살려 두고 나머지만 없애는 것이었어.

사무엘이 사울 왕을 만나러 왔을 때, 그는 반갑게 사무엘을 맞이했지.

“제가 주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저기 들리는 양과 소들의 울음소리는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좋은 것들을 남겨 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사울 왕을 꾸짖었어.

“처음에 왕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벌하시기 위해, 하나도 남김 없이 모두 없애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데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좋은 재물을 탐내고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시다니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큰 불순종의 죄를 지은 순간이었지.

사울 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걸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았어. 그때 바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더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사울 왕은 백성들 핍계를 댔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좋은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 두자고 해서요…”



하지만 그건 변명에 불과했다. 사무엘은 단호하게 말했다.

**주께서 번제 헌물과 희생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
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숫양의 기
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으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
하게 하셨나이다. (삼상 15:22-23)**

사실, 이번 명령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순종할 기회를 주신
거였지만 사울 왕은 그 소중한 기회를 뺨! 차 버리고 만 거야.

그런데도 사울 왕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는 못할망정 자기 생각뿐이었
어. 만일 사무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버린다면 왕으로서의 체면이
깨질까 봐 너무나 걱정이 되었지. 사무엘이 돌아서려 하자 사울 왕이 급히 사
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그 바람에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고 말았어.

“제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백성들 앞에서 제 체면만은 살려 주세요. 함께 가
셔서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

사무엘은 마음이 아팠지만, 사울 왕과 함께 백성들 앞에 나아가 함께 경배
드렸단다. 하지만 그날 이후, 사무엘은 다시는 사울 왕을 만나지 않았지만,
사울 왕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가슴 아파했다는구나.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으로 인해 슬퍼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주께서는 자신이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
셨더라. (삼상 15:35)**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점점 자기 왕좌를 지키는 데만 집착했어. 그때부터 사

울 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왕궁에서 사울 왕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한 신하가 제안했어.

“왕이시여, 마음이 괴로우실 때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불러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궁궐에서는 하프를 잘 연주하는 사람을 찾았고, 이렇게 오게 된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란대. 그가 하프를 연주할 때마다 사울 왕의 마음이 편안해졌다는구나.

하지만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온 백성의 칭찬을 한 몸에 받게 되자 사울 왕의 마음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게 된단대.

‘저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닐까?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면 나는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기도 해.

사울 왕은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시집보내 그를 곁에 두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죽일 기회를 노렸어.

그러던 어느 날, 미갈은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걸 알게 되어서 몰래 다윗을 창문으로 피신시키기도 했지 뭐니.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다윗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다.

심지어 사울 왕은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가 살던 놉 마을의 모든 제사장들, 그들의 가족, 가축들까지 몽땅 죽이는 무서운 죄까지 저질렀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간도 하지 못한 채 혼자만의 분노와 두려움 속에서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사울 왕의 죽음

이런 사울 왕의 마지막은 참으로 안타까웠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오랜 세월이 흘렀을 무렵,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였다. 전쟁이 가



까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 온몸이 떨릴 정도로 두려웠어. 그때는 사무엘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 왕은 너무나 불안해했지.

그래서, 사울 왕은 정말 하지 말았어야 할 잘못을 또 저질렀단다.

자기가 예전에 나라에서 쫓아냈던 마술사와 영매들에게 의지하려고 했거든. 밤이 깊은 시간에 몰래 언덕에 있는 영매 여인을 찾아간 사울 왕은 그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 달라고 부탁했어. 그때 그 여인은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 정말로 사무엘의 영이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이었지.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떠나셨고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실 것이니라.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은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니라.”

사무엘의 말을 들은 사울 왕은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쓰러졌어.

마음도 몸도 너무 지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도 잘 먹지 못한 채 걱정만 하던 사울 왕은 그다음 날 전쟁터에 나갔단다. 길보아 산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게 크게 졌고, 사울 왕의 아들들, 특히 다윗과 절친했던 요나단도 그날 함께 죽게 되었어.

사울 왕 자신도 적의 손에 죽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려 생을 마감하고 말았지.

사울 왕은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고 멋진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



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기 시작했어.

하나님께서서는 사울 왕에게 여러 번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슬프게 한 사람’이 되고 말았단다.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 배워야 할 점이 있어.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처음부터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끝까지 겸손하고 신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렴.

+ **요약과 교훈**

-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왕이 된 후 자신의 힘과 명예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에 대해 매번 변명했어요.
- 사울 왕은 인간적인 욕심이 많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 사람이 되었어요.

+ **적용**

- 집이나 학교에서 가족, 친구와 함께할 때 정직하게 행동해요.
-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노력해요.
- 사울 왕처럼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져요.





Part
36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이 세상에는 유명한 왕들이 많지만, 다윗 왕은 손가락에 꼽히는 왕 중 한 명이다. 이 다윗 왕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의 이름을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하기도 해. 불가능해 보이는 대결을 볼 때, 사람들은 종종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만큼 다윗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대단한 사람이야.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 세우신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도 해. 신약 성경 마태복음 첫 장에서는 예

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마 1:1)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을 존경하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심지어 어떤 눈먼 사람이 예수님께 도와 달라고 외칠 때도,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붙잡히 여겨 주세요!” 하고 불렀을 정도였지.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사도행전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겠니. 그러니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유다 지파에 속한 이새의 여덟 아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어. 큰형들과는 달리 다윗은 아주 어릴 때부터 집안 양 떼를 돌보며 들판에서 지내는 날이 많았단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가 여러 차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어.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향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 왜냐하면 사무엘이 어디에서 누군가를 특별히 만나거나 하면, 그 일이 반역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울 왕이 생각할 수 있었거든. 그래서 사무엘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바치며 경배하러 온 것처럼 이야기하고, 조용히 이새의 가족을 그 자리에 초대했지.

모든 행사가 끝난 뒤, 사무엘은 이새를 불러 그의 아들들을 한 명씩 데려오게 했단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왕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그 사람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가장 먼저 큰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키도 크고 잘생긴 모습이었기에 사무엘은 속으로 ‘아, 이 아이인가?’ 하고 생각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삼상 16:7)

그래서 사무엘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일곱째 아들까지 모두 불러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택하지 않으셨어.

조금 당황한 사무엘은 이새에게 다시 물었단다.

“혹시 다른 아들이 또 있느냐?”

이새는 이렇게 대답했지.

“막내가 하나 더 있긴 한데, 그는 지금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 아이를 당장 데려오라고 했어.

잠시 뒤, 얼굴에는 붉은 기운이 돌며 눈빛이 맑은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바로 이 아이가 내가 택한 사람이니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뜻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시작했단다.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지긴 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여전히 사울이었어. 사울 왕은 자기 잘못들로 인해 점점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정이 오락가락할 뿐만 아니라 사리 분별도 제대로 못 하고 있었지.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사울 왕의 신하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

“왕이시여,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찾아서 왕께서 괴로우실 때마다 음악을 연주하게 하면 안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울 왕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어. 신하들은 하프를 잘 타고 마음씨도 착한 소년을 수소문하다가 마침내 다윗을 사울 왕 앞으로 데려왔단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며 혼자 있을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연주했던 하프 솜씨가 꽤 유명했다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이 괴로움에 빠질 때마다 왕궁으로 불러가서 하프를 연주했어. 그러면 놀랍게도 사울 왕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통스러운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았지.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의 용기

그리고 얼마 후,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오면서 위기가 찾아왔단다. 사울 왕은 급히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을 모아 군대를 소집했고,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마주하게 되었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 산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른 쪽 산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었어.

다윗은 아직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지만, 다윗의 큰형, 둘째 형, 셋째 형은 전쟁에 소집되어 군대에 나가 있었지.

시간이 흐르면서 전쟁은 길어지고, 소식도 들리지 않자 이새는 걱정이 되어서 막내아들 다윗을 형들에게 보냈어.

“얘야,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다녀오렴. 이 곡식과 빵은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는 부대 장군에게 드려라.”

다윗은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귀에 싣고 전쟁터로 향했지. 다윗이 진영에 도착했을 때, 블레셋 군대 쪽에서는 시끄럽게 외치는 소리가 났어.

“나와 싸울 자가 누구냐! 비겁한 자들아! 만약 너희 중 하나가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하지만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윗은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단다. 그리고 자기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하나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심지어는 숨기까지 하는 거야.

다윗은 너무 이상해서, 옆에 있던 한 병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

“저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자 병사가 대답해 주었어.

“이름이 골리앗이라는데 키가 3미터도 넘는 무시무시한 거인이야. 매일 어떻게 나와 우리를 조롱하고 있지 뭐냐.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저 사람과 싸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단다.”

그리고 병사는 덧붙였어.

“사울 왕께서는 누구든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큰 상금을 주고 사위로 삼겠다고 하셨지. 그리고 그 사람 집안에는 자유를 주겠다고도 했고 말이야.”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울분이 올라왔어. 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감히 살아 계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벌떡벌떡 뛰었지.

그래서 다윗은 주위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큰 목소리로 외쳤어.

“아니,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한단 말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도전을 듣고 분노하며 말하자, 마침 그 곁에 있던 만형 엘리압이 듣고는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지.

“다윗, 너 이 녀석! 여기는 대체 왜 온 거야? 전쟁이 장난이냐? 들판에 있는 양들이나 잘 돌볼 일이지! 정말 철없기 짝이 없구나. 감히 전쟁터까지 와서 허풍을 떨다니!”

큰형의 말은 매우 심했지만, 다윗은 기죽지 않았어.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단순히 혈기가 올라서가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거든.

“형님,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 모습을 본 병사들이 다윗의 말과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

‘저렇게 어린 소년이 어쩔 저리 담대할까?’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은 다윗을 궁궐로 불러들였지. 그런데 막상 다윗을 본 사울 왕은 실망했어. 눈앞에 선 다윗은 아직 소년티가 가득한 어린아이였거든.

“얘야, 네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니..., 그건 너무 무모한 일이다. 넌 너무 어리구나!”

하지만 다윗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지.

“왕이시여, 저는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맨손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양을 입에 문 짐승을 쫓아가서 입에서 꺼내기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험한 순간마다 저를 구해 주셨어요. 이번에도 마찬가 지입니다. 저 골리앗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 가득한 말을 들은 사울 왕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다윗에게 싸울 기회를 주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시기를...”

그리고는 사울은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칼과 투구도 준비해 주었 지. 하지만 다윗은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 걸을 수조차 없었어. 몸에 맞지 않 고 너무 불편했던 거야.

그래서 다윗은 정중히 왕의 갑옷을 벗고 이렇게 말했지.

“이대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실 테니, 제가 익숙한 방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시냇가로 가서 매끈한 돌멩이 다섯 개를 골라 자루에 담고, 손에 는 평소 쓰던 막대기 하나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이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 갔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보던 골리앗은 다윗을 보자마자 크게 웃었어. 자





기 앞에 나타난 것이 무시무시한 장수가 아니라, 작고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이었지. 게다가 갑옷도 없고, 무기도 없고, 양치기처럼 막대기 하나만 들고 나타났으니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나?

골리앗은 소리를 버럭 지르며 다윗을 조롱했어.

“내가 개냐? 네가 막대기를 들고 오다니! 오냐, 널 당장 죽여서 새들과 짐승들의 밥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지만 다윗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믿음 가득한 목소리로 받아쳤다.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살아 계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겠다! 하나님은 칼과 창이 없어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달려 나갔어! 자루에서 돌 하나를 꺼내 무릿매에 넣고 빠르게 돌리다가, 휘! 하고 돌을 던졌지.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을 정확히 맞혔고, 펑! 소리와 함께 골리앗은

쿵! 하며 앞으로 쓰러져 버렸단다. 순식간에 거인이 땅에 나가떨어진 거야!

다윗은 바로 달려가 골리앗의 큰 칼을 뽑아 들고, 그의 머리를 베어 버렸지. 이 모습을 본 블레셋 군사들은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고 두려워져서 도망치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윗의 용기에 힘입어 큰 소리로 외치며 그들을 쫓아가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의 이름은 이스라엘 전역에 널리 알려졌고, 사람들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용사로 존경하게 되었지. 하지만, 이 큰 승리로 인해 다윗의 인생은 오히려 험난한 길로 들어서게 되었어.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다윗은 긴 세월 동안 고난을 겪고 도망자로 지내게 되었지.

+ 요약과 교훈

-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셔서 사울 왕을 대신할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어요.
- 다윗의 겉모습은 작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 다윗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겨 냈어요.

+ 적용

- 어려운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기를 내도록 해요.
- 가족이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를 격려하며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해요.
- 우리가 가진 작은 재능도 하나님께 맡기면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해요.





Part
37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둔 일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온 나라에 퍼져 나갔단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다윗의 용기와 믿음을 칭찬했고 그는 단번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올랐어.

처음에는 사울 왕도 다윗의 공로를 인정해서, 그를 신하로 삼고 궁궐 안에서 함께 지내게 했지만, 안타깝게도 좋았던 관계가 오래가지는 못했단다.

그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하려고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 그때 많은 여인들이 땀방울을 흔들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지.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네!”

이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은 얼굴빛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어. 마음속에 질투와 두려움이 불쑥 올라왔거든.

‘아니, 다윗이 인기가 이렇게 많다니…. 이러다 내 왕좌를 빼앗기는 일은 시간문제겠구나!’

사울 왕은 그때부터 다윗을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기 시작했어.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아도 속으로는 다윗을 미워하며, 어떻게든 없앨 틈을 찾고 있었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 왕에게 우울한 마음이 또다시 몰려왔고, 그를 위해 보통 때처럼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고 있을 때였어. 사울 왕은 이성을 잃고, 자기 손에 들고 있던 창을 다윗에게 냅다 던졌단다!

훅! 순식간에 날아든 창! 다윗은 재빠르게 몸을 피했어. 간신히 그 창을 피한 다윗에게 사울 왕은 또 다른 창을 던졌단다!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덕분에 다윗은 무사히 피할 수 있었지.

그 이후, 사울 왕은 겉으로는 진정된 척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얼마 후에 사울 왕은 다윗에게 천인 대장, 그러니까 천 명을 다스리는 장군의 자리를 맡기고 군사들을 이끌게 했단다. 겉으로 보기엔 큰 영광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위험한 곳으로 보내려는 속셈이 숨어 있었던 거지.

하지만 다윗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지혜롭고 성실하게 일했어.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이 맡은 일마다 잘되고, 백성들도 갈수록 그를 더 존경하고 칭찬했단다.

사울 왕은 이런 다윗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를 죽이기 위한 계략을 하나 생각해 냈지.

‘그래, 저 다윗을 내 사위로 삼으면 내 곁을 떠나지 못할 테니, 언젠가는 죽



일 기회가 생기겠지!

사울 왕은 다윗을 불렀어.

“네게 내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려고 하니, 나라를 위해 힘써 싸워 주거라.”

하지만 다윗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

“왕이시여,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저는 미천한 집안 출신입니다. 어찌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정작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되자 메랍을 다윗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냈어. 참 어이없는 일이었지 뭐니.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는데, 사울 왕의 둘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거였지.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다시 한번 꿈꾸이를 꾸렸어.

‘그래, 좋아. 미갈을 미끼로 써서 다윗을 죽게 만들자. 내가 손대지 않아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다윗에게 말했지.

“지참금은 필요 없고, 그 대신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가져오너라.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니라.”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을 상대로 싸우다가 목숨을 잃길 바랐던 거지.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이 제안을 받아들였단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무려 200명의 포피를 가지고 돌아왔지. 사울 왕이 요구한 것보다 두 배나 더 많은 전리품을 바친 거야. 이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은 놀랄 수밖에 없었지.

‘어떻게 이럴 수가...!’

그때 사울 왕은 정확히 깨달았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시는구나...’

사울 왕은 피를 부려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

계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계략도 성공할 수 없었거든.

사울 왕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어. 오히려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하고 질투하게 되었지.

그 반대로 백성들은 점점 더 다윗을 사랑하며 따랐고, 사울 왕은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자기 딸 미갈을 아내로 주었다.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시기한 사울

다윗은 그 이후에도 블레셋과의 여러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더욱 두각을 나타냈어. 그의 용기와 믿음, 그리고 지혜로운 행동들은 온 나라에 퍼졌고, 심지어 블레셋의 통치자들까지도 다윗의 이름을 알게 될 정도였어. 그럴수록 사울 왕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하고 초조해졌지. 결국 어느 날, 그는 자기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

“이제 더는 안 되겠다. 다윗을 죽여야겠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피를 나누는 형제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은 깜짝 놀랐지.

‘큰일이야! 아버지가 진심으로 다윗을 해치려고 하시다니!’

요나단은 급히 다윗을 찾아갔어.

“다윗, 지금은 절대로 궁궐에 머무르면 안 돼. 당분간 숨어 있어. 내가 아버지를 설득해 볼게.”

그다음 날, 요나단은 조심스럽게 사울 왕에게 말했지.

“아버지, 다윗이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싸워 왔는지 아시잖아요.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려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그날 아버지도 승리를 기뻐하셨잖아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를 죽이려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건 아버지께서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나단의 진심 어린 말에 사울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

“좋다. 맹세하마.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 말을 들은 요나단은 너무 기뻐서 다윗을 다시 궁궐로 데려왔고 다윗은 다시 사울 왕 곁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지.

얼마 후,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고 다윗은 언제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자 백성들의 사랑은 더 커지고, 사울 왕의 마음속 시기와 두려움도 더 깊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 왕의 우울한 증상이 나타나서 다윗은 하프를 타기 위해 불러 갔어. 하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사울 왕이 손에 들고 있던 창을 갑자기 던졌다!

훅! 창은 다윗을 겨냥해 날아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지. 창은 벽에 쿵! 하고 박혔고, 다윗은 급히 집으로 도망쳤다. 사울 왕은 다윗을 그 자리에서 잡지 못한 게 분해서, 군사들을 보내 다윗의 집을 밤새 포위하게 했지. 그다음 날 아침이 되면 다윗을 붙잡아 오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아버지 사울 왕과는 달리,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슬펐지.

“당신이 오늘 밤에 도망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엔 죽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몰래 창문을 통해 다윗을 밖으로 피신시켰단다.

다윗은 깜깜한 밤, 조심조심 창문을 통해 도망쳤고, 미갈은 다윗이 아직 침대에 있는 것처럼 꾸며 놓았어. 베개에 머리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불을 덮어서 마치 사람이 자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거든.

그다음 날 아침, 군사들이 집으로 들어와 다윗을 데려가려 했지만 미갈이 막아섰지.

“다윗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더 화가 났어.

“그럼 침대째로 데려와라!”

하지만 군사들이 이불을 젖히고 보니, 사람이 아니라 사람처럼 꾸며 놓은
형상만 있을 뿐, 다윗은 이미 도망친 뒤였다.

사울 왕은 미갈을 불러 크게 꾸짖었지.

“너, 어떻게 감히 내 명령을 어기고 다윗을 도망치게 하였느냐!”

미갈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한 대로 둘러댔어.

“다윗이 저를 협박했어요. 죽이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귀한 우정

창문을 통해 겨우 도망친 다윗은, 그날 밤 라마에 있는 대언자 사무엘에게
로 달려갔어. 사울 왕이 그토록 무서워하던 하나님의 대언자, 그 사무엘에게
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하지만 누군가가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
지를 고자질하는 바람에, 다윗은 그곳마저 떠나 자기가 제일 신뢰하던 친구
요나단을 찾아갔어.

다윗은 슬프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요나단에게 하소연했단다.

“요나단,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사울 왕께서 나를 죽이려 하시
는 거니? 나는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어…”

요나단은 다윗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지. 그는 아버지 사울 왕이
그 정도까지 마음을 먹었으리라고는 차마 믿을 수 없었거든.

“다윗, 아버지는 요즘 병이 깊어져서 그러시는 거야. 본심은 그렇지 않을지
도 몰라. 내가 확인해 볼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려 줄게. 네가 들
판에 숨어있으면, 내가 활을 쏘아 신호로 알려 줄게.”

그즈음 이스라엘에서는 매달 초가 되면 월삭이라고 해서, 왕과 신하들이
함께 식사하며 그달을 시작하는 풍습이 있었단다. 월삭 첫날, 사울 왕은 다
윗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오늘 오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는 건가…’

그런데 이튿날에도 다윗이 보이지 않자 사울 왕은 요나단을 보며 물었지.



“다윗은 왜 오늘도 안 왔느냐?”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과 미리 상의했던 대로 대답했어.

“그가 집안 사정으로 고향 베들레헴에 다녀와야 한다길래 제가 그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은 갑자기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큰 소리로 화를 냈단다!

“이 못된 녀석 같으니! 네가 자꾸 그 다윗을 도우면 어떡하냐! 그 녀석이 살아 있는 한, 네가 이 나라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왜 모르냐! 다윗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반드시!”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힌 사울 왕의 입에서는 거친 말이 쏟아졌고, 요나단은 너무도 충격을 받았어. 그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맞섰단다.

“왜요? 왜 다윗이 죽어야 하죠? 그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는 언제나 나라를 위해 충성스럽게 싸웠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아들조차 자기 말에 반박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창을 던졌단다!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말이야!

휘! 창은 빛나갔지만, 요나단은 큰 충격을 받았어.

‘아, 아버지께서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그날, 요나단은 식탁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고, 친구인 다윗을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팠지. 요나단은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단다. 그는 아버지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친구를 끝까지 지켜 주려는 참된 용기를 가졌던 거야.

다윗이 들판의 큰 바위 뒤에 숨어 있으면, 요나단은 자신이 쓰는 화살의 방향으로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 주기로 했단다.

드디어 그들이 약속한 셋째 날, 요나단은 화살과 활을 가지고 들판으로 나갔어. 곁에는 화살 시중을 드는 어린 소년이 함께 있었지.

요나단은 아무렇지 않은 듯 소년에게 말했어.

“자, 화살을 쏘면 네가 달려가서 찾아오너라.”

그리고는 활시위를 당겨, 멀리 있는 바위 너머로 화살을 쏘지.

그건 다윗에게 보내는 신호였거든.

‘다윗, 도망쳐야 해. 아버지는 정말로 너를 죽이려 하셔.’

소년이 달려가서 화살을 주운 뒤, 요나단은 그에게 화살과 활을 들려 보냈어.

“자,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소년이 돌아간 후, 요나단과 다윗은 바위 뒤에서 다시 만났고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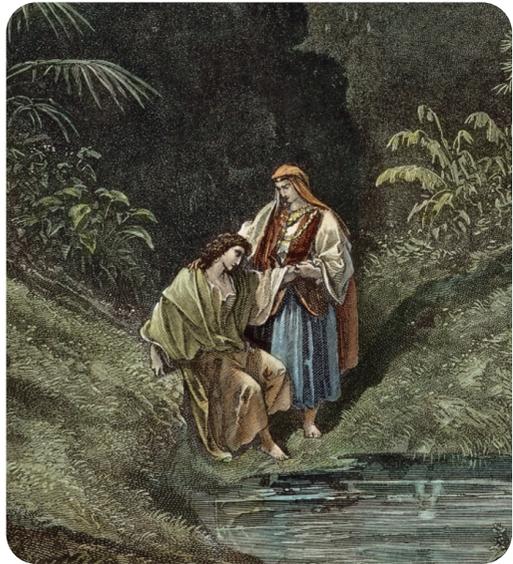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이별이었던단다.

그 누구도 이런 작별을 원치 않았지만, 다윗의 목숨이 위험하니 어쩔 수 없었어. 그때 요나단은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조용히 말했다.

“다윗, 우리 두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 기억하고 있지? 주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맹세했잖아. 이 약속을 절대로 잊지 말자.”

요나단은 이 말속에 모든 마음을 담아 다윗에게 부탁한 거야. 자기만이 아니라, 훗날 태어날 자기 자손들까지 다윗이 변함없이 돌보아 주기를 바랐던 거지. 요나단은 이미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던단다.

아버지가 왕이고 자기가 왕위의 후계자였지만, 요나단은 자기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 왜냐하면, 요



나단은 오래전부터 다윗의 믿음과 용기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다윗은 요나단의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눈물을 삼키며 들판을 떠났어.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

이때부터 다윗은 본격적으로 사울 왕을 피해 쫓겨 다니는 도망자 생활을 시작하게 돼. 다윗이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높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마을이었지.

다윗은 사흘 동안 굶은 채로 지친 걸음 끝에 이곳에 도착했어.

그는 성소에서 일하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었던단다.

아히멜렉은 다윗 혼자 수척한 모습으로 나타나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

‘이게 무슨 일이지? 왕의 장군이 수행 병사도 없이 이곳에 나타나다니… 사울 왕과 무슨 갈등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밀려오는 가운데, 아히멜렉이 조심스럽게 다윗에게 물었어.

“다윗, 무슨 일로 혼자 여기에 왔는가?”

“지금 저는 사울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드러나게 다닐 수 없어서 제 부하들은 따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혹시 저와 제 부하들이 먹을 음식이 있습니까?”

아히멜렉은 당황했지만, 이렇게 대답했단다.

“지금 이곳에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룩한 빵밖에 없네. 하지만 자네와 부하들이 지금 정결한 상태라면 그 빵을 줄 수는 있지.”

이 ‘거룩한 빵’은 원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이란단다. 매일 하나님 앞에 따뜻한 새 빵을 차려 놓았었고 식은 빵을 새 빵으로 바꿀 때 이전에 놓았던 빵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거든. 하지만 그 빵 외에 다른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그것을 다윗에게 내주었지. 다윗은 감사한 마음으로 빵을 받아 들고, 조심스럽게 또 한 가지를 부탁했어.

“제가 너무 급하게 떠나는 바람에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곳에 무기로 쓸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러자 아히멜렉은 잠시 생각하고는 대답했다.

“음… 이곳 성소에는 예전에 자네가 쓰러뜨린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지. 그 칼을 성소 뒤에 옷자락에 싸서 보관하고 있다네.”

“골리앗의 칼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그 칼을 손에 들고 서둘러 늪을 떠났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일이 나중에 큰 문제로 번질 줄은 아무도 몰랐지.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저 굶주리고 지친 하나님의 사람을 도운 것뿐이었지만 이 일로 인해 제사장들이 살던 마을 늪 전체가 큰 비극을 겪게 돼.

그날, 다윗이 늪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빵과 칼을 받아 간 그 일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에돔 출신의 도역은 사울 왕의 부하였어. 도역은 아히멜렉과 다윗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가는지를 귀 기울여 듣고, 지켜본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지. 그리고 나중에 적당한 기회가 오자, 그 사실을 그대로 사울 왕에게 고자질해 버렸지 뭐니.

한편, 사울 왕은 여전히 다윗을 잡기 위해 이곳저곳을 뒤지고 있었어.



사울 왕이 신하들과 함께 라마에 머물던 어느 날, 화난 얼굴로 신하들을 다그쳤지.

“아니, 내 아들이 다윗과 동맹을 맺었다는 말이 도는데, 너희들 중 누구 하나 나에게 그 얘기를 미리 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니! 너희들은 다 내 편이 아닌 거냐?”

그때, 도엑이 입꼬리를 슬며시 올리며 나섰단다.

“왕이시여, 제가 다윗이 뉘에 있었던 걸 직접 보았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에게 빵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은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지며 노발대발했지.

“뭐라고?! 지금 당장 뉘의 모든 제사장들을 끌고 오라! 그들은 다윗과 함께 반역을 꾀한 자들이니라!”

그렇게 하여, 뉘에 살던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들이 모두 라마로 불러왔지. 아히멜렉은 두 손을 모으며 간절히 말했단다.

“왕이시여, 저는 다윗이 왕의 충직한 종인 줄 알고 도와준 것뿐입니다. 그가 어떤 곤란한 일에 처했는지 저로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찌 제가 왕을 거역하려 하겠습니까?”

하지만, 사울 왕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단다. 그의 마음은 이미 분노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지. 곧 끔찍한 명령을 내렸어.

“저 제사장들 모두를 죽여라!”

신하들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 그 명령을 따르지 못했어.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이야.

그러자 사울 왕은 도엑에게 명령했지.

“너라도 가서 이들을 죽여라!”

도엑은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칼을 빼어 들었고, 그날 아히멜렉을 포함한 85명의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서 차례차례 쓰러져 죽임을 당하고 말았단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 사울 왕은 분이 풀리지 않아, 뉘이라는 마을

전체를 반역의 도시라고 선언하며 악한 명령을 했지.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노인이든, 심지어 짐승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없애라!”

그리하여 농업의 무고한 사람들과 가축들은 사울 왕의 미움과 의심 때문에 모두 목숨을 잃게 되었단다. 정말 듣기에도 끔찍하고 슬픈 일이었지.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가장 슬프고 참담한 비극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어.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질투와 미움, 그리고 의심과 교만은 사람의 마음을 무섭고 무지하게 만들지. 이후로도 사울 왕은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문만 들으면, 군사를 이끌고 어디든 쫓아가며 그를 잡으려고 애를 썼단다.

✚ 요약과 교훈

- 다윗의 진실한 믿음과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지만, 사울 왕은 다윗의 인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 사울 왕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해치려 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시며 그를 보호하셨어요.
- 사울 왕은 질투와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제사장들까지 죽이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 적용

- 친구나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며 도와주도록 해요.
- 자신의 마음이 질투나 교만으로 변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한 태도로 행동하고, 잘못했을 때는 바로 반성하고 고치도록 노력해요.
- 우리가 가진 특별한 재능과 장점을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해요.





Part
38

힘든 순간마다 지혜롭게 행동한 다윗

이제 다윗은 정말 갈 데가 없는 외로운 도망자가 되었다. 사울 왕은 어디든 쫓아오고, 제사장들이 살던 놉마저 끔찍한 비극을 겪었지. 다윗은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자신을 받아 줄 안전한 곳이 없게 되자 결국 다른 나라로 가기로 했어.

‘차라리 적의 나라에라도 가자...’

그가 향한 곳은 바로 블레셋의 도시 가드였지. 이곳은 예전에 다윗이 쓰러뜨렸던 거인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했으니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

다윗은 그곳의 왕 아기스에게 찾아갔지.

“저는 사울 왕의 손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제 목숨을 구하고자 왕께 의지 하러 왔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는 처음에 놀라긴 했지만, 속으로는 이득을 따졌어.

‘적국의 장수라도, 다윗은 용감하고 지혜로운 장수였으니 그가 내 편이 되면 나쁠 게 없겠군. 받아 주는 것도 괜찮겠어.’

그런데 왕과는 달리 신하들은 강한 반대를 했지.

“왕이시여!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에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며 사람들이 노래하던 그 다윗 아납니까? 그가 이곳에 온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이고 해치려는 계략일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분위기가 나빠지는 걸 느끼고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단다.

‘이대로 있다간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해야 해…’

다윗은 기발한 방법 하나를 떠올렸어.

‘그래, 내가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하면… 나를 해치지 않고 쫓아내겠지!’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하기 시작했지.

자기 수영에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짝마다 아무 말이나 휘갈겨 쓰고, 왕 앞에서 눈동자를 굴리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며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 했거든. 그 모습을 본 가드 왕 아기스는 기가 막혔어.

“이게 무슨 꼴이냐?! 내게 지금 미치광이가 없어서 저런 사람을 내게 들여보 냈단 말이냐? 저런 자는 필요 없어! 당장 내 눈앞에서 쫓아내라!”

가드 땅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다윗은 또다시 광야의 도망자가 되었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조금씩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지. 며칠 후에 다윗은 유다 평야에 있는 아둘람에 도착했고, 그곳은 깊



은 동굴들이 많은 지역이어서 다윗은 그중 하나에 몸을 숨기기로 했다.

그렇게 조용히 숨죽이고 얼마 동안 지내던 다윗에게 아버지 이새와 형제들이 찾아왔어. 이미 다윗은 반역자로 낙인찍혔기 때문에 덩달아 사울 왕에게 죽임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가족들은 피신하기로 결정했고, 다윗이 숨은 장소를 수소문하여 찾아온 거였지.

다윗은 가족들과 껴안고 눈물을 흘렸단다. 그토록 힘들고 외로운 상황에서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거든.

그런데 그 굴로 모여든 사람들은 다윗의 가족들만이 아니었어. 사울 왕의 다스림 아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삶이 고단하여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윗을 찾아오기 시작했거든.

그러다가 다윗의 무리는 어느새 400명이나 되었지 뭐니!

다윗은 이들 앞에 서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어.

그는 칼이나 갑옷에 의지한 게 아니라, 믿음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다윗

그러던 어느 날, 근처 마을 그일라에서 급한 소식이 들렸어.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에 쳐들어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뺏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도우려는 다윗에게 부하들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대장님, 지금 사울 왕도 우리를 쫓고 있는 마당에 블레셋과 싸운다는 건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부하들의 의견도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결정하기 어려웠지만, 우선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제가 그일라로 가서 싸우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분명하게 응답해 주셨지.

“가거라. 내가 너에게 그 블레셋 사람들을 넘겨주리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걸 믿고 부하들을 이끌고 그일라로 달려가 블레셋 군대와 싸워 크게 이겼단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일라 마을을 구해 낸 일은 곧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처럼 퍼졌어.

그리고 그 소식은 사울 왕의 귀에도 들어갔지.

“드디어 찾았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었군! 거긴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이니 내 손안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야!”

사울 왕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군대를 이끌고 비밀리에 가서 그일라를 포위하고 다윗을 붙잡으려는 계략을 꾸몄지.

하지만, 사울 왕의 계획은 사전에 다윗에게도 알려졌고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여쭙었지.

“주여, 사울 왕이 정말 저를 잡으러 이곳으로 내려오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 왕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어.

“사울이 내려올 것이니라.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은 너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을 따르던 400명과 함께 조용히 그일라를 빠져나왔지. 그리고는 남쪽에 있는 십 광야로 들어가 험준한 절벽과 바위들 사이에 있는 요새에 몸을 숨겼어.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사울 왕의 마음은 두려움과 질투로 가득 찼지. 더욱 조급해진 그는 매일같이 사방으로 군사를 보내 다윗을 찾기 시작했어.

“다윗은 어디 있느냐! 누가 그를 보았느냐!”

이제 다윗은 십 광야의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도망쳐야 했지. 바위틈, 동굴 속, 거친 산비탈을 따라 숨을 죽이고 발자국을 감추며 숨어 다녀야만 했어.



어느 날, 십 지역에 살던 몇몇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 왕을 찾아갔단다. 그들은 사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의 거처를 일러바쳤어.

“왕이시여, 다윗이 지금 여시몬 지역의 하길라 산 숲에 있는 강한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 말을 듣자마자 눈빛이 번쩍 빛났지.

‘드디어 잡을 수 있겠군!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는 군사를 이끌고 바로 하길라 산 쪽으로 향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미리 전해 듣고, 얼른 짐을 꾸려 더 남쪽에 있는 마온 광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지. 그곳은 바위가 많고 언덕과 골짜기가 깊어 숨기 좋은 곳이긴 했지만, 사울 왕의 군사들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할 곳을 찾기는 쉽지 않았어.

그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 사울 왕의 군대가 포위망을 좁혀오는 걸 보게 되었지.

“이제는 정말 끝인가…”

사람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지.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단다. 사울 왕 앞으로 급보 하나가 날아든 거야.

“왕이시여! 큰일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침입했습니다! 급히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딱딱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다윗을 잡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 나라가 먼저다. 지금은 돌아갈 수밖에…”

결국 사울 왕은 포위를 풀고, 급히 블레셋 군대를 막으러 떠났어.

그 덕분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또 한 번 목숨을 건지고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어. 이 일이 일어난 그 장소는 훗날 사람들이 셀라하마르곳, 즉 ‘분리의 바위’라고 불렀는데, 바로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이

되었던 바위라는 의미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한동안 엔게디 광야의 끝 자락에 있는 깊고 큰 동굴에 몸을 숨겼어. 그곳은 바위가 많고 골짜기도 깊어서 숨기에는 안성맞춤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조마조마했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다윗이 그곳에 있다고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고자질했고 사울 왕은 이번에도 정예 병사 3천 명을 데리고 직접 그곳으로 내려왔어. 사울 왕과 군대는 거친 길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지. 그렇게 길을 가던 중, 사울 왕이 갑자기 급한 불일이 생긴 거야. 몸이 불편해진 사울 왕은 근처에 보이는 양 우리 뒤편의 동굴로 들어갔지. 그 안은 조용하고 어두웠기 때문에, 사울 왕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겹옷을 벗어 한쪽에 두고 용변을 봤지. 그런데, 그 동굴 깊숙한 안쪽에 이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조용히 숨어 있었어!

그 장면을 상상해 보렴.

다윗은 지금껏 사울 왕에게 쫓기며 수없이 위험한 순간을 넘겼는데, 이제는 사울 왕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 바로 눈앞에 앉아 있는 셈이지. 그걸 본 부하들은 속삭이며 다윗에게 말했다.

“대장님,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사울 왕을 죽이면 우리 고생도 끝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어.

“안 돼. 그분은 하나님께서 기쁨 부으신 왕이시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내 손으로 해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하시고 갚아 주실 날이 있을 것이다.”

다윗은 조용히 칼을 들어 사울 왕의 겹옷 자락을 살짝 베어 냈어. 그리고는 아무 소리 없이 동굴 깊숙한 곳으로 다시 물러났지.

사울 왕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불일을 마치고 겹옷을 걸치고는 밖으로 나갔단다.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는지..., 숨이 멎을 것 같았지!



사울 왕이 동굴에서 조금 떨어져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났어.

“내 주, 왕이시여!”

놀란 사울 왕이 돌아보자, 그곳에 다윗이 서서 고개 숙여 절을 하고 있었어.

“왕이시여, 어째서 제가 왕을 해치려 한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지금 막 왕께서 계셨던 그 동굴 안에서 저와 제 부하들이 왕을 해칠 수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베어 낸 사울 왕의 겹옷 자락을 손에 들고 보여 주었어.

“이 자락이 그 증거입니다. 제가 왕을 해치려 했다면, 굳이 자락만 잘랐겠습니까? 저는 왕께 악한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은 깜짝 놀라며 흐느끼기 시작했지.

“내 아들 같은 다윗아... 네가 나보다 의롭구나. 나는 너를 악하게 대했지만, 너는 오늘 나를 선하게 대해 주었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리고는 이어서 말했어.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이스라엘의 왕국이 네 손에서 굳게 설 것을 안다. 네게 한 가지 부탁이 있으니, 내가 죽은 뒤에라도 내 후손들은 살려 주길 바란다. 주의 이름으로 맹세해 주겠느냐?”

다윗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중히 맹세했지. 그렇게 두 사람은 잠깐의 평화로운 작별을 나누는 후, 사울 왕은 기브아로 가고 다윗은 다시 요새로 돌아갔단다.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

이로부터 얼마 후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대언자 사무엘이 라마에서 평안히 세상을 떠났어.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해 준 존경받는 인물이었지.

그때쯤, 다윗도 마음 깊이 슬퍼하며 사울 왕의 눈을 피해 이스라엘 남쪽 끝 자락, 바란 광야로 근거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갈멜과 가깝기도 한 곳이었다. 그리고 그 근처 마운 지역에는 수천 마리의 양과 염소를 가진 큰 부자 나발이 살고 있었지.

어느 날, 나발은 자기 무리들을 데리고 갈멜에 내려와 양의 털을 깎는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 그런 날에는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거든.

그래서 다윗도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 음식을 나눠 달라고 요청하려고 했지. 왜냐면 나발의 목자들이 광야에서 양 떼를 돌보고 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도둑이나 들짐승으로부터 지켜 주었거든. 그 답례로 부탁해 보려고 했던 거지.

“너희는 나발에게 가서 정중하게 내 안부를 전하고, 우리가 그의 목자들과 양 떼를 어떻게 지켜 주었는지를 말하거라. 그리고 혹시 자비를 베풀어 음식을 좀 나눠 줄 수 있는지 여쭙보아라.”

이 사람들은 정중한 마음으로 나발을 찾아가 예의를 갖추어 말을 전했다. 그렇지만, 나발의 반응은 너무도 무례하고 모욕적이었던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다윗의 부하들을 무시했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내가 왜 내 빵과 고기를 그런 떠돌이들에게 주어야 한단 말이나? 썩 꺼져라!”

다윗의 부하들은 너무 당황해서 부끄러운 얼굴로 돌아왔고, 그 얘기를 전해 들은 다윗은 분노로 가슴이 부글부글 끓었어.

“그동안 우리가 저 사람의 양 떼를 지켜 준 게 헛일이었구나! 어찌 그리 막 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자, 모두 칼을 차고 나를 따르라! 오늘 밤, 나발의 집에는 살아남는 남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40명쯤의 무장을 갖춘 병사들을 이끌고 나발의 집을 향해 길을 떠났어. 그 시각, 나발의 집에서는 어떤 하인이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말했다.



“안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우리 양 떼를 지켜 줄 때 참 친절하고도 정직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인어른께서 그들을 모욕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일로 다윗이 화가 나서 지금 군사를 이끌고 우리를 치러 오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 얼굴이 굳어졌다.

‘이대로 두었다간 정말 큰일이 나겠구나...’

아비가일은 곧바로 하인들에게 지시했어.

“어서 여러 마리의 나귀에 빵과 포도즙, 건포도, 무화과, 볶은 곡식, 양고기 요리를 가득 실어서 다윗에게 먼저 떠나라. 내가 뒤따라갈 테니 서둘러라.”

그리고는 남편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고 조용히 혼자 산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어.

얼마쯤 가다 보니, 정말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산에서 검은 얼굴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칼을 차고 굳은 얼굴로 내려오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위협적이고 무서운 분위기였지.

아비가일은 곧장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

“다윗이시여, 제발 이 어리석은 나발 때문에 피 흘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멈추어 주세요. 나발은 그의 이름처럼 어리석은 자이니 그 말과 행동을 너무 마음에 담지 마십시오. 이 선물들을 받아 주시고, 우리 하인들과 저희 가족들을 살려 주십시오.”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며 이어서 말했다.

“하나님께서서는 머지않아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왕이 되실 분이 미련한 자를 직접 죽여서,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게 될 일을 하신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온 것은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깊은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단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렸지.

“하나님, 저들을 치러 가기 전에 막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가일에게도 대답했어.

“당신은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요. 오늘 내가 피 흘리지 않도록 막아 준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바라오.”

다윗은 아버가일의 선물도 받고, 군사들에게 칼을 거두라고 명령했지.

그리고 나서 아버가일이 집으로 돌아왔더니, 집 안에서는 마치 왕의 연회처럼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단다. 나발은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지고 마음껏 잔치를 즐기고 있었어. 그래서 아버가일은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밤을 보냈지.

다음 날 아침, 술이 깬 나발에게 아버가일이 조용히 말했어.

“어제 다윗이 당신을 치러 군사를 이끌고 왔었어요. 제가 나가서 그들이 원하는 걸 주고 이곳에 오는 걸 막았어요.”

그 말을 들은 나발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온몸이 굳어 버렸고 열흘 뒤에 결국 죽고 말았단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

“하나님, 주께서 저를 위해 친히 원수를 갚으시고 제 손으로 피 흘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갈멜로 사람을 보내어 아버가일에게 청혼했고 아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 항상 의지하며, 기도로 고백했지.

오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

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나의 하나님시오,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시 18:1-3)

† 요약과 교훈

-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용기 있게 행동했어요.
- 다윗은 자신의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 나발은 어리석게 행동하여 다윗과 일행이 화가 나도록 했지만,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침착하게 행동해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평화롭게 해결했어요.

† 적용

- 친구나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 화를 내거나 복수하려 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대화해요.
- 누군가가 우리를 오해하거나 나쁜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침착하게 행동해요.
-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도록 해요.





Part
39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

엔 게디 동굴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윗에게 사과하고 돌아왔던 사울 왕은, 시간이 조금 지나자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

얼마의 시간이 지나, 사울 왕은 다윗이 십 광야 근처에 있다는 제보를 듣고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3천 명의 정예 군사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 그리고는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치고 야영을 시작했단다.

그날 밤, 다윗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어. 다윗은 조용히 이종사촌인 아비

새를 데리고 사울 왕의 군대가 머무는 진영으로 몰래 들어갔다. 깜깜한 새벽녘, 다윗과 아비새는 조심조심, 살금살금 진영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날은 보초를 서던 병사들까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비새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눈과 귀를 잠시 막아 주신 덕분이었거든.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 왕이 잠든 곳까지 다가가서 살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반짝이는 창 하나와 물병이 놓여 있었지. 이 모습을 본 아비새는 다윗에게 조용히 속삭였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단 한번에 사울의 가슴에 창을 꽂아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개를 저었지.

“아니야.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내 손으로 그를 해치는 건 옳지 않아. 그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거다. 때가 되면 그가 전쟁터에서 죽거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실 테니 우리가 그의 목숨을 뺏으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윗은 사울 왕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 조용히 들고 아비새와 함께 진영 밖으로 빠져나왔어. 놀랍게도, 아무도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 다윗은 멀리 떨어진 산꼭대기에 올라가 큰 소리로 군대 장수 아브넬을 불렀어.

“아브넬아! 너는 왕을 지키는 대장 아니더냐? 그런데 네가 왕을 이렇게 죽을 뻔하게 두었던 말이냐? 네가 오늘 저지른 잘못이 정말 크다! 한번 봐라!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아라!”

사울 왕도 그 소리에 잠에서 깨어 자기 머리맡을 살펴보고 정말로 창과 물병이 사라진 걸 알고는 깜짝 놀랐지. 이번에는 사울 왕에게 크게 외쳤어.

“왕이시여, 어찌하여 보잘것없는 벼룩 같은 저를 이렇게까지 쫓으시나이까? 저는 오늘도 왕을 해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



“남께서 판단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사울 왕은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다.

“다윗아..., 내가 이번에도 어리석게 행동했구나. 네가 나를 해치지 않은 걸 보니 참으로 네가 나보다 의롭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은 군사를 이끌고 돌아갔고, 다윗도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사울 왕은 전에도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잖니. 그동안 수차례 약속을 어긴 사울 왕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믿기도 힘들었지.

‘언젠가, 사울 왕이 다시 마음을 바꿔 나를 잡으러 올지도 몰라.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 나는 결코 안전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다윗은 큰 결단을 내렸어.

‘차라리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자.’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오래도록 적으로 지내던 나라였고, 심지어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본인이었잖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건 정말 쉽지 않았을 거 같구나. 그만큼 목숨을 보전할 방법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해.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안에서 인도하시리라 믿고 자신과 함께하는 군사 600명과 그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블레셋으로 가서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갔단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정중하게 망명 의사를 밝혔지.

“왕이시여, 저는 사울 왕의 손을 피해 이곳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저와 제 사람들을 받아 주신다면 충심으로 따르겠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는 속으로 놀라긴 했지만, 다윗을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

‘사울 왕이 쫓는 다윗이 우리 편이 된다면, 이스라엘과 싸울 때 분명 도움

이 될 것 같군.’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과 그 일행이 지낼 수 있도록 시글락이라는 마을 하나를 내어주었다. 이후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비교적 평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 이스라엘 땅에서처럼 사울 왕의 추격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거든. 그리고, 사울 왕도 다윗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 블레셋 땅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 이상 그를 뒤쫓지 않았지.

다윗을 신뢰한 아기스 왕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그곳 변방에는 그술 족속, 게셀 족속, 아말렉 족속 같은 옛날부터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종족들이 살고 있었어.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 족속들의 지역을 기습 공격하여 진멸하고 전리품을 챙겼지. 그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는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어.

“왕이시여, 저는 오늘 유다 남쪽 지역을 쳐서 약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말한 이유는 자신의 정체와 의도를 감추기 위해서였지. 아기스 왕은 다윗의 말을 듣고 매우 만족했어.

‘다윗이 유다 사람들을 쳤다면 이제는 자기 민족에게 돌아갈 수도 없겠군. 그렇다면 그는 영원히 내 편이 될 수밖에 없겠어!’

시간이 갈수록 아기스 왕은 다윗을 점점 더 믿게 되었고, 중요한 전쟁에도 함께 싸우기 위해 데리고 가려 했지.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군대를 전역에서 모으고 있었고 아기스 왕은 다윗을 불렀어.

“다윗아, 이제는 네가 나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설 때가 되었느니라. 너는 내 후위대를 맡아서 함께 출정하도록 하여라.”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을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



엘과 싸운다는 건 그의 믿음과 사명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아기스 왕의 말을 거절하면 자신과 따르는 사람들 모두가 의심받아 큰 위협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우선 아기스의 명령대로 후위대에 섰단다.

수많은 블레셋 병사들이 집합 장소인 아베크에 모이기 시작했고 다윗의 군사들도 뒤쪽 부대에 함께 배치되었지.

그런데, 다윗을 본 블레셋 귀족들이 눈을 크게 뜨며 놀랐어!

“아니, 저 사람이 누구지? 저 사람은 그 유명한 다윗 아닌가?”

“저 다윗이 여기에 왜 있는 거야? 누가 저 사람을 데려왔단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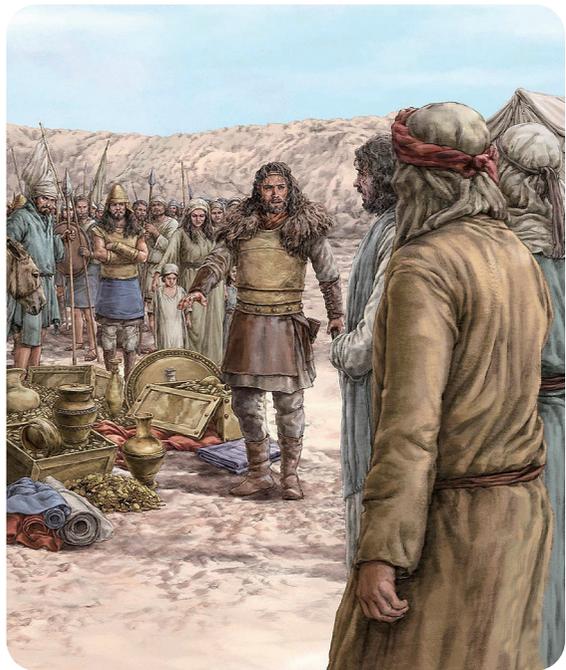
그리고는 곧장 단체로 아기스 왕에게 물러가 항의했어.

“왕이시여, 도대체 어찌하여 저 사람을 우리 군대에 넣었습니까? 전투 중에 다윗이 마음을 바꾸어 우리를 공격하면 어찌려고 하십니까?”

“전쟁 중에 사울 왕에게 충성하기로 마음을 바꾼다면, 그 순간 우리 등에 칼이 꽂히는 셈입니다!”

아무리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신뢰했어도 모든 귀족들의 반대를 무시할 수는 없었지. 그래서 아기스는 조용히 다윗을 불러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다윗아, 나는 네 충성을 믿고 있느니라. 하지만 다른 귀족들이 너를 믿지 못하는구나. 그러니 이번 전쟁에는 참여하지 말고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게 어



땡졌느냐?”

사실, 이 말은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내리신 탈출의 문과도 같았다! 그렇지만 다윗은 겉으로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지.

“왕이시여, 제가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원수와 싸울 기회를 빼앗는 겁니까?”

아기스는 다윗을 다독이며 다음 기회를 기약하고 돌려보냈지.

다윗은 이 일을 통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음을 깊이 느꼈어. 만약 귀족들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정말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가장 괴로운 싸움터에 서야 했을지도 몰라.

영매를 통해 사무엘을 불러낸 사울 왕

그 무렵, 블레셋 군대에 맞서기 위해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섰지만, 전투를 앞두고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지.

사울 왕은 멀리 블레셋 군대 진영을 바라보며 생각했어.

‘과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하실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나 재난에 빠졌을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곤 했단다. 대언자나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전쟁의 방향을 결정하고 마음을 다잡기도 했지. 그런데, 지금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전혀 없었어.

하나님께서서는 불순종하는 사울 왕에게 더 이상 아무 응답도 하지 않기로 하신 데다가, 사울 왕이 의지했던 사무엘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지. 이뿐만 아니라 다윗을 도왔다는 누명을 씌워 늙은 제사장들 85명을 모조리 죽인 이후로는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이 사울 왕 곁을 모두 떠나기도 했단다.

사울 자신이 만든 이 모든 상황에 대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했어야 하지만, 사울 왕은 또다시 자기 뜻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 하나님께 돌아가는 대신, 이번엔 더 큰 죄를 짓고 말았지.

예전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영매나 마술사를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신이 직접 영매를 찾아가 점을 치려고 했던 거야. 그건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몰래 점쟁이 집을 찾아가 미래를 알려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지. 한밤중에 사울 왕은 얼굴을 감추고 변장한 뒤, 부하 몇 명과 함께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인 엔돌이라는 마을로 갔어.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낸다는 영매를 찾아가던 사울 왕은 그녀에게 말했지. “내가 지목하는 사람을 불러내어 그의 말을 듣게 해 주시오.”

그 여인은 깜짝 놀라며 말했어.

“아니, 예전에 사울 왕이 엄하게 명령을 내려 영매나 마술사들을 모두 죽이거나 나라 밖으로 쫓아냈잖아요? 그걸 알면서 나한테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제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이 일은 못 해요!”



사울 왕은 변장하고 갔기 때문에 그 여인이 바로 사울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던 거란다. 사울 왕은 맹세하며 안심시켰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겠소. 당신을 이 일로 인해 벌을 받게 하거나 위협에 빠뜨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요.”

그리고는 ‘사무엘을 불러 달라’고 요청했어.

그 여인이 무언가를 하더니 정말로 사무엘이 올라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

소리쳤지!

“아니! 당신…, 당신이 사울 왕이군요!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사울 왕은 그 여인이 본 형상의 모양을 듣자마자,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곧장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애타게 호소했어.

“사무엘이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 응답도 안 하십니다. 꿈도 대언자도 다 막혀 있습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모습은 냉정하고 단호했지.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 네 원수가 되셨는데 어째서 내게 묻느냐? 주께서 왕국을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그리고 주께서 이스라엘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는 사라져 버렸단다.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아 기운도 다 빠진 상태였지.

그 모습을 본 부하들과 영매 여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음식을 권하며 회복을 도왔고, 사울 왕은 겨우 정신을 차린 후 조용히 진영으로 돌아갔단다.

사울 왕의 비참한 최후

날이 밝자마자, 이스라엘 들판에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무서운 전투가 벌어졌어. 칼 부딪히는 소리, 함성, 외침, 온 땅이 요란하게 뒤 흔들렸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점점 밀려났고 결국 길보아 산으로 패하며 도망치게 되었어.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의 궁수들과 기병들은 뒤따라가며 이스라엘 군사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했지.

비극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났어. 사울 왕의 아들들인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모두가 블레셋 병사들의 칼에 쓰러져 죽고 말았거든. 특히



용맹했던 요나단은 다윗과 깊은 우정을 맺으면서 자기의 자리를 다윗에게 내어줄 생각을 할 만큼 겸손하고 의로운 왕자였지.

사울 왕도 전투 도중 블레셋 궁수가 쏜 화살에 맞고 심하게 다쳤지. 몸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고, 거친 숨은 멈출 줄 몰랐고 피는 계속해서 흘렀단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사울 왕은 곁에 있던 병사에게 간절히 부탁했어.

“제발..., 나를 죽여 주어라. 원수들에게 잡혀 수치스럽게 고통받으며 죽기 전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나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 병사는 겁이 나서 차마 칼을 댈 수 없었어.

결국 사울 왕은 자기 칼 위에 엎드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단다.

그 모습을 본 충직한 부하도 자기 칼에 몸을 던져 함께 죽었지.

전쟁이 끝난 뒤, 블레셋 군사들이 길보아 산을 샅샅이 뒤지던 중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죽은 것을 발견했어. 블레셋 군사들은 그 자리에서 사울 왕과 아들들의 목을 베고, 블레셋 성읍 이곳저곳으로 승리의 소식이라며 그들의 시신을 보내어 전시했지. 그리고 남은 몸은 벤산 성의 성벽에 매달아 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할 생각이었던 거야.

참으로 비참한 최후였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던 사울 왕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끝에서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단다.

그런데, 야베스 길르앗의 용사들은 이 소식을 듣고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당시에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 준 일이 있었거든. 그 은혜를 기억한 그들은 밤을 틈타 몰래 벤산으로 가서 성벽에 매달린 시신들을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와 화장하고, 그 뼈를 정성껏 묻었지.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는 금식을 하며 애도했지.

이 소식을 나중에 전해 들은 다윗도 마음이 너무 아팠단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 요나단이 그 전쟁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다윗의 가슴

을 깊이 찢어 놓았어.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활의 노래’라는 애가까지 지을 정도였단다.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무섭고 슬픈 결말을 가져올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어. 그리고 참된 우정과 신실한 믿음은 끝까지 기억된다는 사실도 함께 마음에 새겨 두면 좋겠구나. 요나단의 우정은 다윗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었고, 그 우정은 지금까지도 성경을 통해 우리 마음에도 전해지고 있단다.

+ 요약과 교훈

-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수차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죽이는 죄를 절대로 저지르지 않았어요.
- 사울 왕은 끝내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영매에게 찾아가는 일을 통해 사무엘의 영을 만나려고 했어요.
-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맹렬한 전투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은 모두 죽게 되었어요.

+ 적용

-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미워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화목하게 지내도록 해요.
- 만약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힘든 일을 겪더라도, 복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정의를 이루실 것을 믿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요.
-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감사히 여기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도록 해요.





Part
40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설 뻔하다가, 아기스 왕의 귀족들의 반대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된 이야기 기억나니?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거야.

‘동족을 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다윗과 군사 600명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글락으로 돌아왔단다. 그런데, 그들이 마을 가까이 다다랐을 때 그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지고 말았어.

마을 전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던 거야!

시글락은 완전히 불타 버린 쭉대밭이 되어 있었고, 거기엔 아내도, 자식들도, 가축도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지. 다윗과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이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기습하여 마을을 불태우고 모든 사람과 재산을 약탈해 갔거든.

그 광경을 본 다윗과 군사들은 슬픔과 절망에 무너져 버렸어.

“아아..., 내 아내가..., 우리 아이들아...!”

그들은 소리 높여 울었고, 울다 지쳐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통곡했단다.

그런데, 슬픔이 지나고 나자 일부 병사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이 생겨났어.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이나? 우리를 이끌고 나간 다윗 때문이다!”

그리고는 그들 중 몇 명이 다윗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고 선동했지. 다윗은 순식간에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니?

그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변명하지도, 도망치지도 않았단다.

그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

“하나님... 이 절망 속에서도 제게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는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

“주여, 제가 아말렉 족속을 뒤쫓으면 우리 가족들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셨지.

“쫓아가거라. 그들을 따라잡고 너희는 모든 것을 되찾으리라.”

다윗은 곧장 일어나 군사들을 모아 아말렉 족속의 흔적을 따라 추격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에, 들에서 쓰러져 있는 한 이집트 청년을 만났지. 그는 아말렉 족속의 종이었었는데, 몸이 병들었다는 이유로 사흘 전에 버림받았던 거야.



다윗은 그에게 빵과 물, 무화과와 건포도를 주어 기운을 회복시켜 주었어.
“저를 살려 주신다면, 그들의 진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길을 열어 주신 거지. 그 이집트 청년의 안내를 따라 다윗은 아말렉 족속의 야영지를 급습했단다.

아말렉 사람들이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 틈을 타 다윗과 그의 병사들은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지. 그 결과, 크게 승리하게 되었고 가족들 모두를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되찾을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이 다른 지역에서 빼앗아 온 양 떼와 소 떼들까지 모두 전리품으로 얻게 되었지. 전리품으로 차지한 양과 소가 정말 많았지만, 다윗은 그 전리품을 혼자 차지하거나 자기 병사들에게만 나눠 주지 않았어.

자기와 함께 싸우지는 못했지만, 예전에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주고 숨겨주었던 유다의 여러 도시들을 떠올렸거든. 그래서 전리품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사 헌물’로 생각하며 그 도시들에 보내 주었다.

아브넬 대장의 죽음

사울 왕이 죽고 난 뒤, 다윗은 먼저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일부를 다스리게 되었어.

하지만,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사울 왕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의 왕으로 세워 그 지역들을 다스리게 했지.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져 있었어.

그 이후부터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다윗 왕과 크고 작은 전쟁을 벌이게 되지만, 싸우면 싸울수록 사울 왕가의 힘은 쇠약해지고 다윗 왕은 떠오르는 별처럼 강성하게 되었지.

그러던 어느 날, 사울 왕가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군대 대장 아브

넬이 사울 왕이 남긴 첩을 취했다는 문제로 이스보셋과 크게 다투었어.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여기고 화를 내며, 이스라엘을 다윗 왕에게 넘겨주기로 생각했지. 이스보셋의 왕권이 약하고 아브넬이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뜻을 하나로 모으고, 가장 까다로운 베냐민 지파까지 설득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울 준비를 마쳤어.

그 후 아브넬은 수행원 20명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내려가 다윗 왕을 직접 찾아갔다.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기쁘게 환영하며 따뜻하게 맞이했어.

그날, 두 사람은 화해와 연합을 위한 큰 잔치를 열었고, 다윗 왕은 아브넬을 믿고 그를 평화롭게 돌려보냈지.

그런데, 이날 뜻하지 않은 비극이 일어났어.

예전에 기브온 전투에서,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요압의 막내동생 아사헬이 전투 도중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었던 일이 있었거든. 요압은 그 일로 아브넬을 향한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지. 아브넬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요압은 바로 동생의 복수를 결심했고, 다윗 왕 몰래 아브넬을 불러내어 성문 근처에서 그를 단칼에 죽이고 말았지.

이 소식이 다윗 왕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깊은 슬픔과 분노에 빠졌지만, 요압은 그 당시 군사력과 백성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어서, 왕이라 해도 마음대로 벌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도 다윗 왕은 공식적으로 자신은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슬픔 속에 성대한 장례식을 준비하여 아브넬을 정중히 묻고 금식하며 애도했지.

사람들은 처음엔 혹시 다윗 왕이 아브넬을 없애려 한 게 아닌가 하고 의심



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다윗 왕의 이런 모습을 통해 그의 진심을 깨달았어.

“왕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닌가 보네. 왕은 아브넬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구나.”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임당했다는 소식이 마하나임에 전해지자 이스보셋 왕은 깊은 충격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사실상 나라의 기둥 같았던 아브넬이 죽고 나니 그 누구도 이스보셋을 지지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야. 백성들 사이에도 혼란과 불안이 퍼졌고, 사울 왕가의 마지막 기세마저 무너지는 분위기였지.

이런 혼란한 틈을 타 이스보셋 왕을 모시고 있던 군대 장관 바아나와 레갑 형제는 끔찍한 모의를 했어. 그들은 한낮에 왕이 낮잠을 자는 틈을 타 조용히 궁궐 안으로 들어가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도망쳤지.

‘이제 다윗 왕께 위협이 될 만한 사울 왕가의 왕을 없었으니, 틀림없이 큰 상을 주실 거야!’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 왕이 머물던 헤브론으로 찾아갔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된 다윗 왕

다윗 왕은 그런 행동을 절대 기뻐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 자리에서 크게 분노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그 소식을 듣고 온 자는 상을 받을 걸로 생각했지만 나는 악한 일로 여기고 처벌했는데, 하물며 무고한 의인을 자기 침상에서 죽인 자들을 어찌 가만두겠느냐?”

그리고는 바아나와 레갑 형제를 죽이게 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예의를 갖추어 묻어 주었어.

이처럼 다윗 왕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 되고자 노력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처럼 보여도 그 일이 옳지 않다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백성들은 더욱 다윗 왕을 신뢰하고 존경했지.

아무튼 바아나와 레갑 형제가 이스보셋 왕을 죽이자 사울 왕조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었어. 이제는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일만 남은 셈이었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

“우리는 왕의 뼈와 살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옛날에도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왕께서 우리를 이끄셨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기쁨과 정성을 담아,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았단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어 먼저는 유다 지파를 다스리다가, 그 후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켰어.

다윗 왕은 오랜 시간 도망자 신세로 고난과 눈물의 길을 걸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

이때의 다윗 왕의 마음가짐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두었단다.

다윗이 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굳게 세우신 것과 또 그분께



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자기 왕국을 높이신 것을 깨달으니라. (삼하 5:12)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댄 옷사

다윗 왕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마음에 품은 일이 있었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오는 일이었지. 이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했단다.

다윗 왕은 온 백성과 함께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대행진을 시작했어.

그들은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위에 궤를 조심스럽게 실었지.

그리고는 옷사와 아히오라는 사람이 수레를 몰았어.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는 순조롭게 출발했고,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



고 기쁨의 노래를 하며 그 뒤를 따라갔지.

그러던 중 수레가 나곤 또는 기돈이라고 불리는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갑자기 놀라 뛰는 바람에 수레가 덜컹하며 크게 흔들렸어. 그 순간, 수레 위에 있던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듯 흔들리자 옷사가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궤를 붙들었지.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단다. 옷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고 말았거든. 모든 행렬이 멈추고, 깊은 충격에 빠졌지.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궤를 보호하려던 옷사를 죽이신단 말인가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다윗 왕도 너무나 두려웠지.

결국 다윗 왕은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던 일을 중단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임시로 궤를 두었지.

다윗 왕은 깊은 생각에 빠졌단다.

‘내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는 성경의 율법을 다시 살펴보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하나님의 궤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오직 제사장들만이 어깨에 멜 수 있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거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도 손으로 궤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법도 있었지.

사람의 눈에는 옷사의 행동이 선한 길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긴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던 거란다.

세 달이 지난 뒤, 다윗 왕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했어.

이번에는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조심조심 옮겼지.

특별히 제사장들이 여섯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고, 다윗 왕은 기쁨을 참지 못하고 온몸으로 춤을 추며 찬양을 드렸어. 그는 왕



의 체면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한 아이처럼 춤추며, 온 백성과 함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를 기뻐했단다.

그때는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한가운데 성막을 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궤를 정중히 모셔 두었어. 그리고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렸단다.

다윗 왕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심

어느 날, 다윗 왕은 자기 궁궐에 조용히 앉아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

아무도 다윗을 알아주지 않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고, 여러 해 동안 전쟁을 치르고 도망다니던 힘든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키셨지.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지금은 백향목으로 지은 멋진 궁궐에 앉아 있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성막 안, 휘장 속에 머물고 있으니, 이 사실이 너무나 마음에 걸렸단다.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구나... 하나님을 위해 멋진 성전을 지어 드려야겠어!”

다윗 왕은 그 생각을 하나님의 사람, 대언자 나단에게 이야기했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소.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분께 드릴 집을 짓는 것이 마땅하오.”

나단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단다.

“왕이시여, 참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하셨으니,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대언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라. 내가 너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



라. 너는 많은 전쟁과 피를 흘린 사람이니, 그 일은 너의 아들, 너의 후손이 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다윗 네게는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약속을 주리라. 내가 너의 집과 왕국을 견고하게 하며 너의 왕좌를 영원히 세워 두리라.”

이 말씀은 훗날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약속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단지 멋진 건물만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영원한 왕국과 메시아의 계보를 약속해 주셨던 거야.

그건 바로,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 왕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거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에덴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내리시면서도 동시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훗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사탄의 머리를 부숴 버리실 메시아, 곧 예수님



께서 오시겠다는 처음 약속의 씨앗이었지.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 여덟 명을 구원하셨고, 그 혈통 가운데서 셈의 자손을 따로 택하셨지.

그리고 수백 년 뒤,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그의 자손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거라고 약속하셨어.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그리고 야곱, 그 후손들이 열두 지파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났단다. 그 민족 안에서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이제는 메시아가 오실 혈통을 분명하게 밝히신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는 아들이 네 집안에서 나올 것이니라.” 하고 역사의 한가운데 커다란 깃발을 꽂으신 일이나 마찬가지였지. 그래서 훗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시여!” 하고 부른 거란다. 그 말은 단순히 왕의 자손이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긴 의미이거든.

이렇게 중요한 메시아 약속에 대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주 자세히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혹은 나중이라도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말을 한다고 해도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거란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윗 왕이 직접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고, 무엇보다도 그의 왕위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이어지게 되었단다.

그래서 다윗 왕은 자기 생애 동안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금과 은, 동, 철, 목재, 석재 등 온갖 건축 재료를 미리 준비해 두었어. 궁궐의 보물도 내놓고, 자기 개인의 재산도 내놓고, 온 백성도 함께 헌물을 드리게 해서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집을 준비했어.

이렇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준비하는 마음에서 드러나는 거란다.
다윗 왕은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했지만, 정성껏 준비하고 자녀에게 믿음을
전해 주는 일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던 거야.

+ 요약과 교훈

- 다윗과 군사들이 전쟁을 위해 떠난 사이 마을에 있던 가족과 모든 재산을 약탈당했지만, 하나님께 간구한 후 아말렉의 뒤를 쫓아 모두 되찾아왔어요.
-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굳게 세워 주시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다윗의 왕국을 높여 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감사드렸어요.
-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 적용

-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요.
-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도록 해요.
-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 왕의 마음을 배워요.





Part
41

우리야를 죽게 한 다윗 왕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사방의 이방 민족들을 하나둘씩 정복해 나가던 시기였다. 이제는 굳이 왕이 직접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믿음직한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 전쟁이 이뤄질 만큼 왕국이 튼튼히 세워진 시기였다.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 족속의 랍바 성을 공격하러 떠났고 다윗 왕은 예루살렘의 궁궐에 머물고 있던 어느 날 저녁, 다윗 왕은 궁궐 옥상에서 도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지.

그런데 그때, 궁궐 가까이 있는 한 집의 안뜰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다윗의 눈에 띄었어. 그 여인은 참으로 아름다웠지.

다윗 왕은 그 여인에게 강하게 마음이 끌렸고, 한 신하를 불렀어.

“저 여인은 누구냐?”

“왕이시여, 그 여인은 밧세바인데, 현재 전쟁터에 나가 있는 헛 족속 우리야의 아내입니다.”

그 여인은 이미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은 다윗 왕의 군대에 속한 충직한 장수 중 한 명이었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다윗 왕은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유혹을 이기지 못해 밧세바를 궁궐로 불러들이고 말았어.

다윗 왕은 단순한 실수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큰 죄를 지었지. 며칠 뒤, 밧세바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단다.

“왕이시여, 제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백성들이 뭐라 하겠는가? 내가 왕으로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 말인가…?’

당황한 다윗 왕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양심의 소리를 억누르고 나쁜 꾀를 생각해 내고 말았어.

‘만약 우리야가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사람들은 밧세바의 아이가 우리야의 아이인 줄 알겠지.’

다윗 왕은 전쟁터에 있던 우리야를 궁궐로 불렀지. 우리야가 궁궐로 오자, 다윗 왕은 전쟁터 소식을 이것저것 형식적으로 물어본 후에 집으로 보냈어.

“수고 많았소, 이제 집에 가서 좀 쉬도록 하시오.”

그러면서 음식과 선물도 함께 보내며 집으로 가게 했지.

하지만 우리야는 정말 의롭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거든.

‘지금 내 형제들이 전쟁터에서 땅바닥에서 자며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아내와 편히 잘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야는 그날 밤, 자기 집에 가지 않고 궁궐 입구 근처에서 밤을 지새웠지.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너무나 당황하고 초조해졌단다.

‘이럴 수가..., 어떻게든 집에 들여보내야 하는데...’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우리야를 불러 함께 저녁을 먹고, 일부러 술을 많이 마시게 했어. 우리야가 술에 취하면 마음이 느슨해져서 집에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지.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야는 그날 밤도 집에 가지 않았어. 그는 여전히 충성과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또 궁궐 앞에서 하룻밤을 지냈단다.

이때라도 다윗 왕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야에게 용서를 구하고 진실을 고백해야 했지만, 다윗 왕은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계획했지. 절망 끝에 정말 끔찍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는데, 그건 바로 우리야를 죽게 만드는 일이었단다. 정말 무서운 죄가 아닐 수 없었어.

다윗 왕은 우리야를 전쟁터로 돌려보내며 편지 한 통도 함께 들려 보냈단다. 그 편지에는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비밀 명령이 적혀 있었어.

“우리야를 가장 위험하고 맹렬한 싸움에 앞장서게 하고 군대를 몰려서 그가 죽도록 해라.”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우리야는 자신을 죽이라는 계획이 담긴 편지를 직접 손에 들고 간 거야. 우리야는 그 편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성실히 왕의 명령을 수행했지.

요압은 왕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왕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따랐어.

우리야는 최전방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결국 죽고 말았지.

얼마 후, 요압이 보낸 전령이 왕에게 왔어.

“왕이시여, 이번 전투는 어려웠습니다. 성벽 위에서 적군이 활을 쏘았고, 우

리 군 장수들 몇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헛 족속 우리야도 그때 함께 죽었습니다.”

다윗 왕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담담하게 대답했지.

“요압 장군에게 전하라. 낙담하거나 죄책감을 갖지 말고, 더욱 힘써 싸워 그 성을 점령하라고 말이다. 칼은 이 사람도 삼키고 저 사람도 삼키는 법이니라.”

밧세바는 남편이 죽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궁궐로 들어와 다윗 왕의 아내가 되었고, 곧 아이를 낳게 되었지. 그렇지만, 다윗 왕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양심의 찢림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왕이었고, 이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건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고 있었지. 사람들은 진실을 몰랐기 때문에 다윗 왕의 결혼과 출산을 축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단다.

다윗 왕의 철저한 회개

그러던 어느 날, 대언자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왔어.

“왕이시여, 한 도시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큰 부자여서 양 떼와 소 떼가 셀 수 없이 많았고, 다른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하여 조그만 암양 한 마리 외에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암양은 그의 자식들과 함께 먹고, 품에 안겨 자고, 마치 딸처럼 보살핌을 받으며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지요. 부자는 자기 집에서 기르던 양 중 하나를 잡기 싫어서 그 가난한 이웃의 외동 양을 빼앗아 죽이고, 그 고기를 손님상에 올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은 벌떡 일어나며 화를 냈어!

“그런 비열하고 잔인한 짓을 하다니!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할 나쁜 사람이오! 그가 뺏은 양은 네 배로 갚게 해야 할 거요!”



그 순간, 나단이 다윗 왕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은 바로… 왕이십니다.”

그 순간, 다윗 왕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충격을 받았어.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죄를 감추려고 얼마나 더 큰 죄를 저질렀는지… 하지만 누군가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죄가 드러나자 다윗 왕은 더는 숨을 수 없었던다.

나단은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왕은 많은 것을 이미 가졌지만, 가난한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의 생명까지 앗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 왕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언자 나단이 다윗 왕 앞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책망의 말씀을 전했다.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도 했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해도, 왕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는 일은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거든. 하지만 나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한마디도 빼지 않고 전했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으며, 그의 모든 집을 네게 주었느니라. 그런데도 어찌하여 나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이토록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이제 네 잘못으로 인해 칼이 네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집안에서 너를 대적하는 해악을 일으키고 네 아내들은 남에게 넘겨주리라. 너는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 일을 온 백성 앞에서 대낮에 행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다윗 왕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듯 엎드렸어.

그는 변명하지도 않고, 핑계를 대지도 않고, 단 한 마디로 자기의 잘못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어.

그 말 안에는 가슴을 찢는 뉘우침과 눈물, 자기의 교만과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회개의 마음이 담겨 있었지. 그가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 51편을 통해 다윗 왕의 회개가 얼마나 깊고 진실했는지를 잘 알 수 있어.

오 하나님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하심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 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고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들을 지워 주소서. 오 하나님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께서는 속 부분에 있는 진실을 원하시니 내가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 51:1-17)

하나님께서서는 다윗 왕의 진실한 회개를 보시고 즉시 용서하셨지. 대언자 나단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



“주께서 왕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왕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 생긴 파장과 상처는 그대로 남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방할 거리도 생기고 말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다윗 왕의 집안에는 큰 시련과 슬픔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너는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 일을 온 백성 앞에서 대낮에 행하라.”

다말을 범한 암논을 죽인 압살롬

그중 하나가 바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야. 다윗 왕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어. 그는 용모가 너무나 뛰어나고, 머리칼은 길고 윤기가 흘러 사람들이 돌아볼 만큼 매력적인 왕자였지.

압살롬에게는 아름다운 여동생 다말이 있었는데, 그녀는 성품도 곱고 정숙한 처녀였지. 그런 다말을 같은 아버지를 둔 이복오빠 암논이 몰래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형제자매 사이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어.

암논은 마음속에 자기 욕망이 커지면서 병이 날 정도였지.

그러던 어느 날, 교활한 친구 요나답이 암논에게 나쁜 꾀를 하나 내어주었다.

“아프다고 하고, 아버지께 부탁을 해 보게. 다말이 와서 빵을 만들어 주며 간호해 주면 좋을 거 같다고 말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둘이 있게 될 수 있지 않겠나.”

암논은 그 말을 그대로 따라 했고, 다윗 왕은 아들이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되었지. 그래서 다말에게 부탁했어.

“네 오빠 암논이 아프다고 하니, 가서 그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렴.”

다말은 오빠가 진짜로 아픈 줄 알고 빵을 정성껏 구워서 손수 내주었지.

그런데 암논은 그 틈을 타 다말을 억지로 붙잡고, 강제로 욕보이고 말았어.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 암논은 마음이 확 변해서 오히려 다말을 미워하며 내쫓아 버렸던 거야.



암논에게 끔찍한 일을 당한 다말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오빠 압살롬에게 달려갔단다. 압살롬은 그 누구보다도 분노했지만, 지금 당장 뭔가를 할 수 없었기에 꼭 참으며 때를 기다리기로 했지.

그리고 2년 정도 지나, 압살롬은 양털 깎는 큰 잔치를 준비했어. 그 당시에는 양털을 깎는 날이 온 마을의 축제처럼 여겨졌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이기도 했어.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 왕과 아들들을 모두 초청했어.

다윗 왕이 그곳에 가지 못한다고 하자, 압살롬은 암논만이라도 보내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어. 다윗 왕은 망설였지만 결국 허락했고, 그날 그 잔치 자리에서 압살롬은 암논을 칼로 죽이고 말았지.

그건 다말의 눈물과 고통에 대한 복수였어. 하지만, 복수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다. 악한 일을 또 다른 악으로 갚는다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기만 해. 압살롬은 이 일을 저지른 후 자기의 외할아버지, 그술 왕 달매의 나라로 도망가서 2년 가까이 망명 생활을 하게 되었지. 시간이 흘러, 요압 장군의 중재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다윗 왕은 오랫동안 그를 만나려 하지 않았단다.

그렇게 또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은 결국 다윗 왕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왕의 용서를 받은 듯 보였지. 하지만 압살롬의 마음에는 야망이 불타고 있었어. 그는 은밀히 자기의 세력을 모으고 군사들을 훈련시키며, 사람들에게 자기야말로 공정한 재판관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퍼뜨리며 백성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거든.

그러던 어느 날, 압살롬은 헤브론에 간다며 아버지에게 허락받은 후, 배반할 음모를 실행에 옮겼어. 다윗 왕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압살롬의 반역군이 예루살렘을 향해 다가오는 중이었지.

너무나 급한 나머지 다윗 왕은 신하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치듯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어. 궁궐에 남겨진 건 열두 명의 첩들뿐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왕국이 무너지는 듯한 상황이었단다.

다윗 왕은 그 길 위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같구나.

‘내가 밧세바와의 일로 하나님 앞에서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더니, 결국 내 집안에 이런 칼날을 가져왔구나...’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믿었어.

하나님께서서는 이 위기 속에서 다윗 왕을 도울 사람들을 주셨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의 책사였던 후세였지. 다윗 왕은 후세에게 부탁했어.

“압살롬 진영으로 가서 그들의 조언자인 척하면서 아히도벨의 계획을 무너뜨려 주게.”

후세는 용기 있게 압살롬의 진영으로 들어가 아히도벨의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결국 압살롬은 그 말대로 움직이다 패배하고 말았단다.

압살롬은 전투에서 도망치다가 그가 자랑하던 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몸이 공중에 매달리는 바람에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

압살롬의 반역은 그의 죽음으로 끝이 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 왕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셨단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불러오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다윗 왕은 실수도 많았고 큰 죄도 지었지만,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사람이었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 왕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단다.

+ 요약과 교훈

- 다윗 왕은 밋세바에게 마음이 끌려 결국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죽게 했어요.
- 다윗 왕의 아들 암논이 이복동생인 다말을 강제로 욕보였고 결국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어요.
- 압살롬은 이 일로 도망했다가 다윗 왕의 용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반역을 일으켰고 결국 전투 중에 죽었어요.

+ 적용

-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탐내지 않아요.
- 내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욕심을 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 가족이나 친구와 사이 좋게 지내고, 서로 도우며 겸손하게 행동해요.





Part
42

인구 조사를 한 다윗 왕

다윗 왕의 생애 마지막 무렵에 일어난 또 하나의 실수는 바로 인구 조사 사건이란 다. 사람 수를 세는 것이 뭐가 문제일까? 우리도 학교에서 출석을 부르거나 나라에서 인구 조사를 하기도 하잖니?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숫자 세기가 아니라, 그 마음속 동기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보여 주는 일이었던 다.

그때는 다윗 왕이 많은 전쟁에서 이겨 이스라엘 왕국이 점점 강해질 무렵이었어. 백성도 늘어나고, 군사력도 강해지고, 주변 나라들도 다윗 왕을 두려

워하고 있었지.

그때 다윗 왕의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스며들었다.

‘내가 얼마나 강한 나라를 이루었는지 백성 수를 세어 확인해 보자.’

‘내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보여 줘야겠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나라거든. 이스라엘 백성도, 군대도, 왕도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존재였지.

그런데 다윗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지켜지고 있음을 잠시 잊고, 사람의 수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자 인구 조사를 명령했던 거야. 이 명령을 들은 충직한 요압 장군도 깜짝 놀라며 말했다.

“왕이시여, 백성이 지금보다 백배나 더 많아지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왜 군이 이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죄를 가져오려고 하십니까?”

다윗 왕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명령을 내렸지. 요압 장군은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서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람 수를 조사했어. 무려 9개월 하고도 20일이 걸렸단다.

조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한 숫자는 칼을 쥐고 싸울 수 있는 자가 100만 명을 넘는 큰 군대였어.

그런데, 그 수치를 듣자 다윗 왕은 기뻐하지 못했단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양심의 찢림이 찾아왔거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그는 곧바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했어.

다윗 왕이 선택해야 할 징계

그때 하나님께서 대언자 갓을 보내셔서 다윗 왕에게 말씀하셨지.

“내가 네게 세 가지를 주노니 너는 그것들 중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이 땅에서 칠 년 동안 기근이 생기는 벌을 받겠느냐? 아니면



네 원수들에게 추격을 받으며 석 달 동안 도망다니는 벌을 받겠느냐? 아니면 이 땅에 사흘 동안 역병이 생기는 벌을 받겠느냐?”

이 세 가지 중에서 다윗 왕은 한참을 고민한 뒤에 대답했어.

“주의 공흠이 크시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머니 생각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회개와 믿음, 그리고 백성을 위하려는 마음을 아시고 세 가지 중 가장 짧고 피해가 제일 적은 벌을 내리신 거 같구나. 그래서 사흘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이 퍼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무려 7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얘들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들고 있을 때, 공흠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제는 그만 멈추어라.”

그 순간 다윗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고 제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백성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발 그들을 치지 마시고, 저와 제가 속한 집에 벌을 내리소서!”

벌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지. 다윗 왕으로부터 타작마당을 사겠다는 얘기를 들은 아라우나는 제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저 바치겠다고 했어.

“왕이시여, 이 타작마당과 소와 타작 기구, 땀감이 될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아무 비용도 내지 마십시오.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타작마당과 소들에 대한 값으로 은 50세겔을 주었어.

“내가 값을 치르지 않은 걸로는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리지 않으리라.”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곳에서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렸어.

번제 헌물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온전한 헌신과 회개의 상징이었고, 화평 헌물은 하나님과의 화해와 교제를 의미하는 헌물이었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 위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재앙을 거두어 주셨단다.

다윗 왕은 이 일을 통해 또 한 번 자기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어. 그리고 그 타작마당은 나중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장소가 되었지.

이뿐만 아니라 수백 년이 흐른 뒤에는 예루살렘에 또 하나의 제단이 세워지는데 그건 바로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야.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신단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엡 5:2)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우리의 교만과 욕심, 모든 불순종을 대신해서 말



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단다.

다윗 왕의 교만과 실수

다윗 왕은 처음에는 양치기 소년으로 들판에서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며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윗 왕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고,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까지도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었단다. 사람들은 다윗 왕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은 먼 나라들에게도 알려졌어. 그러면서 다윗 왕의 마음속에 작은 속삭임 같은 생각 하나가 불쑥 솟아났지.

“내가 지금까지 이뤄 온 것들은..., 나의 지혜와 용기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바로 교만이란단다.

교만은 처음에는 아주 작고 조용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 오히려 ‘자기 사랑을 조금 한 것뿐인데 뭐 어때?’ 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보신단다.

왜냐하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약 4:6)

우리가 사랑할 일이 있을 때, 뭔가를 잘해 냈을 때,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

“그래,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항상 겸손한 마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잊지 말도록 하자꾸나.

+ 요약과 교훈

-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교만을 매우 싫어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길 원해요.
- 다윗 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 다윗 왕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자, 징계 후에 회복시켜 주셨어요.

+ 적용

- 내가 가진 걸 자랑하거나,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기보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해요.
- 잘못된 일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해요.
- 집이나 학교에서 자신이 잘못된 점을 고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게 대하며 서로 돕도록 해요.





Part
43

아기 임마를 가려낸 솔로몬 왕

솔로몬은 다윗 왕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나 열여덟 살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단다. 아버지 다윗 왕의 위대한 업적을 이어받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었을 텐데, 경험이 적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두려웠을까?

솔로몬 왕은 자신이 아직 어리고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왕 노릇을 하려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솔로몬 왕은 기브온에 있던 큰 산당으로 올라갔다. 당시에는 아직 하나님

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

그리고 그곳에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무려 천 마리의 짐승을 번제 헌물을 드렸어. 번제 헌물 천 마리! 정말 대단하지? 솔로몬 왕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는지 알 수 있겠지?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꿈에 나타나셨어.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원하는 것을 말해 보아라.”

“하나님, 저는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어리고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많은데 제가 어떻게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백성을 잘 분별하고 재판할 수 있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솔로몬 왕의 간청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셨지.

“네가 자신을 위해 재물이나 오래 사는 걸 구하지 않는구나. 또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도 하지 않는구나. 오직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 참으로 기특하도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칭찬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명철한 마음을 주셨지.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명예도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다. 만약 솔로몬 왕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며 살면, 오래 사는 복까지도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어.

솔로몬 왕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왕이 되었다.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들으러 이스라엘로 찾아올 정도였지.

어느 날, 솔로몬 왕 앞에 두 여인이 찾아왔어.

두 여인은 같은 집에 살았고,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기도 했지. 한 사람은 먼저 아들을 낳았고, 그로부터 사흘 뒤에 다른 여자도 아들을 낳았거든.



그런데 어느 날 밤, 먼저 아기를 낳은 여자가 깊이 잠든 사이에 실수로 아기를 깔고 자는 바람에 그만 아기가 죽고 말았어. 아침에 깨어난 그 여자는 당황했겠지만, 바로 나쁜 생각을 갖고 놀라운 일을 벌였지 뭐니. 옆에서 자고 있던 다른 여자의 아기가 멀쩡히 살아 있는 걸 보고는, 죽은 자기 아기와 몰래 바꿔치기를 한 거야.

아침이 되어 일어난 다른 여자는 깜짝 놀랐어. 자기가 낳은 아기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낯선 모습이었거든. 가만히 살펴보니, 죽은 아기는 자기 아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살아 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였던 거야!

그 둘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며 싸우기 시작했단다.

“내 아기야!”

“아니야, 내 아기야!”

결국 이 문제는 진실을 가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솔로몬 왕에게까지 올라오게 되었어. 두 여인은 왕 앞에서 저마다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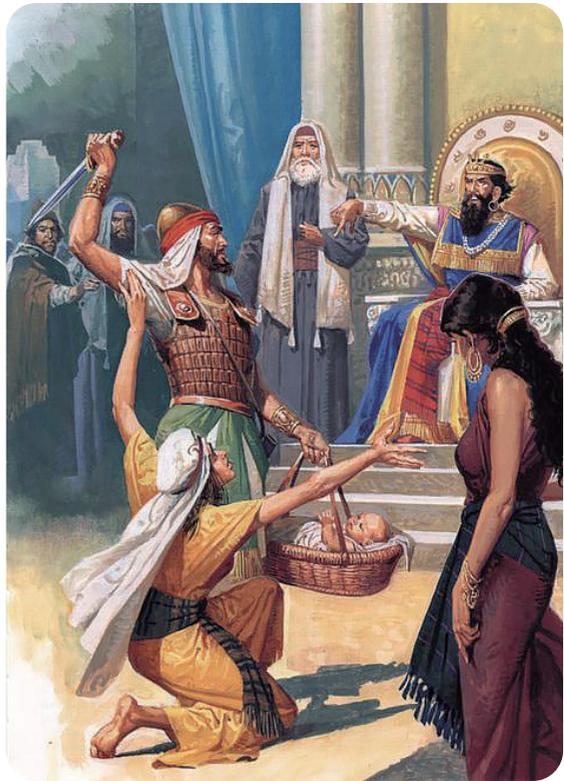
솔로몬 왕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신하에게 말했지.

“칼을 가져오너라.”

아니, 왕이 왜 칼을 찾으실까?

솔로몬 왕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단다.

“살아 있는 이 아이를 반



으로 잘라 두 여인에게 똑같이 나눠 주어라.”

이 명령을 들은 진짜 아기 엄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떨리는 목소리로 왕께 애원했지.

“왕이시여!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말아 주세요. 차라리 저 여자에게 그 아이를 주시더라도 아이를 살려 주세요!”

하지만 아기를 바꿔치기한 여인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

“왕이시여,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아이를 못 가진다면 저 여자도 가지 못하게 하시는 게 옳습니다.”

솔로몬 왕은 두 여인이 한 말들을 조용히 듣고 나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판결을 내렸단다.

“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 아이를 살려 달라고 애원한 바로 저 여인이다. 살아 있는 아이를 그 여인에게 돌려주어라!”

이 얼마나 놀랍고 멋진 판결이니? 아이를 살리려는 마음, 바로 그게 진짜 엄마의 마음이라는 걸 솔로몬 왕은 정확히 알아챈 거야.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판단은 이스라엘 온 땅에 빠르게 퍼졌단다. 백성들은 그를 더욱 존경한 동시에 그의 깊은 지혜를 두려워하기도 했지.

온 세상에 알려진 솔로몬 왕의 지혜와 부

솔로몬 왕은 단순히 머리가 똑똑했던 사람 정도가 아니었던단다. 그는 평생 토록 무언가를 배우고 연구하는 걸 멈추지 않았던 특별한 사람이었어.

그는 무려 3,000개나 되는 잠언을 지었고 1,005편의 시도 남겼어. 시와 잠언은 짧은 말속에 큰 진리를 담아내는 글인데, 그렇게 많은 작품을 남겼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그뿐만이 아니야. 솔로몬 왕은 나무에 대한 지식도 뛰어났고, 공중을 나는 새, 땅 위를 기는 짐승, 심지어 깊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에 대해서 연구하기도 하며 모르는 건 바로 배웠어.



그러니 그가 얼마나 박식했는지 짐작이 가지 않니? 그래서 그의 지혜와 지식은 먼 나라들에도 소문이 퍼졌단다. 많은 나라의 왕들과 귀족들이 솔로몬 왕을 직접 만나고 싶어 했고, 값비싼 예물을 들고 그를 찾아오기도 했지.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세바의 여왕이었던단다. 먼 곳에 있던 이 여왕은 많은 하인들과 함께 황금과 향료, 값비싼 보물들을 가득 싣고 와서 솔로몬 왕을 만나러 왔어. 세바의 여왕은 솔로몬 왕에 대해 들은 소문이 정말인지 직접 확인해 보려고 했거든.

그런데 막상 솔로몬 왕을 만나고 보니, 그동안 들은 이야기보다 훨씬 더 대단해서 감탄을 멈추지 못했지.

“내 눈으로 볼 때까지 소문들을 믿지 않았는데, 그들이 절반도 내게 말하지 않았구나!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들은 명성보다 뛰어나도다!”

솔로몬 왕은 또 이집트, 두로, 아라비아, 바빌론, 인도 같은 나라들과 무역을 활발히 했단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에는 막대한 부가 쌓였어. 금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을 정도였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

솔로몬 왕은 이처럼 쌓은 부를 나라의 여기저기를 튼튼하게 하는 데 사용했어. 궁궐도 지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도 아주 웅장하게 지었던단다. 또 전쟁에 대비해 군사들도 훈련시키고, 말을 기르는 마구간도 곳곳에 세워 나라의 국방도 튼튼히 했지.

성경에는 솔로몬 왕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다.

“솔로몬 왕이 부와 지혜 면에서 땅의 모든 왕들을 능가하였다.”

정말 대단한 왕이지? 하지만, 아무리 지혜롭고 부유한 왕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무엇보다 소중한단다. 솔로몬 왕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고, 그 선물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평안하고 나라가 튼튼해졌던 거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솔로몬 왕의 말년

솔로몬 왕의 삶이 항상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란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처음 가졌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옛날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을 목적으로 결혼 동맹이라는 걸 맺었어.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두 나라가 친척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면 쉽게 침략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 오늘날의 방위 조약 같은 거랑 비슷한 거야.

솔로몬 왕도 이 방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했어.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고, 또 자기 눈에 예쁘게 보이는 여자들도 계속 맞이하다 보니, 나중에는 왕비가 700명, 첩이 300명이나 되었다는구나. 정말 놀라운 숫자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그 이유는 단순히 다른 나라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이방신들 때문이었어. 하나님께서는 이방 아내들이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걸 경고하신 거였지.

솔로몬 왕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단다. 그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 시돈, 헷 사람 등 여러 이방 나라에서 아내를 데려왔지. 처음에는 단지 정치적인 이유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는 아내들의 말에 끌리게 되었어.

솔로몬 왕이 나이가 들어 늙었을 무렵에는, 이방 아내들이 자기들의 우상 신전을 지어 달라고 할 때마다 허락해 주었지. 심지어 예루살렘에도 이방 신전이 세워졌고 솔로몬 왕 자신도 그 이방신들에게 절하기도 했단다.

하나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냥 두고만 보지 않으시고 몇 번이고 경고하며 타이르신단다. 마치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참아 주고 또 타이르는 아버지처럼 말이야.

솔로몬 왕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곤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무려 두 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경고해 주셨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 왕은 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단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어.

“내가 나의 언약과 법규를 어기고 우상을 섬겼으니 내가 네 나라를 찢어 네 신하에게 주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과 예루살렘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공황과 자비를 베푸셨어.

“내가 다윗을 위해, 그리고 내가 택한 도시 예루살렘을 위해 단 한 지파만은 그의 손에 남겨 줄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의 아들 시대에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로 갈라졌고, 솔로몬 왕이 열어 둔 우상 숭배의 길은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솔로몬 왕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누려 본 사람이었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고, 그걸 우리에게 알려 주기 위해 ‘전도서’에 기록해 두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전 12:13-14)

이 말속에는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 우리도 솔로몬 왕처럼 후회하기 전에,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해.

솔로몬 왕의 죽음 이후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 왕은 결국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후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어.

르호보암이 왕이 되던 날, 이스라엘의 지파 대표들은 여로보암을 앞세워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요청했다.

“왕이시여, 아버지 솔로몬 왕께서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셨습니다. 이제 그 짐을 조금만 가볍게 해 주신다면 우리가 왕을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이 말은 사실,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길 기회를 준 거였지. 그러니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대답했다면,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의 나라로 남았을지도 몰라.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원로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조언했어.

“왕이시여, 백성의 요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은 평생 왕께 충성을 다하며 섬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르호보암 왕은 이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가 신하로 삼은 젊은 친구들의 말을 따라 이렇게 대답했지.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벌했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벌할 것이니라!”

전갈로 벌하겠다는 말은 훨씬 더 고통스럽고 무섭게 다스리겠다는 뜻이었으니, 백성들은 분노했어. 그래서 이렇게 외쳤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윗 왕가를 따르지 않겠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대표들과 함께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갔던 여로보암 이야기도 해 줄게.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아래에서 유능하고 성실한 신하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부터 신뢰를 받은 감독이었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 아히야가 그를 찾아왔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 열 개의 지파를 네게 주실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에게 반역자로 몰릴까 봐 이집트로 도망가 숨어 지냈어.

얼마 후, 솔로몬 왕이 죽자 각 지파의 대표들은 여로보암을



찾아갔고, 함께 르호보암 왕을 설득하러 간 거였지.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짐을 덜어 달라는 요청을 무시하자, 열 지파의 대표들과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워서 새로운 나라,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었단다.

이제 이스라엘은 북쪽의 열 지파가 만든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된 유다 왕국으로 나뉘게 되었어. 그리고 이 두 나라는 이후로도 오랫동안 서로 다투며 아픈 역사를 이어가게 되었지.

† 요약과 교훈

-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간구한 솔로몬 왕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의 축복도 주셨어요.
- 솔로몬 왕은 자신의 성공에 교만해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큰 죄를 지었어요.
- 이스라엘 왕국은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 멸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았어요.

† 적용

- 내가 가진 재능을 자랑하거나 현재 가진 조건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 성공이나 재능이 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할 때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도록 노력해요.





Part
44

우상 숭배를 없앤 아사왕

아사왕은 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다. 그는 무려 41년 동안이나 유다를 다스렸고,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일들로 가득했지. 그래서 사람들은 아사 왕의 통치 초반을 종교 개혁 시대라고 부르기도 해.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왕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나쁜 풍습이 많이 퍼져 있었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고, 산당에 올라가 우상 앞에 절하며 마음대로 살고 있었거든.

그런데 아사 왕은 달랐어. 그는 유다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마음이 아주 간절했지. 그래서 먼저 나라 곳곳에 세워진 우상의 제단과 산당, 형상들을 모조리 없애 버렸단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찾고, 율법에 따라 바르게 살도록 명령했지.

심지어 아사 왕은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이유로, 왕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로 철저했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정말 진지하고 단호했지.

하나님께서서는 아사 왕의 그런 믿음을 기쁘게 보셨단다. 그래서 그의 통치 초반 10년 동안은 전쟁 없이 나라에 평화를 주셨어. 안정된 시간이 길었던 덕분에 유다 백성들은 그 기간 동안 요새 도시를 짓고, 성벽도 세우고, 나라를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었지.

아사 왕의 용기와 믿음

그런데 통치 11년째 되던 때,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큰 위기가 찾아왔단다.

에티오피아의 왕 세라가 무려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근처까지 쳐들어온 거야! 유다는 아무리 병력을 모아도 58만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10년 동안 전쟁 한 번 없이 지나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엔 두려움이 가득했지. 이때 아사 왕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며, 자기 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 많은 사람으로 돕든지 능력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님은 언제든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저 큰 대군에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니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멋지고 믿음 있는 기도인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사 왕과 유다 군대 앞에서 직접 에티오피아 군대를 치셨단다. 그 결과 에티오피아 군대는 크게 져서 결국



도망쳤고 유다 군대는 그들을 쫓아가 모두 물리쳤지. 많은 전리품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이것은 아사 왕의 믿음이 이뤄낸 아주 큰 승리였어. 이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아사랴와 오벳을 통해 아사 왕을 격려하셨지. 아사랴가 말했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너희가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날 테지만, 만일 너희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참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단다.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 줄 제사장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지켜 지지 않았지. 나라 안팎으로도 평안이 전혀 없었고, 사람들이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위험이 가득했지. 곳곳에서 큰 혼란과 고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마다 다투고 민족끼리 싸우며 서로 괴롭혔단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잘못을 바로잡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락하셨던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난 속에서 구해 주셨단다. 아사랴는 계속해서 말했어.

“그러니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의지를 단단히 하거라.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마음을 절대 멈추지 말고, 계속 힘내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 주실 것이니라.”

아사 왕은 이 말씀을 듣고 더욱 힘을 내어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썼단다.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소문을 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아사 왕 곁으로 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 그들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굳은 언약까지 세웠단다.

“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웠는지 알 수 있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아사 왕이 통치한 지 35년이 될 때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에 평화를 주셨단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며 나라를 이끈 아사 왕, 참으로 귀한 믿음의 왕이었지. 이처럼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바르게 서 있으면, 백성 모두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겠구나.

대언자를 통해 책망받은 아사왕

할머니 생각에는 아사 왕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이야기가 쪽이 어졌으면 참 좋았을 거 같아. 그러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상을 없애며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었던 그 모습이 영원히 기억되었을 텐데 말이야.

하지만 아사 왕의 인생 후반기는 조금 다르게 흘러갔어.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만한 선택을 여러 번 하게 되었지. 아사 왕이 통치한 지 36년째 되던 해, 북쪽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위협하기 시작했단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하며 유다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본 바아사 왕은 속이 뒤집혔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6킬로미터쯤 떨어진 도시 라마를 요새로 만들기 시작했어. 유다로 넘어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말이야.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사 왕의 반응이 아주 의외였단다.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을 텐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 아사 왕은 시리아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청했지. 말로만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라 왕궁의 금과 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봉헌해 둔 보물까지 모두 모아 벤하닷에게 바치면서 말이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던 아사 왕이 어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어쨌든 시리아 왕 벤하닷은 아사 왕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들을 공격했다. 결국 바아사 왕은 라마 건축을 중단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 겉으로 보기엔 아사 왕이 위기를 잘 해결한 것처럼 보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아주 심각하게 여기셨단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하나니를 보내어 아사 왕을 꾸짖게 하셨어.

“아사 왕께서 이번에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리아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룽 사람들이 병거와 기병을 많이 가진 아주 큰 군대로 쳐들어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큰 군대를 무찌르고 왕이 이길 수 있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니는 예전에 아사 왕이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요청을 들어주셨던 일을 상기시키고 이어서 말했어.

“주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그분을 향해 마음이 온전히 바른 사람을 도우시지요. 그런데 이번엔 왕께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쟁이 계속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하나니의 말을 겸손히 듣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며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단다. 그리고 점점 더 백성들을 억누르고 괴롭히는 일들까지 했어. 믿음이 한 번 무너지자,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점점 더 멀어져 간 거야. 그로부터 몇 해 뒤인 통치 39년째, 아사 왕은 발에 심한 병이 생겼지.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오직 의사에게만 의지했다. 그리고는 몇 해 뒤, 아사 왕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오래 누리면서, 그 평화가 자기가 이룬 것인 줄 착각하게 되었던 거 같아.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잊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생겼던 거지. 이걸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경고가 된단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고전 10:12)

스스로 잘 서 있다고 생각할 때일수록,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말이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의 초반의 믿음과 열심을 기억하셨지. 성경에는 “아사는 주 자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과 옳은 것을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 비록 그의 삶 후반부에는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시절의 믿음을 기억해 주신 거야.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도 잊지 말자.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도록 하자꾸나.

+ 요약과 교훈

- 아사 왕은 우상 숭배를 없애고 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열심을 다했어요.
- 에티오피아의 큰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은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큰 승리를 안겨 주셨어요.
- 아사 왕은 말년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교만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졌어요.

+ 적용

-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요.
-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의지하며 해결 방법을 찾아요.
- 우리도 아사 왕처럼 실수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Part
45

믿음의 길을 걸은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이었던다. 그는 아사 왕의 아들이었고, 3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 무려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단다.

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하셨으니 이는 그가 자기 조상 다윗의 처음 길들로 걷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의

명령들 안에서 걸으며 이스라엘의 행위들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대하 17:3-4)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멀리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하시며, 그 나라를 튼튼히 세워 주셨단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 전체를 바꾸려 했어.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유다 온 땅으로 보내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했단다. 할머니는 이 부분이 참 감동적이더구나.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죄짓는 백성이 생기지 않도록 왕이 먼저 나서서 가르쳤다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온 유다에서 산당과 작은 숲들, 곧 우상 숭배하던 장소들을 없애 버렸단다.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진심이 있었던 거지.

이런 여호사밧 왕을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여기셔서, 주변 나라들이 감히 전쟁을 걸지 못하게 하셨어.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와서 예물을 바치고, 양과 염소를 조공으로 바쳤을 정도야. 그만큼 여호사밧 왕의 나라는 평화롭고 풍성했단다.

아합 왕과 연합한 여호사밧 왕

하지만, 여호사밧 왕에게도 안타까운 실수가 있었어.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손을 잡았던 일이었지. 그는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켰단다. 이 결혼은 단순한 정치적 동맹이 아니라, 믿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일이었어. 왜냐하면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이지.

그뿐만 아니라, 아합 왕이 전쟁에 함께 나가자고 요청했을 때 여호사밧 왕은 쉽게 허락했단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습니다.”



참 의리 있어 보이지만, 믿음의 왕이 우상 숭배자와 함께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었어.

전쟁을 나가기 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했고 이스라엘의 대언자 400명은 모두 같은 대답을 했단다.

“이대로 전쟁에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그곳을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뭔가 마음이 걸렸는지, 아합 왕에게 한 번 더 물었어.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물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이들 말고 이스라엘에 그분의 대언자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미가야라는 참된 대언자를 불러오게 되었단다.

미가야는 모든 대언자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전했다.

“왕의 이 많은 대언자들이 거짓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전쟁에 나가면 아합 왕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미가야의 대언대로 두 왕은 전쟁에 나갔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변장했던 아합 왕은, 우연히 날아온 화살 하나에 맞아 죽고 말았어. 반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위기를 피할 수 있었지.

전쟁이 끝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들을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며 개혁을 이어갔어.

여호사밧 왕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어른들 가운데 몇 사람을 뽑아 예루살렘에 세웠지.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바르게 재판하고, 백성들 사이의 다툼을 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중요한 일을 맡았단다.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어.

“너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진실되게 일하거라. 너희 형제들이 율법이나 명령, 혹은 피를 흘리는 문제 같은 어려운 문제로 재판받으러 오거든,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게 하여라.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이니라. 반드시 바르게 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왕은 모든 일을 맡아 관리할 책임자들도 세웠어.

여호사밧 왕은 또 이렇게 말했지.

“너희는 용기를 내어 힘껏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사는 사람과 함께하시니 걱정하지 말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하거라.”

하나님을 의지한 여호사밧 왕의 승리

얼마 후에 또 한 번 큰 위기가 찾아왔어. 모압과 암몬, 세일산 사람들, 셋이나 되는 적국 연합군이 여호사밧 왕을 공격하러 온 거야!



그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했지만, 곧바로 하나님을 찾았다. 온 백성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 기도했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중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

“많은 적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거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아라!”

다음 날, 여호사밧 왕은 군대를 모았는데 가장 앞에는 군사들이 아니라 찬양대가 섰단다!

이들은 찬양을 부르며 전쟁터로 나갔어.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공훈은 영원하도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께서 적군끼리 싸우게 하셔서, 유다 군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완전히 승리할 수 있었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무려 사흘 동안이나 노략물을 거두었고, 그 넷째 날엔 브라가 골짜기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는구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을 대신해서 전쟁에서 싸워 주셨다는 소식은 주변 나라들에게 빠르게 퍼져 나갔지.

그 소식을 들은 이웃 나라 왕들과 백성들은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는지 몰라.

“유다 백성의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대! 그들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신 분이야!”

이후로는 다들 감히 유다를 건드리지 못했지.

그 덕분에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나라는 한동안 아주 평온했어.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은 다를 수 있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아도 하지 못하는 게 있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을 거 같은 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뤄질 수 있단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했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선택해야 한단다.

+ 요약과 교훈

-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가르치며 우상을 없애는 개혁을 이끌었어요.
- 아합 왕가와 혼인 동맹을 맺은 실수는 유다 왕국에 큰 위기를 불러왔어요.
-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 적용

-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요.
- 어려움이나 큰 결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른 해결 방법과 선택을 하도록 해요.
-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해요.





Part
46

해그림자 표적을 구한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한창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의지했던 믿음의 왕이었어. 특히 가장 유명한 건 바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지.

어느 날, 히스기야 왕은 무서운 병에 걸려 죽을 날을 앞두고 있었단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는 네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아나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겠니?

그는 곤장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했단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지.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낮게 하리니 네게 15년의 생명을 더해 주겠다.”

그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물었단다.

“이사야시여, 하나님께서 나를 낮게 하셔서 사흘째 되는 날에 내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표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사야가 부드럽게 대답했지.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보여 주시기 위해 표적을 하나 주실 겁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앞으로 열 칸 나아가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뒤로 열 칸 물러가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어.

“해그림자가 앞으로 열 칸 나아가는 건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니 그러지 말고, 해그림자가 뒤로 열 칸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 말에 이사야는 즉시 하나님께 기도드렸단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 때 만들었던 해시계 위의 해그림자를, 열 칸이나 뒤로 물러가게 하신 거야. 그건 마치 시간이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엄청난 기적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표적을 보여 주신 건, 히스기야 왕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게 될 것이 틀림없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 왕은 앞으로 몇 년 더 살게 될지를 하나님께 직접 들은 특별한 사람이 되었지. 얼마나 놀랍고 특별한 기분이었을까!

악한 일들을 바로잡은 히스기야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큼 그 전의 아사 왕 못지않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그는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니라. (왕하 18:3)

그는 아버지 세대부터 무너진 신앙과 예배를 바로잡기 위해 나라 전체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단다. 산당을 헐고 우상들을 부수며, 성전 문을 다시 열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께 정결한 예배를 드리게 했어.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말이야,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나쁜 왕들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야. 아하스 왕은 우상을 섬기고, 성전 문을 닫아 버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사람이었거든.

그런 아버지를 두고도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아들로 자랄 수 있었을까? 참 미스터리 같지 않나?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 선택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단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왕이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집을 다시 깨끗하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거 같아. 그래서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명령을 내렸어.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며 우상에게 절했기 때문에 이 땅에 큰 재앙이 닥치게 되었느니라. 나는 지금 주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 성전

에서 다시 정결한 예배를 드리기로 굳게 다짐했느니라. 너희도 이 일에 열심을 내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신 것을 잊지 말라.”

히스기야 왕의 이 연설에는 그동안 그가 얼마나 가슴 아프게 나라의 상황을 지켜보며 살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단다. 나라가 점점 약해져서 주변 나라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백성들이 끌려가 포로가 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 때문이야. 내가 왕이 되면, 반드시 이 잘못부터 바로잡아야 해.’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그 다짐을 행동으로 옮겼지.

히스기야 왕은 단지 성전만 회복한 게 아니야.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 절기도 다시 지키도록 했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날인데, 많은 왕들이 그 의미를 잊고 그냥 지나쳐 버렸거든.

히스기야 왕은 법으로 유월절을 다시 제정해서 모든 백성이 지키도록 했단



다. 더 놀라운 건, 그는 자기 나라 유다 백성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었어.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다.

“형제들이여, 주의 집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님께 유월절을 지킵시다. 우리 조상들의 죄로 멀어진 길에서 돌아와 다시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비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감동받은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유월절을 함께 지켰단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자기 통치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애쓴 참된 지도자였어.

히스기야 왕은 어린 시절부터 우상 숭배가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푹 푹히 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높이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던 거야. 하나님께서도 그런 그의 열심을 기쁘게 보셨겠지?

히스기야 왕의 놀라운 승리

그러던 중에 히스기야 왕에게도 큰 위기가 닥쳤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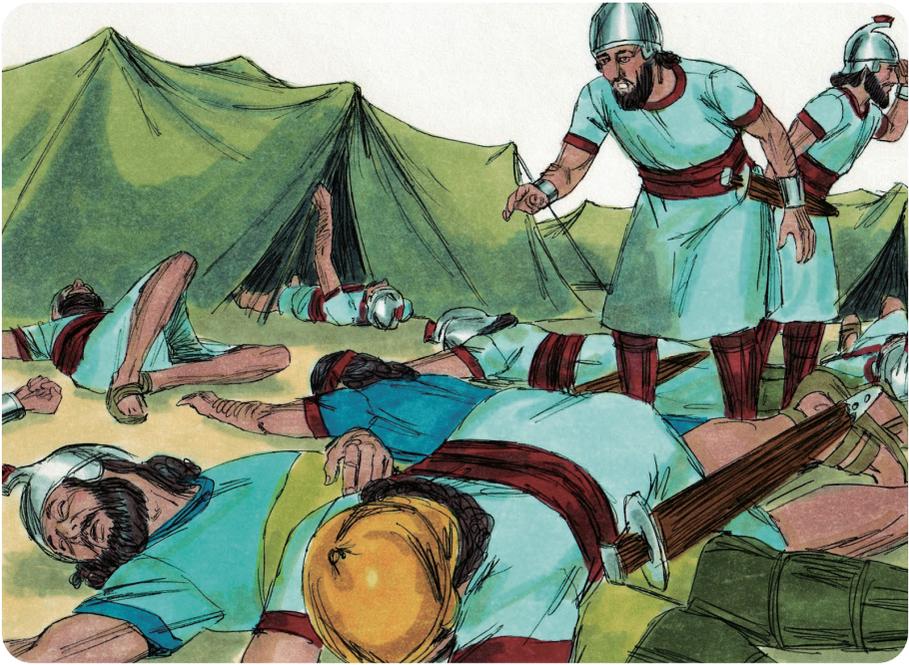
그 당시에는 아시리아 제국이라는 아주 강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제국은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모조리 정복하면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지.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도 이 아시리아에게 무너지고 말았어.

그리고 마침내, 아시리아 왕 산헤립은 유다까지 멸망시키기 위해 자기 장군인 랍사게에게 아주 많은 군대를 맡겨 예루살렘까지 진군하게 했지. 랍사게는 여러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다가왔어.

드디어 랍사게와 그 군대는 예루살렘 성 앞에 도착한 후,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 항복하라고 요구했지. 그런데 그 편지에는 위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들까지 담겨 있었어.

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

그는 깊은 슬픔과 겸손한 마음으로 베옷을 입고,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 하



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드렸지. 그리고 대언자 이사야에게도 사람을 보내어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

히스기야 왕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시리아 왕은 이 도시로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로 화살을 쏘지도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이 도시 앞에 오지도 못하고 이 도시를 대적하여 흙 언덕을 쌓지도 못하며 자기가 온 길 바로 그 길로 돌아가고 이 도시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다.

어느 날 아침, 아시리아 군대의 진영에서는 무려 185,000명의 군사들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어. 아무런 싸움도 없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개입하신 결과였지.



랍사게와 산헤립은 이런 일이 일어난 뒤 결국 물러갔고, 산헤립은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어.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라를 구했어.

이 일 이후, 히스기야 왕은 주변 나라들로부터도 높임을 받게 되었단다. 그 가운데는 그 당시 점점 힘을 키우던 바빌론도 있었어. 바빌론 왕은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 사절단과 많은 선물들을 유다에 보냈지.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 왕은 경솔한 행동을 하고 말았어.

그는 너무 기분이 좋았던 탓에 바빌론 사신들에게 왕국의 보물 창고와 무기, 성전의 귀중한 것들까지 모두 다 보여 주었거든.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기가 이룬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 때문이었지.

하지만,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였어.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해 주셨고, 병도 고쳐 주셨고, 주변 나라로부터 존경받게 해 주셨는데, 히스기야 왕은 마치 자기 힘으로 이룬 것처럼 행동한 셈이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네가 자랑하며 보여 준 모든 것이 결국은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말 것이니라. 또한 네 자손들도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니라.”

시간이 흐른 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지. 유다는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고, 성전의 보물들도 다 빼앗기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거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게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내가 다 이룬 것

처럼 자랑하거나 교만해지지 말아야 해. 히스기야 왕처럼 처음엔 하나님을 잘 믿고 겸손했던 사람도, 잘되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될 수 있거든.

우리도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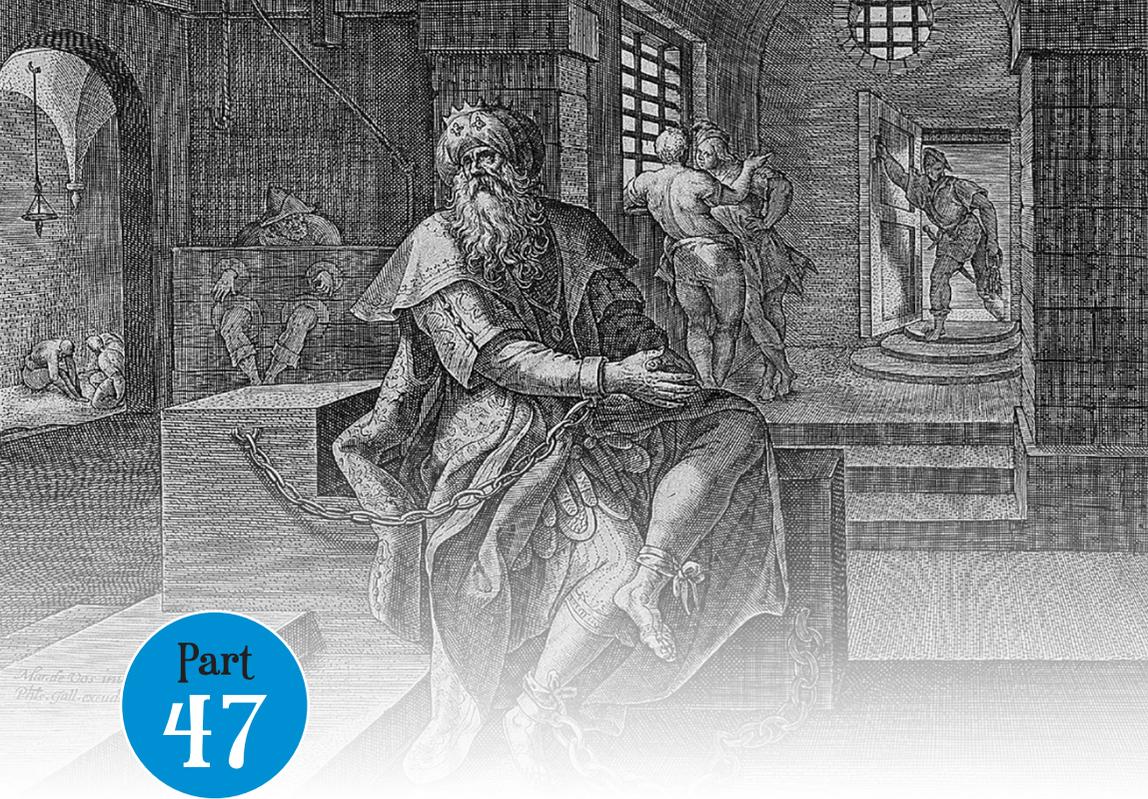
+ 요약과 교훈

- 히스기야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정리하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해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표적과 함께 병을 고쳐 주셨어요.
-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했을 때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셔서 나라를 지켜 주셨어요.

+ 적용

- 교회에서 정성스럽고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고 주의 깊게 성경 말씀을 들어요.
- 어려운 일이 생기면 겁내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믿음의 습관을 갖도록 해요.
- 원하는 대로 일이 잘될 때에도 늘 겸손한 마음을 갖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요.





Part
47

유다 왕국을 망하게 한 므낫세 왕

□ 낫세 왕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결국 나라를 망하게 했던 사람이야. 그는 12살에 왕위에 올라 무려 55년 동안이나 유다 왕국을 다스렸단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던 히스기야 왕이었지.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므낫세는 아버지와는 너무도 다르게 살았단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좋은 부모가 있는 집에서 자라더라도 자식이 반드시 바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봐.

므낫세는 왕이 되자마자 아주 나쁜 일들을 하기 시작했단다.

먼저 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무너뜨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웠어. 거기서 바알이라는 거짓 신을 위해 제단을 만들고 작은 숲을 만들었지. 그리고는 하늘의 온 군대, 곧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절하며 그것들을 섬기기도 했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에 절하고 섬긴다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단다.

부리는 영들과 마술사들과도 어울릴 뿐만 아니라, ‘헌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에서는 자기 아들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했단다. 이건 바로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아주 무서운 의식이었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므낫세 왕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아들들을 그렇게 희생시켜 버렸지.

결정적으로 므낫세 왕은 자기가 만든 조각 우상을 하나님의 집 안에 세웠단다. 그 집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곳은 내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택한 집이니,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하고 하신 거룩한 성전이었는데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모든 법과 규례들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발이 다시는 이 땅에서 옮겨지지 않을 것이니라.”

하지만 므낫세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무시하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죄의 길로 끌고 갔어. 결국 그들은 예전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께서 멸하신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 나쁘게 행동했지.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죽이고 말았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모조리 무시해 버린 거였지.

너희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던단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조상들 때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를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므낫세 왕과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단다.

더 안타까운 건, 므낫세 왕은 이미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망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는 사실이지.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도 하지 않았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았지. 결국 이처럼 악한 므낫세 왕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

강한 나라였던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므낫세를 붙잡아 족쇄로 묶어 머나먼 나라 바빌론으로 끌고 갔단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

므낫세 왕의 때늦은 후회

하지만 그때쯤, 므낫세 왕은 비로소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달았단다. 그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어.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주** 자기 하나님께 간청하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크게 낮추어 그분께 기도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의 간청하는 말을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셔서 그의 왕국을 **다스리게** 하시매 그때에 므낫세가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대하 33:12-13)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왕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하셨고 왕의 자리에 다시 앉히셨단다. 돌아온 므낫세 왕은 완전히 달라졌지. 자신이 세웠던 우상의 제단들을 모두 헐어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정리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희생을 드리도록 다시 가르쳤단다. 아하스 왕처럼 끝까지 고집부리다 망한 왕과는 너무 달랐지. 그렇지만, 므낫세 왕이 처음에 퍼뜨렸던 우상 숭배의 습관은 나라 전체에 너무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유다 왕국 전체를 바른길로 되돌리지는 못했어.

이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아몬 역시 바른길로 데려올 수 없었지. 아몬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인 므낫세 왕이 우상을 섬기고 나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거든. 므낫세 왕이 회개하고 변한 건 늦은 나이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아몬은 이미 마음속 깊이 악한 길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오히려 더 큰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단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야.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쁜 씨를 뿌리면 그에 맞는 결과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지거든.

그러니까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단다.

+ 요약과 교훈

- 므낫세 왕은 유다를 오래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죄들을 많이 행한 왕이었어요.
-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빌론에 끌려가 고통받던 중에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 므낫세 왕은 뒤늦게 회개했지만, 이미 악한 길에 익숙해져 있던 백성들과 그의 아들 아몬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 적용

- 잘못된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요.
-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해요.
-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보아요.





Part
48

참 예배를 회복한 요시야 왕

요 시야 왕은 정말 특별한 왕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훨씬 전인 300년 전에,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 그의 이름까지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

옛날, 솔로몬 왕이 죽고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단다.

그래서 벧엘이라는 곳에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제단까지 만들어 직접 분향

하려고 했지.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가 나타나 외쳤어.

“보라! 다윗의 집에서 요시아라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니라. 그는 이 제단 위에서 거짓 제사장들을 제물로 드릴 것이고 그 사람들의 뼈를 이 제단 위에서 태우리라!”

이 말은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미리 말씀해 주신 놀라운 대언이었어. 300년이 지난 후, 바로 그 요시아라는 아이가 실제로 태어났던 거야!

요시아는 여덟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악한 왕이었고, 그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심한 우상 숭배를 일삼던 왕이었지. 그런데도 요시아 왕은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야.

아마도 어린 요시아 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머니나 신실한 신하들이 함께해서 그가 바른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거 같아.

성경은 요시아 왕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가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걷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왕하 22:2)

요시아 왕은 단지 마음만 바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유다 전역에서 우상들을 없애고 산당을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를 없애기 위한 종교 개혁을 아주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했다. 이 일들을 단지 신하들에게 명령만 내린 게 아니었어. 요시아 왕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바알 신의 제단들을 허물고 우상의 형상들을 부수도록 했지.

이런 모습을 보면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만연해 있던 그 시대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너진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자기 온 힘을 다했던 것을



알 수 있지.

그뿐만 아니라 우상들을 부수고 난 뒤에는 그 잔해들을 곱게 가루로 빻아서 예전에 그 우상에게 절하던 사람들의 무덤 위에 뿌리기도 했어. 그리고 그들의 뼈를 꺼내어 우상의 제단 위에서 태우기도 했단다. 이건 그냥 무섭게 보이려고 그



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없애려는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었어.

심지어 요시아 왕은 자기 나라 땅이 아닌 북이스라엘 지역, 바로 벧엘까지 찾아갔단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세워 놓았던 바알 제단과 우상들을 모조리 부수었지. 이뿐만 아니라, 그곳에 묻혀 있던 거짓 제사장들의 뼈를 꺼내어 제단 위에서 태워 버렸지.

이 일은 바로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대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진 순간이었어. 정말 놀랍지 않니?

성전 보수 공사 중 발견된 율법책

요시아 왕은 유다 전역과 옛 이스라엘 지역의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한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았단다.

그동안 여러 왕들이 성전을 방치하거나 우상 숭배를 위한 장소로 바꾸기도 해서 성전은 많이 망가져 있었어.

그래서 요시아 왕은 성전을 다시 아름답고 거룩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직접 나서서 보수 작업을 지시했어. 그는 각 구역마다 신실한 감독자들을 세우고 그들이 정직하게 맡은 일을 하도록 지시했지. 그렇게 해서 성전은 다시 본래의 거룩함을 되찾게 되었다.

어느 날, 요시아 왕이 명령한 성전 보수 공사가 한창이었어. 그런데 그 공사 도중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 안에서 먼지 쌓인 한 책을 발견했지.

그 책은 바로… 모세의 율법책이었어!

얼마나 오래도록 아무도 찾지도 읽지도 않았으면 하나님의 율법책이 성전 안에 방치된 채 묻혀 있었겠니? 그건 바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이기도 했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면서도 말씀 없이, 마음 없이, 껍데기 신앙만 남아 있었던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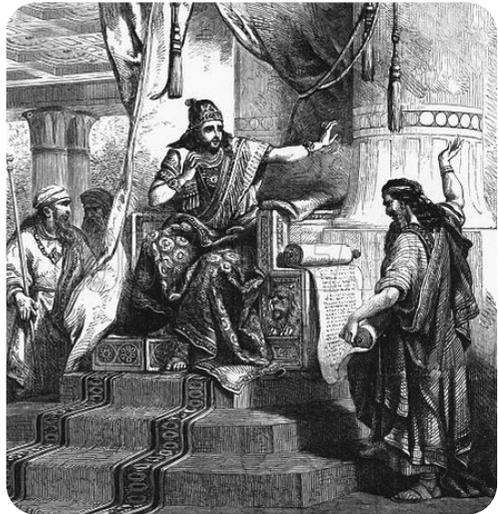
힐기야 대제사장은 이 귀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건네주었고 사반은 곧바로 요시아 왕에게 그 율법책을 전달해 주었다.

요시아 왕은 그 자리에서 그 율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게 했어.

그리고 말씀을 다 들은 왕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으며 눈물을 흘렸지.

그 당시 옷을 찢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슬픔과 회개를 나타내는 겸손한 표현이었어.

요시아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서야 깨달았던 거야.

‘그동안 우리 조상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왔는지 알 수 있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던 말인가!’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한 요시아 왕

요시아 왕은 곧바로 신하들을 여대언자 홀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쭙보게 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홀다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내가 이곳과 이곳 거주민들을 대적하여 말한 것 즉 그들이 황폐함이 되고 저쪽 거리가 되리라고 말한 것을 네가 들을 때에 네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 네가 **주** 앞에서 너 자신을 낮추고 네 옷을 찢으며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내가 이곳에 가져올 모든 해악을 [거두지는 않겠지만] 네 눈이 [그것들을] 보지 아니하리라. (왕하 22:19-20)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아 왕은 어떻게 했을까?

그는 바로 유다의 모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을 성전에 모았단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약하며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다고 약속했어.

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말씀 앞에 서서 언약을 새롭게 하도록 이끌었지. 요시아 왕은 유다 전역뿐 아니라 북쪽 옛 이스라엘 지역에까지 직접 나아가, 우상들을 철저히 없애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독려했어.

그는 단지 말로만 개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기고 백성들을 이끌며 실제로 변화를 이루어 낸 왕이었던단다.



그리고 요시아 왕은 유월절 절기도 율법대로 철저히 지키도록 했지.
그 유월절은 너무나 은혜롭고 충실하게 지켜졌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이스라엘을 재판한 재판관들의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왕들이나 유다 왕들의 모든 시대에 백성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참으로 없었더라. (왕하 23:22)

그 당시, 유다 왕국 남쪽에는 이집트라는 큰 나라, 즉 파라오노고 왕이 다스리는 강대국이 있었단다. 그 파라오가 북쪽에 있던 아시리아를 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가려 했어. 그런데 그 길목에 유다가 있었던 거야.

이집트는 유다를 직접 공격하려 한 건 아니었지만, 요시아 왕은 이집트 군대를 막기 위해 전쟁에 나섰다. 아마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 주시는 데, 이방 군대가 우리 땅을 지나가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 마음 자체는 참 신실했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묻거나 뜻을 구하지 않은 너무 앞서 나간 행동이었지.

결국 전쟁터에서 요시아 왕은 적군의 활에 맞아 중상을 입었고, 39살의 나



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그가 전사한 곳은 뜨겁고 골짜기였는데, 거기에서 유다 백성들은 정말 큰 슬픔에 잠겨 애통해했단다.

그들의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훗날 성경에는 ‘뜨겁든 골짜기의 하닷림몬에서의 애곡’이라고 기록되었을 정도였어. 이 말은, 요시야 왕의 죽음이 유다 백성에게 어떤 참담한 슬픔이었는데를 보여 주는 표현이었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토록 하나님께 충성한 왕이 이렇게 빨리 죽다니, 너무 안타깝잖아...’

하지만 성경은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완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하나님께서서는 홀다 대언자를 통해 요시야 왕에게 “내가 이곳에 가져올 모든 해악을 네 눈이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었잖니? 그 말씀대로,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의 멸망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날이 오기 전, 하나님의 품에 안겨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던 셈이지. 그의 죽음은 사람 눈에는 아쉬움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던 거야.

성경은 요시야 왕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요시야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섬기게 하되 곧 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그의 평생 동안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대하 34:33)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눈물로 회개했으며 자기 손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했던 왕이었어.

비록 생을 일찍 마감했지만, 그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했고 마음이 겸손했으며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킨 귀한 사명이 가득했었지.

우리도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마음을 낮추어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자꾸나.

요시야 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가 남긴 믿음의 향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다. 우리도 그 향기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 요약과 교훈

- 요시야 왕은 아주 어릴 때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쓴 훌륭한 왕이었어요.
- 요시야 왕은 나라 안팎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무너진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는 데 온 힘을 다했어요.
-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눈물로 회개하며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돌아오는 언약을 새롭게 했어요.

+ 적용

- 교회에서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고 주의 깊게 성경 말씀을 들어요.
- 잘못된 것을 보면 외면하지 말고, 요시야 왕처럼 믿음으로 바르게 고치려고 노력해야 해요.
-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Part
49

금송아지를 만든 여로보암 왕

지 금부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낙제점을 받은 왕들, 곧 악한 왕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 그중에서도 먼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을 보자꾸나.

사실 북이스라엘은 왕조 전체를 살펴보면 선하다고 평가받은 왕이 거의 없었단다. 왜 그랬을까? 그건 바로 이 나라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나라의 뿌리를 아주 잘못 세웠기 때문이야. 국가의 시작은 그 나라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때인데, 여로보암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사람의 방법과 두려

움에 따라 결정을 내리곤 했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던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 왕의 신하로 일하던 사람이었어. 일도 잘했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 좋은 평을 많이 듣기도 했단다.

어느 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대언자 아히야가 찾아와서 놀라운 말씀을 전해 주었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국을 찢어 열두 지파 중 열 지파를 당신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진 거였어. 아히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어서 열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왕국을 견고히 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전해 줬지.

시간이 흘러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은 남유대와 북이스라엘, 즉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었어. 그리고 아히야 대언자가 말해줬던 대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열 지파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었지.

이제 왕이 된 여로보암은 곧 현실적인 고민에 빠졌어.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있었거든. 우리도 명절이 되면 고향이나 큰집을 찾아가듯 말이야.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이런 전통이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니다가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쫓겨나고 다시 나라가 합쳐지게 되면 나는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

이 생각이 바로 여로보암 왕의 결정적인 실수였단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주시면서 아히야 대언자를 통해 다윗 왕처럼 행하면 왕국을 세워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그 약속보다 자기 걱정이 앞섰던 거야.

이런 걱정 끝에 여로보암 왕은 정말 끔찍한 결정을 내리게 되지. 그건 바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베엘과 단, 두 곳에 금송아지 형상을 세우고 이렇게 말한 거였어.

“너희는 예루살렘까지 수고스럽게 갈 필요가 없느니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들의 신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니? 특히 금송아지 같은 형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말 큰 죄를 짓는 거였지. 여로보암 왕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한 욕심으로 진짜 예배를 가짜 예배로 바꾸어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레위인 제사장도 무시하고, 아무 사람이나 제사장으로 세웠지. 율법에 따라 정해진 절기의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다. 결국 그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거야.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들을 책망하실 때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하실 정도였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믿고 지키려 했을 뿐이었지. 슬프게도 그의 죄는 그 뒤를 이은 왕들 거의 모두가 따라 하며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여로보암 왕의 죄는 갈수록 점점 더 깊어졌기 때문에, 그의 통치 역시 전쟁과 불안정의 연속이었어.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는 아들 나답이 왕위를 이었다가 곧바로 반역을 일으킨 바아사에게 암살당하고 말았어. 하나님께서 아히야 대언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신 심판의 말씀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지.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는 그저 오래전의 역사 속 이야기만은 아니야.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변질된 신앙 체계로 많은 사람을 속이는 일이 나중에 또 일어났단다. 그 주인공은 바로 로마 제국 시대의 콘스탄틴 황제야. 그는 자기 제국의 평화를 위해, 그동안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공식적으로 허용했어. 겉으로는 좋은 일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통제하고 로마의 우상 숭배 문화를 교회 안에 끌어

들이는 계기가 되었지. 콘스탄틴 황제는 이방신을 섬기던 관습을 기독교 예배와 섞어서 새로운 국가 종교 체계를 만들어 내기 시작했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라고 했지만 그 안에는 우상 숭배, 형식주의, 정치적 목적이 섞여 있었어.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벧엘에 세운 우상 숭배 체계가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대신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건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게 되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늘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살펴야 해. 하나님께서는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분이시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단다.

+ 요약과 교훈

-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 주셨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여 거짓 예배를 만들고 백성들을 죄에 빠뜨렸어요.
- 거짓 예배는 그 뒤를 이은 북이스라엘 왕들 대부분이 따라 하게 되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멸망하고 말았어요.
- 여로보암 왕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에는 사람의 욕심과 우상 숭배가 섞여 있었어요.

+ 적용

-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 사람의 생각이나 두려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해요.
- 말씀에 따라 바르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언제나 스스로 돌아보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요.





Part
50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왕

복 이스라엘의 여섯 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중 하나로 손꼽히는 사람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는 디르사였고 거기에서 엘라 왕이 다스리고 있었지. 이 엘라 왕은 겨우 이 년 동안만 통치했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신하였던 시므리라는 군대 대장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기 때문이야.

시므리는 왕위를 탐내며 호시탐탐 기회를 보다가 왕을 몰래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 그런데, 그가 왕으로 있었던 날은 고작 이레뿐이었다. 시므리

가 음모를 꾸며 왕을 죽였다는 소문이 금세 널리 퍼지는 바람에 백성들에게 쫓기다가 결국은 궁궐에 불을 지른 후 죽고 말았기 때문이었지.

시므리 대신 왕을 세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선택한 사람은 바로 오므리 장군이었어. 오므리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정식으로 왕이 되었고, 1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단다. 그는 군사적으로도 강한 나라를 만들었고 나라 안의 백성들의 삶도 안정시키려 애를 썼지.

오므리 왕에게는 아합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된 아합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단다.

그런데 문제는 아합 왕 자신보다도 그가 맞아들인 아내로부터 시작됐어. 그의 아내는 바로 이세벨, 즉 두로 왕 옛바알의 딸이었지.

아합 왕은 기질이 유약하고 부드러운 편이었지만, 이세벨은 강인한 성격에 무서우리만큼 잔인한 권력 욕심을 가진 여자였어. 그녀는 아합 왕을 등에 업고 마음껏 우상 숭배를 퍼뜨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했지.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운 후, 그 안에 바알 제단을 쌓고 작은 숲을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했어. 이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들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단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대놓고 거부하면서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우상 숭배 체제를 굳히려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실 수는 없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엘리야를 통해 가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기 전까지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기근이 오래 이어지자, 이스라엘 온 땅이 메마르고 사람들의 삶은 고통 속에 빠졌지.



아합 왕은 엉뚱하게도 이 모든 게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잡으려고 온 나라를 뒤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릇 시냇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들을 보내어 빵과 고기를 음식으로 주셨단다.

엘리야와 바알의 대언자들의 대결

기근으로 인해 그곳 시냇물도 마르자 엘리야는 시돈 땅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집에 가게 되었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가루 통이 동나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도록 하셔서 엘리야와 그 과부 가족을 굶지 않게 하셨지.

그리고 기근이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

“이제 아합을 만나러 가라.”

아합 왕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기분이 나빠졌지.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내가 아니라 왕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왕과 왕의 집안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으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고는 흥미로운 제안을 했지.

“왕이시여, 왕과 이 백성은 지금 참 하나님과 거짓 신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갈멜 산에 모여 어느 분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확인하시지요!”

갈멜 산에서 열린 세기의 대결!

바알의 대언자만 해도 무려 450명이나 되었고, 작은 숲들의 대언자들도 400명이나 모였으니까 모두 합치면 850명이었던 거야.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대언자 엘리야 혼자서 나섰으니 참으로 엄청난 대결이었던단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가 진짜 신인지 보려고 산으로 몰려들

있어.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지.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주께서 하나님 이시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지만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만큼 많은 백성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꽤 있었지.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들에게 말했다.

“두 개의 제단을 세우고, 각각 수소 한 마리를 올려놓자.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응답하는 신이 참된 하나님이다!”

먼저 바알의 대언자들이 나섰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며 기도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제단 주위를 돌며 꺽충꺽충 뛰었고 결국에는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찔러 피를 흘리며 외쳤어.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단다.

바알은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지 않았지.

온종일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한 바알의 대언자들은 지쳐 버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망했어.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고, 엘리야는 먼저 열두 개의 돌을 가져와 제단을 쌓았어. 이 돌들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을 담은 상징이었지.

그 위에 수소 고기를 조각내어 올려놓고 제단 주위엔 도랑을 파서 깊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을 세 번이나 부어서 제단과 제물, 장작, 심지어 도랑까지 흠뻑 젖게 했어.

물에 젖은 고기와 나무에 불이 붙을 수 있을까? 절대 불이 붙지 않겠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엘리야는 일부





러 그렇게 했지. 그리고 엘리야는 짧고 간결하게, 그러나 믿음 가득한 기도를 드렸지.

“오 주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으신 것과 주께서 이 백성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려 하신다는 걸 알게 하소서!”

그 순간, 정말 놀랍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단다! 그 불은 제물과 장작은 물론 돌과 흙까지 태워 버렸고 제단 주변의 도랑에 있던 물까지 모두 없앴어.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소리치며 경배했어.

“주 그분은 하나님이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다!”

엘리야는 곧바로 바알의 대언자들을 모두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죽이도록 했어. 그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백성을 속이고 우상 숭배로 이끈 거짓 대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

이 사건은 ‘어떤 신이 더 센가?’를 겨루기 위한 단순한 대결이 아니었어.

이제껏 거짓 신과 우상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들은 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해 주신 기회였단다.

나봇의 포도원에 간 아합 왕

그리고 이야기 하나를 더 해 주고 싶구나. 아합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확실히 경고받게 되는 사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란다.

욕심 많은 왕이 포도밭을 차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 이란다.

언제부터인가 아합 왕은 궁궐 근처에 있는 작은 포도원 하나를 눈여겨보고 있었어.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소유였지. 아합은 그 포도밭을 자기 채소밭으로 쓰고 싶은 욕심 때문에 나봇에게 땅을 팔거나 더 좋은 땅과 바꾸자고 제안했어. 그런데 나봇은 단호히 거절했지.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이 땅은 조상에게서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율법에 따라 이 상속 재산을 남에게 팔거나 줄 수는 없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의로운 사람이었어.

그런데 아합 왕은 이 거절에 크게 마음이 상해서 식사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린 채 뻘뻘하게 있었지.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아합을 꾸짖듯 말했어.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면서 겨우 포도원 하나도 못 얻는다니요? 제가 처리 할게요!”

이세벨은 바로 왕의 인장을 찍어 편지를 쓰고, 나봇이 사는 마을의 장로들에게 보냈어. 그 편지에는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는 죄를 씌우고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무서운 명령이 담겨 있었지.

결국,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 나봇은 돌에 맞아 억울하게 죽고 말았고 그



땅은 아합 왕의 소유가 되었어.

얼마나 무서운 일이니? 왕과 왕비가 마음만 먹으면 죄 없는 사람을 죽여 땅을 빼앗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니 말이야.

아합 왕이 기뻐하며 그 포도원을 살피러 간 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대언자에게 거기에 가라고 말씀하셨어. 엘리야는 곧장 아합을 찾아가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다.

“개들이 나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네 피도 핥게 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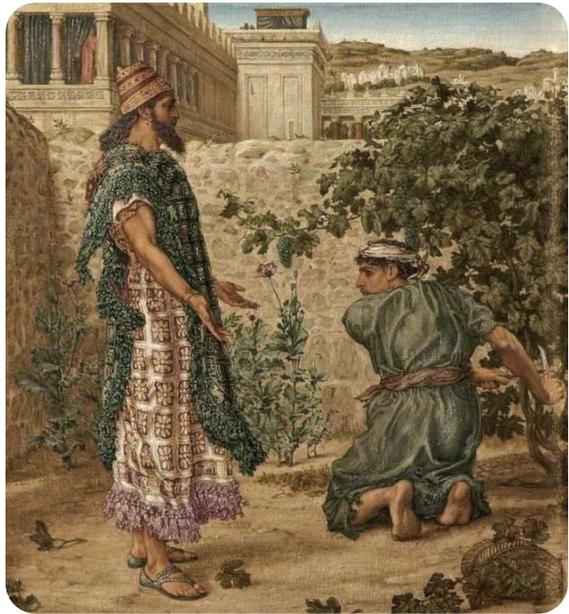
그리고 그의 집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

“네 집은 완전히 끊어질 것이고, 이세벨은 성 밖에서 개들에게 뜯기게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이야. 억울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죄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뜻이지.

그로부터 얼마 뒤, 아합 왕은 라못길르앗에서 전쟁 중에 부상을 입고 병거 안에서 피를 흘리며 죽게 되었어. 그리고 그의 피가 묻은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었는데 그곳은 나뭇이 피를 흘렸던 바로 그 자리였단다.

그 후에 예후 장군이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었을 때, 아합의 후손들을 모두 죽이고 이세벨은 창문에서 떨어져 개들에게 뜯겨 죽게 되었단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 셈이지.



우리도 마음속에 작든 크든 욕심이 종종 생기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바른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자꾸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항상 함께하신단다.

+ 요약과 교훈

-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하여 온 나라에 바알과 작은 숲 숭배를 퍼뜨렸고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핍박했어요.
-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갈멜 산 승리를 통해 그분만이 살아 있는 유일한 하나님임을 온 백성에게 보이셨어요.
- 이세벨은 거짓 증인을 세워 나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기억하시고 아합 왕과 그의 집안에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어요.

+ 적용

- 많은 사람이 거짓을 따르더라도 우리는 갈멜 산의 엘리야처럼 오직 참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믿음을 지켜야 해요.
- 억울하게 죽은 나뭇처럼 이 세상엔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구하고 슬기롭게 이겨 내요.
- 아합 왕처럼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바른길을 선택해야 해요.





Part
51

아합의 딸과 결혼한 여호람 왕

복 왕국 이스라엘에 비하면 남 왕국 유다는 그나마 나았지만, 그래도 나쁜 왕들이 있었단다. 여호람 왕은 다른 이름으로는 요람이라고도 불리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선한 왕 여호사밧의 첫째 아들이었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는 8년간 유다 왕국을 다스렸지.

그런데, 여호람은 아버지처럼 착한 왕이 되지 못했어.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왕 아합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아합의 딸인 아달라를 며느리로 맞이했지. 이 아달라는 아주 심할 정도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여호람 왕도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 되었지.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여호람 왕의 나쁜 짓들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

여호람 왕은 왕권을 지키겠다는 핑계로 자기 친형제들을 모두 죽여 버리기도 했는데 자기 형제들이 혹시라도 왕위를 노릴까 봐 미리 없애 버린 거야.

심지어 충성스러웠던 신하들까지도 잔인하게 죽였어.

이런 행동은 사람은 둘째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지.

게다가 여호람 왕은 유다 곳곳의 산들에 산당을 세워 우상을 섬기도록 백성들을 부추기고 믿는 사람들은 못살게 굴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대언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면서 여호람 왕을 꾸짖었어.

“너는 네 아버지 여호사밧 왕의 선한 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 하던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구나. 너는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고, 더구나 너보다 더 나은 형제들까지 모두 죽였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와 네 가족, 백성, 재산을 모두 재앙으로 치실 것이니라. 그리고 너는 네 창자가 빠져나오는 끔찍한 병에 걸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그 말씀 그대로 심판을 내리셨어.

먼저, 에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동안 조용하던 블레셋과 에티오피아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떼를 지어 유다 땅을 공격했지. 적들은 왕궁까지 들어와서 귀한 보물들을 모조리 훔쳐 가면서 여호람 왕의 아내들과 아들들도 모두 끌고 가 버렸어. 그 와중에 막내아들인 아하시야만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지.

여호람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자에 병이 생겨 2년 동안이나 끙끙 앓으며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았단다.

그의 죽음은 얼마나 쓸쓸했는지, 백성들은 그를 위해 분향조차 하지 않았다는구나. 성경에는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는 가운데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어.

다른 왕들처럼 왕들의 돌무덤에도 묻히지 못하고, 정말 외롭고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한 셈이지.

여호람 왕이 죽고 나서, 그의 하나 남은 아들 아하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위를 이어받아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그 역시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진 못했단다.

시간이 흐른 뒤, 북 왕국 이스라엘 요람 왕이 시리아와 전쟁할 때 아하시야 왕도 그 전쟁에 함께 나가게 되었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 요람 왕을 죽이면서 남 왕국 유다의 아하시야 왕도 그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 왕이 된 지 겨우 1년 만이었던단다.

아하시야 왕이 죽자, 그의 어머니였던 아달라는 자기가 나라를 통치하려고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 유다 왕가의 후손들, 그러니까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을 찾아내서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거든. 아달라의 사악한 욕심 뒤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가로막으려는 사탄의 작전이 숨어 있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단다.

아하시야 왕의 누이였던 여호사브앗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고 하나님을 깊이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녀는 젓먹이였던 요아스를 자기 방으로 몰래 데리고 와서 숨겼단다. 여호사브앗이 죽을 각오를 하고 지킨 덕분에 요아스는 성전 안에서 6년 동안 조용히 자랄 수 있었어. 그동안 유다 왕국은 아달라가 다스리는 어둡고 무서운 세상이 되어 버렸지.

요아스가 일곱 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제사장 여호야다는 성전에서 충성스러운 백성과 군인들을 모아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단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왕이여 만세!” 하고 외쳤고, 그 소리에 놀란 아달라는

궁전에서 뛰쳐나와 소리치며 막으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었어. 결국 아달라는 붙잡혀 죽임을 당하고 그녀와 함께 바알을 섬기던 나쁜 제사장 맛단도 죽게 되었지.

그렇게 해서 유다 왕국은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돌아오게 되었고, 백성들의 마음에도 다시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다.

+ 요약과 교훈

-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은 아합의 딸 아달라와 결혼한 뒤 우상을 섬기고 형제들을 죽이며 악한 길을 걸었고 결국 무서운 병에 걸려 쓸쓸히 죽었어요.
- 아달라는 왕위를 차지하려고 유다 왕가의 모든 자손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다윗의 씨가 끊어질 뻔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셔서 아기 요아스를 지켜 주셨고 결국 요아스는 왕으로 세워져 유다는 다시 회복되었어요.

+ 적용

- 형제나 주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요.
- 우리가 사는 시대가 나쁜 길을 향해 가더라도 성경 말씀을 따라 살도록 노력해요.
- 여호사밧과 여호야다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용기 있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요.





Part
52

우상 제단을 흥내 낸 아하스 왕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만 골라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만든 왕이었어.

아하스 왕은 우상인 바알을 섬기면서, 그 형상들을 여기저기 세웠지. 산꼭대기든, 나무 아래든,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우상을 놓고 절을 했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워 우상에게 끔찍한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었다는구나.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

이렇게 아하스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만 섬기자 결국 하나

님의 심판이 유다 땅에 내려졌는데, 그가 왕으로 다스린 16년 동안 남 왕국 유다는 평안한 날이 거의 없었어. 전쟁과 재난이 끊이지 않았거든.

먼저, 시리아 왕이 쳐들어와서 많은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 다마스쿠스에 가두었어.

이어서 얼마 후에는,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쳐들어와 용사 12만 명을 죽이고, 여자와 아이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 온갖 약탈물과 함께 사마리아로 데려갔지.

이 틈을 타서 에돔 사람들도 쳐들어와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남쪽 지방의 여러 도시들을 빼앗아 차지해 버렸단다.

나라가 정말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던 거지.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단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를 벌거벗게 하고 주께 크게 범법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로 인해 유다를 낮추셨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할 텐데, 그럴수록 아하스 왕은 오히려 더욱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어.

성경에는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지.

“아하스 왕은 고난당할 때에 주께 더욱더 범법하였다.”

참 슬픈 이야기지.

한편, 아하스는 자기를 괴롭히던 시리아 왕을 막아 달라며 그 당시 힘이 아주 강했던 아시리아 왕인 디글랏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어.

“저는 당신의 신하요, 아들입니다.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이 저를 공격하고 있으니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유다의 성전 보물과 궁전 보물, 백성들의 재산까지 탈탈 털어 바치며 겨우겨우 위기를 피했지.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다마스쿠스에 가서 아주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우



상의 제단을 보고는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 그리고는 제사장 우리야에게 그 우상의 제단 모양을 그려 보내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성전 안에 똑같이 만들라고 명령했지.

그 결과, 유다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엉뚱한 우상의 제단이 떡하니 세워졌고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놋 제단은 원래 자리에서 밀려났단다. 아하스는 성전 안의 거룩한 기구들을 제멋대로 치우고 부숴버리기까지 했거든.

이 일은 단순한 실수나 잘못이 아니었어. 이걸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큰 죄, 즉 하나님께 맞서서 반항한 행동이었던단다.

+ 요약과 교훈

- 아하스 왕은 바알 형상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을 했어요.
- 아하스 왕의 나쁜 행동 때문에 유다 왕국에는 끊임없는 전쟁과 재앙이 닥쳤어요.
- 아하스 왕은 어려움을 당할 때조차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우상을 섬겼어요.

+ 적용

- TV, 인터넷, 게임 등에 많은 시간과 마음을 빼기지 않도록 해요.
-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해야 해요.
- 아하스는 성전을 망가뜨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요.

Part
53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시로 대언한 다윗

다윗은 용감한 전사, 그리고 지혜로운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시와 노래로 마음을 드리는 훌륭한 찬양자였다.

그는 많은 시들을 남겼는데 그 안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말씀들도 담겨 있어. 그래서 다윗은 대언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전한 사람이기도 하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씨’, 곧 메시아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생각하



며 시를 썼지. 그 메시아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셨단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예수님을 노래했는지 한 번 알아볼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중, 시편 22편과 110편은 예수님을 가장 또렷하게 보여 주는 시들이란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초림 때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시편 110편은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왕으로서의 모습을 알려 주고 있어. 시편 22편 1절을 한번 볼까?

나의 하나님여, 나의 하나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셔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울부짖는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 22:1)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으신 그 유명한 외침과 똑같단다.

아홉 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것은 곧, 나의 하나님여, 나의 하나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다. (마 27:46)

또 이런 구절도 있어.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모욕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나이다.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를 신뢰하되 그분께서 자기를 구출하실 줄로 **신뢰**하였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구출하시리로다, 하나이다. (시 22:6-8)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 사람들이 던진 조롱과 멸시의 말이 그대로 느

껴지지 않니?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사악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둘러막으며 내 손과 발을 찢
렸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나
이다. (시 22:16-17)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 자국이 떠오르지 않니? 예수
님의 손과 발에 날카로운 대못을 박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구나.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
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고 내 혀는 내 턱에 붙
으며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흙 속으로 데려가셨나이다. (시 22:14-15)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느끼셨을 극심한 고통을 더 이상 어떻게 달리 표
현할 수 있겠니?

또 시편 69편 21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식초를 주
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시 69:21)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실 때, 식초를 적신 해면을 건
네는 장면이 기록된 복음서의 말씀과 이어진단다.

쓸개를 섞은 식초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더라. (마 27:34)

그리고 시편 22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겹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시 22:18)

실제로 군인들이 예수님의 겹옷을 제비뽑기하여 나누는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단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겹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마 27:35)

천 년 전에 다윗이 이미 이런 장면들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았을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그런 놀라운 말씀을 미리 보여 주셨기 때문이야. 시편 110편으로 가 보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 110:1)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자신보다 훨씬 이후에 오실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부르며, 그분이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실 분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단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단순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 주셨어.

또한 시편 110편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모습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친히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부수시리라. 그분께서 이교도들 가운데서 심판하사 처소들을 시체들로 채우시고 많은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며 길에서 시냇물을 마시리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머리를

드시리로다. (시 110:5-7)

이 구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보여 주는 말씀이야.

사실 예수님께서서 2천 년 전 유대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아주 분명했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던 유대 백성들에게 ‘하늘의 왕국’, 즉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을 주시려고 했단다.

그런데 이 왕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켜야 했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지.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특히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메시아를 자기들의 권력을 지켜 줄 영웅 같은 사람으로 기대했거든. 또한 많은 사람들은 매일 빵을 주고 로마의 억압에서 구해 줄 힘센 왕을 원했지.

그래서 그들은 겸손하고 온유하게 오신 예수님, 죄인을 위해 눈물 흘리시며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어. 그 결과, 그 당시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대신 그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되었단다. 그래서 시편 118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것은 우리 눈에 놀랍도다.** (시 118:22-23)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버린 예수님을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가장 귀한 머릿돌로 삼으셨어.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다시 받아들이게 될 날이 올 거란다.

이렇게 다윗의 시편 속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고난과 영광, 거절과 다시 오실 영광까지 모두 담겨 있어.



마지막으로, 시편 72편에서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단다.

주 하나님 곧 홀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이다.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시 72:18-19)

애들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기쁘게 기다리는 아이들이 되자꾸나.

+ 요약과 교훈

- 다윗은 시편을 통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노래했어요.
- 시편 22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과 조롱, 고통이 놀랍도록 자세히 담겨 있어요.
- 시편 110편과 118편에는 다시 오실 메시아의 심판과 통치,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머릿돌이 되신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 적용

- 시편을 읽으며 예수님에 대한 대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찾아보고 마음에 새겨요.
-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감사하며 살아가요.
-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요.



Part
54

임마누엘과 천년 왕국을 대언한 이사야

대언자 이사야의 이름에는 아주 멋진 의미가 담겨 있는데 바로 ‘여호와
는 구원이다’라는 뜻이야. 대 대언자 네 명 중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언자들을 보통 대 대언자와 소 대언자로 나누기
도 하는데 누가 더 중요했는지를 따져서 크고 작은 대언자라고 한 건 아니란
다. 성경에 기록된 분량과 범위에 따라 그렇게 나눈 거였거든.

이사야는 유다에서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언자였어. 무려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등 네 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약 6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 특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아주 많이 전한 대언자였다.

하나님께서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 그리고 이사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단지 구원받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알려 주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우실 그분의 아름다운 왕국에서 함께 다스릴 귀한 존재라는 것도 알려 주었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란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족이자, 예수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릴 사람들이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 7:14)

임마누엘은 무슨 의미일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뜻이란다.

이 대언이 있는 지 무려 700년이나 지난 뒤 이 말씀은 정말로 이루어졌어.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요셉과 결혼을 약속하고 아직 같이 살고 있는 않은 상태였던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온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녀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지.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눅 1:30-31)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한편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마 1:22)

그리고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아주 멋지게 설명해 주었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연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사 9:6)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오신 분이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도 불리신단다.

그뿐만이 아니란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멋진 세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

그날이 되면 이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거라는구나.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짚을 먹으며 흠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사 65:17, 25)

얘들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니?

무서운 이리와 약한 어린양이 함께 뛰놀고, 사자가 고기를 안 먹고 풀을 먹게 된다니! 이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실 평화로운 나

라의 모습이란다.

이사야 대언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의 일과 앞으로 다시 오실 때의 일을 모두 전해 주신 아주 귀한 분이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과 희망의 약속을 알려 주신 거란다.

요약과 교훈

-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대언자로, 유다 나라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과 우리 죄를 대신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미리 대언했어요.
-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스릴 1,000년 동안의 평화로운 나라에 대해 전해 주었어요.

적용

-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요.
- 예수님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걸 기억해요.
-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해요.



Part
55

소망을 가진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

대 대언자 네 명 중 두 번째 사람인 예레미야의 이름에는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자’라는 뜻이 담겨 있어.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는 슬픈 별명이 하나 더 있는데, 사람들은 그를 ‘눈물의 대언자’라고 불렀지.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그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슬펐기 때문이야.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있었거든.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며 가슴 아



파 울며 외쳤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라는 아주 슬픈 책도 남겼어. 그 책의 히브리어 이름은 ‘에카’, 즉 ‘아아! 정말 슬프다!’라는 뜻이야.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며 눈물로 그 책을 썼단다.

또 예레미야는 다른 대언자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하나님께 “결혼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았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 결혼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단다. 그건 오직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이었기 때문이야.

예레미야는 아주 어릴 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엔 이렇게 대답했지.

“저는 아직 아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시며 그를 강하게 세워 주셨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한 예레미야는 43년간 하나님 말씀만을 전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착한 왕 요시야가 남 왕국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어. 북 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100여년 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뒤였지.

요시야 왕은 예레미야와 함께 우상들을 없애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었지. 참 좋은 시대였단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이 세상을 떠난 뒤, 유다 나라는 점점 어두운 길로 빠져들었어.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나쁜 왕들이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지.

예레미야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기 싫어했지.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쳤단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바빌론이 우리 유다를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느니라. 이 도시에 머무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역병에 죽을 테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빌론에게 항복하는 사람들은 살리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반역자나 매국노처럼 여겼어. 그를 미워하고 감옥에 가두거나 진흙 웅덩이에 던지기도 했지.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지 않았단다.

그리고 결국,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유다 나라는 바빌론에게 멸망하고 말았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지.

예레미야는 끝까지 “이집트로 가지 말라.”라고 외쳤지만, 백성들은 또다시 그의 말을 무시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만 가게 할 수 없었던 예레미야는 마지막까지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집트로 따라가 그곳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단다.

정말 눈물 많고, 슬픔 가득한 삶이었지. 예레미야는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놀라운 희망의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대언이었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단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변영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할 것이며 (렘 23:5)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가지’는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뜻한단다.



그리고 ‘왕’은 훗날 다시 오셔서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뜻하지. 예레미야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도 불렀단다.

그의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렘 23:6)

예수님께서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란다.

예레미야는 참 힘들고 슬픈 시대를 살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간직한 채 말씀을 전했던 대언자였단다. 그의 삶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떠 있는 한 줄기 빛과 같았지.

+ 요약과 교훈

-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자’라는 뜻을 가진 대언자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아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며 많은 고난과 미움을 겪었어요.
-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며 바른길로 인도하려 했어요.
- 예레미야는 고통의 시대에 살았지만,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어요.

+ 적용

- 주변 친구들에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해요.
- 예수님께서서 나를 의롭게 해 주신 분임을 믿고 감사해요.
-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Part
56

천년 왕국 성전을 대언한 에스겔

대 대언자 네 명 중 세 번째 사람인 에스겔 대언자의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

그는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고, 아주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무려 93번이나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단다.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겸손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어.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던 거



지. 예수님께서서는 신약 성경에서 84번이나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거든. 에스겔은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니라.”라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힘차게 전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바빌론 포로 시대 초기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590년에서 560년 전 사이였지.

그때 에스겔은 바빌론에 있었는데, 주전 598년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바빌론으로 데려갔을 때, 함께 포로로 끌려갔었다. 그가 살게 된 곳은 바빌론 땅의 그발 강가 근처였어.

에스겔은 멀고 낯선 이국땅에 있었지만, 마음은 늘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지.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통해 유다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놀라운 말씀들을 보게 되었어. 그리고 그 무렵 예루살렘에서는 에스겔보다 나이가 더 많은 예레미야라는 또 다른 대언자가 실제로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

에스겔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과 천년 왕국에 대한 놀라운 대언을 많이 전했다. 특히 천년 왕국 때 세워질 성전에 대한 환상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주었다.

그럼, 할머니와 함께 천년 왕국 성전에 대해 알아볼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성전

하나님께서서는 처음부터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 하셨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특별한 장막인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 이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거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솔로몬 왕 시대가 되었을 때, 다윗 왕이 준비해 둔 건축 자재들로 모리아 산에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되었지. 그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란단다.

성전의 벽과 기둥은 금으로 덮여 있어서 사람들은 ‘황금의 집’이라고 불렀단다. 정말 눈부시고 장엄한 모습이었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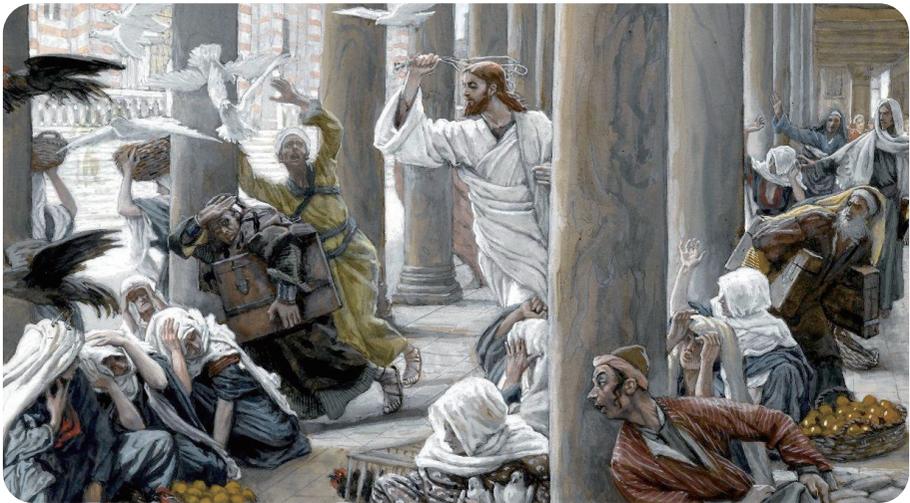
님을 떠나고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그 성전을 무너 뜨리게 하셨어. 황금 성전은 불타고, 금이 녹아내려 폐허가 되어 버렸지.

그 후, 70년 동안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인도로 다시 성전을 지었단다. 하지만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나도 작고 초라했기 때문에,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실제로 봤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구나.

시간이 더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엔 헤롯이라는 왕이 스룹바벨 성전을 크게 고치고 멋지게 꾸몄단다. 비록 그는 에돔 사람이었지만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화려한 성전으로 다시 만든 거야.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있었던 성전이란단다.

그 성전은 겉으로는 아주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않았단다. 하지만, 진짜 영광이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직접 들어가셨지. 그때 당시 사람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했지만, 그 성전에 영광이 직접 찾아오신 거였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채찍을 들어 상인들을 쫓아내셨을 때, 그곳은 잠시나마 하



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곳이었던 셈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올리브 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영광도 함께 올라갔단다.

다시 말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완전히 떠나 버린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단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려면, 성전이 반드시 다시 지어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그 약속이 이뤄지는 거니까 말이야.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더니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하니라. (행 1:9-11)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단다.

어떤 이들이 성전에 대해 말하되 그것이 좋은 돌들과 예물들로 꾸며진 것을 말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이것들에 대해 말하자면 날들이 오리니 그때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눅 21:5-6)

그리고 그 말씀은 약 40년이 지난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지.

그때는 로마 제국이라는 아주 큰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고 유대 땅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

그러던 어느 날, 유대 백성들이 로마에 맞서 싸우기 시작하면서 ‘유대 전쟁’이라고 불리는 큰 전쟁이 일어났어. 이 전쟁에서 이긴 로마 장군 티투스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성안을 불태울 때 성전도 불에 타고 말았어. 불길에 휩싸인 성전은 결국 무너져 버렸는데, 로마 병사들이 성전 벽에 붙은 금을 긁어내기 위해 돌 하나하나를 마저 다 허물었다는구나.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었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즉 지금 우리가 사는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란단다.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땅에 ‘환난기 성전’이라는 것을 짓게 될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때는 적그리스도와 7년 동안 언약을 맺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큰 속임수와 배도가 이루어지지.

천년 왕국에 세워질 에스겔 성전

그리고 예수님께서 환난 끝에 재림하신 후,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때 세워지는 ‘천년 왕국 성전’이 에스겔이 본 성전이지.

에스겔서에 자세하게 기록된 성전의 모습, 즉 바깥뜰, 안뜰, 거룩한 성소, 제단, 제사장들의 방, 그리고 백성들이 드나드는 문들, 그 모두가 예루살렘 땅에 실제로 만들어질 거란다.

그때는 지켜야 할 명절들, 즉 유월절, 장막절 등 특별한 절기들도 정해진 대로 다 지키게 되지. 헌물에 대해서도 번제 헌물, 범법 헌물, 죄 헌물, 화평 헌물, 음식 헌물, 음료 헌물까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모든 헌물들



이 다시 천년 왕국의 성전에서 드러지게 된다는구나.

그럼, 너희 중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겠지?

“할머니,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짐승을 잡아서 희생 헌물을 드려야 해요?”

그래, 맞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단 한 번에 다 갚으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희생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지. 하지만, 천년 왕국 성전에서 드리는 헌물은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거든.

헌물을 드리는 첫째 이유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피 흘려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거란다. 지금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듯이 그때도 그렇게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지.

둘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교제 시간이 될 거야. 온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해하는 시간이 되는 거지.

셋째로, 천년 왕국이 시작된 뒤에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또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도 있단다. 그래서 희생 예물을 통해 그들에게 죄와 사망에 대해 가르쳐 주는 거란다.

마지막 넷째로, 아담 때처럼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들 중 으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여 주는 이유도 있단다.

추가로 하나 얘기하면, 에스겔이 본 이 환상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란다. 하나는 천년 왕국에 있는 성전이고, 하나는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성이란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단다.

하나님께서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란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

분이 있더라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모든 것을 눈앞에서 이루어 주실 거란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영원히 거할 곳”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왕좌가 놓이는 곳이고, 하나님의 발바닥이 머무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집이 될 거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성전을 아주 정결하고 거룩하게 관리하고 보존하라고 명령하셨어. 그 어떤 더러운 것도 그 성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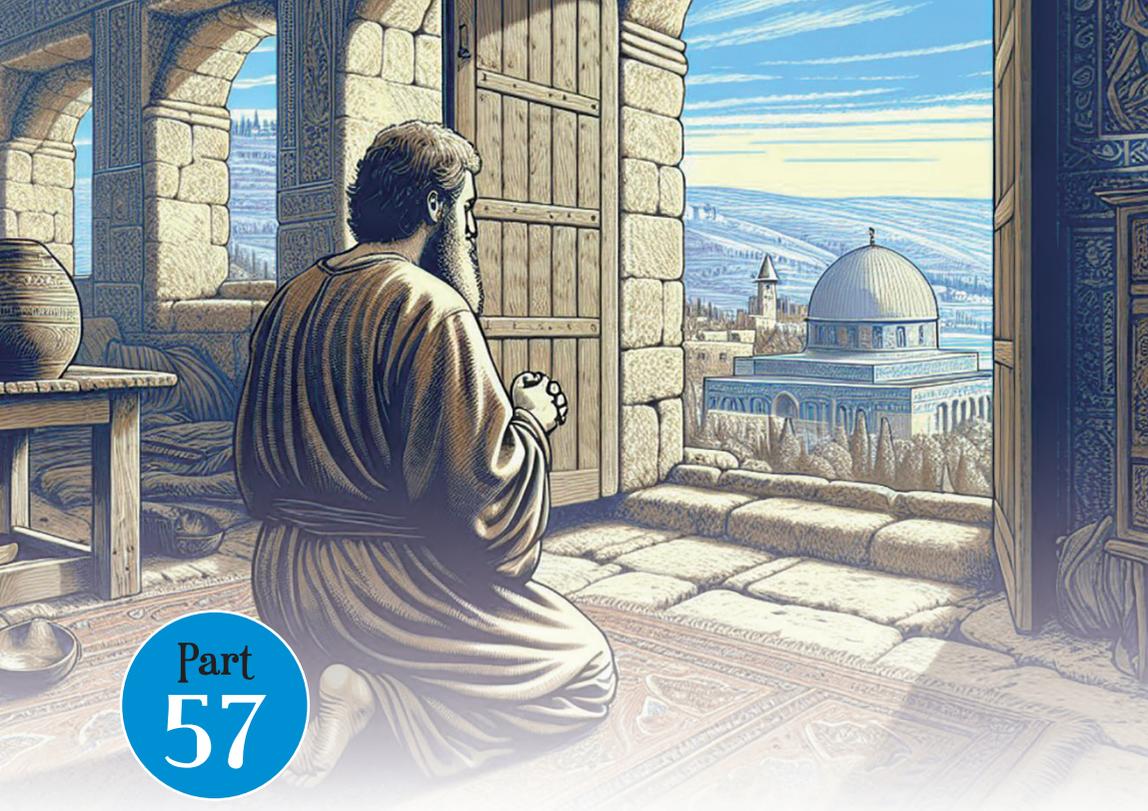
+ **요약과 교훈**

-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대언자로, 포로로 끌려간 바빌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천년 왕국에 세워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 주시며 다시 함께 거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헌물이 드려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거예요.

+ **적용**

-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요.
- 우리 죄를 없애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해요.
-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Part
57

칠십 이레 환상을 대언한 다니엘

다니엘은 남 왕국 유다가 바빌론 제국에게 망해 가던 무렵에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멋진 뜻을 가졌다. 대 대언자 네 명 중에서 마지막이기도 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다니엘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많은 왕족과 귀족 자녀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

바빌론에서는 포로들 가운데 똑똑하고 잘생긴 아이들을 골라 특별한 교육을 시켰단다. 바빌론 제국을 위해 일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

지.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바빌론 궁궐 안에서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었다.

그런데, 먼 나라로 강제로 끌려온 이 네 소년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단다. 음식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건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늘 기도하며 말씀을 지켰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 왕 앞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그 누구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였고, 결국 왕의 궁궐에서 지혜자로 살게 되었지.

왕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

그런데 어느 날,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상한 꿈을 꾸었다.

너무도 생생하고 두려운 꿈이었지만, 꿈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 속만 태우고 있었지. 왕은 답답한 마음에 마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 말했어.

“내가 꾸은 꿈이 무엇이었는지 맞히고, 그 뜻도 알려주어라. 그러면 상을 주리라. 그러나 꿈 해석을 하지 못하면 모두 다 죽일 것이니라!”

이건 정말 어려운 명령이었지. 아무도 남의 꿈을 알아낼 수는 없잖나?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이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대장 아리옥을 찾아가 말했지.

“왕에게 나아가 시간을 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꿈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 세 친구들과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밤의 환상 속에서 그 꿈과 뜻을 다니엘에게 보여 주셨단다. 그다음 날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갔지.

“이 일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장차 있을 일을 알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의 꿈을 말해 주었어.

느부갓네살이 꾸은 꿈에는 거대한 형상이 하나 나왔는데 그 형상은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다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이었지. 그때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큰 돌 하나가 날아와 그 형상의 발을 치자, 형상이 무너져 산산조각이 나서 사라졌어. 그런데 그 돌은 점점 커져 온 세상을 채우는 큰 산이 되었다는 내용의 꿈이었지.

다니엘은 하나님께 받은 대로 그 꿈을 해석해 주었다.

“오 왕이시여, 왕은 모든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입니다.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을 모두 왕의 손에 맡기셨고, 왕을 그 모든 것 위에 세우셔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바로 금으로 된 머리가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커다란 형상의 몸에 대해 계속 설명했지.

“하지만 왕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 뒤에는 왕의 나라보다 약한 두 번째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놋으로 된 셋째 나라, 곧 온 세상을 다스릴 왕국이 생길 겁니다. 그다음으로는 쇠처럼 단단하고 강한 네 번째 나라가 나타납니다. 쇠는 모든 것을 부수고 산산조각을 내듯이, 그 나라 역시 다른 나라들을 부수고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꿈에 나왔던 형상의 다리와 발가락에 대해서도 말했었다.

“왕께서 본 그 형상의 발과 발가락은 어떤 부분은 쇠였고, 어떤 부분은 진흙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그 마지막 왕국이 나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왕국에는 쇠처럼 강한 부분도 있고 진흙처럼 약한 부분도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치려고 하겠지만,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결국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예언이었던다.

세상에 나타날 네 개의 큰 나라들과, 그 나라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무너질지를 미리 알려 주신 거지.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가 등장하게 돼.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단 2:44)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라며 다니엘에게 말했어.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고,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구나!”

이를 계기로 다니엘은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되어 온 바빌론을 다스릴 치리자가 되었고, 또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스릴 총독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지. 다니엘의 요청으로 세 친구도 바빌론 지방의 일들을 관할하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단다.

종말의 시간을 알려 주는 70이레

이 외에도 다니엘은 훗날 70이레의 예언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도 받게 되었단다. 이 70이레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 알려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였지.

70이레란 보통의 1주일이 70번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레로 된 한 주간이 70번, 그러니까 490년을 말하는 거란다. 성경에서는 때때로 하루를 한 해처럼 계산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 70이레는 바로 490년을 뜻하는 거야.



그 가운데 69이레, 곧 483년은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이 떨어진 날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로부터 483년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있을 것이며 참으로 고난의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육십이 이레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단 9:25-26)

애들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니?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정확하게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까지 미리 알려 주셨던 거야!

그리고 남은 한 이레, 곧 남은 7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 그런데, 이 남은 한 이레는 69이레, 곧 483년이 다 차자마자 곧바로 이어진 건 아니었어. 바로 그 중간에 지금 우리가 사는 교회 시대,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 시대가 들어 있거든. 그래서 마지막 7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언제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거든.

그럼,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7년 동안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봐야 하고,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다니엘서도 꼭 함께 알아야 해. 이 두 책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을 서로 연결해서 보여 주는 소중한 말씀이거든. 그리고 다니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영원히 다스리실 거라고 성경에 기록해 두었지.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께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더

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 권세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 그를 섬기게 하려 하심이다.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니라, 하니라. (단 7:13-14)

다니엘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늘의 비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으로 많은 시련을 이겨 낸 사람이었어.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사자 굴에 던져진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 주셨지. 세상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변하지 않았어. 바빌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와 페르시아가 이어졌을 때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새로운 왕들 밑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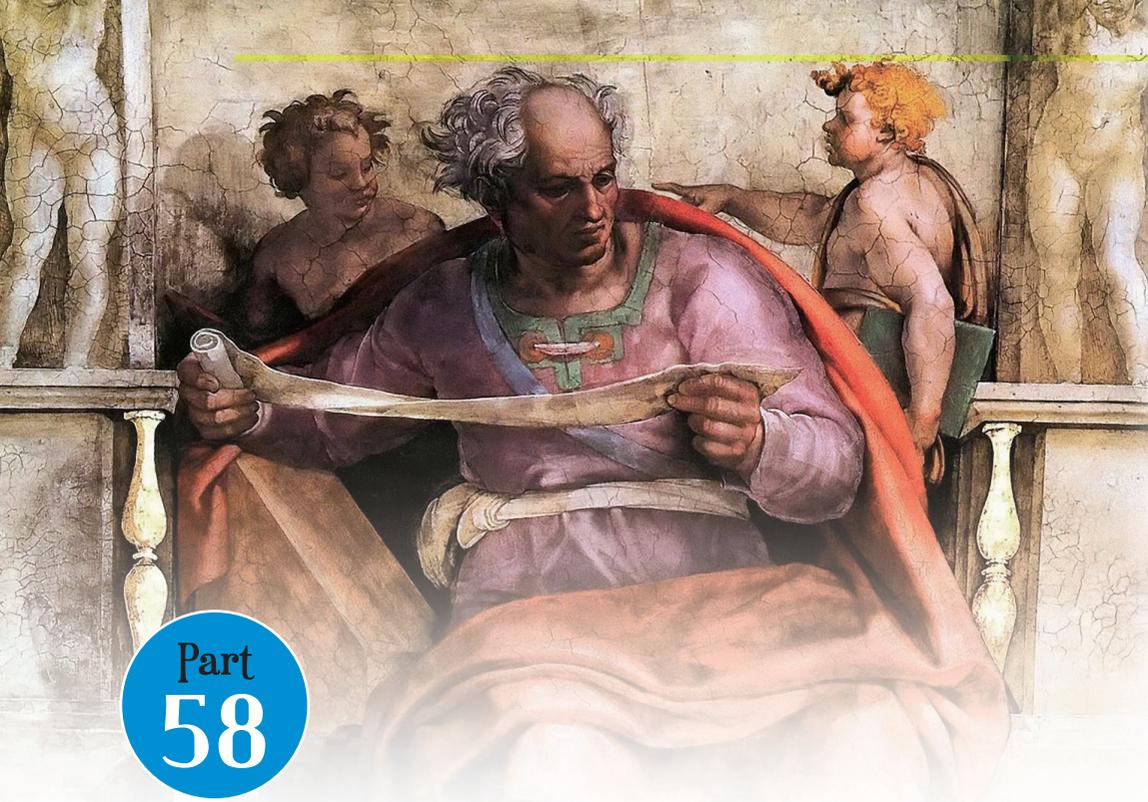
+ 요약과 교훈

-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을 가졌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며 세상 나라들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 대언했어요.
- 70이레의 대언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미래의 재림까지 정확히 전했어요.

+ 적용

- 다니엘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요.
-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어요.
- 성경에서 알려 주는 마지막 때와 현시대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 봐요.





Part
58

재림의 때를 대언한 요엘

대언자 요엘은 열두 명의 소 대언자들 가운데 두 번째 사람으로서 그의 이름에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브두엘의 아들 요엘은 남 왕국 유다에서 활동하던 대언자였는데 회개를 통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외쳤고 주의 날의 심판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걸 대언하기도 하였지.

너희는 혹시 메뚜기 떼가 몰려와 들판을 다 먹어 치웠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 있니?

그 당시에 남 왕국 유다 땅에 일어났는데, 우연히 발생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보내신 아주 무서운 경고였지.

요엘은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단다.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 보아라. 우리 조상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느냐? 결코 없지 않았느냐! 이 끔찍한 재앙을 너희들의 자녀에게 전하고, 또 그 자녀는 그들의 자녀에게 전하도록 해라. 이 일은 절대 잊으면 안 될 만큼 중요한 일이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처음에는 털벌레 떼가 몰려와 밭의 곡식을 다 먹어 치웠단다.

그다음에는 메뚜기 떼가 날아와 남은 것을 쓸어버렸어.

그러자 자벌레가 와서 또 먹고, 마지막으로는 썩기벌레가 와서 들판을 완전히 망가뜨렸지.

그러자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껌질이 다 벗겨지고, 가지들은 하얗게 말라 버렸어.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없어졌고 포도즙도 없어서 마시지 못했단다.

농부들도, 포도밭을 가꾸는 사람들도 울부짖었어.

들판에는 곡식이 말라 죽고 모든 나무들이 시들어 버렸지.

하나님께 드릴 제물마저도 없을 정도였다는구나.

요엘은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단다.

“그날이 오고 있느니라! 그날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멸망을 보내시는 날이니라!”

요엘이 말하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날을 말하는 거였어.

이유는 백성들이 제멋대로 살며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를 하며 죄를 지은 채로 살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요엘은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슬픔을 뜻하는 굵은베 옷을 입고, 하나님의 집에 모여 기도하자고 외쳤단다.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느니라! 제사장들아, 너희도 울면서 매달리도록 해라! 밭도 말랐고 양들도 울고 있지 않느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이니라!”

요엘은 하나님께도 간절히 부르짖었어.

“오, 하나님! 불이 땅을 삼켰고, 물도 말랐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한 대언자 요엘

대언자 요엘은 계속해서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외쳤어.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울려라! 모든 사람이 떨며 준비해야 할 때가 오고 있느니라! 주의 날이 아주 가까이 왔느니라!”

요엘은 계속해서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길 바라며 소리쳤지.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니라.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면 그날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요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말씀을 전했다.
그것은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었지!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며 애곡하면서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시나니 (욘 2:12)

요엘은 계속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힘주어 말했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친절을 베푸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많이 참으시며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란다.

요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모두 나와 함께 모이자. 어른들도, 아이들도, 한곳에 와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제사장들도 모두 자기를 낮추며 기도하라고 요청했단다.

“오 하나님! 주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거라고 했지.

내가 너희 가운데로 보낸 나의 큰 군대 곧 메뚜기와 자벌레와 썩기벌레와 털벌레가 먹어 치운 햇수를 내가 너희에게 돌려주리니 너희가 풍족히 먹고 만족하며 너희를 놀랍게 대우한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로써 내가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며 다른 자가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욘 2:25-27)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의지하고 믿는 자는 구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욘 2:31-32)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약속이니!

요엘은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에 대해서도 대언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질 거라고 알려 줬지.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대언했단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무시했던 모든 민족들을 모은 뒤 여호사밧 골짜기로 그들을 데리고 내려가 직접 변론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요엘은 그 이유도 들려주었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마치 물건처럼 팔아넘기고, 그들의 땅을 나누며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회복과 평안을 누리게 될 거란다.

마지막으로 그날,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피난처, 힘, 그리고 소망이 되신다고 약속하셨지.

그 날에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에 젖이 흐를 것이며 유다의 모든 강들에 물이 흐르고 샘이 **주의** 집에서 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대리라. 이 집트는 황폐한 곳이 되고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들에게 폭력을 행하며 그들의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거하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하리라. 내가 정결하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내가 정결하게 하리니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하기 때문이니라. (올 3:18-21)

† 요약과 교훈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마지막 때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판결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거하시며 유다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 적용

-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나 바른길을 선택해요.
- 잘못된 일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요.





Part
59

고래가 삼킨 대언자 요나

대언자 요나는 열두 명의 소 대언자들 가운데 다섯 번째 사람으로서 ‘비둘기’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졌다. 요나는 북 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50년 정도 전쯤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활동했다.

요나는 성격이 아주 솔직하고 직선적이며, 때때로 다소 성급한 면도 있었던 거 같아.

하나님께서서는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곳 백성들에게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

할 것'을 전하라는 명령이었지.

그런데 요나는 이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어떻게 그 무서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고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쳐 버렸지.

그런데, 요나가 탄 배가 바다로 나가자 얼마 되지 않아 매우 큰 폭풍이 몰아쳤어.

배가 무섭게 사방으로 흔들리자 선원들은 자기들이 각자 믿는 신들에게 기도하며 짐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지.

그 와중에도 요나는 조용히 배의 아래층으로 내려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 그걸 본 선장이 요나를 깨우며 이렇게 말했지.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선원들은 결국 제비뽑기를 해서 이 폭풍의 원인을 알아보려 했고, 결국 요나가 뽑히고 말았단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치다 이렇게 된 거라고 말했지.

“저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곧 잠잠해질 겁니다. 이 큰 폭풍은 저 때문에 일어났으니 하나님께서 바다를 멈춰 주실 겁니다.”

선원들은 요나 때문에 폭풍이 생긴 걸 알게 되긴 했지만, 막상 요나를 바다에 쉽게 던질 수는 없었어. 그들은 다시 힘을 다해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려보려 했지만, 파도는 점점 더 거세지고 바다는 마치 화가 난 듯 배를 더 세게 뒤흔들었지.

결국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우리가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진 일로 벌을 받지 않게 해 주세



요! 이 사람이 정말 잘못된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위험이 닥쳤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행하신 거라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들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단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격렬하게 요동치던 바다가 순식간에 잠잠해졌어!

그 모습을 본 선원들은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했단다.

“이제부터 저희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물에 빠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큰 고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죽게 되었단다. 그렇게 해서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고래 뱃속에 있었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드디어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어.

요나는 다시 살아나 정신을 차린 후, 이번에는 순종하여 니느웨로 향했지.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단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뒤엎어지리라!”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깜짝 놀라 모두 금식하며 자신을 낮추었어.

니느웨 왕은 자기 옷을 벗고 슬픔을 뜻하는 굵은베 옷을 입은 채 재 위에 앉았지. 그리고 나라 전체에 엄숙한 명령을 내렸어.

“이제부터 니느웨에 사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 그러니까 가축 떼나 양 떼까지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모두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하느니라.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들까지도 굵은베 옷을 입고, 모두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리고 지금까지 니느웨 사람들이 해 왔던 나쁜 행동과 폭력적인 삶을 멈추고 회개하도록 했다. 왕은 이어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내리려 하신 무서운 심판을 거두어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심을 보시고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단다.

그런데 요나는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속상해했어.

‘아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 해 놓고 왜 용서하신 거지?’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말씀하셨단다.

“요나야, 니느웨에는 오른쪽과 왼쪽도 아직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는 어린이들 같은 사람들이 12만 명이 넘게 살고 있느니라. 거기엔 또 수많은 짐승들도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런 큰 도시를 내가 어찌 그냥 멸해 버릴 수 있겠느냐?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 내가 그들을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시란 걸 일깨워 주셨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예수님

요나 이야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단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을 미리 보여 주는 표적이었거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이 그분께 따지며 말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보여 보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배 속에 있었던 것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마 12:39-40)

요나는 다른 대언자들처럼 신실하거나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하게 대하신 건, 하나님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람도 다시 사용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걸 알게 해 준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자 했지.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 심지어는 악한 도시의 나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며,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은 꼭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못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 요약과 교훈

-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쳤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으로 사흘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났고, 이 일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 주는 표적이 되었어요.
- 니느웨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 적용

-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 잘못된 일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요.
-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더 깊이 생각해 봐요.





Part
60

예수님이 태어날 마을을 대언한 미가

대언자 미가는 열두 명의 소 대언자들 가운데 여섯 번째 사람으로서 그의 이름에는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신가?’라는 멋진 뜻이 담겨 있다.

미가는 남 왕국 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세 왕이 다스리는 동안 무려 5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언자였다. 이사야 대언자와 같은 시대에 살면서, 그와 비슷한 말씀들을 전하기도 했지. 그래서 미가서와 이사야서를 비교해 보면 비슷한 표현이 종종 보이기도 해.

미가는 남 왕국 유다 땅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 모레셋 출신이었어.

성경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고상하면서도 강하게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그의 말씀이 얼마나 담대했는지 훗날 나타난 예레미야 대언자가 위협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미가의 대언을 기억하며 예레미야를 보호하려 했을 정도였어.

미가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죄와 그로 인한 심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과 회복, 마지막으로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어.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대언이었지.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미 5:2)

이처럼 미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유다의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실 것을 미리 알려 주셨단다. 사람들이 보기엔 작고 평범한 동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조용한 곳을 선택하셔서 온 세상의 왕,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 주셨지.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아기, 곧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 자신이셨단다.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하나님이니이다. (시 90:2)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걸 보여 주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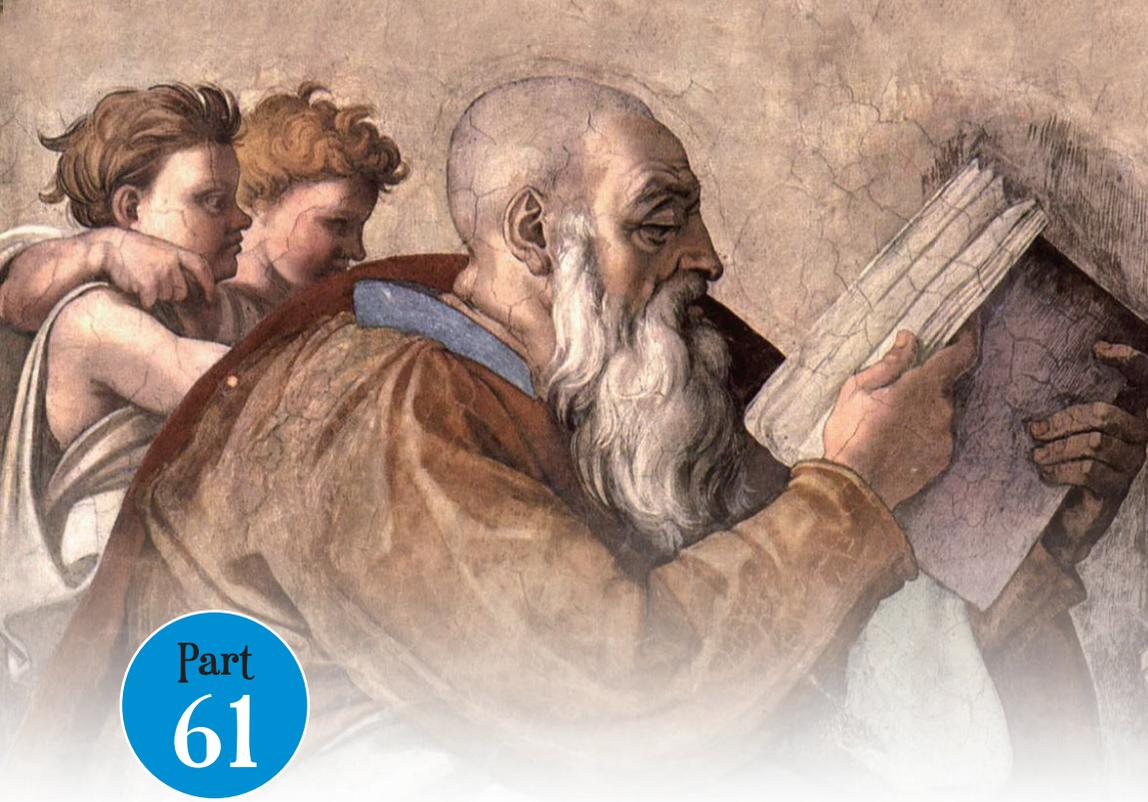
또 그가 **주의 능력과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먹일 것ियो, 이로써 그들이 **안전히** 머물리니 이는 이제 그가 땅끝에 이르기까지 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미 5:4)

+ 요약과 교훈

- 미가는 예수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신다는 걸 정확하게 알려 줬어요.
-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며 온 세상의 왕이자 참된 구원자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시작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 적용

-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임을 믿어요.
-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요.
- 친구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Part
61

무너진 성전을 세우며 예수님을 대언한 스가랴

스가랴는 열두 명의 소 대언자들 가운데 열한 번째 사람으로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대언자였단다. 스가랴는 아직 젊은 나이일 때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 유다 백성과 함께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다.

그들과 함께 돌아온 사람 중에는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도 있었어. 그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한 소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



주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은 멈춰 버렸고, 그렇게 16년이나 시간이 흘러가 버렸단다.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식어 갔고 성전을 짓는 일보다 자신의 집을 꾸미는 데 바빠졌지.

이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어. 바로 학개와 스가랴였단다. 이 두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 있게 전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켰고 마침내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격려하며 함께했지.

스가랴 대언자는 이 일뿐 아니라 메시아의 재림과 마지막 날들의 상황,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의 대언은 다니엘이 받은 많은 환상처럼 여러 가지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해.

그럼, 스가랴가 대언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부터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스 6:12)

여기서 ‘가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특별한 표현이란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지.

또 스가랴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모습도 이렇게 미리 전했다.

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의 딸아, 큰 소리로 외치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오느니라. 그는 의롭고 구원을 소유하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느니라. (스 9:9)

몇백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은 정말 놀랍지 않나?

그다음 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는 종려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을 찬송할지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시니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네 왕이 오되 나귀의 어린 수나귀 위에 앉아서 오느니라, 함과 같더라. (요 12:12-15)

그리고 예수님께서 은 30개에 팔리고, 그 돈이 토기장자에게 던져지는 일도 이렇게 미리 기록해 두었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러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매 이에 그들이 은 서른 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 즉 그들이 나를 평가하여 매긴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자에게 던지라, 하시기에 내가 그 은 서른 개를 취해 주의 집 안에서 토기장자에게 던지고 (눅 11:12-13)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가 배신한 뒤 받은 돈과 그 돈의 마지막이 이 말씀과 똑같단다.



그때에 열두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서른 개로 그와 언약을 맺으므로 (마 26:14-15)

그때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뜻을 돌이켜 은 서른 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써 죄를 지었노라... 수제사장들이 그 은들을 거두며... 의논한 뒤에 나그네들을 묻기 위해 그것들로 토기장이이 받을 샀더니 (마 27:3-7)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는 일도 스가라는 미리 이렇게 말했어.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오 칼아, 깨어나서 내 목자 곧 내 동료인 그 남자를 대적하라. 목자를 치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내가 내 손을 돌려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스 13:7)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주 깊이 슬퍼하며 회개하게 될 거라고도 했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스 12:10)

스가라는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재림에 대해서도 놀라운 말씀을 기록했다.

그 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실 것이요. (스 14:4)

그리고 마침내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고 했단다!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주만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스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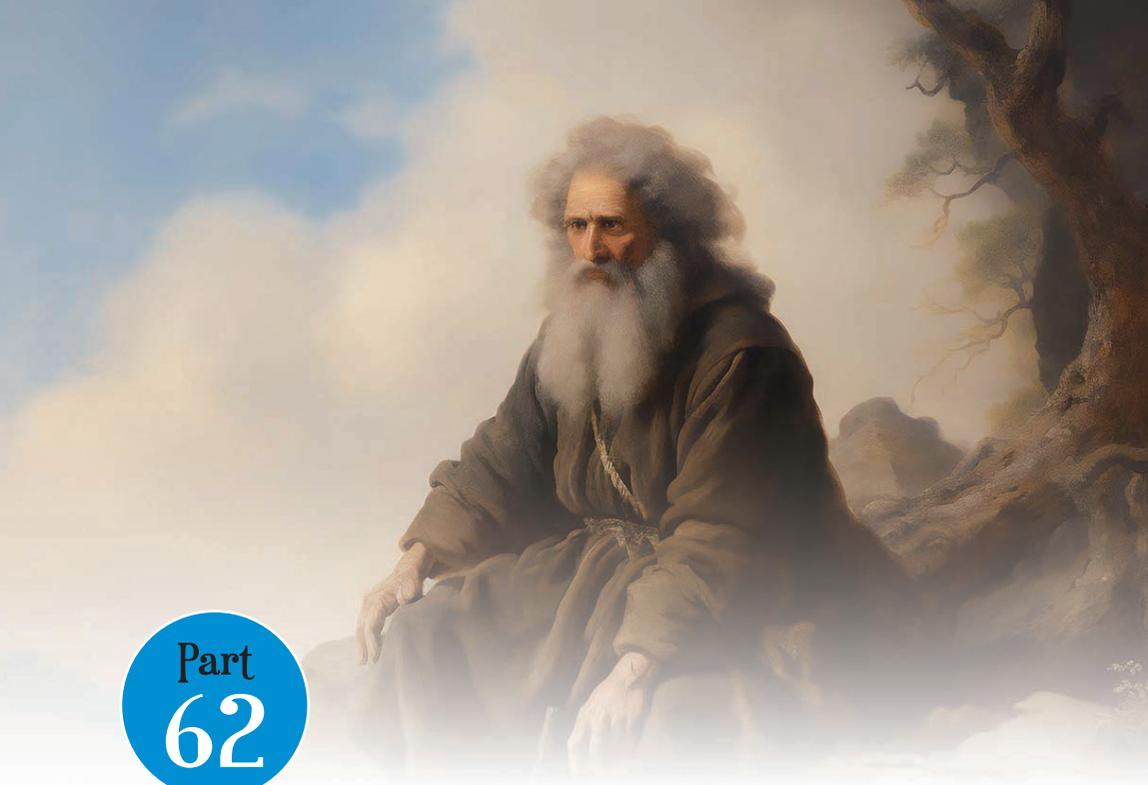
+ 요약과 교훈

- 스가라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제사장 가문의 젊은 대언자로, 열두 명의 소 대언자 중 열한 번째 인물이었어요.
- 스가라는 성전 재건을 돕기 위해 귀환한 유다 백성과 함께 돌아왔고, 학개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독려했어요.
- 스가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아주 정확하고 자세히 대언했어요.

+ 적용

- 스가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가져요.
-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이곳을 소중히 여기고 깨끗하게 사용해요.
-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Part
62

구약과 신약을 이어 주며 대언한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대언자 말라기는 열두 명의 소 대언자 중 마지막 사람이야. 그런데, 이 말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거의 없단다. 어떤 사람들은 말라기가 실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책 이름대로 ‘주의 사자’를 뜻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해.

말라기는 학개와 스가랴 대언자가 활동한 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일 하던 시기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였단다. 그때 유다 백성과 제사장들 사이에는 큰 혼란이 있었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들이여

기저기서 보였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 그들을 꾸짖으셨지.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어.

“만일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마음에 두려 하지 아니하여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내가 심지어 너희에게 저주를 보내어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미 그 복들을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매우 속상해하셨거든. 제사장들은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며 부정한 헌물을 드렸단다.

백성들도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셨지.
“참으로 너희 조상들 시대부터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라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이까? 하였도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자기 아내를 버리는 일이 많았어. 또 형제들에게 친절하지 않고, 서로 속이고 다투는 일도 많았었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십일조와 헌물도 내지 않았어. 그래서 말라기는 그 모든 죄를 낱알이 지적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강하게 외쳤지.

말라기는 느헤미야가 백성과 제사장, 지도자들과 함께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대로 살라고 권면했단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지.

그런데, 말라기서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에 관한 대언이야. 말라기는 미래에 ‘주의 사자’가 먼저 와서 길을 준비할 거라고 말해 주었어. 이 말씀은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침례자 요한이 먼저 나타나게 될 것을 미리 알려 주신 거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분을 ‘언약의 사자’



라고 부르고 있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라는 뜻이란다. 참 놀랍고도 소망 가득한 약속이지 않니?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말 3:1)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침례자 요한이 바로 그 예언된 사자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사람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가리키는 자니라. (마 11:7, 10)

말라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 즉 재림에 대해서도 대언했단다.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오리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들과 사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이 지푸라기가 되리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떠오르리니 (말 4:1-2)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셨고, 그날에는 악한 자들이 마치 불에 타는 지푸라기처럼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있단다. 바로 '의의 해'가 떠오르게 될 거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의의 해'는 예수님을 뜻한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고, 나중에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고 의로운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시는 거란다.

말라기 대언자는 바로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미리 전해 준 셈이지.

참 멋지고도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단다.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 곧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으로 끝나게 되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야기로 시작되지. 바로 이 말라기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 주는 다리가 되는 거야.

+ **요약과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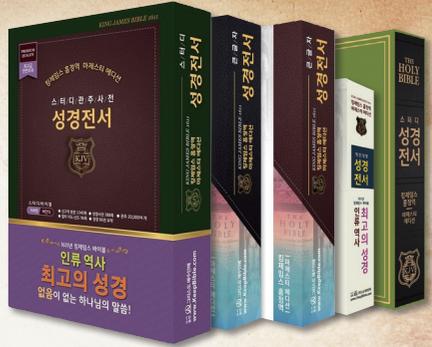
- 말라기는 열두 명의 소 대언자 중 마지막 사람이고, ‘주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 그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어요.
-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올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대언했어요.

+ **적용**

-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항상 진심으로 예배드려요.
- 가족과 친구들에게 정직하고 친절하게 대해요.
-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요.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테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신약 성경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곁이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간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류)에 관한 책 합본.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킵, 버트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잡이 역할, 흥정적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설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인지 알려주는 책.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전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티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된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짝스 외/ 고정인 역

모든 것을 끝낸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성경의 역사: 아담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설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찬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교회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잭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리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바른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목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째,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비비침 등 중말론 총정리!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킹제임스 흥정역

한영대역/ 스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

추천 참고도서

●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테디, 큰글자, 박사, 신약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변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개역성경분석 정동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사랑침례교회 무료 요청)
9.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K. 파이퍼 저, 이황로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0.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1.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2.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3.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4.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5.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호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용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재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운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벨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월빙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월빙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티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1.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12. 칼빈주의 비평 데이빗 클라우드 외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구절	개역성경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 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대! 너희가 과부 들의 짐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징계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 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 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 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6~7	6 ... 물과 피로 임 하셨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 령은 진리니라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증언하시는 분 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원래 6절의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괄호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소개



성경바로보기



요한계시록



9 788995 158784
ISBN 978-89-951587-8-4



값 8,000원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도서 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IV·NASB 등 포함〉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 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짐승의 혼 **전도서 3:21** 짐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 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